

2013년 국어 고전 주해 사업 (1)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동국삼강행실도], [동국속삼강행실도] 역주

연구 책임자: 김유범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3년도 국어 고전 주해 사업”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3년 10월

연구책임자: 김유범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유범(고려대학교)

공동연구원 권화숙(세명대학교)

서형국(전북대학교)

신성철(국민대학교)

유경민(전주대학교)

이승희(상명대학교)

이영희(대구가톨릭대학교)

민현식(국립국어원)

황선엽(서울대학교)

황용주(국립국어원)

[국문초록]

이 사업은 국어 고전 문헌들을 현대화함으로써 국어 문헌 자료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 일반인이 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업의 첫 출발로 17세기에 간행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선정하였다. 이 책은 광해군의 명에 의해 설치된 찬집청(撰集廳)에서 우리나라의 역대 효자, 충신, 열녀의 사례를 모아 18권 18책¹⁾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1617년(광해군 9)에 간행되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 속 우리나라 인물들은 물론, 임진왜란 이후의 사적까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삼강 사례가 집대성된 이른바 ‘성대지전서(盛大之全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어의 다양한 표현들과 더불어 다채로운 소재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일반인 등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주해한다면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주해 사업의 첫 해인 2013년에는 [동국삼강행실도], [동국속삼강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충신판) 132편에 대한 현대어역, 언해문, 한문 원문, 직역문, 주석, 역사 정보 등을 포함한 주해 원고를 집필하였다. 기존의 연구성과 등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포함하도록 집필하였다. 그리고 원문 및 주해 내용 등에 대한 색인을 작성하고, 주제별 분류 표시를 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필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집필 지침은 집필 원고에 ‘주제별 분류 표시’별로 제시하되,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앞으로의 고전 주해에서 이 지침이 범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정한 이론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핵심어: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동국삼강행실도], [동국속삼강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충신판), 국어 고전 주해, 현대어역, 언해, 한문, 직역, 주석, 주해, 집필 지침

목차

국문 초록	4
Ⅰ. 일러두기	7
Ⅱ. 역주	15

1) [동국삼강행실도]와 [동국속삼강행실도]를 합본한 1권 1책도 포함.

I. 일러두기

일러두기

%0 [출전 정보 표시]

1. 책명, 편명, 권수, 엽을 표시하였다. **예** 동국신속삼강행실도(효자1) 4ㄱ-4ㄴ(※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책명 '효자'는 편명 '1'은 권수 '4ㄱ-4ㄴ'은 엽임. 이하 같음)

%1 [이야기 제목(1)]

1. 원문에 제시된 제목을 '한글(한자)'의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예** 몽주운명(夢周隕命)

%2 [도판의 장차 표시]

1. 도판이 포함된 부분의 장차를 표시하였다. **예** 동국신속삼강행실도(효자1) 4ㄱ

%3 [이야기 제목(2)]

1. 제목을 서술형의 한국어 문장으로 풀이하였다.
예 정몽주의 목숨이 끊어지다
2. 사람 이름은 '성(姓)'을 달아 성명을 모두 적었다.
예 몽주의 → 정몽주의
2. 시제, 높임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예스러운 표현(의고 형태)도 최소화하였다.
예 -더라 → -다
3. 마침표는 사용하지 않았다.
예 정몽주의 목숨이 끊어지다. → 정몽주의 목숨이 끊어지다

%4 [현대역]

1. 본문의 사람 이름은 '성(姓)'을 달아 성명을 모두 적었다.
예 자강이 → 김자강이
2. 현대역에 사용하는 표현은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현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① 예스러운 표현(의고 형태)을 최소화하였다.
예 -이라 → -이다, 헉시니라 → 하셨다, 헉니라 → 하였다
 - ② 어려운 표현은 되도록 풀어서 표현하였다.
예 계절(階節) → 무덤 앞에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땅
3. 현대어의 시제와 높임을 반영하여 번역하였다.
예 금상도의 정문헉시니라 → 지금 임금(조선 제15대 광해군)이 정문을 세워 주셨다.
예 아비, 어미 → 아버지, 어머니(아비: '아버지'의 낮춤말, 어미: '어머니'의 낮춤말)
4. 본문에 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표현, 높임을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예 훈아비 죽거늘 →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
5. 언해문에 나타난 지명은 현재의 지명으로 고쳤다.
예 정옥량은 삼가 사람이다. → 정옥량은 합천 사람이다.(삼개: 삼가(三嘉). 경상남도 합

천 지역의 옛 지명.)

6. 언해문의 직접 인용문은 “ ”(큰따옴표), 행 바꾸기, 들여쓰기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예 [언해문]사쿠미 날오디 효성오로 그려다 흐니라

→ [현대어역]

사람들이 말했다.

“효성 때문에 그러하다.”

7. 언해문의 연도 표시는 서력(西曆)으로 바꿔 제시하였다.

예 홍무(洪武) 기사(己巳) → 1389년

8. 현대어에는 한자를 되도록 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9. 주인공이 아닌 기타 등장인물의 경우에 괄호 안에 다른 표현을 제시하였다.

예 신우(고려 우왕)

10. 원문의 ‘범’(虎)은 ‘호랑이’로 통일하였다.

%5 [언해 원문]

1. 언해문의 원문을 가로쓰기로 옮겨 제시하였다.

2. 언해 원문은 현대 한글맞춤법에 준하여 띄어쓰기를 하였다.

3. %9에서 주석으로 제시할 어절은 앞에 띄어쓰기 없이 “%5-n”의 형식으로 고유한 번호를 제시하였다.

%6 [한문 원문]

1. “%6-1 nL”의 형식으로 엮을 밝혀 끝맺었다.

2. 문단 모양은 시작 형식(“%6 ”)까지를 내어 쓰고 한문 부분을 정렬하였다.

3. 입력기는 한컴 오피스 아래아 한글 2010의 기본 한자, 확장 한자로 입력하였다.

4. 이체자는 대표자 외에 입력기에서 같은 뜻, 같은 한자음으로 제공하는 글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입력기에서 이체자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가 아닌 이체자로 입력하였다.

② 입력기에서 이체자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입력기에 등록된 가장 가까운 이체자로 입력하였다.

③ 입력기에 이체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자로 입력하였다.

④ 특수한 이체자는 #11에서 이체자를 썼음을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5. 입력기에 존재하지 않는 한자는 “[A+B(+C)]”의 형식으로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한자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안에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6. 한문의 띄어쓰기는 사태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각 순번대로 우선 적용하였다).

① 여러 한문구가 명사구를 이룰 때는 띄어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계사 구문이라도 ‘是’와 같은 계사가 직접 나타나지 않을 때는 띄어 쓰지 않았다.

② 주어와 서술어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글의 첫머리에서 주인공의 관작, 직위 등이 덧붙여 만들어진 주어가, 4자 이상의 서술부보다 길면 주어와 서술어를 띄어 썼다.

③ 주술 관계를 갖는 절이 동사의 직접 목적어가 될 때는 붙여 썼다. ‘使SV’, ‘知SV’

등. 다만 인용동사 ‘曰’ 등의 아래에서 피인용문이 오는 경우는 띄어 썼다.

④ 주체가 달라지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⑤ 격간법(공격 등)을 쓴 곳은 띄어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⑥ 4자 이상으로 표현된 사태가 연달아 나타날 때는 주체가 같더라도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⑦ 하나의 사태를 나타낸 표현이 2자 이하의 한자로 실현되었을 때는 인접한 사태 표현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7. 문장 부호는 사용하지 않았다.

%7 [한자음]

1. “%7-1 nL”으로 엮을 밝혀 끝맺었다.

2. 문단 모양은 시작 형식(“%7 ”)까지를 내어 쓰고 한자음 부분이 가지런히 정렬되도록 하였다.

3. 한자음은 『漢韓大辭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3)을 기준으로 하였다.(다만 한컴 오피스 아래아 한글 2010의 한자음으로 간략 입력할 수 있다.)

4. 한자음은 하나만 제시한다. 한자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석(“%9”)에서 설명하였다.

5. 한자음에는 되도록 본음을 제시하고 두음법칙은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선후행 음절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음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 ‘不見’ → ‘불견’, ‘不知’ → ‘부지’

6. 한자음의 띄어쓰기는 “%6”과 같게 하였다.

7. 문장 부호는 사용하지 않았다.

%8 [직역문]

1. 직역문의 고유명사는 언해문에 표시된 대로 번역하고, 첫 출현형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넣었다.

① 언해문의 인명은 언해문에 성(姓)이 빠진 채로 표현된 경우 그대로 제시하였다.

예 자강이 → 자강(自強)이

② 언해문의 지명은 현대 지명과 무관하게 언해문의 것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예 선산부 사름이니 → 선산부(善山府) 사름이니

2. 직역문은 언해문의 문장 구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① 어미, 조사는 언해문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다.

예 흐시니라 → 하시니라, 흐니라 → 하니라, 아니 흐니라 → 아니 하니라

예 -거늘 → 거늘

② 어미나 조사의 형태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것이더라도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법으로 쓰인 경우에는, 대응하는 현대어로 바꾸었다.

예 부정법 관련 어미(‘-니라’ → ‘-었다’), ‘-오매’, ‘-거든’ 등

③ 앞부분에 사용된 신상 명세 부분의 ‘-이라’, ‘-이니’가 뒤 사건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이다’로 수정하였다.

④ 그 밖의 어미라도, %9에서 용법의 차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8에서 반영하였다.

3. 직역문의 시제나 높임 표현은 언해문의 방식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예 금상도의 정문하시니라 → 금상조(今上朝)에 정문(旌門)하시니라.

예 아버지, 어머니 → 아비, 어미

4. 직역문의 인용문은 언해문의 표현대로 반영하였다.

예 사루미 날오디 효성오로 그러타 하니라 → 사람이 이르되 효성오로 그렇다 하니라.

5. 직역문의 일시 표시는 언해문의 것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예 홍무 명특 → 홍무(洪武) 정축(丁丑)

6. 직역문에는 첨표(반점), 인용부호(따옴표) 등을 쓰지 않고, 마침표만 썼다.

%9 [주석]

1. 풀이 대상과 콜론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예 %9-1 겨울희:

2. 풀이 대상은 기본적으로 한 어절 또는 한 단어로 제시하였다. 혹 통사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뒤 서술에서 문장 내지 절 단위의 예문을 인용해 설명하였다.

예 %9-8 길히: 길에서. 길ㅎ+이(부사격 조사). 이때 부사격 조사 '이'는 '길히 마자 몽쥬를 터 주기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술어 '맞다'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할 때 "에서"의 의미로 파악된다.

%9-9 공명대왕: 태종. 공정대왕(恭定大王)은 태종 이방원의 시호.

3. 뜻풀이는 직역을 중심으로 먼저 제시하되, 직역이 현대적인 의미와 거리가 있을 경우 의역된 현대어 뜻풀이도 함께 제시하였다. 주석의 표제에 대한 뜻풀이는 맥락에 맞는 표현(만)을 제시하였다.

예 %9-10 처서: 처서. 봉양해서. 예 사오나온: 모진.

4. 인물, 관직, 지명 등 역사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1차적으로 집필자가 표준국어대사전 및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을 요령 있게 정리해 주석에서 제시하였다.

5. 주석에서는 형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형태 분석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 ① 연결 어미
- ② 종결 어미
- ③ 관형사형 어미
- ④ 명사형 어미
- ⑤ 부사형 어미
- ⑥ 선어말 어미
- ⑦ 주격 조사
- ⑧ 보격 조사
- ⑨ 목적격 조사
- ⑩ 부사격 조사
- ⑪ 관형격 조사
- ⑫ 호격 조사
- ⑬ 서술격 조사(이 때 뒤에만 '-' 제시 ∴ 이-)
- ⑭ 보조사

⑮ 접속조사

⑯ 접미사(cf. 복수접미사 '-돌ㅎ')

⑰ 의존 명사

6. 조사 앞에는 '-'을 사용하지 않았다.

7. 형태소 경계는 '+'을, 단어 및 어절 경계는 '#'을 사용해 표시하였다.

8. 화살표(←)는 기본 형태와 다른 경우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데, 매개모음형이 기본 형태인 경우에는 굳이 화살표를 사용해 형태의 변동을 표시하지 않았다.

9. 곡용이나 활용 이외에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는 단어 내부의 정보이므로 형태 분석을 하지 않고 뒤에 그 내용을 서술하였다.

예 %9-4 세시다: 세우셨다. 세-[立]+-시-(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 '세다'는 자동사 '서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여기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해 만들어진 형태가 오늘날의 '세우다'이다.

10. 중복되는 주석일지라도 일단은 제시하고 후에 내용 조율을 거쳐 통일하도록 하였다.

11. '주어적 속격'이나 '특이 처격' 등과 같이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의 경우, 형태 분석 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뒤 서술에서 '이른바'와 같은 표현과 함께 쓰도록 하였다.

12. 형태 분석 및 서술에서 필요한 경우 어휘 형태소는 한문 원문에 있는 해당 한자를 [] 안에 제시하되 한문 원문에 해당 한자가 없을 때에는 대표적인 한자를 제시하였다.

13. 형태 분석 및 내용 서술과 관련해 기타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다.

- 1) '-니라'는 하나의 어미로 간주하여 '-니--라'로 분석하지 않았다.
- 2) 관형격 조사 내지 사이시옷 '-스'의 분석 여부는 현대 국어의 등재 여부에 따라 반영하였다.
- 3) 서술에서 접미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어기'보다는 '어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4) 의미 기능은 "조건", "양보" 등과 같이 " " 안에 기입하고 형태에 대한 정보는 '-오디'와 같이 ' ' 안에 기입하였다.

예 %9-10 올게: 오로지. 올-[專]+-게(연결 어미). '올다'는 '오올다'로부터 형태가 줄어 진 것으로 "오로지하다"와 더불어 "온전하다"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10 [역사 정보] 관련 인물이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

- %10-1 주인공 명
- %10-2 성씨
- %10-3 본관
- %10-4 지역1: 팔도구분
- %10-5 지역2: 군현
- %10-6 시기: 고려/조선/신라
- %10-7 연도: 왕
- %10-8 신분:
- %10-9 성별: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 %11 [집필자 주석]
- %12 [집필자 이름]

II. 역주

[동국삼강행실도]

%0 동국삼강행실도(효자1) 1ㄱ-1ㄴ

%1 누백포호(農伯捕虎)

%2 동국삼강행실도(효자1) 1ㄱ

%3 최루백이 호랑이를 때려잡다

%4 한림학사 최루백은 수원 호장 최상저의 아들이다. 열다섯 살 때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셨다. 이에 최루백이 도끼를 메고 호랑이의 발자국을 쫓아가 호랑이를 꾸짖었다.

“네가 내 아버지를 먹었으니, 내가 마땅히 너를 먹겠다.”

그리고 호랑이를 죽여 배를 가르고 아버지의 뼈와 살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호랑이의 고기는 독에 넣어 냇물 가운데에 묻었다. 최루백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하루는 선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아버지께서 오셔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셨다.

“개암나무를 헤치고 효자의 집에 이르니, 지극히 감동하여 눈물이 끝이 없네. 흙 저어 날마다 무덤 위에 올리니, 아는 이는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로다. 살아 있을 때는 봉양하고 죽고 나서는 지키니, 누가 효의 처음과 끝이 없다 하였던가?”

다 읊고 나서 아버지는 홀연히 사라졌다. 삼년상을 마친 최루백은 냇물 가운데에 묻어 두었던 호랑이의 고기를 가져다가 모두 먹었다.

%5 한림학사 최루백은 수원 호당 상저의 아드리라 나히 열다스신 제 아버 범의게 해헌 배 되 여늘 루백이 %5-1도치 메고 범을 %5-2자취 바다 범을 꾸지저 굴오디 네 내 아버를 %5-3머거시니 내 %5-4당당이 너를 %5-5머구리라 드되여 버혀 비를 %5-6헤터 %5-7아비 뼈와 %5-8술홀 가져 그르시 담고 범의 고기를 독의 너허 %5-9넌 가운데 묻고 아버 묻고 %5-10시묘허더니 %5-11홀른 %5-12흐즈몬허연거늘 아버 와 그를 %5-13읍프되 %5-14개염남글 %5-15헤허고 효즈의 지빅 니르니 정이 감동호미 만허여 눈므리 %5-16다야미 업도다 흙 저 날마다 무덤 우희 올리니 %5-17아르시니니 %5-18볼글 돌과 물근 북름이로다 %5-19사람거든 %5-20치고 죽거든 디키니 뉘 닐오디 회 처엄 나종이 업다 허리오 읊기를 다 하고 문득 %5-21물 보니라 %5-22거상 벌고 범의 고기를 가져다가 다 머그니라

%6 翰林學士 崔裴伯 水原戶長 尙義之子 年十五時 父爲虎所害 裴伯 荷斧迹虎 叱虎曰 汝食吾父 吾當食汝 遂斫而剝腹 取父骸肉 安於器 納虎肉於瓮 埋川中 葬父廬墓 一日假寐 其父來 詠詩云 披榛到孝子廬 情多感淚無窮 負土日加塚上 知音明月清風 生則養死則守 誰謂孝無始終 詠訖遂不見 服闋 取虎肉盡食之 %6-1 1ㄴ

%7 한림학사 최루백 수원호장 상저지자 년십오시 부위호소해 루백 하부적호 질호왈 여식오부 오당식여 수작이고복 취부해육 안어기 납호육어웅 매천중 장부려묘 일일가매 기부래영시 운 피진도효자려 정다감루무궁 부토일가총상 지음명월청풍 생죽양사즉수 수위효부시중 영 흘수불견 복결 취호육진식지 %7-1 1ㄴ

%8 한림학사(翰林學士) 최루백(崔裴伯)은 수원(水原) 호장(戶長) 상저(尙義)의 아들이다. 나이 열다섯인 제 아버 범에게 해한 바가 되거늘 누백이 도끼 메고 범을 자취 좇아 범을 꾸짖

어 말하되 네가 내 아버를 먹었으니 내 마땅히 너를 먹으리라. 드디어 배어 배를 헤쳐 아버의 뼈와 살을 가져 그릇에 담고 범의 고기를 독에 넣어 내의 가운데 묻고 아버 묻고 시묘(侍墓)하더니 하루는 선잠이 들었거늘 아버가 와 글을 읊되 개암나무를 헤치고 효자의 집에 이르니 정이 감동함이 많아 눈물이 다함이 없도다. 흙 저 날마다 무덤 위에 올리니 아시는 이는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로다. 살아있거든 봉양하고 죽거든 지키니 누가 이르되 효가 처음 나중이 없다 하리오. 읊기를 다 하고 문득 못 보니라. 거상(居喪) 벗고 범의 고기를 가져다가 다 먹으니라.

%9-1 **도치**: 도끼. 15세기에 ‘도취’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어 ‘도치>도취’의 어형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도치’와 함께 ‘돛귀’ 형태도 공존하였는데, 오늘날의 ‘도끼’는 ‘돛귀>돛귀>독귀>도끼’의 변화를 겪어 온 단어이다.

%9-2 **자취 바다**: 자취 좇아. 자취#반-+-아(연결 어미).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를 뜻하는 현대 국어 ‘자취’는 ‘자취>자취’의 어형 변화를, “짐승의 발자국”을 뜻하는 현대 국어 ‘자귀’는 ‘자귀>자귀’의 어형 변화를 겪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자취 바다’에서 동사 ‘받다’는 ‘좇다, 따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9-3 **머거시니**: 먹었으니. 먹-+-어시-(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이때 선어말 어미 ‘-어시-’는 동작의 완료 내지 과거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9-4 **당당이**: 마땅히. 반드시. ‘당다이>당당이>당당이’의 어형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때 ‘당당이’는 “땀땀하게, 번듯하게, 대단하게”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닌 현대 국어 ‘당당히’와 동일한 한자어 ‘당당(堂堂)’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9-5 **머구리라**: 먹으리라. 먹-+-우-(선어말 어미)-+리-(선어말 어미)-+라(←다, 종결 어미). 이때 선어말 어미 ‘-우-’는 주어가 1인칭일 때 사용되는 것으로 ‘머구리라’의 주어가 ‘내’임을 볼 수 있다.

%9-6 **헤터**: 헤쳐. 헤티-+-어(연결 어미). ‘헤티-’는 동사 어간 ‘헤-’에 이른바 강세 접미사 ‘-티-’가 결합한 것이다. 15세기 언해본 『삼강행실도』에는 이 부분이 ‘개음나모 헤오 孝子廬에 오니’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9-7 **아빅**: 아버의. 압(←아버)+이(관형격 조사). ‘아버’에서 ‘아버’의 모음 ‘이’가 사라졌는데, 이것은 ‘어미, 아기’와 ‘어마, 아가’에서처럼 ‘이’로 끝나는 유정 체언이 관형격 조사 ‘이/의’ 또는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었다.

%9-8 **술홀**: 살을. 술ㅎ+울(목적격 조사). ‘술’은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술히, 술홀’ 등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캐, 암태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9-9 **넌**: 내의. 내+ㅅ(관형격 조사). ‘넌’의 ‘ㄷ’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라고 이해되는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10 **시묘허더니**: 시묘(侍墓)하더니. 시묘ㅎ-+-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시묘(侍墓)는 부모의 상(喪) 중에 3년간 그 무덤 옆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을 말한다.

%9-11 **홀른**: 하루는. 홀+은(보조사). 현대 국어 ‘하루’의 옛말인 ‘허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그 형태가 ‘홀’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9-12 **흐즈몬허연거늘**: 걸잠(수잠) 자거늘. 흐즈몬ㅎ-+-연-(선어말 어미)-+거늘(연결 어미). ‘흐즈몬허다’는 본래 15세기 언해본 『삼강행실도』에 ‘흐즈못허다’로 나오며 다른 문헌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어이다. 현재로서는 ‘흐즈못’이 정확히 어떤 말인지 알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한문 원문의 ‘假寐’를 통해 이것이 “걸잠을 자다, 수잠을 자다”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문’과 ‘연’의 ‘ㄷ’은 모두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라고 이해되는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

%0 동국삼강행실도(효자2) 27-2L

%1 자강복총(自強伏塚)

%2 동국삼강행실도(효자2) 27

%3 김자강이 무덤에 었드리다

%4 김자강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뜻을 잘 받들어 효도하다가 어머니 역시 돌아가시자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를 옮겨 어머니와 합장했다.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사는 삼 년 동안 신을 신지 않았다. 어머니의 삼년상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를 위해 삼 년을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살려고 하자, 처가 쪽 친척들이 초막에 불을 지르고 억지로 김자강을 끌어오려 했다. 김자강은 (불타는 초막의) 연기를 돌아보고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땅바닥을 굴러 친척들을 떨쳐내고 묘소에 돌아갔다. 사흘 동안 묘소에 었드려 있으니 친척들이 그 효에 감동하여 도로 초막을 지어 주었다. 김자강은 삼 년을 처음과 같이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신을 신지 않고 살았다.

%5 김자강이 %5-1저머서 아버 죽거늘 %5-2어미를 효도호디 뜨데 %5-3거슬픈 일 업더니 어미 죽거늘 %5-4법다이 %5-5거상하며 아버를 옮겨다가 합장하고 시묘 살 제 삼 년을 신 아니 신더니 거상 두고 쏘 아버 위하야 삼 년 사로려 허거늘 %5-6겨지비 녁 아오미 러를 블 브티고 구티어 %5-7쓰어 오거늘 자강이 %5-8니 도라 보고 하늘을 부르며 땅 굴러 %5-9굿 떨터 도라가아 사흘을 %5-10업데엿거늘 아옴돌히 %5-11효도를 감동하야 러 도로 지어 주어늘 삼 년을 처엄구티 사나라

%6 金自強 星州人 年幼喪父 奉母承順無闕 母喪不用浮屠 一依家禮 比葬遷父合葬 廬墓三年 暫不納履 服闋 又欲爲父更居三年 妻黨牽引登途 仍焚其廬 自強顧瞻烟光 呼天擲地 力排還歸 伏塚下三日不起 姻戚感孝誠 爲復結廬以與之 自強又居三年如初 %6-1 2L

%7 김자강 성주인 년유상부 봉모승순무겔 모상불용부도 일의가레 비장천부합장 려묘삼년 잠 불납리 복겔 우욕위부갱거삼년 처당견인등도 잉분기려 자강고침연광 호천벽지 력배환귀 복총하삼일불기 인척감효성 위부겔려이여지 자강우거삼년여초 %7-1 2L

%8 김자강(金自強)이 어려서 아버 죽거늘 어머니께 효도하되 뜻에 거슬리는 일 없더니 어미 죽거늘 법대로 거상하며 아버를 옮겨다가 합장하고 시묘(侍墓) 살 제 삼 년을 신 아니 신더니 거상 마치고 또 아버 위하여 삼 년 살려 하거늘 계집의 쪽 친척이 여(廬)에 불붙이고 억지로 끌어 오거늘 자강이 내(烟) 돌아보고 하늘을 부르며 땅 굴러 힘써서 떨쳐 돌아가 사흘을 었드려 있거늘 친척들이 효도에 감동하여 여(廬) 도로 지어 주거늘 삼 년을 처음같이 사나라.

%9-1 저머서: 어려서. 점--+어서(연결 어미). 현대 국어 '젊다'는 이 '점다'로부터 변화된 단어인데, '점다'의 의미가 "어리다"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의 '젊다'와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문 원문에서 '저머서'에 대응되는 부분이 '幼'로 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9-2 어미를 효도호디: 어머니께 효도하되. 어미+를(목적격 조사)#효도하--+오디(연결 어미). '효도하디'는 '식어미를 스므 여들 히를 효도하디'와 같이 대상과 시간을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구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9-3 거슬픈: 거슬린. 거슬쁘--+L(관형사형 어미). '거슬쁘디'는 '거슬다'의 강세형으로 이어 지되는데, 그 형태가 '거슬즈-, 거슬즈-, 거슬쁘-, 거슬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9-4 법다이: 법대로. 법+-다이. '-다이'는 접미사로서 '-다비>-다히>-다이'의 변화를 보여 준다. '-다비'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 '-달-'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9-5 거상하며: 거상하며. 거상하--+며(연결 어미). '거상(居喪)'은 상중(喪中)에 있음을 뜻함.

%9-6 겨지비 녁: 처의 쪽. 처가 쪽. 겨집+(관형격 조사)#녀. '겨집'은 "여자"의 의미 외에 "아내"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고, '녀'은 오늘날 '녀'으로 그 형태가 변화했다.

%9-7 쓰어: 끌어. 쓰-(←쓰으-)+-어(연결 어미). '쓰오디'는 '쓰스다>쓰오디/끄오다>쓰을다>끌다'의 변화를 보여 준다.

%9-8 니: 내. 연기. 물건이 탈 때에 일어나는 부엌고 매운 기운. '·'의 변화와 관련해 '니>내'의 형태 변화를 볼 수 있다.

%9-9 굿: 힘써서. 애써. 억지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그 형태가 '굿'으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굳다'의 어간에 이끌린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굳다'의 어간에서 온 어간형 부사 '굳'은 찾아 볼 수 없다.

%9-10 업데엿거늘: 었드려 있거늘. 업데--+엿(←-엿-, 선어말 어미)+-거늘(연결 어미). '업데다'는 '업더이다>업데다>업디다>업더리다>었드리다'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때 선어말 어미 '-엿-'은 "-어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9-11 효도를 감동하야: 효도에 감동하여. 효도+를(목적격 조사)#감동하--+야(연결 어미). 현대 국어의 '감동하다'가 부사격 조사 '에/에게'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이때 '감동하다'가 목적격 조사를 취한 점이 특징적이다.

%10-1 주인공 명: 자강(自強)

%10-2 성씨: 김(金)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북도

%10-5 지역2: 성주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태종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김자강(金自強). 성주(星州) 화원현(花園縣) 사람으로 3세 때에 부친상을 당하여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모친상을 당하자 불교의 예를 따르지 않고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여 합장(合葬)하고 3년 시묘하였다. 주변에서 그를 세상에 나가게 하려고 초막에 불을 놓았으나, 무덤 앞에 었드려 3일을 일어나지 않았다 한다. 사람들이 그 효에 감동하여 다시 초막을 만들어 주자 다시 처음부터 3년 시묘를 했다고 전한다. 세종 31년에 토관직(土官職)에 더하여 벼슬을 제수 받았다.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태종 13년(1413년) 2월 7일(병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중략) 성주(星州) 화원현(花園縣) 사람 김자강(金自強)은 겨우 나이 3세에 그 아버를 잃었는데, 자라면서 어미를 받들어 순종하더니, 그 어미가 죽자 불씨(佛氏)의 칠철(七七)의 설(說)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여 아버를 천장하여 합장(合葬)하고, 분묘를 3년이나 지키면서 늘 신[履]을 신지 아니했습니다. 상사가 끝난 뒤에도 아

비를 위하여 그대로 3년을 사니, 처당(妻黨)에서 그 생리(生理)를 가련하게 여기에 이끌어 내어 길로 나가게 하고 초막을 불사르니, 김자강이 연기불을 돌아보고 힘껏 밀어제치며 하늘에 울부짖고 땅을 두드렸습니다. 돌아와 무덤 앞에 엎디어 3일을 일어나지 아니하자, 족당(族黨)이 그 효도에 감동하여 다시 초막을 만들어 있게 하였더니, 김자강은 또 3년 동안 분묘를 지켰습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효자3) 3ㄱ-3ㄴ

%1 석진단지(石珍斷指)

%2 동국삼강행실도(효자3) 3ㄱ

%3 유석진이 손가락을 자르다

%4 유석진은 완주 고을의 관원이었다. 아버지가 고치기 힘든 병이 들어 날마다 병이 발작하고, 발작하면 곧 기절하여 남들이 차마 보기가 힘들었다. 유석진은 밤낮으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하늘에 울부짖으며 두루 약을 구하려 다녔는데, 어떤 이가 말했다.

“산 사람의 뼈를 피에 섞어 먹이면 좋아질 것이다.”

즉시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먹였더니 아버지의 병이 바로 나았다.

%5 유석진은 고산 %5-1향리러니 아비 %5-2모던 병하야 날마다 병 곳 오면 %5-3죽거든 사르미 차마 못 보거늘 썩딘이논 밤낫 겨티 이서 하늘 불러 울며 두루 약 얻더니 님이 날 오디 산 사르미 뼈를 피에 %5-4섞거 머기면 %5-5도허리라 하야날 %5-6죽자히 손가락 버혀 머기니 병이 즉자히 도허니라

%6 俞石珍 高山縣吏也 父天乙得惡疾 每日一發 發則氣絕 人不忍見 石珍日夜侍側無懈 號泣于天 廣求醫藥 人言 生人之骨 和血而飲 則可愈 石珍斷左手無名指 依言以進 其病即瘳 %6-1 3ㄴ

%7 유석진 고산현리야 부천을득악질 매일일발 발죽기질 인불인견 석진일야시츄무해 호읍우천 광구의약 인언 생인지골 화혈이음 즉가유 석진즉단좌수무명지 의언이진 기병즉추 %7-1 3ㄴ

%8 유석진(俞石珍)은 고산(高山) 향리이더니 아비 모진 병들어 날마다 병 곧 오면 기절하거든 사람이 차마 못 보거늘 석진이는 밤낫 곁에 있어 하늘 불러 울며 두루 약 얻더니 남이 이르되 산 사람의 뼈를 피에 섞어 먹이면 좋아지리라 하거늘 즉시 손가락 베어 먹이니 병이 즉시 좋아지니라.

%9-1 **향리러니**: 향리이더니. 향리+Ø(서술격 조사)+-러-(←-더-, 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향리(鄉吏)’는 고려·조선 시대에, 한 고을에 대물림으로 내려오던 구실아치를 말한다.

%9-2 **모던 병하야**: 모진 병들어. 모디-(←-모달-)+-ㄴ(관형사형 어미)#병하-+-아(연결 어미). 명사 ‘병(病)’에 ‘하’가 결합한 ‘병하’는 “병들다”의 의미를 지니는데,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어형이다.

%9-3 **죽거든**: 기절하거든. 죽-+-거든(연결 어미). 이때 ‘죽다’는 “기절(氣絶)하다”의 의미로 쓰인 점이 특이하다.

%9-4 **섞거**: 섞어. 섞-+-어(연결 어미). 현대 국어의 ‘섞다’는 이 ‘섞다’로부터 형태 변화를 겪었다.

%9-5 **도허리라**: 좋아지리라. 동-+-으리-(선어말 어미)+-라(←-다, 종결 어미). 이때 ‘동다’는 “좋아지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 사용되었다.

%9-6 **즉자히**: 즉시. ‘즉자히>즉재/즉제’의 형태 변화를 겪었다.

%10-1 주인공 명: 석진(石珍)

%10-2 성씨: 유(兪)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전라북도

%10-5 지역2: 완주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미상

%10-8 신분: 중인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고산현(高山縣).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의 옛 지명.

향리(鄉吏). 고려 및 조선 시대에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말단 관인 계층. 지방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던 고려 시대와는 달리, 중앙집권화를 추구했던 조선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영향력이 한정되었으며, 그 신분 또한 상승의 기회가 박탈되어 중인 신분으로 정착되었다. 그들의 신분은 보통 혼인에 의해 세습되었다. 해당 지역의 조세, 형옥, 영송(迎送), 공문서 작성 등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였다.

%10-11 기타

%11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효자4) 4ㄱ-4ㄴ

%1 은보감오(殷保感烏)

%2 동국삼강행실도(효자4) 4ㄱ

%3 윤은보가 까마귀를 감동시키다

%4 김천 사람 윤은보와 서즐은 장지도에게서 함께 수학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두 사람이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살며 손수 불 때어 제사 음식을 장만했다. 윤은보는 아버지가 병들자 즉시 집으로 돌아가 약을 드리고 수발을 들면서도 옷의 띠를 풀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이 호전되자 아버지는 윤은보에게 (시묘하는) 초막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어느 날 윤은보가 이상한 꿈을 꾸고 즉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꿈을 꾸 저녁에 과연 아버지의 병이 심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은보는 울부짖으며 빈소를 떠나지 않았고 무덤 곁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하루는 바람이 불어 제사 위의 향합(제사 때 피우는 향을 담은 합)이 날아가는데, 두 달 만에 까마귀가 향합 하나를 물고 날아와 무덤 앞에 놓았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전에 없었던 그 향합이었다. 윤은보는 (아버지의 시묘를 살면서) 초하루와 보름에 스승의 무덤에도 제사를 지냈다. 서즐은 스승의 무덤 곁에서 3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지니 윤은보와 서즐에게 효자문을 세워 주고 둘에게 벼슬을 내렸다.

%5 디례현 사람 윤은보 서즐이 다 당지도에게 비호더니 당이 죽거늘 두 사람이 시묘 사라 %5-1손조 불 %5-2대혀 제묘를 장만하더라 윤이 아비 병들거늘 즉시 도라가 약을 %5-3 받잡고 오시 썩을 그르디 아니하더니 아비 %5-4우연하야 허여곰 다시 녀막으로 도라가라 %5-5하다 윤이 황당한 꿈 꾸고 썰리 도라가니 아비 과연 이 꿈 쓴 %5-6나죄 %5-7 병하연더라 주그매 미처 브르지져 울고 %5-8빙소 겨터 떠나디 아니하고 아비 무덤의 시묘하다 %5-9홀른 북름의 제사 우희 향합을 일현더니 두 둘만의 가마피 %5-10헌 거슬 무르 느라와 무덤 %5-11압피 두니 사람이 보니 곧 일현던 향합이러라 초하루 보름의 당가의 무덤의 제하더라 서가는 삼 년을 %5-12문다 이리 %5-13들리오매 은보와 즐을 다 명하야 정문하고 %5-14벼슬하이라 하시니라

%6 知禮縣人 尹殷保 徐鷲 俱學於張志道 張歿 二人居廬 躬爨供奠 尹父病 卽歸奉藥 衣不解帶 父愈 令復歸廬 尹感異夢亟歸 父果以夢夕疾作 及歿號哭 不離喪側 廬父墳 一日飄風 失案上香合 數月有烏啣物 飛來置塋前 人視之 卽所失香合也 至朔猶猶奠張墳 徐終三年 事聞 殷保鷲 並命旌門拜官 %6-1 4ㄴ

%7 지례현인 윤은보 서즐 구학어장지도 장물 이인거려 궁촌공전 윤부병 즉귀봉약 의부해대 부유 령부귀려 윤감이몽극귀 부과이몽석질작 급물호곡 불리상촉 러부본 일일포풍 실안상 향합 수월유오함물 비래치영전 인시지 즉소실향합야 지삭망유전장분 서종삼년 사문 은보 즐 병명정문배관 %7-1 4ㄴ

%8 지례현(知禮縣) 사람 윤은보(尹殷保), 서즐(徐鷲)이 다 장지도(張志道)에게 배우더니 장(張)이 죽거늘 두 사람이 시묘(侍墓) 살아 손수 불 때어 제물(祭物)을 장만하더라. 윤(尹)이 아비 병들거늘 즉시 돌아가 약을 바치고 옷의 띠를 끄르지 아니하더니 아비 우연만하여 하여금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윤이 황당한 꿈을 꾸고 빨리 돌아가니 아비 과연

이 꿈 곧 저녁 병들었다. 죽음에 미쳐 부르짖어 울고 빈소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무덤에 시묘하였다. 하루는 바람에 제상(祭床) 위의 향합(香盃)을 잃었다니 두 달 만에 까마귀가 한 것을 물어 날아와 무덤 앞에 두니 사람이 보니 곧 잃었던 향합이더라. 초하루 보름에 장가(張家)의 무덤에 제(際)하더라. 서가(徐家)는 삼 년을 마쳤다. 일이 들림에 은보와 줄을 다 명하여 정문(旌門)하고 벼슬시켜라 하시니라.

- %9-1 손조: 손수. 현대 국어 ‘손수’는 ‘손소>손조>손즈/손즈>손소>손수’의 변화를 보여 준다.
- %9-2 대허: 때어. 대허+-어(연결 어미). 현대 국어 ‘때다’는 ‘다하다>대하다>자하다(때하다)>때다’의 변화를 보여 준다.
- %9-3 받줍고: 바치고. 받+-줍-(선어말 어미)+-고(연결 어미). 이때 ‘-줍-’은 약을 받치는 대상인 아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이른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이다.
- %9-4 우연하야: 우연만하여. 웬만하여. 좋아져. 우연하+-야(연결 어미). 현대 국어 ‘우연만하다’는 이곳의 ‘우연하다(<우연하다)에서 형성된 단어이다.
- %9-5 허다: 하였다. 이때 ‘허다’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이른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에서 이후에 쓰인 ‘시묘허다’, ‘문다’ 역시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
- %9-6 나죄: 저녁에. ‘나죄’와 함께 ‘나조히, 나조홀’ 등에서 볼 수 있는 ‘나조ㅎ’도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 %9-7 병허열더라: 병들었다. 병허+-열-(선어말 어미)+-더-(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 ‘병허다’는 “병들다, 병이 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이다. ‘열’의 ‘ㄷ’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라고 이해되는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 %9-8 빈소: 빈소(殯所).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놓아 두는 방. ‘殯’의 한자음이 ‘빙’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 %9-9 훈른: 하루는. 훈+은(보조사). 현대 국어 ‘하루’의 옛말인 ‘허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훈’ 형태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 %9-10 혼 거술: 한 것을, 하나를. 혼#것+을(목적격 조사). 이때 ‘혼 거술’은 “날아갔던 향합 하나를”을 의미한다.
- %9-11 압피: 앞에. 앞+이(부사격 조사). ‘압피’는 이른바 중철 표기로서 ‘ㅍ’이 앞 음절의 종성에서는 ‘ㅂ’으로, 뒤 음절 초성에서는 ‘ㅍ’으로 표기되었다. 중세 국어에서는 ‘알’으로 나타났던 형태가 ‘ㄹ’이 탈락하여 ‘알’으로 변화하였다.
- %9-12 문다: 마쳤다. 문+-다(종결 어미). ‘문’의 ‘ㄷ’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라고 이해되는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 %9-13 들리오매: 들림에. 들리+-음(명사형 어미)+애(부사격 조사). 이때 부사격 조사 ‘애’는 “원인, 이유”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 %9-14 벼슬허이라: 벼슬시켜라. 벼슬허이+-라(종결 어미). 이때 ‘벼슬허이-’의 ‘-이-’는 “사동”의 의미를 지닌 이른바 사동 접미사이며, ‘-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임을 알 수 있다.

- %10-1 주인공 명: 은보(殷保), 즐(鷲)
- %10-2 성씨: 윤(尹), 서(徐)
- %10-3 본관: 파평, 이천
- %10-4 지역1: 경상북도

- %10-5 지역2: 김천시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세종
- %10-8 신분: 미상
- %10-9 성별: 남
- %10-10 역사 사건:

지례현(知禮縣). 현재 경상북도 김천시의 옛 지명.

장지도(張志道). 윤은보와 서졸의 스승으로 고려 공민왕 때 지의주사(知義州事)를 역임하였다. 조선 태조 때에는 교서소감(校書少監)을 맡아 왕명으로 『정관정요(貞觀政要)』를 교정하기도 하였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위치한 섬계서원(剡溪書院)에 제자들과 함께 동별묘(東別廟)에 배향되어있다.

정문(旌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緯楔), 홍문(紅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정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정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정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윤은보(尹殷保). 지례현(知禮縣) 사람으로 장지도(張志道) 밑에서 학업을 연마하였다. 동학인 서졸(徐鷲)과 스승이 후사가 없으므로 스승 사후에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스승이 죽자, 약속대로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몸소 밥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부친이 병에 걸리자 집으로 돌아와 약을 직접 달이고 옷을 벗지 않으며 간호에 정성을 쏟았다. 병이 낫자 다시 스승의 무덤으로 돌아와 초막살이를 하던 중, 상스럽지 못한 꿈을 꾸어 집으로 돌아가니 부친이 병을 얻어 5일 만에 죽었다. 심한 바람이 불어 향합(香盃)을 잃어버렸는데, 몇 달만에 까마귀가 향합을 물어 날아와 무덤에 놓고 갔다 한다. 부모의 시묘살이를 하면서도 초하루, 보름마다 스승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세종 14년에 정려를 받았다.

서졸(徐鷲). 윤은보의 동학. 윤은보와 함께 스승의 묘 앞에서 3년 시묘살이를 했다. 부모상을 당하자 6년간 시묘살이를 하여 세종 14년에 정려를 받았다.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현(知禮面) 교리(校里)에 윤은보와 서졸을 기리는 정려각(旌閭閣)이 남아 있다.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세종 14년(1432년) 9월 13일(무진)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중략) 지례현(知禮縣) 사람 윤은보(尹殷保)와 서졸(徐鷲)은 모두 장지도(張志道)에게 학업(學業)을 받았는데, 일찍이 약속하기를, ‘사람이 군(君)·사(師)·부(父) 세 분에게 섬기기를 똑같이 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 스승님은 후사(後嗣)가 없으니 돌아가신 후에는 마땅히 무덤에 여막을 지어 3년 동안을 마쳐야 되겠다.’ 하더니, 스승이 죽으매, 그 부모에게 알리고 현관(玄冠)·요질(腰絰)으로써 무덤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몸소 밥을 지어 전물(奠物)을 준비했으며, 어느날 은보(殷保)는 아버지가 병에 걸리었으므로 집에 돌아가서 약을 다리고 잠시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병이 나으매, 그제야 돌아와서 무덤에 여막살이를 한 지 한 달 남짓 하여, 은보가 상스럽지 못한 꿈을 꾸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과연 병을 얻어서 5일 만에 죽으므로, 가슴을 치고 뛰며 슬피 울면서 빈소(殯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광풍(狂風)을 만나 향합(香盃)을 잃어 버렸는데, 몇 달만에 까마귀가 향합을 물고 북산으로부터 날아와서 무덤 앞에 두고 갔으므로, 그에게 학업(學業)을 받은 사람인 심징(沈澄)·배현(裴現) 등이 이를 주어서 보니, 과연 전의 향합이었습니다. 은보는 비록 아버지의 무덤에 여막살이를 하지마는, 오히려 스승을 위하여 초하루·보름을 만나면 반드시 제사

지냈으며, 서졸(徐躄)은 홀로 스승의 무덤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을 마쳤습니다. (중략)”
 하니, 명하여 상정소(詳定所)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김인(金仝)· 양옥(梁郁)· 오민경(吳旻庚)· 윤은보(尹殷保)· 변포(卞袍)· 임유(任柔)· 강숙전(康叔全)· 조선(趙旋)· 이기(李奇)· 김효량(金孝良)· 전좌명(田佐命)· 이기우(李奇遇)· 서졸(徐躄) 등은 정문(旌門)을 세우고 서용(敍用)하게 하며, 고용례(高用禮)와 박침(朴忱)은 서용하게 하며, 조씨(曹氏)는 정문(旌門)을 세우고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윤은보, 서졸 정려각.

http://gimcheon.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3201217

섬계서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5368&cid=404&categoryId=404>

%11-1: 동국삼강행실도(효자 4ㄴ)에는 언해문의 ‘서졸’이 한문 부분에서는 ‘徐躄(서척)’으로 되어 있다. 이때 ‘躄(척)’은 ‘躄(졸)’의 오류임을 알 수 있다.

%11-2 한문 부분의 ‘脚’은 원전에 [口+御]로 되어 있다. 두 글자는 현재 음과 뜻이 같은 글자로 쓰인다.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충신1) 1ㄱ-1ㄴ

%1 제상총렬(堤上忠烈)

%2 동국삼강행실도(충신1) 1ㄱ

%3 박제상의 충성과 절의

%4 내물왕의 아들 미사흔이 왜에게 볼모로 잡혀갔다. (미사흔의 형인) 놀지왕이 즉위하여 말 잘하는 사람을 (왜국에) 보내 미사흔을 데리고오자 했다. 박제상이 (놀지왕에게) 가기를 청하여 왜국에 가서 미사흔에게 물레 신라로 가기를 권하여 돌려보냈다. 왜왕이 박제상을 가두고 물었다.

“어찌 물레 양자를 보냈느냐?”

박제상이 말했다.

“나는 계림의 신하이니 내 임금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왜왕이 화가 나서 말했다.

“계림의 신하라고 말하면 반드시 다섯 가지 형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박제상의 발바닥 껍질을 벗기고는 갈대를 베어 그 위를 달리게 했다.

“어느 나라 신하인가?”

“계림의 신하이다.”

또 다시 뜨거운 쇠 위에 서게 하고 물었다.

“어느 나라 신하인가?”

“계림의 신하이다.”

이에 왜왕이 박제상을 태워 죽였다. 박제상의 아내는 세 딸을 데리고 치솔령에 올라 왜국을 바라보며 울다가 죽었다.

%5 내물왕의 아들 말스흔이 %5-1에게 볼모 %5-2되던더니 놀지왕이 %5-3서서 말 잘하는 사람을 어더 가 마자오고져 허거늘 박제상이 가물 청허야 예나라히 니르러 %5-4흔이를 권허야 ㄱ마니 도라 보내니 예왕이 데상이를 가도고 무려 ㄱ로디 얻디 ㄱ마니 왕즈를 보 내노 디허야 ㄱ로디 신은 이 계림 신해니 내 님굼의 ㅼ돌 일우고져 호미라 예왕이 노허여 ㄱ로디 계림 신해라 니르면 반드시 다슨 형벌을 ㄱ초리라 명허야 다리 아래 겁질을 벌기 고 %5-5굴홀 버히고 허여곰 그 우희 %5-6드르라 허고 무려 ㄱ로디 어니 나라 %5-7신 하고 ㄱ로디 계림 %5-8신해로라 쏘 히여곰 더운 쇠 우희 %5-9서라코 무로디 어니 나라 신하고 ㄱ로디 계림 신해로라 예왕이 티와 주기다 %5-10안해 세 쏘를 거느리고 달솔재 예 올라 예나라홀 %5-11브라 울고 주그니라

%6 奈勿王子末斯欣質倭 訥祗王立 思得辯士往迎 朴堤上請行 至倭國 勸欣潛還 倭王囚堤上問曰 何竊遣王子 對曰 臣是鷄林臣 欲成吾君之志耳 倭王怒曰 言鷄林臣 必具五刑 命剝脚下皮 刈蒹葭 使趨其上問曰 何國臣 曰鷄林臣 又使立熱鐵上 問何國臣 曰鷄林臣 倭王燒殺之 妻率三娘 上鷄述嶺 望倭國哭死 %6-1 1ㄴ

%7 내물왕자말사흔질왜 놀지왕립 사득변사왕영 박제상청행 지왜국 권흔잠환 왜왕수제상문왈 하절견왕자 대왈 신시계림신 욱성오군지이지 왜왕노왈 언계림신 필구오형 명박각하피 예 검가 사추기상문왈 하국신 왈계림신 우사림열철상 문하국신 왈계림신 왜왕소살지 처술삼 랑 상치술령 망왜국곡사 %7-1 1ㄴ

%8 내물왕의 아들 미사흔이 왜에게 볼모 되었더니 눌지왕이 서서 말 잘하는 사람을 얻어 가 맞아오고자 하거늘 박제상이 감을 청하여 왜나라에 이르러 혼이를 권하여 가만히 돌려보 내니 왜왕이 제상이를 가두고 물어 가로되 어찌 가만히 왕자를 보내뇨. 대하여 가로되 신 은 이 계림 신하이니 내 임금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다. 왜왕이 노하여 가로되 계림 신하 라 이르면 반드시 다섯 형벌을 갖추리라 명하여 다리 아래 껍질을 벗기고 갈을 베고 하여 금 그 위에 달려라 하고 물어 가로되 어느 나라 신하인가 가로되 계림 신하이다 또 하여 금 뜨거운 쇠 위에 서라 하고 묻되 어느 나라 신하인가 가로되 계림 신하이다 왜왕이 태 워 죽였다. 아내가 세 딸을 거느리고 치술재에 올라 왜나라를 바라보아 울고 죽으니라.

%9-1 예계: 왜(倭)에게. 예+계(부사격 조사). ‘倭:예 와’(훈몽자회 초간본 중:2b)를 통해 ‘倭’의 훈과 음이 각각 ‘예’와 ‘와’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倭’의 훈과 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9-2 되연더니: 되었더니. 되-+-연-(선어말 어미)+-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이때 ‘연’의 ‘ㄷ’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인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3 서서: 서서. 즉위해서. 서-[立]+-어서(연결 어미). 현대 국어의 ‘서다’는 이 ‘서다’가 단 모음화(여>어)를 겪어 만들어진 어형이다.

%9-4 혼이룰: (미사)흔이를. 혼(欣)이+룰(목적격 조사). ‘이’는 받침이 있는 사람 이름 뒤에 붙 어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이다.

%9-5 곱홀: 갈을. 갈대를. 곱[蘆]+울(목적격 조사). ‘곱’은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곱히, 곱홀’ 등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개, 암태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9-6 득랴: 달려라. 들-(<돌-)+-으랴(종결 어미). ‘들다’는 이른바 ‘ㄷ’불규칙 용언으로 모 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될 때 어간 형태가 ‘들-’로 실현된다.

%9-7 신하고: 신하인가? 신하+고(보조사). 이때 의문 보조사 ‘고’는 체언 뒤에 결합해 의문문 을 만드는데, 이곳에서는 앞에 ‘어니’와 같은 의문사가 있는 경우(이른바 설명 의문문)에 나타난 형태임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른바 판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 보조사로 ‘가’ 형태가 나타난다.

%9-8 신해로라: 신하이다. 신하+이-(서술격 조사)+-로-(<-오-, 선어말 어미)+-라(<-다, 종 결 어미). 이때 선어말 어미 ‘-로-’는 생략된 1인칭 주어 ‘내’와 호응하여 쓰인 이른바 인 칭법 선어말 어미임을 알 수 있다. 종결 어미 ‘-라’는 선어말 어미 ‘-오-’(여기서는 ‘-로 -’) 뒤에서 ‘-다’가 그 형태를 바꾼 것이다.

%9-9 서라코: 서라 하고. 서-+-라(종결 어미)#ㅎ+-고(연결 어미). ‘코’는 ‘ㅎ’에서 모음 ‘·’ 가 빠지며 축약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9-10 안해: 아내. ‘안해’는 ‘안히’와 같은 표기를 거쳐 오늘날 ‘아내’가 되었는데, ‘안해/안 히>아내’의 변화는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된 결과가 단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9-11 바라: 바라. 바라보아. 바라-+-아(연결 어미). ‘바라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라보다” 이고 이로부터 “기대하다, 소망하다”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현대 국어의 ‘바라다’ 역 시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10-1 주인공 명: 제상(堤上)

%10-2 성씨: 박(朴)

%10-3 본관: 영해(寧海)

%10-4 지역1: 경상북도

%10-5 지역2: 경주시

%10-6 시기: 신라

%10-7 연도: 내물왕

%10-8 신분: 진골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내물왕(奈勿王). ?~402. 내물마립간(奈勿麻立干). 신라의 제17대 왕. 재위 기간은 356~402 년이다. 계보는 확실치 않으나 미추이사금과 근친관계였음은 확실하다. 흘해이사금이 후 계자 없이 승하하자 왕위를 계승하였다. 중국의 문화 수입에 적극적이었고 왜적의 침입을 수차례 물리쳤다.

말스흔. 말사흔(末斯欣). 미사흔(末斯欣). 미해. 내물왕의 셋째 아들. 내물왕 때에 고구려로 볼모로 갔던 실성이 왕으로 즉위하자 보복인사성으로 402년 왜에 볼모로 보냈다. 실성왕 을 제거하고 즉위한 눌지왕이 자신의 형제인 미사흔을 구출하기 위해 박제상을 왜에 파견 하였다. 박제상의 회생으로 418년 귀국하였다. 귀국 후 박제상의 딸과 결혼했다. 서불한 (舒弗邯)에 증직되었다. ‘美海(미해)’ 또는 ‘未叱喜(미칠희)’라고도 한다. 『일본서기』 권7에 는 ‘微叱許知(미칠허지)’로 나온다. 이러한 사실들을 참조할 때 ‘말스흔(末斯欣)’의 ‘末(말)’ 은 ‘末(미)’를 잘못 적은 것에서 비롯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세종 때에 간행된 『삼강행실도』(1434)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눌지왕(訥祗王). 눌지마립간(訥祗麻立干). 신라의 제19대 왕. ?~458. 재위 기간은 417년부터 458년이다. 내물왕의 아들로 아버지 내물왕이 볼모로 보냈던 실성이 왕으로 재위하여 그 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힘을 빌어 실성왕을 죽였고 왕으로 즉위하였다. 고구려 의 남침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433년 백제와 동맹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왕위 계승의 부자상속제를 확립시켰고, 우차(牛車)를 도입하여 유통을 발전시켰다.

박제상(朴堤上). 363~419. 신라 시대의 문신. 『삼국유사』에는 그의 이름이 김제상(金堤上)으 로 나온다. 이름 ‘堤上(제상)’은 ‘毛末(모말)’(『삼국사기』) 및 ‘毛麻利叱智(모마리질지)’(『일 본서기』)로도 적혔음을 볼 수 있다. 왜에 볼모로 간 미사흔을 구출하기 위한 인물로 천거 를 받았다. 이전에는 삼랑주간(敵良州干)이라는 직책에 있었는데, 먼저 418년 고구려로 가서 내물왕의 둘째 아들이자 눌지왕의 형제인 복호(卜好)를 구출하여 귀국하였다. 다음 미사흔을 구출하기 위해 왜로 건너가 적을 속여 미사흔을 구출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자신은 사로잡히게 되었다. 왜왕은 그를 신하로 삼기 위해 협박을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 기도 하였으나 충절을 지켜 참형을 받아 죽었다. 후에 눌지왕은 그를 대아찬(大阿湊)으로 추증하고 부인을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책봉했으며, 둘째 딸을 미사흔의 아내로 삼게 했다. 박제상의 부인은 그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계림. 계림(鷄林). 신라의 옛 이름.

치술재. 치술령(鷄述嶺). 치술령(765m)은 높은 산이 크게 없는 울산시와 경주시의 경계에 솟아 있는 산이다. 치술령의 정상에는 신라의 총신 박제상이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 자 그의 부인이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죽어서 치술신묘가 되었다는 신묘사지(神母祠 址)비가 세워져 있고, 서쪽 방향의 300m지점에는 화석이 되었다는 망부석이 있다.

%10-11 기타

박제상 유적지.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산30-2(두동면 치술령길 7)

홈페이지(<http://tour.ulju.ulsan.kr/menu01/ruins05.php>)

%11

%0 동국삼강행실도(충신2) 2ㄱ-2ㄴ

%1 비령돌진(丕寧突陳)

%2 동국삼강행실도(충신2) 2ㄱ

%3 비령이 적진으로 돌격하다

%4 선덕여왕 15년에 백제가 신라의 감물성과 동잠성을 공격했다. 비령자가 말을 채찍질하며 창을 비껴 들고 돌진해 두 명을 찔러 죽이고 전사했다. 이를 본 비령자의 아들 거진이 적진으로 달려들고자 했으나 시종 합절이 이를 말리며 말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도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저버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합절이 고삐를 잡고 놓지 않으니 거진이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구차하게 살아 있는 것이 어떻게 효이겠습니까?”

칼로 합절의 팔을 치고, 적진으로 달려들어 싸우다가 전사했다.

“주인이 죽었으니 죽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합절 또한 싸우다가 죽었다.

%5 선덕여주 열다섯 해에 백제 감물 동잠 두 성을 티거늘 비령지 무를 채치고 창을 %5-1번 기고 돌던 하야 두 사람을 달려 주기고 %5-2죽다 그 아들 거진이 바라보고 두라들고져 하거늘 종 합절이 ㄱ로디 대인이 날로 히여곰 아랑을 뵈셔 지비 도라가 뼈 부인을 위로하라 하시니 이제 지 %5-3아비 명을 저버리고 어마님 사랑을 버리미 %5-4가히닐잇하 혁을 잡고 노티 아니한대 거진이 ㄱ로디 아비 죽는 양을 보고 구차히 %5-5사라시미 언디 회리오 하고 %5-6갈호로 합절의 %5-7팔을 티고 두라드러 싸화 죽다 합절이 ㄱ로디 %5-8항거시 주그니 죽디 아니코 %5-9므스 이를 히리오 하고 또한 싸화 죽다

%6 善德女主十五年 百濟攻甘勿桐峯二城 丕寧子鞭馬橫槊突陣 格殺數人而死 子舉眞望之欲赴 奴合節曰 大人令合節 奉阿郎還家 以慰夫人 今子負父命 棄母慈可乎 執轡不放 舉眞曰 見 父死而苟存 豈孝乎 以劍擊合節臂 奔入戰死 合節曰 所天崩矣 不死何爲 亦交鋒而死 %6-1 2ㄴ

%7 선덕여주십오년 백제공감물동잠이성 비녕자편마횡삭돌진 격살수인이사 자거진망지욕부 노 합절왈 대인령합절 봉아랑환가 이위부인 금자부부명 기모자가호 집비부방 거진왈 견부사 이구존 기효호 이검격합절비 분입전사 합절왈 소천봉의 불사하위 역교봉이사 %7-1 2ㄴ

%8 선덕여주(善德女主) 열다섯 해에 백제 감물(甘勿), 동잠(桐峯) 두 성을 치거늘 비령자(丕寧子)가 말을 채치고 창을 비껴고 돌진하여 두 사람을 찔러 죽이고 죽었다. 그 아들 거진(舉眞)이 바라보고 달려들고자 하거늘 종 합절(合節)이 가로되 대인이 나오 하여금 아랑(阿郎)을 모셔 집에 돌아가 씨 부인을 위로하라 하시니 이제 제 아버지의 명을 저버리고 어머니 사랑을 버림이 가합니까. 혁(革)을 잡고 놓지 아니한대 거진이 가로되 아비 죽는 양(樣)을 보고 구차히 살아 있음이 어찌 효(孝)이리오 하고 칼로 합절의 팔을 치고 달려들어 싸워 죽었다. 합절이 가로되 주인이 죽으니 죽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리오 하고 또한 싸워 죽었다.

%9-1 **받기고**: 비끼고. 비스듬히 하여. 받기-+-고(연결 어미). 이때 ‘받기-’는 ‘빚기-’의 중성 ‘ㅅ’이 ‘ㄷ’으로 표기된 것으로 이는 중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2 **죽다**: 죽었다. 이때 ‘죽다’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이른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에서 이 이후에 쓰인 두 번의 ‘죽다’ 역시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

%9-3 **아비**: 아버지의. 압(←아비)+의(관형격 조사). 이때 ‘이’ 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명사가 관형격 조사 또는 호격 조사 앞에서 ‘이’가 탈락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늘날의 ‘아빠’가 ‘압(←아비)+아(호격 조사)’로부터 왔음도 참고할 수 있다.

%9-4 **가하닝잇따**: 가합니까? 가(可)하--니-(선어말 어미)+-ㅇ잇따(종결 어미). 이때 의문형 종결 어미 ‘-ㅇ잇따’는 15세기의 ‘-잇가’에서 ‘ㅇ’이 앞 음절의 중성으로 내려가고, ‘ㅅ’이 앞된 음절에 모두 표시된 결과이다. 15세기에 ‘-잇가’는 서술격 조사 및 선어말 어미 ‘-니-’, ‘-리-’와만 결합하는 한정된 결합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9-5 **사라시미**: 살아 있음이. ‘살-+-아시-(선어말 어미)+-ㅁ(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이때 선어말 어미 ‘-아시-’는 본래 ‘-아(연결 어미)#이시-(동사)’의 구성에서 발달한 것으로 완료 또는 진행의 의미를 지닌다.

%9-6 **칼호**: 칼로. 칼ㅎ+ㄹ로(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 ‘칼’은 ‘갈ㅎ>칼ㅎ>칼’의 변화를 겪었다. ‘칼’은 본래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칼히, 칼호’ 등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고기, 수개, 암태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9-7 **꿀**: 꿀을. 꿀ㅎ+을(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 ‘꿀’은 ‘불ㅎ>꿀ㅎ>꿀>꿀’의 변화를 겪었다.

%9-8 **항거시**: 주인이. 항것+이(주격 조사). ‘항것’은 ‘항’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로 생각되는데, ‘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혹 “크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하-’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한’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한#것’에서 연구개음화(ㄴ→ㅇ/_ ㄱ)가 일어나 ‘한것→항것’이 된 것으로 이해해 볼 가능성이 있다.

%9-9 **므스**: 무슨. 이때 ‘므스’는 후행하는 명사 ‘일’을 수식하는 관형사로서의 쓰임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무슨고’에서처럼 본래 ‘므스’는 명사로서의 쓰임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관형사격 조사 ‘ㅅ’이 결합해 ‘므스’의 형태로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므스’ 외에도 ‘므스, 므슴’ 등 유사한 형태와 쓰임을 지닌 단어들도 존재한다.

- %10-1 주인공 명: 비령자(丕寧子)
- %10-2 성씨: 미상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미상
- %10-5 지역2: 미상
- %10-6 시기: 신라
- %10-7 연도: 선덕여왕, 진덕여왕
- %10-8 신분: 무관
- %10-9 성별: 남
- %10-10 역사 사건:

선덕여왕(善德女王). ?~647. 신라 제27대 왕. 이름은 덕만(德曼). 진평왕(眞平王)의 장녀이다. 진평왕이 아들 없이 승하하자 화백회의를 통해 왕으로 추대되었다. 춘추에게 중국 당나라의 원군을 청하게 하여 백제를 침공하고, 9년(640)에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어 그 문화를 받아들였다. 호국 사찰인 황룡사(皇龍寺) 구층목탑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진골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감물. 감물아현(甘勿阿縣).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읍 부근의 옛 지명. 신라 경덕왕 때에 함열현(咸悅縣)으로 개칭되기도 하였다.

동잠(桐岑). 경상북도 김천 부근의 옛 지명.

비령자(丕寧子). 신라 시대의 무장. 출신지 및 족성 미상. 647년 백제 군사 무산(茂山), 감물, 동잠 등 3성을 공격해오자 김유신이 1만 병사로 방어했다. 어렵게 방어하던 중 김유신이 군의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비령자에게 적진에 돌진할 것을 명령, 이를 받들어 적진으로 돌격하여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후 아들 거진, 합절의 죽음으로 사기가 오른 신라군은 백제군을 물리쳤다. 이후 후하게 장사를 지낸 후 가족들에게 포상하였다. 본문에는 감물·동잠성 전투가 선덕여왕 15년(646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동사강목(東史綱目)』에는 선덕여왕 16년·진덕여왕 1년(647년) 10월로 기록되어 있다.

거진(擧眞). 비령자의 아들. 아버지 비령자가 적진에 돌격하여 전사하자, 종 합절의 만류를 뿌리치고 적진에 돌격하여 싸우다 죽었다.

합절(合節). 비령자의 종. 주인을 모시고 전장으로 나갔다가 결사대의 임무를 받은 비령자로부터 아들 거진을 잘 타일러 자신이 죽은 후에 유골을 거두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비령자의 죽음을 본 거진이 적진에 돌격하려 하자 말고삐를 잡고 놓아주지 않다가 거진의 칼을 맞아 팔이 잘렸다. 거진의 죽음을 본 합절 또한 적진으로 뛰어들어 싸우다 죽었다.

%10-11 기타

%11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충신3) 3ㄱ-3ㄴ

%1 정이상소(鄭李上疏)

%2 동국삼강행실도(충신3) 3ㄱ

%3 정추와 이존오가 상소하다

%4 공민왕이 신돈을 신임하니, 정추와 이존오가 상소하여 신돈의 죄를 논하였다. (공민왕이 노하여 이들을 대면하여 꾸짖었는데) 그때 신돈이 왕과 상을 마주 대하고 있었다. 이존오가 신돈을 쓰아보며 꾸짖으니 신돈이 자기도 모르게 평상에서 내려왔다. 왕이 노하여 (정추와 이존오를) 감옥에 가두고 사주(使瘞)한 이가 누군지를 심문했다. 신돈이 몰래 사람을 시켜 이존오를 달래어 말했다.

“경복흥과 원송수가 사주했다고 말하면 면할 것이다.”

(이 말은 들은) 이존오가 신돈을 꾸짖으니, 신돈이 반드시 이존오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춘부가 신돈에게 말해 사형을 감형하여 외방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존오가 근심으로 병이 나서 위독해졌을 때에,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나 앉아서 물었다.

“신돈의 기세가 아직도 성(盛)하나? 신돈이 죽어야 내가 죽는다.”

자리에 도로 누워 편안히 죽지 못하였다.

%5 공민왕이 부야흐로 신돈이를 %5-1어열비 %5-2너기서를 스의 덩추와 정언 니존의 상소하야 죄를 논하더니 그 저귀 둔이 왕으로 더브러 상을 %5-3디하얏새늘 존외 둔이를 %5-4눈 주어 꾸지존대 둔이 상의 %5-5느리덧논 주를 아디 몰흔대 왕이 노하야 %5-6옥의 느리와 %5-7다래디 니를 %5-8져주다 둔이 ㄱ마니 사롭 브려 존오를 다래여 ㄱ로디 만일 경복흥이와 원송슈를 %5-9지면 가히 면하리라 존외 꾸지즈니 둔이 반드시 주기고져 하거를 니춘뷔 둔에게 닐러 죽기를 더러 %5-10밭씩 %5-11구항 보내다 존외 근심으로써 병이 %5-12이러 병이 극하야서 하야곰 %5-13븐드려 %5-14니르혀고 ㄱ로디 둔이 오히려 %5-15성하연느냐 둔이 주거야 내 주그리라 %5-16돋씩 도로 누어 편안티 몰하야서 죽다

%6 恭愍王方寵辛旽 司議鄭樞正言李存吾上疏 論罪時 旽與王對床 存吾目旽叱之 旽不覺下床 王怒下獄鞠誘者 旽陰使人誘存吾曰 若引慶復興元松壽 則可免 存吾叱之 旽必欲殺之 李春富白旽得減死謫外 存吾以憂成疾 疾革使扶起曰 旽尙熾乎 旽亡吾乃亡 反席未安而卒%6-1 3ㄴ

%7 공민왕방총신돈 사의정추정언리존오상소 론죄시둔여왕대상 존오목돈질지 둔불각하상 왕노 하옥국유자 돈음사인유존오알 약인경부흥원송수 죽가면 존오질지 둔필육살지 이춘부백둔 득감사적외 존오이우성질 질책사부기알 돈상치호 돈망오내망 반석미안이졸%7-1 3ㄴ

%8 공민왕(恭愍王)이 바야흐로 신돈(辛旽)이를 어여뻐 여기시거늘 사의(司議) 정추(鄭樞)와 정언(正言) 이존오(李存吾)가 상소하여 죄를 논하더니 그 적에 돈(旽)이 왕으로 더불어 상(床)을 대하였거늘 존오가 돈(旽)이를 눈 주어 꾸짖은대 돈(旽)이 상(床)에서 내려오는 것을 알지 못한대 왕이 노하여 옥에 내려 달래던 이를 따졌다. 돈(旽)이 가만히 사람 부려 존오(存吾)를 달래어 말하되 만일 경복흥(慶復興)이와 원송수(元松壽)를 지면 가히 면하리라 존오(存吾)가 꾸짖으니 돈(旽)이 반드시 죽이고자 하거늘 이춘부(李春富)가 돈(旽)에게

일러 죽기를 달여 밖에 귀향 보냈다. 존오(存吾)가 근심으로써 병이 되어 극(極)하여서 하여금 붙들게 하여 일으키고 말하되 돈(旽)이 오히려 성(盛)하였느냐 돈(旽)이 죽어야 내가 죽으리라 돈자리에 도로 누워 편안치 못하여서 죽었다.

%9-1 어열비: 어여뻐. ‘어열비’는 “붙쌍히”, “사랑스럽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때 ‘어열비’의 ‘ㄷ’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로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2 너기서를: 여기시거늘. 너기--+시-(선어말 어미)+-어(연결 어미). 이때 ‘-어’는 ‘-어’에서 ‘ㄴ’이 ‘ㄹ’로 표기된 것이다.

%9-3 디하얏새늘: 대하였거늘. 디하--+얏-(선어말 어미)+-새(연결 어미). 이때 ‘새늘’은 ‘얏’의 ‘ㅅ’이 한 번 더 표기된, 이른바 중철 표기를 보여 준다.

%9-4 눈 주어: 눈 주어. 눈#주--+어(연결 어미). ‘눈 주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만히 약속의 뜻을 보여 눈짓하는 것을 말한다.

%9-5 느리덧논 주를: 내려오는 것을. 느리덧--+ㄴ-(선어말 어미)+-ㄴ(관형사형 어미)#줄(의존 명사)+울(목적격 조사). 동사 ‘느리덧-’은 두 개의 동사 ‘느리-’와 ‘덧-’이 결합해 만들어진 이른바 비동사적 합성어이다. 이때 ‘ㄷ’이 ‘덧’으로 표기된 것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이다.

%9-6 옥의 느리와: 옥에 내려. 하옥시켜. 옥+의(부사격 조사)#느리오--+아(연결 어미). ‘느리오다’는 자동사 어간 ‘느리-’에 사동 접미사 ‘-오-’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9-7 다래디 니를: 달래던 이를. 사주한 이를. 다래--+디-(선어말 어미)+-ㄴ(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를(목적격 조사). 이때 ‘달래다’는 일을 사주하다는 뜻이다.

%9-8 쳐주다: 따졌다. 신문(訊問)했다. 쳐주--+다(종결 어미). 이때 ‘쳐주다’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이른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에서 이후에 쓰인 ‘보내다’, ‘죽다’ 역시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

%9-9 지면: 지면. 등지면. 지--+면(연결 어미). 한문 원문의 ‘若引慶復興元松壽’를 참조할 때, 여기서 ‘지다’는 ‘ㄹ’에 대응됨을 볼 수 있는데 문맥상 그 의미가 “등지다”, “배반하다” 정도로 파악된다.

%9-10 밧씩: 밖에. 밧(←밭)+의(부사격 조사). ‘밧씩’은 ‘밧긔’의 이른바 중철 표기인 ‘밧씩’에서 종성의 ‘ㅅ’이 ‘ㄷ’으로 표기된 것이다.

%9-11 구항: 귀양(歸養). 죄인을 먼 시골이나 섬으로 보내어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곳에서만 살게 하던 형벌. ‘귀향(歸鄉)>구항/귀양>귀양’의 어형 변화를 겪었는데, ‘歸養’은 후대 어형에 맞춰 제시된 한자어로 보인다.

%9-12 이러: 되어. 일--+어(연결 어미). ‘일다’는 “되다”, “이루어지다”의 뜻을 갖는 자동사이다.

%9-13 븨드려: 붙들게 하여. 븨드리--+어(연결 어미). 이때 ‘븨드리다’는 ‘붙들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9-14 니르혀고: 일으키고. 니르혀--+고(연결 어미). ‘니르혀-’는 어간 ‘니르-’에 이른바 강제 접미사 ‘-혀-’가 결합해 만들어진 어형이다.

%9-15 성하연느냐: 성(盛)하였느냐. 성하--+연-(←옛-, 선어말 어미)+-ㄴ-(선어말 어미)+-ㄴ(종결 어미). 이때 ‘-연-’은 ‘-옛-’의 종성 ‘ㅅ’이 [ㄷ]으로 발음됨으로써 뒤에 오는 ‘-ㄴ-’의 초성 ‘ㄴ’에 의해 동화된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9-16 돋씩: 돈자리에. 돛+의(부사격 조사). ‘돋씩’은 ‘돛긔’의 중철 표기인 ‘돛씩’에서 종성의 ‘ㅅ’이 ‘ㄷ’으로 표기된 것이다.

- %10-1 주인공 명: 추(공권), 존오
- %10-2 성씨: 정, 이
- %10-3 본관: 청주, 경주
- %10-4 지역1: 미상
- %10-5 지역2: 미상
- %10-6 시기: 고려
- %10-7 연도: 공민왕
- %10-8 신분: 문신, 문신
- %10-9 성별: 남, 남
- %10-10 역사 사건:

공민왕(恭愍王). 1330~1374. 고려 제31대 왕. 재위 기간은 1351~1374년이다. 이름은 전(顛). 호는 이재(怡齋)·익당(益當). 원나라가 황혼기에 접어들고 명나라가 새로이 부상하는 가운데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복진 정책을 추진하여 영토를 수복하였고 변발, 호복 등 몽고 풍속을 폐지하였다. 1365년 부인이었던 노국대장공주가 죽고 주변에 믿을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하자, 국사를 신돈에게 맡기는 등 재위 후기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홍륜이 익비를 임신시키자 그들을 제거하려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림과 글씨에도 뛰어났다고 전해지며 <천산대렵도(天山大獵圖)>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신돈(辛旽). ?~1371. 고려 말기의 승려. 자는 요공(耀空). 호는 청한거사(淸閑居士). 공민왕 때의 승려로 김원명(金元命)의 추천으로 공민왕을 접견. 공민왕의 호감을 사기 시작했다. 공민왕으로부터 '청한거사'라는 호를 받고 국정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권문세족들의 특권을 견제하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한때는 백성들로부터 '성인'이라는 찬양을 받기도 했다. 1367년부터는 처첩을 거느리고 아이까지 낳는 등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정치 일선으로 돌아올 것을 선언한 공민왕에 의해 1371년 역모를 꾀한다는 혐의로 수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했다.

사의(司議). 사의대부(司議大夫). 고려 시대 문하부(門下府) 내 정4품의 관직. 공민왕 때에 좌의간의대부로 고쳐지면서 종3품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주로 간관(諫官)의 임무를 맡았으며 공직자 선정 때에 심사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추(鄭樞). 1333(충숙왕 복위 2)~1382(우왕 8).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초명은 추(樞). 자는 공권(公權)인데, 뒷날 자를 이름으로 썼다. 호는 원재(圓齋).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보(溍)의 아들이다. 1353년 문과에 급제하여 좌사의대부까지 올랐다. 이준오와 함께 신돈을 탄핵하다가 처형을 당할 뻔하였으나, 이색 등이 만류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신돈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한탄하다가 병이 들어 1382년에 사망하였다. 저서로는 『원재집(圓齋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정언(正言).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6품 관직. 주로 간쟁과 봉박(封駁) 등 간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존오(李存吾). 1341(충혜왕 복위 2)~1371(공민왕 20). 고려 후기의 문신. 1360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으로 발탁되었다. 1366년 우정언이 되어 정추와 함께 신돈을 탄핵하다가 죽음을 당할 뻔하였으나, 이색 등의 만류로 죽음을 면하고 좌전되었다. 그 뒤 은둔 생활을 하며 지냈다. 신돈의 횡포를 풍자한 시조 1수 등 몇 수의 시가 『청구영언』에 전한다. 성균관대사성에 추증되었으며, 여주 고산서원(孤山書院), 부여 의열사(義烈祠), 무장 충현사(忠賢祠)에 봉향되었다. 저서로는 『석탄집』이 있다.

경복흥(慶復興). ?~1380(우왕 6). 고려 후기의 문신. 감찰(監察), 장령(掌令) 등을 지내고 1354년 군부판서(軍簿判書)로 임명되었다. 이후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 참지문하정사(參

知門下政事), 지문하정사(知門下政事), 지정사상의(知政事商議) 등을 역임하였다. 1359년에는 기철(奇徹) 등 친원파를 숙청한 공로로 1등 공신에 봉해지기도 했다. 이후 흥건적을 격퇴하는데 공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1365년에는 수시중(守侍中)에 관직이 이르렀다. 그러나 신돈의 견제에 의해 파직을 당했고, 이후 신돈을 제거하려다 실패, 귀양을 가게 되었다. 신돈이 제거된 후, 다시 좌시중으로 임명되었고 공민왕의 뒤를 이은 우왕(禡王)도 보좌하였다. 이인임(李仁任), 임견미(林堅味) 등의 참소로 귀양을 가서 사망하였다.

원송수(元松壽). 1324(충숙왕 11)~1366(공민왕 15). 고려 후기의 문신. 문과 급제 후, 헌납(獻納), 내서사인 겸 좌부대언(內書舍人兼左副代言) 등을 거쳐 1363년에는 왕을 호위한 공으로 1등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1365년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올랐으나 신돈에 의해 파직되었고, 얼마 후 병사하였다.

이춘부(李春富). ?~1371(공민왕 20). 고려 후기의 문신. 삼사좌윤, 밀직, 대언을 거쳐 공민왕 때 판추밀원사에 올랐다. 흥건적을 평정한 뒤 공을 인정받아 1등 공신에 책봉되었다. 이후 파면되었다가 신돈에게 아부하여 찬정사가 되었고 시종까지 지냈다. 신돈의 심복으로 불릴 만큼 그와 가까웠으며, 1371년 신돈이 실권을 잃자 사헌부의 탄핵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10-11 기타

%11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충신4) 4ㄱ-4ㄴ

%1 몽주운명(夢周隕命)

%2 동국삼강행실도(충신4) 4ㄱ

%3 정몽주의 목숨이 끊어지다

%4 최영이 고려 우왕에게 권하여 요동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성계(후에 조선 제1대 왕. 태조)가 의(義)를 내세워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와) 다시 창왕(고려 제33대 왕)을 옹립했다.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이 이성계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뜻을 같이 해 도왔는데, 시중 정몽주가 대간으로 하여금 이들을 논박하게 하여 귀향 보내고 장차 죽이려고 하였다. 의안대군 이화와 흥안군 이제 등이 휘하 사람 조영규 등으로 하여금 길에서 정몽주를 쳐 죽였다. 이성계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여 병이 위중해져서 말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에 이방원(조선 제3대 왕. 태종)이 즉위하여 정몽주는 온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고, 그 절조를 돌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충렬문을 세워 주었다.

%5 %5-1최형이 신우를 권하여 노동을 티려 허거늘 강헌대왕이 의를 드러 군을 %5-2도르허 다시 왕시를 %5-3세시다 도준 명도면 남은 등이 강헌대왕을 남궁 삼고져 허거늘 시등 명물췌 췌이와 도면이와 은이 동심허야 도오므로써 다간으로 히여곰 논박허야 귀향 보내고 %5-4장춘 주기려 허거늘 의안대군 화와 흥안군 니제 등이 휘하 사름 도영규 등으로 허여곰 %5-5길히 마자 몽주를 터 주기니 강헌대왕이 대로허샤 인허야 병 등허샤 말슴 문허시매 니르더라 공명대왕이 즉위허샤 섬기는 바의 모으물 %5-6올게 허야 그 절조를 두 가지로 아니한다 허샤 시호 주시기를 문통이라 허시고 정문허시니라

%6 崔肇勸辛禡攻遼 康獻大王舉義回軍 復立王氏 趙浚鄭道傳南閔等 欲推戴康獻大王 侍中鄭夢周 以浚道傳閔等同心輔翼 令臺諫劾流將殺之 義安大君和興安君李濟等 使麾下士趙英珪等 要於路擊殺夢周 康獻大王大怒 因病篤至不能言 恭定大王卽位 以專心所事 不貳其操 贈諡文忠 旌門 %6-1 4ㄴ

%7 최영권신우공로 강헌대왕거의회군 부립왕씨 조준정도전남은등 육추대강헌대왕 시중정몽주 이준도전은등동심보익 령대간행류장살지 의안대군화흥안군이제등 사휘하사조영규등 요어 로격살몽주 강헌대왕대노 인병독지불능언 공정대왕즉위 이전심소사 불이기조 증시문충 정문 %7-1 4ㄴ

%8 최영(崔瑩)이 신우(辛禡)를 권하여 요동(遼東)을 치려 허거늘 강헌대왕(康獻大王)이 의(義)를 들어 군을 돌이켜 다시 왕씨를 세우셨다. 조준(趙浚), 정도전(鄭道傳), 남은(南閔) 등이 강헌대왕을 임금 삼고자 허거늘 시중(侍中) 정몽주가 준(浚)이와 도전(道傳)이와 은(閔)이가 동심하여 도오므로써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논박(論駁)하여 귀향 보내고 장차 죽이려 허거늘 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와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 등이 휘하 사람 조영규(趙英珪) 등으로 하여금 길에서 맞아 몽주를 쳐 죽이니 강헌대왕이 대노하여서 인하여 병 중하여서 말슴 못하심에 이르더라. 공정대왕(恭定大王)이 즉위하여서 섬기는 바의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 절조를 두 가지로 아니한다 허샤 시호(諡號) 주시기를 문충(文忠)이라 하시고 정문(旌門)하시니라.

%9-1 **최형**: 최영(崔瑩). 이때 ‘夔’의 한자음이 ‘형’으로 나타난 것이 특이하다. 조선 시대 ‘夔’의 현실 한자음은 대부분 ‘영’으로 나타나고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형’(동국정운). ‘형’(삼강행실도)임을 볼 수 있다.

%9-2 **도르허**: 돌이켜. 도르허-[回]+-어(연결 어미). ‘도르허다’는 15세기에 ‘도르허다’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돌다’의 어간 ‘돌-’에 사동 접미사 ‘-으-’가 결합해 형성된 타동사 어간 ‘도르-’에 다시 강세 접미사 ‘-혀/허-’가 결합해 만들어졌다. ‘도르허다/도르허다>도르허다’의 어형 변화를 보인다.

%9-3 **세시다**: 세우셨다. 세-[立]+-시-(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 ‘세다’는 자동사 ‘서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여기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해 만들어진 형태가 오늘날의 ‘세우다’이다.

%9-4 **장춘**: 장차. 15세기에는 ‘장차’와 ‘장춧’ 두 가지 어형이 모두 나타난다. ‘장춘’의 ‘ㄷ’은 중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인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5 **길히**: 길에서. 길ㅎ+이(부사격 조사). 이때 부사격 조사 ‘이’는 ‘길히 마자 몽주를 터 주기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술어 ‘맞다’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할 때 “에서”의 의미로 파악된다. 또한 ‘길’은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길히, 길힐’ 등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개, 암태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9-6 **올게**: 오로지. 올-[專]+-게(연결 어미). ‘올다’는 ‘오올다’로부터 형태가 줄어진 것으로 “오로지하다”와 더불어 “온전하다”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10-1 주인공 명: 몽주(夢周)

%10-2 성씨: 정(鄭)

%10-3 본관: 영일(迎日)

%10-4 지역1: 황해도

%10-5 지역2: 개성

%10-6 시기: 고려

%10-7 연도: 공양왕

%10-8 신분: 문관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최영(崔瑩). 고려 후기의 무신. 1352년 조일신(趙日新)의 난을 평정하여 호군(護軍)이 되었고, 1354년에 대호군이 되었다. 원나라에서 원병을 요청하자 군사를 이끌고 중국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1359년 홍건적이 침입하자 이를 물리쳤고, 1340년 서북면도 순찰사(西北面都巡察使),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가 되었다. 1361년 홍건적의 재침입도 막아내었고, 1926년에는 흥왕사(興王寺)의 변(變)을 진압하였다. 이후에도 왜적이나 홍건적, 원나라와의 전투에서 크게 활약, 수차례 공훈을 인정받았다. 한때 신돈(辛旽)의 참소로 좌천되었다가 1371년 신돈이 제거되자 다시 찬성사로 부임하였다. 제주도를 평정하여 1375년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오르기도 했다. 1388년 문하시중이 되어 우왕에게 딸을 시집보내고, 요동 정벌을 위하여 우군도통사 이성계로 하여금 공격을 명하였으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함으로써 유배되었다가 참수되었다. 조선 개국 후 무민(武愍)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우왕(禑王). 고려의 제32대 왕. 1374년부터 1388년까지 재위했다. 1374년 공민왕이 시해되

자 10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궁인 한씨(韓氏)의 소생으로 알려졌으나, 신돈의 시비(侍婢)인 반야(般若)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 혹은 공민왕의 소생이 아닌 신돈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어, 고려 후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들로부터는 '신우'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인임과 최영에게 정치적 실권을 맡긴 채,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이나 연회로 시간을 보냈다 한다. 1388년 요동 정벌을 단행, 군사를 파견하였으나 이성계의 회군으로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이성계를 제거하려했다는 혐의로 죽임을 당했다.

강헌대왕(康獻大王). 조선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의 시호. 1335(충숙왕 복위 4)~1408(태종 8). 조선의 제1대 왕. 재위 기간은 1392년부터 1398년까지이다. 화령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담대하고 활을 잘 쏘았다. 동북 지역에서 여진족 등을 수차례 무찔러 많은 무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에서도 도순찰사가 되어 왜적들을 무찔렀다. 1384년 명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요동 정벌을 위해 우군도통사가 되어 출정하게 되었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한 뒤 창왕을 옹립하였다. 이듬해에는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하였고 수문하시중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다. 1391년 조준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제 개혁을 단행하고 1392년 공양왕을 내쫓고 조선 왕조의 태조로 즉위하였다.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법제를 정비하며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를 만들어 갔다. 그러나 계비 강씨의 소생인 방식을 세자로 결정하여 신의왕후의 소생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 결국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강씨의 소생들을 살해하고 건국공신인 정도전, 남은 등도 제거되었다. 이에 상심한 태조는 왕위를 방과(정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아욕을 드러낸 방원(태종)이 왕위를 이어받았고, 이 모든 과정에 분노한 태조는 서울을 떠나 함흥 등지에 머물렀다. '함흥차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태종에 대한 증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그는, 결국 1402년 무학의 간청을 받아들여 서울로 돌아왔다. 이후에는 불교에 귀의하여 조용한 세월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다.

조준(趙浚).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 1376년 좌우위호군(左右衛護軍), 강릉도안렴사(江陵道按廉使) 등을 지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의 부름을 받아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知密直司事兼大司憲)으로 임명되었다. 정도전 등과 전제 개혁에 힘썼고, 1392년 조선 왕조가 창건될 때에 개국일등공신으로 임명되었다. 왕자의 난 때에는 이방원을 옹립하였으며, 좌의정, 영의정부사, 평양부원군을 지냈다. 문집으로 『송당집』을 남겼으며, 1405년 사망,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정도전(鄭道傳).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 1360년 성균시에 합격하고 충주사록(忠州司錄), 전교주부(典校注簿), 통례문지후(通禮門祇候) 등을 지냈다. 1370년에는 성균관 박사에 있었으나 1375년 북원(北元)의 사신을 맞이하는 문제로 반대파와 맞서다가 유배되었다. 1383년까지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성계와 조우, 다시 정계로 진출하였다.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자 조준 등과 함께 전제 개혁에 힘썼고, 1391년에는 삼군도총제부 우군총제사(三軍都摠制府右軍摠制使)가 되었다. 조선 개국 후 개국1등공신이 되었고,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동판도평의사사사·판호조사(判戶曹事), 검판상서사사(兼判尙瑞司事), 보문각대학사(寶文閣大學士), 지경연예문춘추관사(知經筵藝文春秋館事), 겸의흥진군위절제사(兼義興親軍衛節制使) 등의 요직을 겸임하였다. 여러 편의 책을 저술하여 건국 이후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398년 1차 왕자의 난에 이방원에 의해 제거되었다. 문집 『삼봉집』이 전한다.

남은(南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 1374년 성균시에 급제 1380년 사직단직(社稷壇直)이 되었다. 1388년 요동 정벌 때 이성계를 따라 종군하였다가 이성계에게 회군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1389년 응양군상호군 겸 군부판서(鷹揚軍上護軍兼軍簿判書)가 되었다가 1391년 정몽주의 탄핵으로 유배되었다. 정몽주 사후 풀려나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가 되었다. 조선 건국 뒤 개국일등공신이 되었고 의령군(宜寧君)에 봉해졌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의해 살해당했다.

시중(侍中). 고려 시대 중1품 관직. 중서문하성의 최고 관직으로 중1품 중 유일한 실직에 해당한다. 조선 건국 이후 문하부의 좌, 우 시중으로 바뀌면서 정1품이 되었다가 좌, 우의 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몽주(鄭夢周). 고려 후기의 문신. 1360년 문과에 장원급제, 1362년에 예문관(藝文館)의 검열(檢閱), 수찬(修撰)이 되었다. 전보도감판관(典寶都監判官), 전농시승(典農寺丞), 예조정랑(禮曹正郎) 등을 역임하였다. 1380년에는 이성계를 따라 조전원수(助戰元帥)로 왜구 토벌에 나서기도 하였다. 1381년 성근익찬공신(誠勤翊贊功臣)에 올라 밀직부사 상의회의도감사 보문각제학 동지춘추관사 상호군(密直副使商議會議都監事寶文閣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軍)이 되었다. 1385년에는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었고, 이후 삼사좌사(三司左使),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1389년에는 이성계와 함께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 공신으로 봉해졌다. 1392년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려는 야심을 보이자 그를 포함한 일파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를 알아챈 이방원이 조영규(趙英珪) 등에게 명하여 선죽교(善竹橋)에서 살해하였다.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다. 위화도 회군 때에도 이성계를 도왔으며, 이방원을 도와 정몽주를 죽였다. 조선 개국 시 개국일등공신이 되었고 1차 왕자의 난에도 활약, 정사공신이 되었다. 2차 왕자의 난에도 이방원의 편에서 활약 좌명공신으로 봉해졌고 1407년에는 영의정까지 올랐다.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 태조 이성계의 사위. 1352년 좌대언(左代言)이 되었다. 이성계의 셋째 딸 경순공주(慶順公主)와 결혼하였다. 1392년 이방원을 도와 정몽주를 죽였다. 조선 건국 시 개국일등공신이 되어 흥안군에 봉해졌으며, 1393년 우군절제사(右軍節制使)가 되었으나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살해되었다.

조영규(趙英珪). 이성계의 사병으로 출발하여 벼슬에 올라 1385년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가 되는 등, 이성계의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1392년 이방원의 명을 받아 정몽주를 죽였다. 조선 건국 시 개국이등공신으로 봉해졌고 예조전서까지 올랐다.

공정대왕. 공정대왕(恭定大王). 조선 제3대 왕 태종(太宗)의 시호. 1367~1422. 재위 기간은 1400년에서 1418년까지이다. 1383년 문과에 급제하여 아버지 이성계(李成桂) 휘하에서 활약했다. 1388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1392년에는 정적(政敵)이었던 정몽주(鄭夢周)를 제거하였다. 조선 왕조 건국 후 태조가 이복 동생 방식(芳碩)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398년 소위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이 때 중신이었던 정도전(鄭道傳), 남은(南閔) 등을 살해했고, 이복 동생인 방식, 방번(芳蕃)도 귀양을 보내는 길에 제거하였다. 자신의 형인 정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넷째 형이었던 방간(芳幹)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고 곧이어 정종에게 양위를 받아 왕으로 즉위하였다. 사병을 혁파하는 등 왕권 강화에 힘썼으며,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1405년 송도(松都)에서 한성(漢城)으로 수도를 옮겼고, 1418년 세자였던 세종에게 선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10-11 기타

선죽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5201&cid=1630&categoryId=1630>

%11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충신5) 5ㄱ-5ㄴ

%1 길재항절(吉再抗節)

%2 동국삼강행실도(충신5) 5ㄱ

%3 길재가 절개로 항거하다

%4 1389년 겨울에 문하주서 길재가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정종(조선 제2대 왕)이 봉상박사를 제수하시니 길재가 글을 올려 사양하며 말했다.

“신은 고려 우왕 때에 급제하여 문하주서를 하였습니니다. 신하에게는 두 임금이 없으니 비읍건대 돌아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정종이 길재를 보내시고 부역과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세종(조선 제4대 왕) 때에는 그 아들에게 벼슬을 내렸으며 길재에게는 좌사간대부 벼슬을 추증하고 정문을 세워 주었다.

%5 홍무 기소 %5-1겨울희 주서 길지 벼슬 버리고 집의 도라가니 공정대왕이 봉상박사를 %5-2하이시니 지 그를 올려 스양하야 고투디 지 신우 저귀 급데하야 문하주서를 %5-3 하이시니 %5-4신해 두 님금이 업스니 %5-5비읍건대 도라가 늘근 어미를 %5-6쳐서 써 신의 두 성 아니 섬기는 뜻 %5-7일위징이다 공정대왕이 보내시고 그 지를 복호하시다 장헌대왕이 명하야 그 아드를 벼슬 하이시고 %5-8좌사간태우를 튜증하시고 정문하시니라

%6 洪武己巳冬 注書吉再棄官歸家 恭靖大王授奉常博士 再上書辭曰 再擢第辛朝爲門下注書 臣無二主 乞歸養老母 以遂臣不事二姓之志 恭靖大王問于權近曰 吉再抗節不仕 未審古人何以處之 近對曰 嚴光不屈 光武從之 再若求去 不如使之自盡其心 恭靖大王許歸 復其家 莊憲大王命官其子 贈左司諫大夫 旌門 %6-1 5ㄴ

%7 홍무기사동 주서길재기관귀가 공정대왕수봉상박사 재상서사왈 재탁제신조위문하주서 신무이주 걸귀양로모 이수신불사이성지지 공정대왕문우권근왈 길재항절불사 미심고인 하이쳐지 근대왈 엄광불굴 광무종지 재약구거 불여사지자진기심 공정대왕허귀 복기가 장헌대왕명관기자 증좌사간대부 정문 %7-1 5ㄴ

%8 홍무(洪武) 기사(己巳) 겨울에 주서(注書) 길재(吉再)가 벼슬 버리고 집에 돌아가니 공정대왕(恭靖大王)이 봉상박사(奉常博士)를 시키시니 재(再)가 글을 올려 사양하여 말하되 재(再)가 신우(辛禱) 적에 급제하여 문하주서(門下注書)를 하였으니 신하가 두 임금이 없으니 비읍건대 돌아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서 써 신의 두 성(姓) 아니 섬기는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공정대왕(恭靖大王)이 보내시고 그 집을 복호(復戶)하셨다. 장헌대왕(莊憲大王)이 명하여 그 아들을 벼슬 시키시고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를 추증(追贈)하시고 정문(旌門)하시니라.

%9-1 겨울희: 겨울에. 겨울ㅎ+(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 '겨울'은 '겨울ㅎ/겨울ㅎ>겨울ㅎ>겨울'의 변화를 겪었다. '겨울'은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겨울히, 겨울흠' 등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고기, 수개, 암택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9-2 하이시니: 하게 하시니. 시키시니. 하이+-시-(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이때 '하이-'는 동사 'ㅎ-'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사동사이다.

%9-3 하엿으니: 하였으니. 하+-여시-(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현대 국어의 선어말 어미 '-었/았-'은 본래 '-어/아 # 이시-/잇-'의 통사적 구성으로부터 발달된 것인데, 17세기 당시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었/았-'이, 매개모음을 포함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어시/아시-'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9-4 신해: 신하가. 신하+ㅣ(주격 조사). 이때 주격 조사 'ㅣ'는 모음(이) 모음 제외)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나타나는 형태로 체언의 끝 모음과 결합해 이중모음을 형성한다.

%9-5 비읍건대: 빌건대. 바라옵건대. 비-(←빌-)+-옵-(선어말 어미)+-거-(선어말 어미)+-ㄴ대(연결 어미). 이때 '-옵-'은 15세기의 '-옵-'으로부터 변화된 것으로 본래 '△'은 '빌-'의 'ㄹ'을 탈락시킨 음운론적 조건이었으나 '△'이 소멸한 후에도 '비읍-'의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아마도 '비읍-' 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 듯하다.

%9-6 쳐서: 처서. 봉양해서. 치-[養]+-어서(연결 어미). 현대 국어에서는 '치다'가 가축을 기른다는 뜻으로만 사용되지만, 본래 이 단어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어의 역사에서 어휘의 의미가 축소된 예가 된다.

%9-7 일위징이다: 이르고 싶습니다. 일우+-어징이다(종결 어미). 이때 '-어징이다'는 중세 국어의 '-어지이다'에서 변화된 것으로 이른바 호쇼체체의 상대 높임 등급을 갖는 소망 표현의 종결 어미이다. 참고로 허라체에 해당하는 어미로는 '-어지라'가 있으며, 이들 어미들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어'는 모두 선어말 어미 '-거/어-'에서 기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9-8 좌사간태우: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 이때 '夫'의 음이 '우'로 적힌 것이 특이하다. 조선 시대 중국어 학습인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夫'의 중국음이 '부'로 나타나는 사실을 고려할 때, '夫'의 한자음에서 'ㅂ > ㅍ > 우'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0-1 주인공 명: 재(再)

%10-2 성씨: 길(吉)

%10-3 본관: 해평(海平)

%10-4 지역1: 경상북도

%10-5 지역2: 구미시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정종

%10-8 신분: 문관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홍무(洪武). 중국 명나라 태조 때의 연호(1368~1398). 홍무 기사년은 태조 8년으로 1389년에 해당한다.

길재. 1353(공민왕 2)~1419(세종 1). 고려 말기의 문신.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재보(再父). 호는 아은(治隱)·금오산인(金烏山人). 1386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청주목사록에 임명되었다. 1387년 성균학정이 되고 순유박사를 거쳐 성균박사가 되었다. 창왕, 공양왕 때에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받지 않고 낙향해 있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그의 명성을 들은 세자 이방원이 벼슬을 내렸으나 거절하였다. 이방원은 그 충의를 사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이후에도 벼슬을 하지 않고 성리학을 강해하며 제자를 양성했다.

공정대왕(恭靖大王). 조선 제2대 왕 정종(定宗)의 시호.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로 초명은 방과(芳果), 이름은 경(暉), 자는 광원(光遠)이다. 조선 개국 시 영안군(永安君)으로 봉해졌

고, 병권에 관여하였다. 1차 왕자의 난 후 세자가 되었다. 태조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으나 실권은 이방원에게 있었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하였고, 곧이어 그에게 왕위를 넘기고 상왕으로 머물렀다. 재위 기간은 1398~1400년이다.

봉상박사. 조선 초기 봉상시의 정6품 관직.

신우. 우왕(禑王). 고려의 제32대 왕. 1374년부터 1388년까지 재위했다. 1374년 공민왕이 시해되자 10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궁인 한씨(韓氏)의 소생으로 알려졌으나, 신돈의 시비(侍婢)인 반아(般若)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 혹은 공민왕의 소생이 아닌 신돈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어, 고려 후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들로부터는 '신우'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인임과 최영에게 정치적 실권을 맡긴 채,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이나 연회로 시간을 보냈다 한다. 1388년 요동 정벌을 단행, 군사를 파견하였으나 이성계의 회군으로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이성계를 제거하려했다는 혐의로 죽임을 당했다.

문하주서(門下注書). 고려 후기 문하부의 종7품 관직. 문하부의 문서나 기록을 관장하는 임무를 맡았다.

복호(復戶). 조선 시대에 충신·효자·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

장헌대왕(莊憲大王). 1397~1450. 조선 제4대 왕 세종(世宗)의 시호(諡號). 재위 기간 1418~1450. 태종의 셋째 아들로 1418년 태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집현전을 만들어 젊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각종 의례 및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 및 과학 기술, 음악, 의학 등 각종 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하였다. 특히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민족 문화 번영의 기틀을 닦았다. 국방면에서도 북방 정책으로 영토를 넓히는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좌사간대부. 조선 초기 사간원의 정3품 관직. 좌사간이라고 칭해지기도 했다. 주로 간쟁의 역할을 맡았다.

정문(旌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홍문(紅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정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정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정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0-11 기타

%11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충신6) 6ㄱ-6ㄴ

%1 원계함진(原桂陷陳)

%2 동국삼강행실도(충신6) 6ㄱ

%3 김원계가 적진에 빠지다

%4 1397년 5월에 왜적이 선천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였다. 만호 김원계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니 왜적이 싸움에 패해 포위를 풀고 달아났다. 김원계는 승기를 잡고 적을 쫓아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끝내 왜적에게 죽임을 당했다. 6월에 간관이 임금께 아뢰었다.

“김원계의 공은 죽어서도 또한 썩지 않으니 바라옵건대 관아에서 벼슬을 내리시고 본가에 사당을 세우시며, 자손을 등용하여 충성된 님을 기려서 위로하고 후세 사람들을 격려 하소서.”

임금께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5 홍무 명록 오월의 %5-1에 도적이 선쥬를 도적하야 %5-2뺏겨늘 만호 김원계 군스 거느리고 가 구원하니 예 도적이 싸화 패하야 뽀 거슬 풀고 가거늘 원계 이끄믈 타서 %5-3뽀와 도적 가운데 드라드러 드디여 도적의 해한 배 %5-4되다 녹월의 간관이 상연호디 원계 공이 주거도 썩흔 석디 아니하니 %5-5비옵건대 %5-6마알로 하여금 벼슬을 튜증하시고 %5-7본공에 스당 %5-8세시고 주손을 쓰샤 튜성된 녁슬 %5-9포장하야 위로하샤 뽀 %5-10훈 사름을 위로하쇼셔 하야늘 그리하라 하시디

%6 洪武丁丑五月 倭賊寇宣州 圍之泥城 萬戶金原桂率兵赴援 倭賊戰敗解圍去 原桂乘勝 逐之突入賊中 遂爲賊所害 六月諫官上言 原桂功烈死 且不朽 乞令攸司追贈官爵 且於本處立祠 收錄子孫 獎慰忠魂 以勸後人 教司 %6-1 6ㄴ

%7 홍무정축오월 왜적구선주 위지니성 만호김원계솔병부원 왜적전패해위거 원계승승 축지돌 입적중 수위적소해 룝월간관상언 원계공렬사 차불후 걸령유사추증관작 차어본처립사 수록 자손 장위추훈 이권후인 교가 %7-1 6ㄴ

%8 홍무(洪武) 정축(丁丑) 오월(五月)에 왜 도적이 선주(宣州)를 도적하여 쫓겨늘 만호(萬戶) 김원계(金原桂) 군사 거느리고 가 구원하니 왜 도적이 싸워 패하여 썩 것을 풀고 가거늘 원계(原桂) 이김을 타서 따라 도적 가운데 달려들어 드디여 도적의 해한 바가 되었다. 유월(六月)에 간관(諫官)이 상언(上言)하되 원계(原桂) 공(功)이 죽어도 또한 썩지 아니하니 비옵건대 관아로 하여금 벼슬을 추증(追贈)하시고 본처에 사당 세우시고 자손을 쓰셔 충성된 님을 포장(褒獎)하여 위로하셔 썩 훗 사람을 위로하소서 하거늘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9-1 예: 왜(倭). 일본. '倭:예 와'(훈몽자회 초간본 중, 2b)를 통해 '倭'의 훈과 음이 각각 '예'와 '와'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倭'의 훈과 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9-2 뺏겨늘: 싸고 있거늘. 포위하고 있거늘. ㅁㅁ-(← ㅁㅁ)+-앗-(선어말 어미)+-거늘(연결 어미). 이때 '-앗-'은 진행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ㅁㅁ'는 어두자음군의 변화(ㅁㅁ>ㅁ)와 모음의 변화(·>ㅏ)를 겪어 오늘날 '싸다'가 되었는데, '스다[直]', 'ㅁㅁ[樂]'.

‘뺨다[漉]’ 등으로부터 변화되어 온 여러 ‘짜다’들과 동음이의어 관계를 맺고 있다.

%9-3 **뿔와:** 따라. 뿔오--+어(연결 어미). 현대 국어 ‘따르다’는 ‘뿔오다>뿔로다>뿔오다/짜르다>따르다’의 변화를 겪어 왔다. 의미 면에서는 구체적인 사물을 좇는다는 뜻으로부터 관례, 유행, 명령, 의견 따위를 실행한다는 뜻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9-4 **되다:** 되었다. 되--+다(종결 어미). 이때 ‘되다’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이른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에 쓰인 ‘흐시다’ 역시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

%9-5 **비읍건대:** 빌건대. 바라옵건대. 비-(←빌-)+-옵-(선어말 어미)+-건대(연결 어미). 이때 ‘-옵-’은 15세기의 ‘-습-’으로부터 변화된 것으로 본래 ‘△’은 ‘빌-’의 ‘르’를 탈락시킨 음운론적 조건이었으나 ‘△’이 소멸한 후에도 ‘비읍-’의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아마도 ‘비읍-’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 듯하다.

%9-6 **마을로:** 관아(官衙)로. 마을+로(부사격 조사). 오늘날 국어사전에 등재된 두 개의 ‘마을’ 중, 하나는 15세기의 ‘마을[村]’로부터, 또 다른 하나는 15세기의 ‘마을’로부터 변화되어 이곳의 ‘마을’을 거쳐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9-7 **본곧:** 본처(本處). 본(本)+곧[處]. 이때 본처는 김원계가 전사한 ‘선주(宣州)’를 지칭한다. ‘본곧’은 한자어와 고유어가 합성된 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9-8 **세시고:** 세우시고. 세--+시-(선어말 어미)+-고(연결 어미). ‘세다’는 자동사 ‘셔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여기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번 더 결합해 만들어진 형태가 오늘날의 ‘세우다’이다.

%9-9 **포장하야:** 포장(褒獎)하여. 기러서 장려하여. 포장하-[獎]+-아(연결 어미). ‘포장(褒獎)’은 사람이 어떤 대상을 칭찬하여 장려하는 것을 뜻한다.

%9-10 **훈:** 훈. 후의. 후(後)+ㄷ(←ㅅ, 관형격 조사). 근대 국어에서는 종성의 ‘ㅅ’과 ‘ㄷ’의 표기가 혼기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훈’의 ‘ㄷ’은 종성 ‘ㅅ’이 ‘ㄷ’으로 표기된 것으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10-11 기타

%11

%12 김유범

%10-1 주인공 명: 원계(金原桂)

%10-2 성씨: 김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미상

%10-5 지역2: 미상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태조

%10-8 신분: 무관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흥무: 중국 명나라 태조 때의 연호(1368~1398). 흥무 기사년은 태조 6년으로 1387년에 해당한다.

선주: 현재의 평안북도 선천군.

만호(萬戶): 조선 시대 외침 방어를 맡았던 관직. 본래는 다스리는 호(戶) 수에 따라 불리다가 그와 관계없이 직책명으로 변화하였다. 시기에 따라 품계의 변화가 있었으나 보통 종4품 무관직이었다.

간관(諫官): 조선 시대 사간원과 사헌부에 속하여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百官)의 비행을 규탄하던 벼슬아치.

%0 동국삼강행실도(열녀1) 1ㄱ-1ㄴ

%1 미처담초(彌妻啖草)

%2 동국삼강행실도(열녀1) 1ㄱ

%3 도미의 아내가 풀을 먹다

%4 도미에게는 고운 아내가 있었다. 백제 개루왕이 이를 듣고 신하 하나에게 왕의 옷을 입혀 밤에 그 집에 가서 도미의 아내를 범하려 했는데, 도미의 아내가 그를 속이기 위해 말했다.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물러가 여종을 자신인 것처럼 꾸며 들여보냈다. 왕이 속은 것을 알고 매우 노하여, 도미에게 누명을 씌워 도미의 두 눈을 뽑고 배에 실어 강물에 띄워 보냈다. 그리고는 왕이 도미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려 하니 도미의 아내가 또 말했다.

“오늘은 피할 일이 있으니 다른 날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왕이 허락하였다. 그러자 도미의 아내는 도망가 강어귀에 이르렀는데, 강을 건너지 못하자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이때 갑자기 배 한 척이 다가오니 그 배를 타고 천성도에 이르러 도미를 만났다. 도미와 아내는 풀뿌리를 캐먹으며 함께 고구려로 들어가 객지에서 살다가 죽었다.

%5 도미의 %5-1안해 곱더니 개루왕이 듣고 훈 신하로 히여곰 왕의 오솔 니퍼 밤의 그 지브 니르러 장춘 난허려 허거늘 겨집이 소기되 온 ㄱ라납고 나아 %5-2니겨징이다 하고 물러가 훈 종을 꾸며 드리니 왕이 소긴 주를 알고 노호물 심히 허야 %5-3겨즐 도미를 죄로 써 두 누늘 빼고 비에 두어 물의 띄우고 겨지블 허 구터어 %5-4어루려 커늘 겨지비 또 굴오다 이제 피홀 이리 이시니 청컨대 다른 날을 %5-5기돌워징이다 왕이 %5-6허허다 겨지비 문득 도망허야 강어귀에 니르러 능히 건너디 문허야 %5-7하늘홀 브르지저 우더니 문득 보니 비 니르거늘 타 천성도의 니르러 그 지아비를 만나 죽디 %5-8아년거늘 풀 불휘를 키어 먹고 드되어 더브러 훈가지로 고구려의 니르러 나그네로 주그니라

%6 都彌妻美麗 蓋婁王聞之 使一近臣 假王衣服 夜抵其家 將亂之 婦給以更衣而進 退飾一婢薦之 王知見欺 怒甚 誣都彌以罪 瞞兩眸 置船泛河 遂引婦 強欲淫之 婦又曰 今有所避 請俟他日 王許之 婦便逃至江口 不能渡 呼天慟哭 忽見舟至 乘至泉城島 遇其夫未死 啖喫草根 遂與同至高句麗 終於羈旅 %6-1 1ㄴ

%7 도미처미려 개루왕문지 사일근신 가왕의복 야저기가 장란지 부태이경의이진 퇴식일비천지 왕지견기 노심 무도미이죄학량모 치선범하 수인부 강욕음지 부우왈 금유소피 청사타일 왕허지 부편도지강구 불능도 호천통곡 홀견주지 승지천성도 우기부미사 굴담초근 수여동지 고구려 종어기려 %7-1 1ㄴ

%8 도미(都彌)의 아내 곱더니 개루왕(蓋婁王)이 듣고 한 신하로 하여금 왕의 옷을 입혀 밤에 그 집에 이르러 장차 난(亂)하려 하거늘 계집이 속이되 옷 갈아입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물러가 한 종을 꾸며 들이니 왕이 속인 줄을 알고 노함을 심히 하여 거짓으로 도미를 죄로써 두 눈을 빼고 배에 두어 물에 띄우고 계집을 당겨 강제로 범하려 하거늘 계집이 또 말하되 이제 피할 일이 있으니 청컨대 다른 날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왕이 허(許)

하였다. 계집이 문득 도망하여 강어귀에 이르러 능히 건너지 못하여 하늘을 부르짖어 울더니 문득 보니 배가 이르거늘 타 천성도(泉城島)에 이르러 그 지아비를 만나 죽지 않거늘 풀뿌리를 캐어 먹고 드디어 더불어 한가지로 고구려에 이르러 나그네로 죽으니라.

%9-1 **안해**: 아내. ‘안해’는 ‘안히’와 같은 표기를 거쳐 오늘날 ‘아내’가 되었는데, ‘안해/안히> 아내’의 변화는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된 결과가 단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9-2 **니겨징이다**: 가고 싶습니다. 니--+겨징이다(종결 어미). ‘-겨징이다’는 15세기의 ‘-겨지이다’로부터 변화된 형태로 항상 1인칭 주어와 호응하는 특성을 지니며 상대 높임의 등급에 따라 ‘-겨징이다’(‘ㅎ쇼셔’체)뿐 아니라 ‘-겨지라’(‘하라’체)의 쓰임도 볼 수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어미 구조체이지만, 기원적으로는 여러 어미들이 결합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9-3 **겨즐**: 거짓으로. 이때 ‘겨즐’은 부사적 쓰임을 보여 준다. ‘겨즐’의 ‘ㄷ’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인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4 **어루려**: 범하려. 얼--+우려(연결 어미). “남녀가 교합하다”의 뜻을 지닌 동사는 그 어간이 ‘얼-’뿐만 아니라 ‘어르-’로도 나타나는, 이른바 쌍형 어간의 특성을 보여 준다. 현대 국어의 ‘어른’, ‘어르신’과 같은 단어가 이로부터 만들어졌음도 볼 수 있다.

%9-5 **기돌워징이다**: 기다리고 싶습니다. 기돌우--+어징이다(종결 어미). 현대 국어 ‘기다리다’는 ‘기드리다>기드리다>기다리다’의 변화를 겪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기돌오다/기돌우다>기돌오다/기돌우다>기돌오다/기돌우다’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관련 어휘들도 찾아볼 수 있다.

%9-6 **허허다**: 허(許)하였다. 허허--+다(종결 어미). 이때 ‘허허다’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이른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9-7 **하늘홀**: 하늘을. 하늘ㅎ+올(목적격 조사). ‘하늘’은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하늘히, 하늘흔, 하늘토, 하늘과’ 등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고기, 수캐, 암태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9-8 **아년거늘**: 아니하였거늘. 아니-(←아니ㅎ)-+--얼-(선어말 어미)+--거늘(연결 어미). 이때 ‘아니-’는 ‘아니ㅎ-’에서 ‘ㅎ’가 생략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얼’의 ‘ㄷ’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인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10-1 주인공 명: 미상

%10-2 성씨: 미상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미상

%10-5 지역2: 미상

%10-6 시기: 백제

%10-7 연도: 개루왕(166년)

%10-8 신분: 평민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개루왕. ?~166(개루왕 39). 백제의 제4대 왕. 재위 기간은 128년부터 166년까지이다. 기루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다. 132년 북한산성을 쌓았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신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천성도. 현재의 어느 섬인지 분명치 않다.

%10-11 기타

『동사강목』 제1하, 백제 개루왕 39년 · 초고왕 원년(166년) 기사

백제 왕 개루(蓋婁)가 흉(龔)하고 아들 초고(肖古)가 섰다.

이가 초고왕이다. 이에 앞서 개루왕이 도미(都彌)라는 백성의 아내가 미려하고 절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도미를 불러 이르기를,

“부인이 비록 정결(貞潔)하나, 만약 그윽하고 어두운 사람 없는 곳에서 공교한 말로 유혹하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은 헤아리지 못하겠으나, 신의 아내와 같은 사람은 비록 죽이더라도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도미를 머물러 두고 군신을 시켜 왕이라 사칭하고 밤에 그 집에 이르기를,

“내가 도미와 더불어 너를 걸고 내기를 하여 이겼으니, 너는 마땅히 입궁하여야 한다.”

하고, 장차 난행을 하려 하니, 부인이 옷을 바꿔 입기를 청하고 물러나 계집종을 단장하여 올렸다. 왕이 뒤에 속은 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를 죄로 무함하여 눈을 빼고 바다에 띄워 버린 다음 그 부인을 유인하니, 부인이 속임 말로 대답하였다. 본사(本史)에 이르기를 “부인이 말하기를 ‘지금 남편은 이미 가버리고 첩이 능히 스스로 보전할 수 없으니, 어찌 감히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마침 월경을 있으니, 다른 날을 기다리소서.’ 하였다.”고 하였다. 왕이 이를 허락하니, 부인이 도망하여 강구(江口)에 이르러, 지나가는 배를 만나 천성도(泉城島)에 정박하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함께 고구려 산산(蒜山) 아래로 달아나니 고구려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은 의식을 구걸하며 일생을 마쳤다. 최씨가 말하기를,

“개루는 비록 사기(史記)에 공순하다고 칭하였으나, 반신을 받아들여 이웃 나라와의 화의를 잃고, 작은 백성을 속여서 그 아내를 어지럽혔으니 무엇을 칭도하라?”

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열녀2) 2ㄱ-2ㄴ

%1 최씨분매(崔氏奮罵)

%2 동국삼강행실도(열녀2) 2ㄱ

%3 최씨가 왜적을 꾸짖다

%4 최씨는 영암 선비 최인우의 딸이다. 진천 호장 정만에게 시집갔다. 1379년에 왜적이 진천에 쳐들어와 도둑질을 했는데, (왜적이) 최씨가 젊고 예쁜 것을 보고 칼을 빼어 협박했다. 최씨가 나무를 안고 반항하며 분노하여 왜적을 꾸짖어 말했다.

“어차피 죽기는 마땅가지니 도적에게 더럽혀지고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의롭게 죽겠다.”

이와 같이 꾸짖기를 그치지 않으니 왜적이 최씨를 해하였다. 최씨의 아들 6살배기 정습은 최씨의 주검 곁에서 울부짖었고, 포대기 속의 어린 아이는 기어서 죽은 최씨의 젖을 찾다가 죽은 최씨의 피가 입에 흘러 들어가 따라 죽었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지자 나라에서 열녀문을 세워주고 정습의 아전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5 최씨는 영암 %5-1선비열 사람 인우의 딸이라 진쥬 호당 명만에게 %5-2서방 마장더니 %5-3홍무 을미년의 %5-4에 도적기 진쥬 와 도적홀시 최씨 나히 점고 주식이 인더니 도적기 최씨를 만나 %5-5놀홀 %5-6싸여 %5-7험턱험대 최씨 %5-8남글 안고 %5-9벼오리 알고 분로하여 꾸지저 ㄱ로디 죽기는 험가지니 %5-10도적기 더러이고 배 %5-11살뜨른 출히 의에 죽굴 거시라 호고 꾸진기를 이벽 그치디 아니하니 도적이 드디여 %5-12해하 다 아들 습이 여섯 살 머거서 주검 거터 울고 %5-13브르지지고 %5-14기시 아히는 오히려 %5-15업더여 %5-16절죄 나아가니 피 흘러 이벽 드더니 %5-17미조차 또 주그나라 이리 %5-18들리오니 명하야 정문호고 습이를 아전 %5-19구이를 덜라 하시다

%6 崔氏 靈巖士人仁祐女也 適晉州戶長鄭滿 洪武乙未 倭賊寇晉 崔年少有姿色 賊遇崔露刃以脅 崔抱樹而拒 奮罵曰 死等爾 汚賊以生 無寧死義 罵不絕口 賊遂害之 子習甫六歲 啼號屍側 襁褓兒猶匍匐就乳 血淋漓入口 尋亦斃焉 事聞命旌門 蠲習吏役 %6-1 2ㄴ

%7 최씨 영암사인인우녀야 적진주호장정만 홍무을미 왜적구진 최년소유자색 적우최로인이협 최포수이거 분매말 사등이 오적이생 무녕사의 매부절구 적수해지 자습보록세 제호시즉 강보아유포복취유 혈림리입구 심역폐연 사문명정문 견습리역 %7-1 2ㄴ

%8 최씨는 영암(靈巖) 선비인 사람 인우(仁祐)의 딸이다. 진주(晉州)의 호장(戶長) 정만(鄭滿)에게 서방 맞았더니 홍무(洪武) 을미년(乙未年)에 왜(倭) 도적이 진주에 와 도적하므로 최씨 나이 젊고 자색(姿色)이 있더니 도적이 최씨를 만나 날을 빼어 협박한대 최씨 나무를 안고 거스르고 분노하여 꾸짖어 말하되 죽기는 한가지니 도적에게 더럽혀지고 배(倍) 사느니 차라리 의(義)에 죽을 것이다 하고 꾸짖기를 입에 그치지 아니하니 도적이 드디어 해하였다. 아들 습(習)이 여섯 살 먹어서 주검 곁에 울고 부르짖고 포대기의 아이는 오히려 었드려 젖에 나아가니 피 흘러 입에 들더니 따라 또 죽었다. 일이 들리니 명하여 정문하고 습이를 아전 구실을 덜라 하셨다.

%9-1 선비열: 선비인. 선비에 있는. 선비에 속하는. 선비+여(부사격 조사)+스(관형격 조사).

‘선비연’의 ‘연’은 본래 ‘옛’ 형태에서 온 것으로 ‘예’가 ‘여’로 표기된 것이 특이하다. 종성 ‘ㅅ’이 ‘ㄷ’으로 표기된 것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2 **서방 마잘더니**: 서방 맛았더니. 시집갔더니. 서방#맛--안-(선어말 어미)--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이때 ‘-안-’의 ‘ㄷ’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인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3 **홍무 을미년**: 홍무(洪武) 을미년(乙未年). 언해문의 ‘홍무 을미년’과 한문 원문의 ‘洪武 乙未’는 각각 ‘홍무 기미년’과 ‘洪武己未’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세종 대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에는 ‘洪武己未’로 되어 있고, 홍무 연간[1년(戊申, 1368)~31년(戊寅, 1398)]에 ‘乙未’가 없음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9-4 **예**: 왜(倭). 일본. ‘倭:예 와’(훈몽자회 초간본 중:2b)를 통해 ‘倭’의 훈과 음이 각각 ‘예’와 ‘와’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倭’의 훈과 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9-5 **눌홀**: 날을. 눌홀+을(목적격 조사). ‘눌’은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눌히, 눌홀’ 등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개, 암태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9-6 **빼어**: 빼어. 빼어--어(연결 어미). 현대 국어 ‘빼다’는 15세기의 ‘싸히다, 싸히다, 빼히다’ 등으로부터 변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9-7 **협탁한대**: 협박한대. 협박하니. 협탁ㅎ--ㄷ(연결 어미). ‘협탁ㅎ다’는 주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만 나타나는 단어로 보인다. 이때 ‘협탁’이 의미상 한자어 ‘협박’에 대응됨은 알 수 있으나, 형태로 보아 한자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정확한 정체를 알기는 어렵다.

9-8 **남글**: 나무를. 남+을(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의 ‘나무’는 본래 ‘나모’와 ‘남’의 두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단독형이나 자음 및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될 때는 ‘나모’ 형태가, 그 밖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될 때는 ‘남’ 형태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9-9 **벼오리왈고**: 거스르고. 벼오리왈--고(연결 어미). ‘벼오리왈다/병오리왈다’는 자동사 ‘벼을다/병을다’에 사동 접미사 ‘-이-’에 의해 형성된 자동사 ‘병오리다’의 어간에, ‘-왈-’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타동사이다. “마구 벌리다, 거스르다, 멀리하다, 떠나다” 등 그 의미가 다양하게 파악되는데, 이들은 추상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연관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10 **도적괴**: 도적에게. 도적+의(부사격 조사). 이때 부사격 조사 ‘의’가 “에게”의 의미를 지닌 점이 특이하다. ‘도적괴’는 ‘적’의 종성 ‘ㄱ’이 다음 음절에 한 번 더 표기된 이른바 중철 표기를 보여 준다.

9-11 **살므론**: 삶보다. 사는 것보다. 사느니. 살--ㄹ(명사형 어미)+으론(부사격 조사). ‘으론’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로서 15세기에는 ‘으록’, ‘으롯’과 같은 조사들도 이러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였던 것을 볼 수 있다.

9-12 **해ㅎ다**: 해하였다. 해(害)ㅎ--ㄷ(종결 어미). 이때 ‘해ㅎ다’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이른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에 쓰인 ‘ㅎ시다’ 역시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

9-13 **브르지지도**: 부르짖고. 브르지지--고(연결 어미). 현대 국어 ‘부르짖다’의 옛말인 ‘브르지지도’는 동사 ‘브르-’와 ‘지지도-’가 연결 어미 없이 어간끼리 결합한 비통사격 합성어

이다.

9-14 **기시**: 갖에. 포대기에. 갖+이(부사격 조사). ‘기’는 “보금자리”, “소굴”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며, 현대 국어 ‘기들다’의 ‘기’이 이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9-15 **업더여**: 업드려. 업더이--어(연결 어미). 15세기에는 ‘업데다, 업더이다, 업더리다’ 등과 같은 어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현대 국어 ‘업드리다’는 이들로부터 변화되어 왔다.

9-16 **절죄**: 젖에. 젖+의(부사격 조사). ‘절죄’는 이른바 중철 표기에 해당하며 ‘절’의 ‘ㄷ’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인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17 **미조차**: 따라. 미 좇--어(연결 어미). “(~의 뒤를 따르다”의 의미를 지닌 ‘미 좇다’의 ‘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한자 ‘尾’나 ‘蜜’, 또는 용언 어간 ‘밧-, 밧-, 밧-’ 등과 관련해 이해해 보려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9-18 **들리오니**: 들리니. 들리--오-(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이때 선어말 어미 ‘-오-’는 이른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이 ‘술>오>오’의 변화를 겪어 만들어진 형태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이 임금께 들리는 상황에서 생략된 객체인 임금을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오-’가 쓰였다.

9-19 **구이**: 역할. 구실. 임무. ‘구이’는 15세기 ‘구’에서 변화한 것으로 본래 ‘관아(官衙)’를 뜻하는 말이었다. 이곳의 ‘구이’는 그 자체로 15세기 ‘그위실’로부터 변화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15세기의 언해본 『삼강행실도』에는 ‘鄭翺의 그위실 덜라 하시니라’(삼강행실도 열녀, 31b)와 같이 ‘구이’에 해당하는 말이 ‘그위실’로 나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위실’은 ‘그위실>구위실/구위실>구실’의 형태 변화를 겪어 왔고 의미 또한 “벼슬”에서 “역할, 임무” 등으로 추상화된 변화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0-1 주인공 명: 미상

10-2 성씨: 최(崔)

10-3 본관: 영암(靈巖)

10-4 지역1: 충청북도

10-5 지역2: 진천군

10-6 시기: 고려

10-7 연도: 우왕(1379년)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영암(靈巖). 전라남도 영암군 동남쪽에 있는 읍. 비옥한 해안 평야에 접하여 농산물이 풍부하며 월출산 아래에 있는 마애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이 유명하다.

진주. 충청북도 진천 지역의 옛 지명.

호장(戶長). 호정이라고도 한다. 지방 고을의 실무 행정을 맡아보던 향리들 중의 우두머리를 일컫는다. 고려 시대에는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않았으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도맡아 집행했다. 대체로 세습되었으며 혼사 또한 이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자손에게는 교육의 기회와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중앙 관료 진출에도 제약을 없었다.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 신층 세력이 되기도 하였다.

홍무. 중국 명나라 태조 때의 연호(1368~1398).

정문(旌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살(緯楔), 홍문(紅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정문을 세우는 일

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정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정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0-11 기타

『동문선』 제101권, [열부최씨전(烈婦崔氏傳)]

열부(烈婦)의 성은 최씨(崔氏)요, 이름은 아무다. 전라도 영광군(靈光郡) 사람으로 진주(晉州)에 옮겨가서 살았는데, 어느 세대부터인지는 알 수 없다. 도염서승(都染署丞)인 인우(仁祐)의 딸이요, 진주의 호장(戶長)인 정만(鄭滿)의 아내다. 아들과 딸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아직 갓난아이로 있을 때인데, 기미년 8월에 왜적이 진주를 함몰하여 성중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버리고 아무도 방어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에 만(滿)은 아전의 사무로 인하여 서울에 가 있었다. 적이 최씨가 사는 마을에 들어닥쳤는데 열부는 나이가 바야흐로 33세였고, 또한 얼굴이 잘생겼다. 그 아들과 딸들을 업고 안고 이끌고 산 속으로 달아나서 피했더니 적들은 사방으로 물려와서 약탈하다가 열부를 보고는 칼로 위협하여 끌고 가려하였다. 열부는 나무를 끌어안고 그들에 항거하며 적을 꾸짖기를, “죽기는 마찬가지다. 적에게 더럽힘을 당하고 죽기보다는 차라리 의를 지키며 죽겠다.” 하고, 꾸짖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적은 칼로 밀쳐서 그를 관통시키어 드디어 나무 밑에서 죽었다. 적은 10살되는 딸과 8살 되는 아들을 사로잡아 물러갔다. 홀로 남아있는 습(習)은 겨우 6살이었다. 시체 곁에 있던 갓난아이는 아직도 젖을 빨고 있는데, 피가 가득히 입으로 넘어 가더니 또한 죽고 말았다. 그 집의 종들이 흩어나갔다가 다시 모여들어서 시체를 가져다가 임시로 빈소를 설치하고 만(滿)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기사년에 이르러 도관찰사(道觀察使)인 장하(張夏)가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 마을 문에 정표하고 아들 습(習)에게 시골에서 아전 노릇하는 의무를 면제하였다.

사신(史臣)은 이르기를, “대개 사람의 마음이 극도에 이르면 세상의 사변이 그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을 만나면 비록 열렬한 장부일지라도 죽고 사는 것을 결단하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일개의 부인이겠는가. 적의 잔인스러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적에게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정의감이 마음 속에 복받쳐서 생명보다 중히 여겼기 때문이었다. 지금 강성(江城)은 절의를 지키다가 죽은 땅이다. 산도 슬퍼하며 구름도 참담하고 물소리도 흐느끼며 흐른다. 지금에 지나는 길손도 머리털이 쭈뼛하며 일어서는구나. 아, 장렬하여라.” 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1 언해문의 ‘홍무 을미년’과 한문 원문의 ‘洪武乙未’는 각각 ‘홍무 기미년’과 ‘洪武己未’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세종대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에는 ‘洪武己未’로 되어 있고, 홍무 연간[1년(戊申, 1368)~31년(戊寅, 1398)]에 ‘乙未’가 없기 때문이다.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열녀3) 37-3L

%1 열부입강(烈婦入江)

%2 동국삼강행실도(열녀3) 37

%3 열부가 강에 뛰어들다

%4 열부는 경산 사람으로 진사 배중선의 딸이다. 이동교에게 시집갔는데, 1380년에 왜적이 경산에 쳐들어 와 열부가 사는 마을에 들어닥쳤다. 열부가 젓먹이를 안고 달아나니 왜적이 따라와 강가에 다다랐다. 열부는 (왜적에게) 벗어나지 못할 것을 깨닫고는 젓먹이를 언덕 위에 놓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이에 왜적이 열부에게 화살을 겨누고 말했다.

“네가 돌아오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열부가 돌아보고 왜적을 꾸짖으며 말했다.

“왜 나를 빨리 죽이지 않느냐? 내가 어찌 도적에게 몸을 더럽히리오?”

도적이 화살을 쏘아 열부의 어깨를 맞히고 연거푸 두 번을 더 쏘아 맞히니 열부가 강 가운데서 죽었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지자 나라에서 열부를 위해 열녀문을 세워 주었다.

%5 열부는 경산 사람이니 진사 비등선의 딸이라 스족 니동교에게 서방 마자 %5-1갈더니 홍무 경신년 %5-2에 %5-3도적이 경산의 뽕밭하여 열부의 사는 %5-4모오히 드라드니 열부 절 먹는 주식글 안고 드라나니 도적이 %5-5뽕와 강의 미츄니 열부 능히 버서나디 물홀 주홀 헤아리고 절 먹는 주식글 두던 우히 노코 강의 %5-6드라드네 도적이 활 혀 살 먹여 %5-7견힐 7로디 네 오면 네 죽기를 면히리라 열부 도라보고 도적글 쑤지저 7로디 언디 나를 %5-8수이 주기디 아니하느뇨 내 언디 도적에게 %5-9더러이리오 도적이 살을 발하여 %5-10연계를 마치고 두 번 발하여 두 번 마치니 드되여 강 가운데 %5-11 죽다 이리 %5-12드리오매 정문하니라

%6 烈婦 京山人 進士襄中善女也 適士族李東郊 洪武庚申 倭賊逼京山 突入烈婦所居里 烈婦抱乳子走 賊追之及江 烈婦度不能脫 置乳子岸上 走入江 賊持滿注矢擬之曰 而來免而死 烈婦顧見罵賊曰 何不速殺我 我豈汚賊者耶 賊發矢中肩 再發再中 遂歿於江中 事聞旌閭 %6-1 3L

%7 열부 경산인 진사배중선녀야 적사족리등교 홍무경신 왜적뽕경산 돌입열부소거리 열부포유자주 적추지급강 열부도불능탈 치유자안상 주입강 적지만주시의지랄 이래면이사 열부고견매적랄 하불속살아 아기오적자야 적발시중견 재발재중 수물어강중 사문정려 %7-1 3L

%8 열부(烈婦)는 경산(京山) 사람이니 진사(進士) 배중선(裴中善)의 딸이다. 사족(士族) 이동교(李東郊)에게 서방 맞아 갔더니 홍무(洪武) 경신년(庚申年)에 왜(倭) 도적이 경산에 뽕밭하여 열부의 사는 마을에 달려드니 열부가 젓 먹는 자식을 안고 달아나니 도적이 따라와 강에 미치니 열부가 능히 벗어나지 못할 줄을 헤아리고 젓 먹는 자식을 언덕 위에 놓고 강에 달려드네 도적이 활 당겨 살 먹여 겨우 이르되 내가 오면 네가 죽기를 면히리라. 열부가 돌아보고 도적을 꾸짖어 이르되 어찌 나를 쉬이 죽이지 아니하느냐. 내 어찌 도적에게 (내 몸을) 더럽히리오. 도적이 살을 발하여 어깨를 맞히고 두 번 발하여 두 번 맞히니 드디어 강 가운데 죽었다. 일이 들림에 정문(旌門)하니라.

%9-1 **갸더니**: 갸더니. 가--+알-(선어말 어미)+-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갸’에서 종성 ‘ㅅ’이 ‘ㄷ’으로 표기된 것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2 **예**: 왜(倭). 일본. ‘倭:예 와’(훈몽자회 초간본 중:2b)를 통해 ‘倭’의 훈과 음이 각각 ‘예’와 ‘와’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倭’의 훈과 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9-3 **도적기**: 도적이. 도적+이(주격 조사). ‘도적기’는 ‘적’의 종성 ‘ㄱ’이 다음 음절에 한 번 더 표기된 이른바 중철 표기를 보여 준다. 이 이야기에서는 ‘도적기’뿐 아니라 ‘도적글’, ‘도적기계’에서도 이러한 중철 표기를 찾아 볼 수 있다.

%9-4 **무올히**: 마을에. 무올ㅎ+이(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 ‘마을’은 ‘무솔ㅎ>무올>마을’의 변화를 겪어 왔다.

%9-5 **뿔와**: 따라와. 뿔오--+아(연결 어미). 현대 국어 ‘따르다’는 ‘뿔오다>뿔로다>뿔오다/따르다>따르다’의 표기 및 형태 변화를 겪어 왔다.

%9-6 **드라든대**: 달려든대. 드라드-(←드라들-)+-ㄷ대(연결 어미). ‘드라들다’는 ‘들다’와 ‘들다’가 연결 어미 ‘-아’를 매개로 결합된 이른바 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 과정에서 ‘ㄷ’불규칙 용언인 ‘들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그 어간 형태가 ‘들-’로 교체되었다. ‘드라들다’의 어간 형태가 ‘드라드-’로 나타나는 것은 이른바 ‘르’ 탈락 현상의 결과이다. 이 현상은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경계 앞의 ‘르’이 경계 뒤의 치경 자음들(ㄴ, ㄷ, ㅅ 등)에 의해 탈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9-7 **견훤**: 겨늬. 견후--+어(연결 어미). 현대 국어 ‘겨누다’는 ‘견후다/견호다>겨누다’의 변화를 겪어 왔다.

%9-8 **쉬이**: 쉬이. 현대 국어 ‘쉬이’는 ‘쉬빅/수빅>쉬이/수이>쉬이’의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서 보이는 ‘쉬빅’과 ‘수빅’의 관계 및 ‘쉬이/수이’에서의 ‘ㅃ’ 탈락 문제가 완전하게 이해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9-9 **더러이리오**: 더럽히리오. 더러이--+리오(종결 어미). 이때 ‘더러이다’는 ‘더러비다’로부터 변화되어 온 것으로 이는 형용사 어간 ‘더럽-’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타동사이다. ‘내 언디 도적기계 더러이리오’에서는 ‘더러이리오’의 목적어(아마도 ‘내 몸’ 정도)가 생략된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9-10 **연게를**: 어깨를. 연게+를(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 ‘어깨’는 ‘엇게>억게/억개>어깨’의 변화를 겪어 왔다. ‘연게’에서 종성 ‘ㅅ’이 ‘ㄷ’으로 표기된 것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11 **죽다**: 죽었다. 죽--+다(종결 어미). 이때 ‘죽다’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이른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9-12 **드리오매**: 들림에. 드리--+음(명사형 어미)+애(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 ‘들리다’는 ‘들다’의 피동사로 ‘들이다>들리다’의 변화를 겪어 왔음을 볼 때, 이곳의 ‘드리다’는 좀 특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배(裵)
- %10-3 본관: 경산(京山)
- %10-4 지역1: 경상북도
- %10-5 지역2: 경산시

%10-6 시기: 고려

%10-7 연도: 우왕(1380년)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진사.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의 칭호. 진사시에 합격하면 백패를 주고 생원과 마찬가지로 성균관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다. 중앙 정계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 유지로 행세하였다.

홍무. 중국 명나라 태조 때의 연호(1368~1398). 홍무 경신년은 1380년에 해당한다.

정문(旌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살(緯楔), 홍문(紅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정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정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부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정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0-11 기타

『**동문선**』 제101권, [배열부전].

열부의 성은 배씨(裴氏)요, 이름은 아무인데 경산(京山) 사람이다. 아버지는 전의 진사인 중선(中善)이다. 15세가 지나서 사촌인 이동교(李東郊)에게 출가하여 가정의 일을 잘 돌보았다. 경신년 가을 7월에, 왜적이 경산에 다가와서 온 고을에 분탕질을 하는데도 감히 막아내는 자가 없었다. 이때에 동교는 합포(合浦)에 있는 원수(元帥)의 막하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적은 열부가 사는 마을에 왔다. 열부가 짓먹이 아들을 안고 달아나니 적은 그를 쫓아 강에 이르렀다. 강물이 한창 불어오르는 판이어서 열부는 화를 면하지 못할 줄을 짐작하고 짓먹이 아이를 강둑에 놓아두고 강으로 뛰어 들어갔다. 적은 활에 화살을 매워서 잔뜩 당기어 그를 겨누면서 말하기를, “네가 오면 너의 죽음을 면할 것이다.” 하였다. 열부는 적을 돌아보며 꾸짖기를, “어찌하여 나를 빨리 죽이지 않느냐. 내가 어찌 너에게 더럽힘을 당할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하였다. 적은 화살을 쏘아 어깨를 겨냥하고 두 번 쏘아서 두 번 맞혀 드디어 강물 속에 빠져 죽었다. 적이 물러간 뒤에 집안 사람이 그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를 치렀다. 체복사(體覆使) 조공(趙公) 준(浚)이 그 사실을 나라에 보고하여 그 동리의 문에 정표하였다 한다. 도은자(陶隱子)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보통 신하가 되어서는 신하의 도리를 극진히 하며, 아들이 되어서는 아들의 도리를 극진히 하며, 아내가 되어서는 아내의 도리를 극진히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큰 일을 당해서는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배씨는 일개의 부인으로서 그가 죽음을 보기를 당연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였고, 적을 꾸짖는 말은 비록 옛날의 충신 열사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할 수가 없다.” 하였다. 내가 일찍이 남쪽 지방을 다니다가 소야강(所野江)을 지났는데, 이것이 곧 열부가 절조를 위하여 죽은 곳이었다. 여울물은 슬퍼 흐느끼고 숲의 나무도 쓸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끝이 쭈뼛하게 하였다. 아, 장렬하여라.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열녀4) 4ㄱ-4ㄴ

%1 임씨단족(林氏斷足)

%2 동국삼강행실도(열녀4) 4ㄱ

%3 임씨가 발이 잘리다

%4 임씨는 순천 군사 최극부의 아내이다. 왜적이 침략하여 임씨가 왜적에게 잡혔다. 왜적이 부인을 범하려 하자 굳게 저항했다. 왜적이 부인의 한쪽 팔을 베고 또 한쪽 발을 베어도 끝내 저항하니 부인을 죽였다.

%5 림씨는 %5-1락안군씨 %5-2최극부의 겨지비러니 %5-3예 %5-4드리터 %5-5오나늘 자피여 %5-6어루러 커늘 %5-7긋 %5-8거스대 혼 %5-9볼 버히고 쏘 혼 발 %5-10버휴디 %5-11손지 든디 아니커늘 주기니라

%6 林氏 完山府儒士柅之女也 適知樂安郡事崔克孚 倭寇本府 林被執 賊欲汚之 林固拒 賊斷一臂 又斷一足 猶不屈 被害 %6-1 4ㄴ

%7 림씨 완산부유사거지녀야 적지락안군사최극부 왜구본부 림피집 적옥오지 림고거 적단일비 우단일족 유부굴 피해 %7-1 4ㄴ

%8 임씨(林氏)는 낙안군사(樂安郡事) 최극부(崔克孚)의 계집이더니 왜가 들이쳐 오거늘 잡히어 범하려 하거늘 굳이 거스른대 한 팔 베고 또 한 발 베되 오히려 듣지 아니하거늘 죽이니라.

- %9-1 **락안군씨**: 낙안군사(樂安郡事). ‘事’의 한자음이 ‘쓰’인 점이 특이하다.
- %9-2 **최극부**: 최극부(崔克孚). ‘克’의 한자음이 ‘크’인 점이 특이하다.
- %9-3 **예**: 왜(倭). ‘倭:예 와’(훈몽자회 초간본 중:2b)를 통해 ‘倭’의 훈과 음이 각각 ‘예’와 ‘와’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倭’의 훈과 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 %9-4 **드리터**: 들이쳐. 드리터+-어(연결 어미). ‘드리터다’에서 ‘-터-’는 이른바 강세 접미사로 동사 어간 ‘드리-’에 붙어 동사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 %9-5 **오나늘**: 오거늘. 오+-나늘(연결 어미). ‘-나늘’은 동사 ‘오다’와만 결합되어 쓰이는 특수한 제약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거늘, -어늘’과 같은 형태의 어미들이 사용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모두 ‘-거늘’ 하나로 통일되어 쓰이고 있다.
- %9-6 **어루러**: 범하려. 얼+-우러(연결 어미). “남녀가 교합하다”의 뜻을 지닌 동사는 그 어간이 ‘얼-’뿐만 아니라 ‘어르-’로도 나타나는, 이른바 쌍형 어간의 특성을 보여 준다. 현대 국어의 ‘어른’, ‘어르신’과 같은 단어들이 이로부터 만들어졌음도 볼 수 있다.
- %9-7 **긋**: 굳이. 이때 ‘긋’은 “꼭, 딱, 굳이”의 뜻을 지닌 15세기의 ‘긋’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형태가 ‘긋’으로 나타난 것은 ‘굳다’의 어간에 이끌린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굳다’의 어간에서 온 어간형 부사 ‘굳’은 찾아 볼 수 없다.
- %9-8 **거스대**: 거스른대. 거스-(←거슬-)+-ㄴ대(연결 어미). 현대 국어의 ‘거스르다’는 15세기에 ‘거스르다’뿐 아니라 ‘거스리다. 거슬다’로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거슬다’의 어간 형태가 ‘거스-’로 나타나는 것은 이른바 ‘르’ 탈락 현상의 결과이다. 이 현상은 형태

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경계 앞의 ‘르’이 경계 뒤의 치경 자음들(ㄴ, ㄷ, ㅅ 등)에 의해 탈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9-9 **볼**: 팔. 당시 “팔”을 뜻하는 ‘볼’과 “발”을 뜻하는 ‘발’이 각각 모음 ‘·’와 ‘ㅏ’의 대립을 이루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볼’은 ‘불히, 불홀’와 같이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9-10 **버휴디**: 베되. 버히+-우디(연결 어미). 현대 국어의 ‘베다’는 ‘버히다>베히다>베다’의 어형 변화를 보여 준다.

%9-11 **손지**: 오히려. ‘손지’는 “아직도”, “이내” 등과 같은 뜻으로도 쓰였다. 부사 ‘오히려’ 역시 15세기 문헌 이후로 줄곧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임(林)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전라남도
- %10-5 지역2: 순천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미상
- %10-8 신분: 미상
- %10-9 성별: 여
- %10-10 역사 사건:

낙안. 전라남도 순천 지역의 옛 지명.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태조 4년(1395년) 4월 27일(경인) 세 번째 기사.

완산(完山)의 절부(節婦) 임씨(林氏)의 정문(旌門)을 세웠다. 임씨는 완산 사람 최극부(崔克孚)의 아내며, 대빙재(待聘齋)의 학생 임거(林柅)의 딸이다. 왜구에게 붙들리어 욕을 보이며 하매, 듣지 아니하여 왜구가 한쪽 팔을 베어내고 또 한쪽 다리를 떼어내어도 듣지 않으므로, 왜구가 질러 죽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열녀5) 5ㄱ-5ㄴ

%1 김씨박호(金氏撲虎)

%2 동국삼강행실도(열녀5) 5ㄱ

%3 김씨가 호랑이를 때리다

%4 김씨는 안동 사람으로 산원 유천계에게 시집갔는데, 밤에 호랑이가 남편을 물고 달아났다. 김씨가 나무 활을 잡고 외치면서, 호랑이의 앞에 가서 왼손으로는 남편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호랑이를 때리며 따라갔다. 거의 욕심 보에 이르러서야 호랑이가 남편을 놓아 주었다. 김씨가 호랑이를 꾸짖었다.

“네가 이미 내 지아비를 잡고 나 또한 물려고 하느냐?”

이에 호랑이가 떠났다. 김씨가 기절한 남편을 업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이 깨어났다. 그날 밤에 호랑이가 또 찾아와 크게 포효하거늘 김씨가 문을 열고 막대를 든 채 호랑이에게 말했다.

“너 또한 영물이거늘 어찌 이리 심하게 구느냐?”

호랑이가 집 주위의 배나무를 물어뜯고 갔는데 나무가 시들었다.

%5 김씨는 안동 사람이니 산원 %5-1유천계에게 서방 마자 %5-2갸더니 턴계 바미 범의계 %5-3더원 배 되여늘 김시 나모활을 잡고 브루지져 %5-4아피 가 원소노로 지아비를 잡고 울호소노로 범을 터 거의 늑십 보의 니르러 범이 브리고 그쳐늘 김시 ㄱ로디 네 이의 내 지애비를 더위고 날조차 모로려 후느냐 범이 이에 %5-5나가다 지아비 괴절하여늘 김시 어버 지브 도라가니 %5-6새배 지아비 도로 %5-7사다 그 밤의 범이 쏘 니르러 %5-8크기 %5-9우르거늘 김시 쏘 문을 열고 막대를 메고 범드러 니로디 네 쏘흔 녀흔 증승이 니 언디 이러트시 심히 후느냐 범이 집 겨터 %5-10비남글 %5-11너흘고 가니 남기 %5-12이우니라

%6 金氏安東人 適散員俞天桂 天桂夜爲虎所攫 金把木弓 叫呼而前 左手執夫 右手撲虎 幾至六十步 許虎委之而止 金曰 爾旣攫我夫 欲并取我耶 虎乃去 夫氣絕 金負而歸家 黎明夫甦 其夜虎又至大吼 金又開門荷杖語虎曰 爾亦含靈之物 何若是之甚乎 虎嚙舍傍梨樹而去 樹乃枯 %6-1 5ㄴ

%7 김씨안동인 적산원유천계 천계야위호소확 김파목궁 규호이전 좌수집부 우수박호 기지록십 보허 호위지이지 김활 이기확아부 욕병취야야 호내거 부기절 김부이귀가 려명부소 기야호 우지대후 김우개문하장어호활 이역함령지물 하약시지심호 호교사방리수이거 수내고 %7-1 5ㄴ

%8 김씨는 안동(安東) 사람이니 산원(散員) 유천계(俞天桂)에게 서방 맞아 갔더니 천계가 밤에 범에게 움킨 바가 되거늘 김씨가 나무활을 잡고 부르짖어 앞에 가 왼손으로 지아비를 잡고 오른손으로 범을 쳐 거의 욕심 보에 이르러 범이 버리고 그치거늘 김씨 말하되 네 이 미 내 지아비를 움키고 나조차 물려 하느냐. 범이 이에 나갔다. 지아비 기절하거늘 김씨 업어 집에 돌아가니 새벽에 지아비 도로 살았다. 그 밤에 범이 또 이르러 크게 소리치거늘 김씨 또 문을 열고 막대를 메고 범에게 이르되 네 또한 영(靈)한 짐승이니 어찌 이렇듯 심히 하느냐. 범이 집 곁의 배나무를 널고 가니 나무가 이우니라.

%9-1 유턴계의계: 유천계(俞天桂)에게. 유턴계+의계(부사격 조사). 이때 '의계'는 '의그에'에서 변화된 형태로서 관형격 조사 '의'와 지시 및 장소와 관련된 체언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복합 요소이다. 초성 'ㅇ'의 탈락으로 '의그에>의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9-2 갸더니: 갔더니. 가-+-알-(선어말 어미)+-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알'의 'ㄷ'은 종성 'ㅅ'과 'ㄷ'의 혼기 상황에서 나타난 표기라고 이해되는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ㅅ → ㄷ' 방향의 표기가 일반적이다.

%9-3 더원: 움킨. 잡은. 더위-+-ㄴ(관형사형 어미). “움켜잡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더위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끌어 잡다”의 의미를 지닌 ‘더위잡다’에 그 모습을 남기고 있다.

%9-4 아피: 앞에. 앞+이(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 ‘앞’은 ‘앞’이 그 본래 형태인데, 이 자료는 ‘앞>앞’의 형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9-5 나가다: 나갔다. 이때 ‘나가다’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이른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에서 이후에 쓰인 ‘사다’, ‘이우니라’ 역시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

%9-6 새배: 새벽에. ‘새배’ 외에 ‘새박, 새배, 새비’ 등 다양한 형태들을 찾아볼 수 있다. ‘새배’가 ‘새바기[새박+이(부사격 조사)]에서 ‘ㄱ’가 탈락해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새배’의 경우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 예가 보이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새벽에”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도 특이하다.

%9-7 사다: 살았다. 사-(←살-)+-다(종결 어미). 이때 ‘살다’의 어간 형태가 ‘사-’로 나타나는 것은 이른바 ‘ㄹ’ 탈락 현상의 결과이다. 이 현상은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경계 앞의 ‘ㄹ’이 경계 뒤의 치경 자음들(ㄴ, ㄷ, ㅅ 등)에 의해 탈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사다’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이른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9-8 크기: 크게. ‘크기’는 ‘크다’의 부사형 ‘크기’에서 ‘기’가 ‘기’로 단모음화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9-9 우르거늘: 소리치거늘. 포효하거늘. 우르-+-거늘(관형사형 어미). 동사 ‘우르다’는 본래 어간 형태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우르-’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울-’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녔었다.

%9-10 비남글: 배나무를. 비남+을(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의 ‘나무’는 본래 ‘나모’와 ‘남’의 두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단독형이나 자음 및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나모’ 형태가, 그 밖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남’ 형태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남글’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과 ‘남’ 형태가 결합된 어형이다.

%9-11 너흘고: 널고. 깨물고. 너흘-+-고(연결 어미). ‘너흘다>널다’의 어형 변화를 볼 수 있다.

%9-12 이우니라: 이울었다. 시들었다. 이우-(←이울-)+-니라(종결 어미). 이때 ‘이울다’의 어간 형태가 ‘이우-’로 나타나는 것은 이른바 ‘ㄹ’ 탈락 현상의 결과로 이 현상은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경계 앞의 ‘ㄹ’이 경계 뒤의 치경 자음들(ㄴ, ㄷ, ㅅ, ㅈ 등)에 의해 탈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우니라’가 과거 시제를 갖는 것과 관련해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이른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김(金)
- %10-3 본관: 안동(安東)
- %10-4 지역1: 경상북도
- %10-5 지역2: 안동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미상
- %10-8 신분: 미상
- %10-9 성별: 여
- %10-10 역사 사건:

산원. 조선 시대에, 의흥친군위의 심위에 속한 정팔품의 무관 벼슬.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태종 3년(1413년) 2월 7일(병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안동(安東) 사람 전 산원(散員) 유천계(兪天桂)의 처 김씨(金氏)는 신사년에 나이가 38세 였는데, 유천계가 진(鎭)으로 나아가게 되어 그 처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길진(吉辰)이니 내 문밖에 나가서 자려고 하오.’하므로, 그 처도 말하기를 ‘나도 나가서 자겠습니다.’하고, 드디어 입실(入室)하여 후량(餼糧)을 준비하니 밤은 이미 자정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누가 놀라서 부르짖는 소리에 노비들이 모두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김씨가 홀로 나가니 호랑이가 남편을 잡아가므로 김씨는 남편의 목궁(木弓)을 들고 소리치며 뒤쫓아 따라갔습니다. 왼손으로 남편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호랑이를 때리며 거의 60보(步)나 가니, 호랑이가 남편을 버리고 우뚝 섰습니다. 김씨가 말하기를, ‘너는 내 남편을 잡고 나가 지 잡아 가려 하느냐?’하자, 호랑이는 곧 가버리고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시체를 안고 돌아오니, 날이 샬 무렵에야 남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튿날 밤 호랑이가 와서 크게 울므로 김씨가 또 문을 열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말하기를, ‘너도 천성이 있는 동물인데, 어찌 이같이 심히 구느냐?’하니, 호랑이가 마당가의 배나무를 물어뜯고 달아났는데, 나무가 곧 말라 죽었습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김유범

%0 동국삼강행실도(열녀6) 6ㄱ-6ㄴ

%1 김씨동편(金氏同窆)

%2 동국삼강행실도(열녀6) 6ㄱ

%3 김씨가 함께 묻히다

%4 김씨 부인의 남편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죽었다. 종이 남편의 시신을 메고 오니 부인이 사흘 밤낮을 시신을 안고 울었다. 빈소를 마련한 후 더욱 서러워 한 달 넘게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먹으니 부모가 말했다.

“밥을 먹고 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슬퍼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지 않은 것이니 분명 병인 듯합니다.”

그러한 지 오십삼 일 만에 죽게 되었는데, 당시 나이가 스무 살이었다. 부모가 가엾게 여겨 남편과 함께 묻어 주었다.

%5 김씨의 %5-1남지니 물 타 디여 죽거늘 종이 매여 오나날 김씨 밤낮 %5-2사흘을 아나서 %5-3우더니 %5-4빈소하고 더욱 설워 혼 돌 %5-5나마 밥 아니 먹고 물만 먹거늘 %5-6뿌오오 날오디 먹고 %5-7우루디 엇더호뇨 김씨 날오디 슬퍼 아니 %5-8먹는 디 아니라 먹고져 %5-9십브리 아니하니 당당이 %5-10병이로소이다 호고 천사를 %5-11채아 주그니 나히 %5-12스물허러나 뿌오오 어엿비 너겨 हु디 무드니라

%6 金氏豊山人 適李樞 樞墜馬道斃 其僮舁屍歸 金號咷躄踊抱屍 經三日夜 及殯益自哀慟 踰月不食 唯啜水而已 父母諭之曰 食而哭 於義何害 金曰 非哀而不食 自不思食耳 應是疾也 至五十三日而死 年二十 父母憐之 同穴而窆 %6-1 4ㄴ

%7 김씨풍산인 적리강 강추마도폐 기동여시귀 김호도벽용포시 경삼일야 급빈익자애통 유월불식 유철수이이 부모유지왈 식이곡 어의하해 김왈 비애이부식 자불사식이 응시질야 지오십삼일야사 년이십 부모면지 동혈이편 %7-1 4ㄴ

%8 김씨의 남편이 말 타 떨어져 죽거늘 종이 매여 오거늘 김씨 밤낮 사흘을 안아서 울더니 빈소하고 더욱 서러워 한 달 넘어 밥 아니 먹고 물만 먹거늘 부모 이르되 먹고 울되 여 떠하뇨. 김씨 이르되 슬퍼 아니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지 아니하니 분명히 병입니다 하고 선 사흘 채워 죽으니 나이 스물이었으나 부모가 가엾게 여겨 한데 묻으니라.

%9-1 남지니: 남편이. 남진+이(주격 조사). ‘남진’은 “사내”와 “남편”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 ‘男人’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人’의 한자음 ‘인’이 이 단어에서는 ‘진’으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9-2 사흘날: 사흘을. 사흘+날(←을, 목적격 조사). 이때 ‘을’이 ‘날’로 표기된 것은 ‘사흘’의 ‘ㄹ’이 중첩 표기된 ‘사흘른’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흘를’이 ‘사흘날’이 된 것은 근대 국어 문헌 자료에서 ‘ㄹ’이 ‘ㄴ’으로 표기되는 일반적인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이것은 순행적 유음화의 존재를 보여 주는 일종의 역표기라고 이해된다.

%9-3 우더니: 울더니. 우-(←을-)+-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을-’이 ‘우-’가 된 것은 형태소 경계를 사이로 치경음(ㄴ, ㄷ, ㅅ 등) 앞에서 ‘ㄹ’이 탈락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리’ 탈락의 환경이 달라져 ‘올더니’에서처럼 ‘ㄷ’ 앞에서는 ‘르’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9-4 **빈소호고**: 빈소를 차리고. 빈소를 마련하고. 빈소호+-고(연결 어미). 현대 국어에서는 ‘빈소하다’와 같은 동사가 쓰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참고할 때 ‘빈소호다’는 흥미로운 어형이다.

%9-5 **나마**: 넘게. 남+-아(연결 어미). 동사 ‘남다’는 본래 “넘다, 지나다, 나머지가 있게 되다” 등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나머지가 있게 되다”의 의미만이 있고 그 밖의 의미는 각각 동사 ‘넘다’와 ‘지나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9-6 **뿌모오**: 부모(父母). ‘뿌모오’는 이곳에서만 두 번 나타나는 매우 특수한 표기이다. ‘父’의 한자음 표기들(현실 한자음 ‘부’나 ‘보’ 및 『동국정운』의 ‘붕’나 ‘뽕’, 『사성통해』의 ‘뿌’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현실 한자음이 아닌 중국식 한자음을 반영한 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제3 음절의 ‘오’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데, 우리 한자음에서 ‘ㅍ>오’의 음가 변화를 보인 한자 ‘똥’을 표기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당시 ‘父母兒’와 같은 중국식 표현이 쓰이고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9-7 **우루디**: 울되. 울+-우디(연결 어미). ‘-우디’는 15세기 자료를 참조해 볼 때 본래 ‘디’ 앞에 모음 ‘오’나 ‘우’를 선행하고 있었던 어미로 쓰여 왔음을 알 수 있다.

%9-8 **먹는 디**: 먹는 것이. 먹+-디-(선어말 어미)+-오-(선어말 어미)+-디(관형사형 어미)#ㄷ(의존 명사)+이(주격 조사). 이때 선어말 어미 ‘-오-’는 ‘먹다’가 수식하는 대상(ㄷ)이 그것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대상법 선어말 어미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것은 의존 명사 ‘ㄷ’가 ‘먹다’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황”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9-9 **먹고져 십브디**: 먹고 싶지. 먹+-고져(연결 어미)#십브+-디(연결 어미). 현대 국어 ‘싶다’는 ‘식브다>십브다>싶다’의 어형 변화를 겪어 왔음을 볼 수 있다.

%9-10 **병이로소이다**: 병입니다. 병+이-(서술격 조사)+-롯-(←똥, 선어말 어미)+-오이-(←오이, 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 선어말 어미 ‘-오이-’는 앞의 선어말 어미 ‘-롯-’이 가진 원순모음 ‘오’에 동화되어 매개모음 ‘오’가 ‘오’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11 **채아**: 채워. 채+-아(연결 어미). ‘채다’가 “채우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사용된 것은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차다’[滿]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어간 ‘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동사를 다른 자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당시의 표기법을 고려할 때 ‘채아’와 같은 표기는 보편적인 표기라고 볼 수 없으며, 어간 형태가 분명히 ‘채-’라면 마땅히 ‘채아’로 표기되었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12 **스물허러나**: 스물이었으나. 스물이었으니. 스물ㅎ+이-(서술격 조사)+-러-(←더, 선어말 어미)+-나(연결 어미). 이때 선어말 어미 ‘-러-’와 연결 어미 ‘-나’가 결합되는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는데, 이곳에서 이 둘의 결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런 점 때문에 ‘스물허러나’는 ‘스물허러니’의 오각으로 추정된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김(金)
- %10-3 본관: 풍산(豊山)
- %10-4 지역1: 경상북도
- %10-5 지역2: 안동군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미상
- %10-8 신분: 양반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태종 13년(1413년) 2월 7(병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중략) 풍산(豊山) 사람 이강(李樞)의 처 김씨(金氏)는 안동(安東)의 전 중랑장(中郎將) 김천(金湣)의 딸입니다. 이강이 말에서 떨어져 길에서 죽으니, 그 종(奴)이 시체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김씨의 나이는 20이었는데, 그 남편의 시체를 꺼내고 3일이나 있었으나 결국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염(殮)하는 날에 이르러 더욱 애통하였고, 한 달이 넘도록 먹지 않고 물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부모가 권하기를, ‘먹고 나서 운다 해도 의리에 무엇이 해롭겠느냐?’하니, 김씨가 말하기를, ‘애처롭게 죽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곧 병 때문입니다.’ 하더니, 5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부모가 가없게 여기에 동혈(同穴)에 장사지냈습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김유범

[동국속삼강행실도]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ㄱ-1ㄴ

%1 인후여묘(仁厚廬墓)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ㄱ

%3 윤인후가 무덤 옆에 초막을 짓다

%4 윤인후는 경산 사람이다. 나이 아홉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삼년상을 치르면서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 사실을 태종(조선 제3대 왕)께 여쭙니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윤인후는 하양 사르미라 %5-1나히 아홉인 제 %5-2아비 거상 니버 시묘하거늘 공명대왕 씨 %5-3연즈와늘 흥문 %5-4세니라

%6 尹仁厚河陽人 年九歲 遭父喪 廬於墓側 恭定大王朝 事聞旌閭 %6-1 1ㄴ

%7 윤인후하양인 년구세 조부상 러어묘측 공명대왕조 사문정려 %6-1 1ㄴ

%8 윤인후는 하양 사람이다. 나이 아홉일 때 아버지의 거상을 입어 시묘하거늘 공명대왕께 여쭙거늘 흥문을 세우니라.

%9-1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이’의 옛말인 ‘나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하여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2 아비: 아버지의. 압(←아비)+의(관형격 조사). ‘아비, 어미, 아기’ 등 ㅣ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체언이 관형격 조사 ‘이/의’나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 어간 말 ㅣ모음이 탈락하였다.

%9-3 연즈와늘: 여쭙거늘. 연즈오-(←연즈-)+-아늘(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연즈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연즈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ㅎ다’와 결합할 때는 ‘-아늘/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4 세니라: 세웠다. 세--+니-(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이다.

%10-1 주인공 명: 인후(仁厚)

%10-2 성씨: 윤(尹)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북도

%10-5 지역2: 경산시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태종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하양현. 현재 경상북도 경산 지역의 옛 지명

공정대왕(恭定大王). 조선 제3대 왕 태종(太宗)의 시호. 1367~1422. 재위 기간은 1400년에서 1418년까지이다. 1383년 문과에 급제하여 아버지 이성계(李成桂) 휘하에서 활약했다. 1388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1392년에는 정적(政敵)이었던 정몽주(鄭夢周)를 제거하였다. 조선 왕조 건국 후 태조가 이복 동생 방석(芳碩)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398년 소위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이 때 중신이었던 정도전(鄭道傳), 남은(南問) 등을 살해했고, 이복 동생인 방석, 방번(芳蕃)도 귀양을 보내는 길에 제거하였다. 자신의 형인 정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넷째 형이었던 방간(芳幹)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고 곧이어 정종에게 양위를 받아 왕으로 즉위하였다. 사병을 혁파하는 등 왕권 강화에 힘썼으며,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1405년 송도(松都)에서 한성(漢城)으로 수도를 옮겼고, 1418년 세자였던 세종에게 선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 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ㄱ-2ㄴ

%1 강림착빙(姜廉鑿冰)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ㄱ

%3 강림이 얼음을 뚫다

%4 강림은 안변 사람이다. 중국 명나라 영락제가 다스리는 시기에, 아버지가 병들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였다. 이에 강림이 벼슬을 버리고 간호하며 4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손수 똥오줌을 받아내었으며, 심지어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아 병세의 좋고 나쁨을 알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또 부스럼이 났는데 의원이 말했다.

“거머리로 피를 빨리면 좋아질 것입니다.”

그때가 한창 추울 때였는데, 강림이 물가에 가서 울부짖으며 얼음을 깨고 거머리를 찾으니, 홀연히 거머리 두어 마리가 손가락에 붙어 나왔다. 이를 가져다가 부스럼을 빨리니 아버지의 병이 곧 나았다. 아버지가 나이 아흔다섯이 될 때까지 살았다.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강림이눈 안변 사람이라 영락 저괴 아버 %5-1병허야 대소변을 불통켜를 렘이 벼슬 버리고 시병허야 손소 %5-2분지반 내물 네 히도록 그치디 아니허야 대변을 %5-3맛쏘아 %5-4도쿠지를 %5-5알오져 허더라 아버 또 %5-6브으름 내엿새늘 의원이 날오디 거머리로 피를 %5-7썰이던 %5-8도허리라 허야늘 그제 %5-9보야호로 %5-10칩더니 렘이 트레가 울오 어르름 %5-11쫂쇼 어든대 홀연히 거머리 %5-12두어허 손짜락에 브터 나가늘 가져다가 %5-13브으름을 썰인대 아버 병이 즉제 도하 나히 아흔다스시도록 사나라 %5-14연즈와늘 흥문 %5-15세니라

%6 姜廉安邊人 永樂中 父淮祖嘗患 便澁不通 廉棄官侍疾 手奉溷器 四年不輟 至嘗糞以驗吉凶 父又患癰 醫云水蛭吮血可治 時方寒沍 廉就淵上呼泣 鑿冰求之 忽有水蛭數三附手指而出 持以吮其癰 父病即愈 壽至九十五歲 事聞旌閭 %6-1 2ㄴ

%7 강림 안변인 영락중 부회조상환 변삽불통 렘기관시질 수봉훈기 사년불철 지상분이험길흉 부우환웅 의운수질연혈가치 시방한호 렘취연상호음 착빙구지 홀유수질수삼부수지이출 지이연기웅 부병즉유 수지구십오세 사문정려 %6-1 2ㄴ

%8 강림은 안변 사람이다. 영락 때에 아버가 병들어 대소변을 불통(不通)하거늘 렘이 벼슬을 버리고 시병(侍病)하여 손수 분지반 내는 것을 사 년이 되도록 그치지 아니하여 대변을 맛보아 그 좋고 나쁨을 알고자 하더라. 아버가 또 부스럼을 내거늘 의원이 말하기를 '거머리로 피를 빨리면 좋아질 것이다' 하거늘 그때가 바야흐로 추웠는데 렘이 물에 가 울고 얼음을 쪼고 (거머리를) 구하니 홀연히 거머리 두엇이 손가락에 붙어 나오거늘 가져다가 부스럼을 빨리니 아버의 병이 즉시 좋아져서 나이 아흔다섯이 되도록 사나라. (이 일을 임금께) 여쭙거늘 흥문을 우니라.

%9-1 병허야: 병들어. 병허--+아(연결 어미). '병허다'는 “병들다, 병이 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이다.

%9-2 분지반: 분지반(糞-盤). 원문의 '溷器'를 언해한 것으로, '똥오줌을 담은 그릇'을 의미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9-3 **맛뽀야**: 맛보야. 맛뽀(←맛보-)+-아(연결 어미). ‘맛보다’는 명사 ‘맛’과 동사 ‘보다’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여기에서는 ‘보-’가 ‘맛’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을 ‘ㅂ’으로 표기하였다.

%9-4 **도쿠지**: 좋고 나쁨. ‘동-(형용사)+긋-(형용사)+-이(파생 접미사)’의 구성을 지닌 명사로 “좋고 나쁨”, “좋고 나쁜 것”의 의미를 지닌다.

%9-5 **알오저**: 알고자. 알-+-오저(←-고저, 연결 어미). 연결 어미 ‘-고저’는 어간 발음이 ‘ㄹ’이거나 반모음 ‘y’일 때 ‘ㄱ’이 약화·탈락하여 ‘-오저’로 나타났다.

%9-6 **브으름**: 부스럼. 15세기에는 ‘부스럼’의 옛말이 ‘브으름’으로 나타났는데, 16세기에 ‘△’이 소실되면서 ‘브으름’이 되었다. 한편 16세기에는 ‘△’이 ‘ㅅ’으로 바뀐 ‘브스름’도 나타났는데, 이는 남부 방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국어의 ‘부스럼’은 ‘브스름’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브으름’ 형태는 현대 국어의 ‘부름’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9-7 **썰이면**: 빨리면. 썰-+-면(연결 어미). 동사 ‘썰이다’는 ‘빨리다’의 옛말로, 동사 ‘썰-’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9-8 **도ㅎ리라**: 좋아질 것이다. 동-(동사)+-리(선어말 어미)+-라(←다, 종결 어미). 이때 ‘돌다’는 “좋아지다”의 의미를 지닌 자동사로서 사용되었다.

%9-9 **보야호로**: 바야호로. ‘바야호로’의 옛말이 15세기에는 ‘뵤야호로/보야호로’로 나타났는데, 16세기 이후에는 ‘-로’의 모음 ㅜ에서 영향을 받아 앞 음절의 모음 ㅏ가 ㅜ로 바뀐 ‘보야호로’ 형태도 등장하였다.

%9-10 **칩더니**: 출더니. 칩-+-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칩다’는 ‘출다’의 옛말이다.

%9-11 **쫘소**: 쫘고. 쫘-+-고(연결 어미). 어미 ‘-고’가 된소리로 나는 것을 ‘ㅍ’으로 표기한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쫘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는 ‘쫘-’으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는데, △이 소멸하면서 ‘쫘-/조-’로 이형태 교체를 하게 되었다. 현대 국어의 ‘쫘다’는 ‘쫘-/조-’가 ‘조-’ 형태로 단일화하고 어두 된소리화를 겪은 것이다.

%9-12 **두어ㅎ**: 두엇이. 두어ㅎ+이(주격 조사). ‘두어ㅎ’은 수사 ‘둘’과 ‘서ㅎ(←세ㅎ)’이 결합한 합성어로, ‘둘서ㅎ>두서ㅎ>두어ㅎ’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은 근대 국어 이후에 종성의 ‘ㅎ’이 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수사 ‘세ㅎ, 네ㅎ’는 각각 ‘셋, 넷’으로 종성의 ‘ㅎ’이 ‘ㅅ’으로 변하였는데 ‘두어ㅎ’ 역시 종성의 ‘ㅎ’이 ‘ㅅ’으로 바뀌어 현대 국어의 ‘두엇’으로 변화하였다.

%9-13 **브으름물**: 부스럼을. ‘브으름+을(목적격 조사)’의 구성인데,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의 과도기적 형태인 중철 표기로 나타났다.

%9-14 **연즈와늘**: 여쭙거늘. 연즈오-(←연즈-)+-아늘(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연즈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연즈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늘/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5 **세니라**: 세웠다. 세-+-니(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서-’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이다.

- %10-1 주인공 명: 렴(廉)
- %10-2 성씨: 강(姜)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함경남도
- %10-5 지역2: 안변
-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태종(추정)

%10-8 신분: 양반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안변(安邊). 현재 북한의 강원도 안변군의 지명. 1946년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함경도에서 강원도로 편입되었다.

영락(永樂). 명나라 성조(成祖)의 연호. 재위 기간은 1403년부터 1424년이다.

홍문.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3ㄱ-3ㄴ

%1 덕송지효(德崇至孝)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3ㄱ

%3 김덕송이 지극히 효성스럽다

%4 김덕송은 진천군 사람이다. 일찍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 섬기기를 지성으로 하여 게을리하지 않았다. 예순두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묘 옆에 초막을 짓고 무덤 지키는 일을 삼 년동안 하였다. 늘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아버지께 문안을 드렸는데, 비록 비나 눈이 오더라도 그만두지 않았다. 탈상을 하고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더욱 극진히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는 또 묘 옆에 초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며 슬퍼하다가 여위어 뼈만 있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일흔둘이었다. 삼년상을 다 마칠 때까지 슬퍼하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다. 부모님이 평상시 앉던 자리를 보고 문득 목이 메어 울고, 공경함을 살아 계실 때같이 하였다. 새벽과 저녁에는 사당에 인사드리고 초하루와 보름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제철 음식을 반드시 신위에 올리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당에 고하였다. 이러한 일이 임금께 들리니 명하여 그 두 아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비를 세워 착한 행실을 널리 알리게 하였다.

%5 김덕송은 단천현 사람이니 일찍 벼슬 버리고 도라가 양친호디 지성으로 게을리 아니하야 %5-1나히 여쭈 돌히 %5-2어미 상수를 만나 분묘의 녀막하기를 삼 년 하고 %5-3미양도석 제를 다하고 반드시 %5-4아버지께 문안하기를 비록 비 눈이라도 폐티 아니하며 탈상하고 아버 거터 떠나디 아니하고 봉양호를 더욱 두터이 하디니 아버 죽거늘 쏘 시묘하여 %5-5슬허 여위여 %5-6뼈만 서시니 시절 나히 닐흔 돌히러라 탈상하고 슬피 소모호를 더욱 절히 하야 부모의 %5-7상해 %5-8안편 디를 보고 문득 목 메어 공경호를 거신 적 7티 하디라 %5-9새배 나죄 스당의 비고 초하루 보름의 반드시 제하고 시절 거술 반드시 %5-10천신하고 이리 이시면 반드시 고택디라 이리 들리매 명하야 그 두 아드를 %5-11벼슬 하이시고 비 %5-12세여 정표하시다

%6 金德崇鎮川縣人 嘗棄官歸養 至誠無怠 年六十二遭母喪 廬墓三年 每朝夕奠訖 必定省於父 雖雨雪不廢 服闋不離父側 奉養彌篤 父亡又廬墓 哀毀骨立 時年七十二 終喪哀慕益切 見父母平昔之座 輒哽咽 敬之如在 晨夕謁廟 朔望必祭 時物必薦 有事必告 事關命官其二子 立碑以旌之 %6-1 3ㄴ

%7 김덕송진천현인 상기관귀양 지성무태 년육십이조모상 러묘삼년 매조석전흘 필정성어부 수 우설불폐 복결불리부촉 봉양미독 부망우려모 애훼골립 시년칠십이 종상애모익절 견부모평 석지와 첩경인 경지여재 신석알모 삭망필제 시물필천 유사필고 사문명관기이자 임비이정 지

%8 김덕송은 진천현 사람이니, 일찍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 봉양하되 지성으로 하고 게을리 아니하여 나이 예순둘에 어미 상사를 만나 분묘에 초막하기를 삼 년을 하고 늘 조석에 제사를 다하고 반드시 아버지께 문안하기를 비록 비나 눈이 와도 폐하지 아니하며 탈상을 하고서 아버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봉양함을 더욱 두터이 하디니, 아버가 죽거늘 또 시묘하여 슬퍼하여 (몸이) 여위어 뼈만 서 있으니 그때 나이가 일흔둘이었

다. 탈상하고 슬피 (부모를) 사모함을 더욱 간절히 하여 부모가 평상시에 앉던 데를 보고 문득 목이 메어 공경함을 살아 계신 적같이 하디라. 새벽과 저녁에 사당에 뵈고 초하루와 보름에 반드시 제사하고 제철의 것을 반드시 천신하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고택디라. 이 일이 (임금께) 들리니 (임금께서) 명하여 그 두 아들을 벼슬하게 하시고 비를 세워 정표하였다.

%9-1 **어미**: 어미의. 엄(←어미)+이(관형격 조사). ‘아버, 어미, 아기’ 등 ‘ㅣ’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체언이 관형격 조사 ‘이/의’나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 어간 말 ‘ㅣ’모음이 탈락하였다.

%9-2 **미양**: 매양. 늘. 항상. 한자어 ‘每常’에서 기원한 것으로, ‘미상>미상>미양>미양>매양’의 변화를 겪었다.

%9-3 **아버지께**: 아버지께. 압(←아버)+이께(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께/의께’는 기원적으로 관형격 조사 ‘이/의’와 대명사 ‘께’의 결합형에서 발전한 것이다. ‘아버, 어미, 아기’ 등 ‘ㅣ’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체언이 관형격 조사 ‘이/의’나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 어간 말 ‘ㅣ’모음이 탈락하였다.

%9-4 **슬허**: 슬퍼하여. 슬+-어(연결 어미). ‘슬다’는 ‘슬퍼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여기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것이 ‘슬프다’이다.

%9-5 **뼈만 서시니**: 뼈만 서 있으니. ‘서시니’는 ‘서+-어시-(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의 구성. ‘-어시-’는 ‘-어(연결 어미)#이시-’에서 기원한 것으로 자음 어미 앞에서는 ‘-엇-’으로 나타났으며, 진행이나 상태의 지속을 표시하였다.

%9-6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이의 옛말인 ‘나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하여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7 **상해**: 항상, 평소애. 중세 국어에서 ‘상해’는 “보통”의 의미를 지닌 명사와 ‘항상, 평소애’의 의미를 지닌 부사로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부사로 쓰인 것이다.

%9-8 **안편**: 앉던. 앉+-더-(선어말 어미)+-ㄴ(관형사형 어미). 중세 국어 이래로 ‘앉-’은 자음 어미 앞에서 ‘앉-’으로 표기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어간 말의 ㅅ이 뒤 음절의 초성과 함께 표기된 것이다.

%9-9 **새배 나죄**: 새벽과 저녁애. ‘새배’ 외에 ‘새박, 새배, 새비’ 등 다양한 형태들도 나타난다. ‘새배’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 예가 보이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새벽애”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특이한데, ‘새배’가 ‘새바기’[새박+이(부사격 조사)]에서 ‘ㄱ’가 탈락해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려는 견해도 있다. ‘나죄’는 “저녁”의 의미를 지닌 명사이다. 중세 국어에서 “저녁”을 의미하는 명사로는 ‘나조ㅎ’도 있었는데,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히’[나조ㅎ+이(부사격 조사)]에서 ‘ㅎ’가 탈락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10 **천신하고**: 천신(薦新)하고. 천신ㅎ+-고(연결 어미). ‘천신(薦新)’은 철 따라 새로 난 과실이나 농산물을 먼저 신위(神位)에 올리는 일.

%9-11 **ㅎ이시고**: 하게 하시고. 시키시고. ㅎ이+-시-(선어말 어미)+고(연결 어미). ‘ㅎ이-’는 동사 ‘ㅎ-’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사동사이다. ‘ㅎ이다’ 외에 ‘히이다’로도 나타났다.

%9-12 **세여**: 세워. 세+-어(연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서-’애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애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이다.

%10-1 주인공명: 덕송(德崇)

- %10-2 성씨: 김(金)
- %10-3 본관: 강릉
- %10-4 지역1: 충청북도
- %10-5 지역2: 진천군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세종(1449년)
- %10-8 신분: 문관
- %10-9 성별: 남성
- %10-10 역사 사건

김덕송(金德崇). 1373(공민왕22)~1448(세종 30).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강릉. 자는 자수(子修), 호는 모암(慕庵). 판윤을 지낸 김천익(金天益)의 아들이다. 21세 때에 추천을 받아 진선(進善)에 제수되었고, 사헌부장령, 사헌부집의, 온양군수 등을 역임하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하였다. 1426년에 한산군수로 제수되었으나 3개월 만에 사직하고 다시 부모를 봉양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정성껏 장례를 모셔서 세종에게 술과 고기, 쌀 등을 하사받기도 했다. 사후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효행을 이유로 벼슬을 받기도 했다.

%10-11 기타

김덕송의 효행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에서 확인된다. 세종 31년(1449년) 6월 28일 병자조 기사를 보면 예조에서 김덕송의 지극한 효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포상을 건의하였고 세종이 그를 윤허한 내용이 나온다. 『실록』에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내용보다 더 자세한 효행의 묘사가 되어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두 아들’로 등장하는 인물은 김귀식(金貴識)과 김귀시(金貴試)다. 그밖에 더 이전 기록인 세종 26년(1444년) 3월 13일 계해조 기사에는 세종이 김덕송의 효행을 칭찬하며 술과 고기, 쌀을 하사한 내용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세종 31년(1449년) 6월 28일(병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전 지한산군사(知韓山郡事) 김덕송(金德崇)은 검교 한성(檢校漢城) 김천익(金天益)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위하여 직(職)을 사면하고 진천(鎭川)에 돌아가 봉양하여 곁을 떠나지 않고, 매양 좋은 때를 만나면 반드시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청해서 부모를 위로하여 기쁘게 하고, 어미 김씨(金氏)가 84세에 죽었는데, 그때 덕송의 나이 62세로서 뉘 곁에 초막을 짓고 애통해 하면서 조석전(朝夕奠)을 마치고는 곧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비에게 정성(定省)하되, 뉘까지의 거리가 2리(里)쯤 되는데 상장(喪杖)을 짚고 걸어서 왕래하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폐하지 않았으며, 복(服)이 끝나매 집에 돌아와서 더욱 슬퍼하면서, 아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봉양하기를 더욱 지극히 하였으며, 또 장모를 집에 맞아다가 섬기기를 어미같이 하니, 온 고을이 칭찬하고 탄복하되 아무도 달리 말하는 이가 없었으며, 갑자년 7월에 천익이 죽으매 어미의 무덤에 합장하고는, 또 뉘 곁에 초막을 짓고 모시면서 잘 때에는 요와 이불을 깔고 덮지 아니하고, 끼니로는 밥과 국을 갖추지 않고 죽을 마시고서 거적자리에 누워 있고, 지팡이를 짚고서야 일어나니, 향당(鄉黨)에서 애처롭게 여기어 말리니, 덕송이 말하기를, ‘아비를 땅속에다 묻어 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먹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내가 이미 양친을 잃고 나이 칠십이 넘었으니, 역지로 세상에 살아서 다시 누구를 위하겠는가. 비록 뉘 곁에서 죽더라도 한이 없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뉘 앞에 곡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고 시좌(侍坐)하여 밤중에 이르렀으며, 최복(衰服)을 벗고 집에 돌아오매, 부모가 평생에 거쳐하던 것을 보고는 문득 눈물을 흘리며 울어 목이 매었으며, 빈 자리(虛座)를 공경하기를 살아 있을 적같이 하며, 매양 뜰을 지나려면 반드시 잔걸음으로 하며, 또 신주(神主)를 받들어 섬기기를 생사와 같이 하여, 새벽과 저녁에 반드시 절하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반드시 제사하며, 속절(俗節)에도 또한 시식(時食)을 드리니, 향리(鄉里) 사람들이 탄복하였는데, 무진년 여름에 죽었나이다. 덕송의 효행이 특이하나 이미 죽어서 포상(褒賞)을 받지 못하였으니, 비옵건대, 그 아들을 벼슬시키어 뒷사람들을 장려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들은 귀식(貴識)과 귀시(貴試)이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세종 26년(1444년) 3월 13일(계해) 기사.

진천 현감(鎭川縣監) 김숙(金濶)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들으니, ‘본현(本縣) 사람 전(前)한산 군사(韓山郡事) 김덕송(金德崇)의 부친이 나이가 95세이고 처모는 나이가 85세이며 덕송의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한 집안에 맞아서 두고 봉양하기를 심히 근실하게 한다.’ 하니, 내가 그 효성을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술과 고기를 주노니 내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전하여 주어서 아침과 저녁의 봉양에 쓰게 하라.” 하고, 또 충청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쌀 10섬을 주라고 유시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26년(1444 갑자) 3월 13일(계해)>

김덕송 정려기, 효자비, 묘소의 사진.

http://jincheon.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270069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4350&cid=200000000&categoryId=200004088>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4ㄱ-4ㄴ

%1 한구소사(韓遯疏食)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4ㄱ

%3 한구가 거친 음식을 먹다

%4 생원 한구는 광주 사람이다. 다섯 살에 아버지가 죽고, 자라서 어머니가 죽으니 어머니를 아버지와 합장하고 여섯 해를 묘 옆에 초막을 짓고 무덤을 지켰다. (그는 시묘하는 동안) 상복을 벗지 않으며, 거친 밥과 물만 마시고, 나물과 과일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손수 제사 음식을 만들며, 사람에게 말할 때 이를 내보이지 아니하며, 내내 울면서 거상을 지내고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 중국 명나라 정통제가 다스리는 시기에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생원 한구는 광주 사르미라 다투 %5-1서래 아버 죽고 자라서 어미 죽거늘 아버와 혼디 묻고 여섯 해를 시묘호디 제복 %5-2밧디 아니하며 %5-3사오나온 밥과 물만 마시고 %5-4나물 과실 먹디 아니코 손수 제던의 %5-5차반 %5-6밍굴며 %5-7사름드려 말술 제니 내디 아니하야 내내 우러 거상 %5-8디내오 혼번도 %5-9지비 가디 아니하니라 %5-10정통 저긔 %5-11연섯와날 흥문 %5-12세니라

%6 生員韓遯廣州人 五歲父歿 及長喪母 合葬父墓 居廬六年 不脫經帶 疏食水飲 不食菜菓 躬執爨爨 與人言未嘗啓齒 泣血終喪 一不到家 正統中 事聞旌閭

%7 생원한구광주인 오세부물 급장상모 합장부묘 거려육년 불탈질대 소사수음 불식채과 궁집 전찬 여인언미상계치 읍혈종상 일부도가 정통중 사문정려

%8 생원 한구는 광주 사람이다. 다섯 살에 아버지가 죽고 자라서 어머니가 죽거늘 아버지와 한곳에 묻고 여섯 해를 시묘하되 제복(祭服)을 벗지 아니하며 거친 밥과 물만 마시고 나물과 과일을 먹지 않고 손수 제전(祭奠) 음식을 만들며 사람에게 말할 때 이를 내 보이지 아니하여 내내 울면서 거상을 지내고 한 번도 집에 가지 아니하니라. 정통 때에 여쭙거늘 흥문을 세우니라.

%9-1 서래: 살에. 설+에(부사격 조사). 중세 국어에서는 “나이를 세는 단위”의 의미를 지닌 의존 명사가 ‘살’과 ‘설’ 두 가지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설’은 “한 해”의 의미와 “한 해의 처음”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서면 차츰 ‘살’은 “나이를 세는 단위”를, ‘설’은 “한 해의 처음”을 가리키게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여전히 “나이를 세는 단위”로 ‘설’이 쓰였음을 볼 수 있다.

%9-2 밧디: 벗지. 밧+디(연결 어미). 중세 국어에서는 ‘밧다’와 ‘벗다’가 공존하였는데 ‘밧다’는 주로 ‘의관(衣冠), 옷, 껌갈’ 등과 같이 구체적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와 함께 쓰였고(예: 나?내 드외여 가난하여 옷도 바스며 신도 바사<변역소학 9:217>), ‘벗다’는 주로 ‘受苦, 罪, 罪業’ 등과 같이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목적어와 함께 쓰였다(예: 世尊入 德 闍斯 罪 罪를 버서 地獄을 고평아나니<월인천강지곡 상:78>). 근대 국어부터는 차츰 ‘밧다’와 ‘벗다’의 구별이 사라져서 ‘벗다’가 구체적인 옷 따위와 함께 쓰이게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중세 국어와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여 준다.

%9-3 사오나온: 질이 떨어지는. 사오나오-(←사오납-)+-ㄴ(관형사형 어미). ‘사오납다’는 현대 국어 ‘사납다’가 가진 의미 외에 “품질이 떨어지다, 열등하다, 정도가 심하다” 등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9-4 누물: 나물. 15세기에는 ‘누물ㅎ’ 또는 ‘누물’로 나타났는데, ‘누물>누물>누물>나물’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현대 국어의 ‘나물’이 되었다.

%9-5 차반: 음식. 한자어 ‘茶飯’에서 기원한 단어로 15세기부터 한글 표기로 나타나며 18세기까지 음식을 뜻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19세기부터 쓰임이 줄어들었다.

%9-6 밍굴며: 만들며. 밍굴-+-며(연결 어미). 현대 국어의 ‘만들다’는 ‘밍굴다>밍들다>민들다/민들다>몬들다/몬들다>만들다’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이다.

%9-7 사름드려: 사람더러. 사람에게. 사름+드려(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 조사 ‘더러’의 옛말인 ‘드려’는 “테리다”의 옛말인 동사 ‘드리-’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기원한 것이다.

%9-8 디내오: 지내고. 디내+--오(←고, 연결 어미). 연결 어미 ‘-고’와 같이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어간 말음이 ㄹ이나 반모음 y인 용언과 결합할 때에는 ㄱ이 약화·탈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9-9 지비: 집에. 집+의(부사격 조사). 형태상으로 관형격 조사와 동일하지만 ‘시간, 장소’ 등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는 ‘이/의’는 본래 ‘집, 야츰, 낮, 나조ㅎ, 밤, 앞, 봄, 7, 숲, 나모’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한정되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 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에’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10 정통: 정통(正統). 명나라 제6대 왕 영종(英宗)의 첫 번째 연호로, 1436년부터 1449년까지 사용되었다.

%9-11 연섯와날: 여쭙거늘. 연섯오-(←연좁-)+-아날(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열좁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열섯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날/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날’,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날/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2 세니라: 세웠다. 세+--니라(종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이다.

%10-1 주인공 명: 구(遯)

%10-2 성씨: 한(韓)

%10-3 본관: 미상

%10- 4 지역1: 경기도

%10- 5 지역2: 광주시

%10- 6 시기: 조선

%10-7 연도: 세종(1423년)

%10-8 신분: 문관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생원(生員). 조선 시대에 소과(小科)인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 진사시 합격자인 진사와 더불어 최고 교육 기관이었던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있었다. 성균관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참봉, 훈도 등의 종9품직에 제수되기도 했다. 생원 출신으로 문과에 합격한 이는 소수에 속하며 대부분의 경우 생원 신분으로 양반으로서의 특혜를 받으며 지역 사회에서 유지 역할을 하였다. 진사시가 문장력을 평가하던 것에 비해 생원시는 경학(經學)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는 나이가 많은 선비에 대한 존칭으로 일반화되기도 하였

다.

한구(韓述). 1376(우왕 2)~ ?. 조선 전기의 효자. 경기도 광주 출신. 호는 학도당(學道堂). 일찍 돌아가신 부모를 합장한 후 6년 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음식을 삼가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다 한다.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모친 생전에 “머느리가 나를 잘 모시지 않는다”고 하자 아내를 쫓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중대마을에 묘소가 남아있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緯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세종 5년(1423년) 11월 25일(임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하기를,

“광주(廣州) 사람 전 교도(前敎導) 한구(韓述)가 일찍 부친을 잃고서 모친을 섬기기를 지극히 효성으로 섬기고, 그 아내도 또한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섬겼으나 모친은 오히려 구에게 말하기를, ‘너의 처가 나를 잘 섬기지 않는다.’고 하여, 구가 <아내를> 버렸으며, 모친이 죽음에 이르러 부친의 무덤에 합장(合葬)하고 3년가 여묘(廬墓)에 살고, 다시 부친을 위하여 3년간 무덤을 지켰습니다.”

하니, 명하기를,

“정문을 세우고 부세와 요역을 면제하고, 다시 교도의 직에 임명하라.”

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정통(正統)은 중국 명나라 영종의 연호로, 1436년부터 1449년까지 사용되었다. 세종실록의 기록이 1423년이라는 점에서 '정통 저귀 열즈와놀 홍문 세나라'란 기록과 맞지 않는다.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5ㄱ-5ㄴ

%1 정명분술(正命分蠹)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5ㄱ

%3 정명이 이를 나누다

%4 안정명은 창평 사람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그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삼 년을 살면서 나물과 과일도 먹지 않고 슬퍼함을 예에 넘칠 정도로 하였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들어 머리를 빗지 못하니, 이가 많이 물어 가려워서 힘들어 하였다. 이에 안정명이 자기 머리 카락을 풀어 어머니의 머리에 대어 그 이를 옮아오게 하였다. 또 병의 좋고 나쁨을 알고자 어머니의 대변을 맞보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슬퍼함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같이 하였다.

%5 안정명이는 창평 사르미라 %5-1아비 거상 니버서 시묘 삼 년 살며 %5-2나물과 과실도 먹디 아니호여 %5-3슬허호물 %5-4례에 너무 호더라 어미 오래 %5-5병호야 머리 빗지 못호니 니 %5-6하 므러 7러워 %5-7설워커늘 정명이 제 %5-8머리를 퍼 어미 머리에 %5-9대허 그 니를 올마 오게 호더니 또 병의 %5-10도쿠지를 %5-11알오져 호야 대변을 맞보더니 죽거늘 시묘 살며 슬허호물 문젯 거상 곤터 호더라

%6 安正命昌平縣人 嘗居父喪 廬墓三年 不食菜菓 哀毀過禮 母病沈綿 久廢梳櫛 苦蝨繁穢 正命欲分蠹 散其髮承接母首以分其蝨 又嘗糞以驗吉凶 及歿守墓 愛慕一如前喪

%7 안정명창평현인 상거부상 여묘삼년 불식채과 애훼과례 모병심면 구폐소졸 고슬변양민 정명육분양 산기발승접모수이분기슬 우상분이험길홍 급물수묘 애모일여전상

%8 안정명은 창평 사람이다. 아비의 거상을 입어서 시묘를 삼 년 살며 나물과 과실도 먹지 아니하여 슬퍼함을 예에 넘게 하더라. 어미가 오랫동안 병들어 머리 빗지 못하니 이가 많이 물어 가려워 서러워하거늘 정명이 제 머리를 풀어 어미의 머리에 대어 그 이를 옮아 오게 하더니 또 병의 좋고 나쁨을 알고자 하여 대변을 맞보더니 (어머니가) 죽거늘 시묘 살며 슬퍼함을 먼젓번 거상같이 하더라.

%9-1 **아비**: 아버의. 압(←아비)+이(관형격 조사). ‘아비, 어미, 아기’ 등 ‘이’ 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체언이 관형격 조사 ‘이/의’나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 어간 말 ‘이’ 모음이 탈락하였다.

%9-2 **나물와**: 나물과. 나물+와(←과, 접속조사). 15세기의 ‘나물’은 ‘나물>나물>나물’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현대 국어의 ‘나물’이 되었다.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의 어간 말음이 르인 경우에 접속조사 ‘과’의 ‘ㄱ’이 약화·탈락하여 ‘와’로 나타났다.

%9-3 **슬허호물**: 슬퍼함을. 슬허호--+음(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슬허호다’는 “슬퍼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슬-’에 강조를 나타내는 ‘-어호-’가 결합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동사 ‘슬다’는 사라지고 여기에서 파생된 형용사 ‘슬프다’만이 남아 있다.

%9-4 **례에 너무 호더라**: 예의에 넘게 하더라. 례+예(부사격 조사)#너무#호--+더-(선어말 어미)+-라(←다, 종결 어미). ‘너무’는 “넘게, 넘도록”의 의미를 지닌 부사로, 동사 ‘넘-’에 부사 파생 접미사 ‘-우’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넘-’에서 파생된 사동사 ‘너므-

의 어간 자체가 부사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9-5 **병하야**: 병들어. 병하--아(연결 어미). '병하다'는 “병들다, 병이 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이다.

%9-6 **하**: 크게. 많이. 매우. “크다, 많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하-’의 어간 자체가 접미사 없이 부사로 파생된 것이다.

%9-7 **설워거늘**: 서러워하거늘. 설워하--거늘(연결 어미). '설워하'는 형용사 '설우-(←설-)'에 '-어하-'가 결합하여 동사가 된 것이다.

%9-8 **머리를 퍼**: 머리를 풀어. 머리+를(목적격 조사)#퍼--어(연결 어미). 이때 동사 '퍼다'는 “퍼다, 펼치다”의 의미이다.

%9-9 **대하**: 대어. 대하--어(연결 어미). 동사 '대다'의 옛말은 15세기에 '다히다'로 나타났는데, '다히다>대히다>대다'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다히-'는 동사 '달-'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9-10 **도쿠지**: 좋고 나쁨. '동-(형용사)+긋-(형용사)+-이(파생 접미사)'의 구성을 지닌 명사로 “좋고 나쁨”, “좋고 나쁜 것”의 의미를 지닌다.

%9-11 **알오져**: 알고자. 알--오져(←고져, 연결 어미). 연결 어미 '-고져'는 어간 '알'이 '르'이거나 반모음 'y'일 때 'ㄱ'이 약화·탈락하여 '-오져'로 나타났다.

%10-1 주인공 명: 정명(正命)

%10-2 성씨: 안(安)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전라남도

%10-5 지역2: 담양군 창평면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단종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창평(昌平). 현재의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단종 2년(1454년) 8월 17일(병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중략) 전라도 창평현(昌平縣)의 안정명(安正命)은 아버가 죽자 죽(粥)과 물만 먹고 몹시 슬퍼하며 상제(喪制)를 지내고, 여묘(廡墓) 살기를 3년 동안 하였으며, 또 어미가 병들자 인분(人糞)의 달고 쓴 맛까지 보면서 간호하였으나, 어미가 죽으니 역시 여묘살이를 3년 동안 하였습니다. (중략) 이들은 모두 효행(孝行)이 탁이(卓異)하니, 청컨대,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소서. (중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교지(教旨)를 내려 효자(孝子)·절부(節婦)를 구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제도(諸道) 감사(監司)가 그 실상과 자취[實跡]를 기록하여 아뢰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6ㄱ-6ㄴ

%1 연수겁호(延守劫虎)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6ㄱ

%3 박연수가 호랑이를 위협하다

%4 박연수는 창녕 사람이다. 열네 살 때 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밭을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혀갔다. 이에 박연수가 왼손으로 아버지의 밭을 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휘두르며 호랑이를 위협하고 뒤쫓았다. (범에게) 끌려 이백 걸음이나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빼앗아 왔다. 1455년에 효자문을 세워 주었다.

%5 박연수는 령산 사르미라 %5-1나히 %5-2열네헌 제 아버 조차 뒤흔해 가 나모 %5-3버히고 %5-4반 %5-5밍 ㄱ더니 아버 범의게 %5-6자피며 가거늘 연수 %5-7원소노로 %5-8아버 밭 잡고 올흔소노로 나들 %5-9휘쭈르며 버물 %5-10저리고 %5-11미조차 %5-12의이여 두빅 뵈나 가 아버 신테를 아사 %5-13오나날 경태 울히에 흥문 %5-14세니라

%6 朴延守靈山人 年十四歲 隨其父入山 欲伐木爲田 其父爲虎所攬 延守左手執父足 右手揮鎌 劫虎 追曳數百步 許得父屍而還 景泰 乙亥 旌表門閭

%7 박연수영산인 년십사세 수기부입산 육벌목위전 기부위호소람 연수좌수집부족 우수휘겸겁 호 추예수백보 허득부시이환 경태을해 정표문려

%8 박연수는 영산 사람이다. 나이 열네 살인 때 아버를 좇아 산에 가 나무 베고 밭을 만들더니 아버가 범에게 잡혀 가거늘 연수가 왼손으로 아버의 밭을 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휘두르며 범을 위협하고 뒤쫓아 끌려 이백 보나 가 아버의 시체를 빼앗아 오거늘 경태(景泰)을해년에 흥문 세우니라.

%9-1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이'의 옛말인 '나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하여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2 **열네헌**: 열네인. 열네ㅎ+이-(서술격 조사)+-ㄴ(관형사형 어미). 수사 '넷'의 옛말인 '네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한 '네'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은 근대 국어 이후에 종성의 'ㅎ'이 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수사 '세ㅎ, 네ㅎ'는 각각 '셋, 넷'으로 종성의 'ㅎ'이 'ㅅ'으로 변화하였다.

%9-3 **버히고**: 베고. 버히--고(연결 어미). '버히다>베히다>베다'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현대 국어의 '베다'가 되었다. '버히다'는 “베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뵈-'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15세기에는 모음 교체형인 '바히다'도 같이 쓰였다.

%9-4 **발**: 밭. '밭'이 단독으로 쓰이면서 어간 말 자음 'ㅌ'이 팔종성법에 따라 'ㄷ'으로 표기된 것이다.

%9-5 **밍 ㄱ더니**: 만들더니. 밅 ㄱ(←밍 ㄱ)-+--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밍 ㄱ다>밍 돌다>민 돌다/민 들다>문 돌다/문 들다>만 들다'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현대 국어의 '만 들다'가 된 것이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서 어간 말 자음 '르'을 지닌 용언이 어미와 결합할 때 르이 탈락하는 양상이 현대 국어와는 달라서,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더-, -디, -디'

앞에서 '르'이 탈락하였다.

%9-6 **자피여**: 잡히어. 자피-+-어(연결 어미). '자피다'는 동사 '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다.

%9-7 **원소노로**: 원손으로. 원손+오로(←오로, 부사격 조사). '오로'에서 '로'의 모음 '노'의 영향으로 앞 음절의 모음 '·'가 '노'로 원순모음화 하여 '오로'로 나타난 것이다.

%9-8 **아비**: 아버의. 압(←아비)+이(관형격 조사). '아비, 어미, 아기' 등 'ㅣ'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체언이 관형격 조사 '이/의'나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 어간 말 'ㅣ'모음이 탈락하였다.

%9-9 **휘뚜루며**: 휘두르며. 휘뚜루-+-며(연결 어미). '휘두르다'의 옛말이 중세 국어에서는 '휘두르다'로 나타났는데, 접두사 '휘-'과 동사 '두르다'가 결합한 것이다. '휘두르-'에서 첫 음절의 말음 '스'의 영향으로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가 되고, 두 번째 음절의 모음 '누'의 영향으로 그 뒤 음절의 모음 'ㅡ'가 '누'로 바뀐 것을 표기에 반영하여 '휘뚜루-'로 나타난 것이다.

%9-10 **저리고**: 위협하고. 저리-+-고(연결 어미). '저리다'는 "위협하다, 두렵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이다. 동의어로 '저히다'도 존재하였는데, '저히다'는 "두려워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절-'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었다.

%9-11 **미조차**: 뒤쫓아. 미조차-+-아(연결 어미). "(~의 뒤를) 따르다"의 의미를 지닌 '미쫓다'의 '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한자 '尾'나 '密' 또는 용언 어간 '밋-', '밀-'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명확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9-12 **씩이여**: 끌려. 썩이-+-어(연결 어미). '씩이다'는 "끌리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긁이다'가 '긁이다>*그시다>*그이다>씩이다'의 변화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9-13 **오나늘**: 오거늘. 오-+-나늘(연결 어미). '-나늘/나늘'은 연결 어미 '-거늘, -아늘/어늘, -야늘/여늘'과 이형태 관계로, 동사 '오다'와만 결합하였다.

%9-14 **세나라**: 세웠다. 세-+-나라(종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이다.

- %10-1 주인공 명: 연수(延守)
- %10-2 성씨: 박(朴)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경상남도
- %10-5 지역2: 창녕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단종
- %10-8 신분: 미상
- %10-9 성별: 남성
- %10-10 역사 사건:

영산(靈山). 경상남도 창녕 지역의 옛 지명.

경태(景泰). 명나라 제7대 왕인 경종의 연호. 1450년부터 1457년까지 사용되었다. 경태 을 해년은 1455년이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緯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 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

나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단종 2년(1454년) 8월 17일(병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중략) 영산현(靈山縣)의 `朴延壽`는 나이가 열 살인데, 그 아버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므로 낮을 휘두르며 쫓아가서 호랑이가 마침내 버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그 효성(孝誠)과 절조(節操)가 세속(流俗)에서 뛰어나니, 청컨대 모두 복호(復戶)하고.(중략) 이들은 모두 효행(孝行)이 탁이(卓異)하니, 청컨대,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소서. (중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교지(教旨)를 내려 효자(孝子)·절부(節婦)를 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제도(諸道) 감사(監司)가 그 실상과 자취[實跡]를 기록하여 아뢰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단종실록]에는 본문과 달리 박연수(朴延壽)로 표기되어 있다.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7ㄱ-7ㄴ

%1 극일순호(克一馴虎)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7ㄱ

%3 극일이 호랑이를 길들이다

%4 김극일은 김해 사람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머니에게 난 부스럼을 빨아 간호하고, 아버지 병의 병세를 알기 위해 대변을 맞보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묘 옆에 초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며 살기를 여섯 해 동안 하였다. (어느 날) 호랑이가 무덤 곁에 와 새끼를 기르니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먹여 집짐승 기르듯이 하였다. 아버지에게는 첩들이 있었는데, 섬기기를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와 같이 하였다. 그 첩들이 죽으니 다 일 년 간 상복을 입었다. 1464년에 (임금께) 여쭙니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김극일이는 김희 %5-1사름미라 성이 %5-2지그기 %5-3효도롭더니 어미 위하야 %5-4브으름 썰며 아비 위하야 대변을 맞보며 시묘를 여섯 히를 사더니 버미 무덤 %5-5겨퇴와 샷이 치거늘 제하고 물린 거슬 주어 %5-6머교디 %5-7집짐승 치드시 허더라 %5-8아비 첩들히 잇거늘 섬교디 아비 사라 이실 적 7ㄱ티 허더니 죽거늘 다 %5-9그년 거상 니브니라 턴순 갑신에 %5-10연조와날 흥문 %5-11세니라

%6 金克一金海人 性至孝 爲母吮疽 爲父嘗糞 前後廬墓六年 有虎乳於墓傍 取祭餘飼之 如養家畜 父有賤妾二人 事之如父生時 及死泣服期年 天順甲申 事聞旌門

%7 김극일김해인 성지효 위모연저 위부상분 전후려묘육년 유희유어묘방 취제여사지 여양가축 부유천첩이인 사지여부생시 급사병복기년 천순갑신 사문정문

%8 김극일은 김해 사람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어미 위하여 부스럼을 빨며 아버지를 위하여 대변을 맞보며 시묘를 여섯 해를 살더니 범이 무덤 곁에 와 새끼 치거늘 제사 지내고 물린 것을 주어 먹이되 집짐승 치듯이 하더라. 아버지의 첩들이 있거늘 (그들을) 섬기되 아비 살아 있을 때같이 하더니 (아버지의 첩들이) 죽거늘 다 일 년 간 거상을 입으니라. 천순(天順) 갑신년에 여쭙거늘 흥문을 세우니라.

%9-1 사름미라: 사람이다. 사름+이-(서술격 조사)+-라(←다, 종결 어미). ‘사름미라’와 같은 연결 표기와 ‘사름이라’와 같은 분절 표기의 과도기적 형태인 중절 표기로 나타난 것이다.

%9-2 지그기: 지극(至極)히. ‘지극(어근)+-이(부사 파생 접미사)’의 구성이다.

%9-3 효도롭더니: 효성스럽더니. 효도롭+-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효도롭다’는 명사 ‘효도(孝道)’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롭-’이 결합한 것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효도로오-’로 이형태 교체하였다.

%9-4 브으름: 부스럼. 15세기에는 ‘부스럼’의 옛말이 ‘브스름’으로 나타났는데, 16세기에 ‘△’이 소실되면서 ‘브으름’이 되었다. 한편 16세기에는 ‘△’이 ‘ㅅ’으로 바뀐 ‘브스름’도 나타났다. 이는 남부 방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국어의 ‘부스럼’은 ‘브스름’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브으름’ 형태는 현대 국어의 ‘부름’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9-5 겨퇴: 곁에. 곁+의(부사격 조사). 형태상으로 관형격 조사와 동일하지만 ‘시간, 장소’ 등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는 ‘이/의’는 본래 ‘집, 아츰, 낮, 나조ㅎ, 밤, 앞,

봄, 7술ㅎ, 나모’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한정되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6 머교디: 먹이되. 머기+-오디(연결 어미). 연결 어미 ‘-오디/우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우-’가 탈락한 ‘-디’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현대 국어의 연결 어미 ‘-되’로 변화하였다.

%9-7 짐짐승: 집짐승. ‘짐승’의 옛말은 15세기에 ‘중싱’으로 나타났는데, ‘중싱>짐싱>짐승>짐승’으로 형태가 변화하였다. ‘중싱’은 “모든 생물”을 의미하는 한자어 ‘衆生’에서 기원하여 “동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는데, “동물”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항상 한글인 ‘중싱’으로 표기되었다.

%9-8 아비: 아버의. 압(←아비)+이(관형격 조사). ‘아비, 어미, 아기’ 등 ‘ㅣ’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체언이 관형격 조사 ‘이/의’나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 어간 말 ‘ㅣ’모음이 탈락하였다.

%9-9 그년: 기년(期年). 만 일 년이 되는 날.

%9-10 연조와날: 여쭙거늘. 연조오-(←연조+)-아날(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연조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연조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날/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날’, 동사 ‘허다’와 결합할 때는 ‘-야날/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1 세니라: 세웠다. 세+-니라(종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서-’에 사동 접미사 ‘-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이다.

%10-1 주인공 명: 극일(克一)

%10-2 성씨: 김(金)

%10-3 본관: 김해

%10-4 지역1: 경상남도

%10-5 지역2: 청도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단종

%10-8 신분: 문관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김극일(金克一).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효자.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용협(用協), 호는 모암(慕庵). 부모를 정성으로 간병하는 등 효자로 유명했다. 부친의 첩들도 그의 효성에 감복하여 재가하지 않고 수절했다고 한다.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에 그의 묘가 남아있다.

천순(天順). 중국 명나라 제6대 왕인 영종의 두 번째 연호. 1457년부터 1464년까지 사용하였다. 천순 갑신년은 1464년이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緙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 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단종 2년(1454년) 8월 17일(병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거늘,

“(중략) 경상도 청도군(淸道郡)의 장사랑(將仕郎) 김극일(金克一)은 그 어머니가 일찍이 등창이 나자 몸소 입으로 빨았으며, 어머니가 죽으니 흙을 저다 무덤을 만들고 무덤 곁에서 살면서 날마다 조석전(朝夕奠)을 올린 뒤에 아버지께 정성(定省)을 하였고, 아버지가 또 이질에 걸리자 그 똥의 달고 씹을 맛보아 가면서 간호하였으며, 아버지가 죽으니 또 여묘(廬墓)살이를 3년 동안 하였는데, 특별한 음식을 얻을 것 같으면 천신(薦新)하지 않고는 먹지를 아니하였으며, 영역(塋域) 밖의 숲속에 호랑이 새끼가 있으므로 제사(祭祀)지내고 남은 음식을 주어 가축(家畜)을 기르듯이 하였고, 아버지께 있었던 두 첩(妾)을 친어미같이 보살피며, 의복(衣服)과 음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첩이 감동하고 30여 년 동안 수절(守節)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중략) 이들은 모두 효행(孝行)이 탁이(卓異)하니, 청컨대,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소서. (중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교지(敎旨)를 내려 효자(孝子)·절부(節婦)를 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제도(諸道) 감사(監司)가 그 실상과 자취(實跡)를 기록하여 아뢰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87-81

%1 양옥감호(梁郁感虎)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87

%3 양옥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

%4 양옥은 산청 사람이다. 부모를 위하여 여섯 해 동안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흙과 돌을 저 날라 무덤을 만들었다. 어느 날 밤에 무덤 뒤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나서 보니, 큰 호랑이가 땅을 번디디고 큰 돌 세 개를 무덤가로 굴렀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말했다.

“효성에 감동하여 그러한 것이다.”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효자문을 세우고 벼슬을 내리셨다.

%5 양옥이는 산음 사름이라 부모 위하야 여섯 해 시묘 사더니 흙과 돌을 지어 무덤 %5-2땡 7더니 %5-3호룻바미는 무덤 뒤헤 울에 7큰 소리 잇싸늘 보니 큰 벼미 짜홀 %5-4번드디고 큰 돌 %5-5세홀 무덤사애 %5-6구우려 오니 사름미 호디 %5-7효성을 감동하야 %5-8그리타 허더라 %5-9연조와늘 흥문 %5-10세고 벼슬 %5-11히이시니라

%6 梁郁山陰人 爲父母廬墓六年 嘗擔土負石營其墓 一夜墓後有聲如雷 見大虎擄地轉三大石至墓側 人以爲孝感所致 事聞旌閭賞職

%7 양옥산음인 위부모려묘육년 상담토부석영기묘 일야묘후유성어뢰 견대호거지전삼대석지묘 측 인이위효감소치 사문정려상직

%8 양옥은 산음 사람이다. 부모를 위하여 여섯 해를 시묘 살더니, 흙과 돌을 지어 무덤을 만들더니 하룻밤에는 무덤 뒤에 우레 같은 소리가 있거늘 보니 큰 벼미 땅을 번디디고 큰 돌 셋을 무덤가에 굴러 오니 사람들이 말하되 효성에 감동하여 그리하였다 하더라. (임금께) 여쭙니 흥문을 세우고 벼슬을 시키셨다.

%9-1 돌흙: 돌+흙(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 ‘돌’의 옛말인 ‘돌ᄃᆞᆫ’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돌’로 나타났다.

%9-2 땡 7더니: 만들더니. 만들더니. 땡 7-(←땡굴-)+-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땡 굴다>땡들다>민들다/민들다>문들다/문들다>만들다’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현대 국어의 ‘만들다’가 된 것이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서 어간 말 자음 ‘르’를 지닌 용언이 어미와 결합할 때 ‘르’이 탈락하는 양상이 현대 국어와는 달라서,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더-, -디, -다’ 앞에서 ‘르’이 탈락하였다.

%9-3 호룻바미는: 하룻밤에는. 호룻밤+이(부사격 조사)+는(보조사). 형태상으로 관형격 조사와 동일하지만 ‘시간, 장소’ 등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는 ‘이/의’는 본래 ‘집, 야츰, 낮, 나조ᄃᆞᆫ, 밤, 앞, 봄, 7술ᄃᆞᆫ’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한정되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에’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4 번드디고: 번디디고. 발에 힘을 주고 버티어 디디고. 번드디--고(연결 어미). ‘번드디다’는 동사 ‘번-’과 ‘드디-’가 연결 어미 없이 어간끼리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9-5 **세훤**: 셋을. 세ㅎ+을(목적격 조사). '세ㅎ'은 '셋'의 옛말로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한 '세'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ㅎ 종성 체언은 대개 근대 국어 이후로 종성의 'ㅎ'이 탈락한 형태로 변화하였으나, 수사 '세ㅎ, 네ㅎ'는 각각 '셋, 넷'으로 종성의 'ㅎ'이 'ㅅ'으로 변화하였다.

%9-6 **구우려**: 굴려. 구우리--+어(연결 어미). 현대 국어 '굴리다'의 옛말은 '구우리다'였는데, 제2 음절의 모음 'ㅁ'의 영향으로 제1 음절의 모음이 '구'로 바뀐 '구우리다'도 나타났다.

%9-7 **효성을 감동햐야**: 효성에 감동하여. 효성+을(목적격 조사)#감동ㅎ--+어(연결 어미). 현대 국어의 '감동하다'는 자동사로서 대개 '~에 감동하다'와 같이 감동의 대상이 부사어로 나타나지만,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서 '감동햐다'는 자동사로 쓰이는 한편으로 여기에서 처럼 감동의 대상을 목적으로 갖는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였다.

%9-8 **그리타**: 그리하였다. '그리ㅎ--+다(종결 어미)'가 줄어든 형태이다.

%9-9 **연즈와늘**: 여쭙거늘. 연즈오-(←연즈-)+-아늘(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연즈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연즈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햐다'와 결합할 때는 '-야늘/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0 **세고**: 세우고. 세--+고(연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서-'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이다.

%9-11 **히이시나라**: 하게 하셨다. 시기셨다. 히이-(동사)+-시-(선어말 어미)+-나라(종결 어미). '히이다'는 동사 'ㅎ-'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사동사이다.

%10-1 주인공 명: 옥(郁)

%10-2 성씨: 양(梁)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남도

%10-5 지역2: 산청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세종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양옥(梁郁). 생몰 미상. 조선 전기의 효자. 부모 생전에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고,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3일 동안 먹지도 않았고 3년을 시묘살이했다. 모친 사후에는 합장 후 다시 3년 시묘살이를 하였다. 가산을 다 팔아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효행에 관련된 설화들이 전하며 세종 때에 정문을 받았다. 해민국 녹사로도 제수되었다.

산음(山陰). 경상남도 산청 지역의 옛 지명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 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세종 14년(1432년) 9월 13일(무진)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략) 산음현(山陰縣) 사람 양옥(梁郁)은 부모를 섬기면서 혼정신성

(昏定晨省)을 조심스럽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을 해 드렸으며, 아버지가 죽으매 3일 동안을 먹지 않고, 3년 동안을 무덤에서 초막살이를 했으며, 어머니가 죽으매 아버지와 합장(合葬)하고, 종족(宗族)과 이웃 사람에게 빌어 얻고, 가산(家産)을 다 팔아서 제사를 받들고, 또 3년 동안을 무덤에서 초막살이를 했습니다. (후략)” 하니, 명하여 상정소(詳定所)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김인(金物)·양옥(梁郁)·오민경(吳旻庚)·윤은보(尹殷保)·변포(卞袍)·임유(任柔)·강숙전(康叔全)·조선(趙旋)·이기(李奇)·김효량(金孝良)·전좌명(田佐命)·이기우(李奇遇)·서졸(徐鷲) 등은 정문(旌門)을 세우고 서용(敍用)하게 하며, 고용례(高用禮)와 박침(朴忱)은 서용하게 하며, 조씨(曹氏)는 정문(旌門)을 세우고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9ㄱ-9ㄴ

%1 신지호천(信之號天)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9ㄱ

%3 황신지가 하늘을 부르다

%4 별시위 황신지는 고성 사람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나이 일흔아홉에 병이 심하여 기절하니, 황신지가 어머니를 안고 하늘을 부르며 어머니의 목숨을 이어 달라고 빌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서 열한 해를 더 살고 돌아가셨다. 그 후로 장례 치르는 일과 제사 지내는 일을 정성으로 하면서 죽을 때까지 슬퍼하였다.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그에게 벼슬을 두 번 내렸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

%5 %5-1별시위 %5-2황신진은 고성 사르미라 효성이 지극더니 어미 %5-3나히 닐흔아홉인 제 %5-4병이 디터 기절허거늘 신지 아나서 하늘 브르고 %5-5목수를 빈대 %5-6사흔날 채 다시 사라서 열흔 히채 죽거늘 %5-7송장 %5-8제단을 %5-9정성으로 허야 종신토록 %5-10슬허허더니 %5-11열즈와늘 두 번 벼슬 %5-12히이사디 오디 아니허니라

%6 別侍衛黃信之高城人 孝誠純至 母年七十九 疾革氣絕 信之抱持 號天乞命 至三日乃甦 後十一年而歿 葬祭盡誠 哀慕終身 事聞再授官不至

%7 별시위황신지고성인 효성순지 모년칠십구 질혁기절 신지포지 호천결명 지삼일내소 후십일 년이물 장제진성 애모종신 사문재수관부지

%8 별시위(別侍衛) 황신지는 고성 사람이다. 효성이 지극하더니 어미 나이 일흔 아홉인 때 병이 심하여 기절하거늘 신지가 안아서 하늘을 부르고 목숨을 비니 (어미가) 사흘날째 다시 살아서 열한 해째에 죽거늘 송장(送葬)과 제전(祭奠)을 정성으로 하여 종신토록 슬퍼하더니, (임금께) 여쭙거늘 두 번 벼슬을 시키시되 오지 않았다.

%9-1 **별시위**: 조선 시대에, 오위 가운데 용양위에 속한 장교 부대. 내금위의 취제에 뽑힌 사람과 무과 복시에서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을 뽑아서 편성하였다.

%9-2 **황신진은**: 황신지는, ‘황신지(고유명사)+는(보조사)’의 구성인데, 중철 표기를 하여 ‘황신진는’으로 나타났다.

%9-3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이’의 옛말인 ‘나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하여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4 **병이 디터**: 병이 심하여. 병+이(주격 조사)#덜+--어(연결 어미). 동사 ‘덜다’는 현대 국어 ‘질다’의 옛말로,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 시기에는 색채나 농도 외에 “(병이)심하다, 깊다”의 의미로도 쓰였다.

%9-5 **목수를 빈대**: 목숨을 비니. 목숨+을(목적격 조사)#비-(←빌-)+--ㄴ대(연결 어미). 여기서 ‘빌다’는 “달라고 호소하여 얻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9-6 **사흔날째**: 사흘째 되던 날에. ‘-채’는 현대 국어 접미사 ‘-째’의 옛말이다. ‘사흔날’은 ‘사흘날’의 옛말로, ‘사흘+ㅅ(관형격 조사)#날’의 구성을 지닌 합성어 ‘사흔날>사헛날[사흔날]’에서 자음동화, 특히 비음화를 겪은 형태이다.

%9-7 **송장**: 송장(送葬). 죽은 이를 장사 지내어 보냄.

%9-8 **제단**: 제전(祭奠). 의식을 갖춘 제사와 갖추지 아니한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9-9 **정성으로**: 정성으로. 정성+오로(←으로,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오로/으로’에서 제2 음절 ‘로’의 모음 ‘오’의 영향으로 앞 음절의 모음 ‘·/ㅡ’가 ‘오’로 원순모음화하여 ‘오로’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9-10 **슬허허더니**: 슬퍼하더니. 슬허ㅎ--+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슬허허다’는 “슬퍼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슬-’에 강조를 나타내는 ‘-어ㅎ-’가 결합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동사 ‘슬-’은 사라지고 여기에서 파생된 형용사 ‘슬프-’만 남아 있다.

%9-11 **열즈와늘**: 여쭙거늘. 열즈오-(←연즈-)+-아늘(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열즈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열즈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ㅎ다’와 결합할 때는 ‘-야늘/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2 **히이사디**: 하게 하시되, 시키시되. 히이+--시-(선어말 어미)+-오디(연결 어미). 선어말 어미 ‘-시-’는 연결 어미 ‘-오디’나 명사형 어미 ‘-옵’과 결합할 때 ‘-샤-’로 이형태 교체를 하여 각각 ‘-사디, -삼’으로 나타났다. ‘히이다’는 동사 ‘ㅎ-’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사동사이다.

%10-1 주인공 명: 신지(信之)

%10-2 성씨: 황(黃)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강원도

%10-5 지역2: 고성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성종

%10-8 신분: 무관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별시위(別侍衛). 조선 시대에, 오위 가운데 좌위에 속한 군대 조직. 최초로 국왕의 친병이었으나 위병(衛兵)으로 전환되었다. 보통 1,500명 정도를 5조로 나누어 1조 300명이 6개월씩 교대 근무하였다. 복무하는 군인에게는 종4품부터 종9품까지 체아록(遞兒祿)을 지급하였다.

황신지(黃信之). 조선 전기의 효자, 무신. 종5품 무관직인 부사직(副司直)에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모친이 89세에 이르기까지 봉양을 정성껏 하였고, 병이 위독하여 울부짖자 모친이 깨어나 다시 오랜 기간 살았다고 전한다.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3년(1472년) 9월 21일(갑인) 일곱 번째 기사.

예조(禮曹)에서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성(高城) 사람 행 부사직(行副司直) 황신지(黃信之)는 그 어미가 나이 89세가 되도록 봉양함에 마음을 다했는데, 어미가 병에 걸리자 잠시 동안도 결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어미의 병이 위독하여 기절(氣絕)함에 미처서는 신지가 안고 하루의 낮과 밤을 경과하였더니, 그 어미가 소생(蘇生)하여 지금까지 병이 없이 편히 지내므로 한 고을이 이를 칭송합니다. 청컨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로 하여금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여 권장(權獎)함을 보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0ㄱ-10ㄴ

%1 방계수상(邦啓守喪)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0ㄱ

%3 김방계가 상(喪)을 지키다

%4 김방계는 성주 사람이다. 부모가 연이어 돌아가시고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홉 해 동안 묘 옆에 초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면서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김방계는 성주 사람이라 아버지의 거상을 니어 닦고 또 하나비 거상을 니버 아홉 히를 시묘 사라 한 번도 지뵈 오디 아니하더니 연즈와늘 흥문 세니라

%6 金邦啓星州人 連遭父母喪 又代祖父喪 凡九年廬墓 一不到家 事聞旌閭

%7 김방계 성주인 연조부모상 우대조부상 범구년려묘 일부도가 사문정려

%8 김방계는 성주 사람이다. 아버지의 거상을 연이어 입고 또 할아버지의 거상을 입어 아홉 해를 시묘 살아 한 번도 집에 오지 아니하더니 (임금께) 여쭙거늘 흥문을 세우니라.

%9-1 **성주**: 성주(星州). ‘州’의 한자음으로는 ‘쥬’와 ‘쥬’가 공존하였는데(예: 州 고을 쥬<광주 판 천자문 26ㄴ>, 州 큰 고을 쥬<신증유합 상:19ㄱ>), 이 문헌에서는 주로 ‘쥬’가 쓰였다.

%9-2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아버이)+의(관형격 조사). ‘아버이, 아비, 어미, 아기’ 등 ‘ㅣ’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체언이 관형격 조사 ‘이/의’나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 어간 말 ‘ㅣ’모음이 탈락하였다.

%9-3 **니어**: 이어. 니-(←닛-)+-어(연결 어미). 동사 ‘있다’의 옛말은 15세기에 ‘닛-/닐-’으로 나타났고, 16세기 이래로 Δ이 소멸하면서 ‘닛-/니-’로 나타나게 되었다.

%9-4 **하나비**: 할아버지의. 하납(←하나비)+이(관형격 조사). ‘하나비, 아비, 어미, 아기’ 등 ‘ㅣ’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체언이 관형격 조사 ‘이/의’나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 어간 말 ‘ㅣ’모음이 탈락하였다. ‘하나비’는 ‘하-(형용사)+-니(관형사형 어미)#아비(명사)’의 구성을 지닌 합성어인데, ‘하다’는 “크다”의 의미이다.

%9-5 **지뵈**: 집에. 집+의(부사격 조사). 형태상으로 관형격 조사와 동일하지만 ‘시간, 장소’ 등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는 ‘이/의’는 본래 ‘집, 아츰, 닛, 나조ㅎ, 밤, 앞, 봄, ㄱ술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한정되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6 **연즈와늘**: 여쭙거늘. 연즈오-(←연즈-)+-아늘(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연즈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연즈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늘/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7 **세니라**: 세웠다. 세-+니라(종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서-’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이다.

%10-1 주인공 명: 방계(邦啓)

%10-2 성씨: 김(金)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북도

%10-5 지역2: 성주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미상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 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1ㄱ-11나

%1 옥량백조(玉良白棗)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1ㄱ

%3 정옥량이 흰 대추나무를 키우다

%4 정옥량은 합천 사람이다. 경산 현감을 하였는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장례와 제사를 예법대로 하였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사당에 메 올리는 제사를 죽을 때까지 하였다. 사당 옆에 흰 대추나무 일곱 그루가 홀연히 자라나니, 사람들이 말했다. “효성에 감동한 것이다.”

%5 정옥량은 삼개 사름이라 하얗 현감 하였더니 텃성이 %5-1지그기 %5-2효도로아 %5-3 벼슬 말고 본향의 가 어미를 효양하더니 어미 죽거늘 송장이며 제사를 %5-4레다이 하며 사당에 아침 %5-5나죄 %5-6되 제호물 죽도록 하니 사당 %5-7겨띄 흰 대추나무 %5-8도 홀연히 나거늘 사름이 날오디 %5-9효성으로 %5-10그러타 하니라

%6 鄭玉良三嘉人 仕爲河陽縣監 性至孝 棄官歸鄉里 奉養其母 母歿葬祭以禮 家廟朝夕上食終身 廟傍忽生白棗七株 人以爲孝感

%7 정옥량삼가인 사위하얗현감 성지효 기관귀향리 봉양기모 모물장제이레 가묘조석상식종신 묘방홀생백조칠주 인이위효감

%8 정옥량은 삼가(三嘉) 사람이다. 하양(河陽) 현감을 하였는데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벼슬을 그만두고 본향에 가 어미를 봉양하더니, 어미가 죽거늘 송장이며 제사를 예법대로 하며 사당에 아침저녁으로 메를 제사에 올림을 죽을 때까지 하니, 사당 곁에 흰 대추나무 일곱 그루가 홀연히 나거늘 사람들이 이르되 효성 때문에 그러하다 하였다.

%9-1 지그기: 지극(至極)히. ‘지극(어근)+-이(부사 파생 접미사)’의 구성이다.

%9-2 효도로아: 효성스러워. 효도로오-(←효도롭-)+-아(연결 어미). ‘효도롭-’은 명사 ‘효도(孝道)’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롭-’이 결합한 것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효도로오-’로 이형태 교체하였다. ‘효도로오+-아’는 ‘효도로와’로 나타나야 할 것이나, ‘와’의 앞 음절 모음이 ‘ㄴ’인 경우에는 ‘와’의 반모음 ‘w’가 탈락하여 ‘아’로 나타나는 일이 간혹 있었다.

%9-3 벼슬 말고: 벼슬을 그만두고. 벼슬#말+-고(연결 어미). ‘말다’는 현대 국어와 같은 “금지”의 의미 외에도 “그만두다, 사양하다” 등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만두다”의 의미로 쓰였다.

%9-4 레다이: 예법에 맞게. 형용사 “레답-”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인데, 명사 ‘례(禮)’에 파생 접미사 ‘-답-’이 결합한 형용사 “레답다”가 단독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9-5 나죄: 저녁에. 중세 국어에서 “저녁”을 의미하는 명사로는 ‘나조ㅎ’도 있었는데,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히’([나조ㅎ+이(부사격 조사)]에서 ‘ㅎ’가 탈락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6 뉘 제호물: 메를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뉘#제ㅎ+-음(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上食’을 ‘뉘 제후’로 언해하였다. ‘뉘’는 ‘메’의 옛말로 “제사 때 신위(神位) 앞에 놓는 밥”을 의미한다.

%9-7 **격퇴**: 곁에. 곁+의(부사격 조사). 형태상으로 관형격 조사와 동일하지만 ‘시간, 장소’ 등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는 ‘이/의’는 본래 ‘집, 아츰, 낮, 나조ㅎ, 밤, 앞, 봄, 7술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한정되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8 **도**: ‘그루’의 옛말.

%9-9 **효성오로**: 효성오로. 효성+오로(←오로,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오로/오로’에서 제2 음절 ‘로’의 모음 ‘o’의 영향으로 앞 음절의 모음 ‘·/ㅡ’가 ‘o’로 원순모음화하여 ‘오로’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9-10 **그러타**: 그러하다. ‘그러ㅎ--+다(종결 어미)’가 줄어든 것이다.

%10-1 주인공 명: 옥량(玉良)

%10-2 성씨: 정(鄭)

%10-3 본관: 초계

%10-4 지역1: 경상남도

%10-5 지역2: 합천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태조~세종

%10-8 신분: 문관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정옥량(鄭玉良). 1395(태조 4)~1447(세종 29). 본관은 삼가(三嘉/草溪), 자는 곤보(崑甫), 호는 경재(耕齋)이다. 아버지는 증승정원도승지 사중(鄭師仲)이며, 어머니는 임급(任伋)의 딸이다. 길재(吉再)와 권우(權遇)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박팽년(朴彭年)·유성원(柳誠源)·정창(鄭昌)·이석형(李石亨)·정준(鄭俊) 등과 교우가 두터웠다. 세종 때에 효행으로 천거되어 봉직랑행하양현감(奉直郎行河陽縣監)에 임용되었으나 곧 향리에 은거하였다. 성품이 지효(至孝)하여 편모를 극진히 봉양하였고, 사후에는 장례와 시묘는 물론 종신토록 상식(上食)을 올렸다.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자 어머니가 일찍이 대추를 좋아했으므로, 제사와 치전(致奠)에 대추를 올리지 않은 적이 없고, 매양 뜰 앞의 대추나무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니, 대추나무가 열매를 맺음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그 열매가 모두 흰색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효자(孝子) 백조당(白棗堂)’이라고 일컬었다. 뒤에 효행의 표본으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 『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되었다. 1516년(중종 11) 정려가 세워지고, 1689년(숙종 15)에는 사람들이 평천(平川)에 사(祠)를 세우고 제향하였으며, 1701년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경재문집』이 있다.

<출처: 네이트 한국학사전>

삼가(三嘉). 경상남도 합천의 옛 지명.

하양(河陽). 경상북도 경산 지역의 옛 지명.

현감(縣監). 조선 시대 최하위 지방 행정 구역 단위인 현(縣)의 담당자로 종6품 관직이었다.

%10-11 기타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2ㄱ-12ㄴ

%1 금지박호(今之撲虎)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2ㄱ

%3 금지가 호랑이를 때리다

%4 금지는 진주에 사는 사람의 딸이다. 열두 살 때 어머니를 따라 산에 있는 밭에 가서 김을 매는데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잡혀 갔다. 금지가 한 손으로는 어머니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호미를 잡아 호랑이를 때리며 크게 소리쳤다. 백 걸음쯤 가서 호랑이가 어머니를 버리고 갔다. 금지가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옮겨 두고 밤새도록 안아서 울고는 옷을 팔아 관을 사 묻었다.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금지는 %5-1진쥬 빅성의 썩리라 %5-2나히 %5-3열돌힌 제 어미 조차 %5-4밧바티 가 %5-5기음 미다가 어미 범의게 %5-6자피여늘 금지 훈 %5-7소노로 어미 잡고 훈 소노로 호미 자바 버를 티며 7장 %5-8브르지지고 빅 보나 가니 버미 브리고 %5-9니겨늘 주겨 물 %5-10지비 가져다가 두고 새도록 아나서 울고 오솔 프라 관 사 무드니라 %5-11열즈와늘 흥문 %5-12세니라

%6 今之晉州民女 年十二從母往鋤山田 母爲虎所攫 今之一手執母一手執鋤 撲虎大呼至百步 許虎乃去 收屍置其家 徹夜抱哭 賣衣買棺而葬 事聞旌閭

%7 금지진주민녀 년십이종모왕서산전 모위호소확 금지일수집모일수집서 박호대호지백보 허호 내겨 수시치기가 철야포곡 매의매관이장 사문정려

%8 금지는 진주 백성의 딸이다. 나이 열둘인 때 어미를 좇아 산의 밭에 가서 김을 매다가 어머니가 범에게 잡히거늘 금지가 한 손으로 어미를 잡고 한 손으로 호미를 잡아 범을 치며 매우 부르짖고 백 보나 가니 범이 (어미를) 버리고 가거늘 주검을 집에 가져다가 두고 밤새도록 안아서 울고 옷을 팔아 관을 사 묻었다. (임금께) 여쭙거늘 흥문을 세우니라.

%9-1 진쥬: 진주(晉州). ‘州’의 한자음으로는 ‘쥬’와 ‘쥬’가 공존하였는데(예: 州 고을 쥬<광주 판 천자문 26ㄴ>, 州 큰 고을 쥬<신증유합 상:19ㄱ>), 이 문헌에서는 주로 ‘쥬’가 쓰였다.

%9-2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이의 옛말인 ‘나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하여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3 열돌힌: 열둘인. 열돌ㅎ+이-(서술격 조사)+-ㄴ(보조사). 수사 ‘돌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돌’로 나타났다.

%9-4 밧바티: 산에 있는 밭에. 밧+ㅅ(관형격 조사)#밭+이(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 ‘ㅅ’은 무정 체언이나 높임의 자질을 지닌 유정 체언 뒤에 쓰였다. 형태상으로 관형격 조사와 동일하지만 ‘시간, 장소’ 등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는 ‘이/의’는 본래 ‘집, 아츰, 낮, 나조ㅎ, 밤, 앞, 봄, 7술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는데,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에’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5 기음: 김. 논밭에 난 잡풀. ‘기슴>기음>김’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현대 국어의 ‘김’이 되었

다. ‘기슴’은 “논밭에 잡풀이 많이 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깁’에 명사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것이다.

%9-6 자피여늘: 잡히거늘. 자피+-어늘(연결 어미). ‘자피다’는 동사 ‘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다. 연결 어미 ‘-어늘’이 ‘-여늘’로 나타난 것은 앞의 어간 말음 ‘ㅣ’의 영향으로 반모음 ‘y’가 첨가된 것이다. 연결 어미 ‘-아닐/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7 소노로: 손으로. 손+오로(←오로,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오로/오로’에서 제2 음절 ‘로’의 모음 ‘o’의 영향으로 앞 음절의 모음 ‘o’/‘-’가 ‘o’로 원순모음화하여 ‘오로’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9-8 브르지지고: 부르짖고. 브르지지+-고(연결 어미). 현대 국어 ‘부르짖다’의 옛말인 ‘브르지지다’는 동사 ‘브르’와 ‘지지’가 연결 어미 없이 어간끼리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9-9 니겨늘: 가거늘. 니+-거늘(연결 어미). ‘니다’는 “가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연결 어미 ‘-아/어’나 ‘-오다’, 관형사형 어미 ‘-르’ 등과 결합할 때에는 ‘녀’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거늘’은 ‘-아닐/어늘, -나닐, -야닐/여늘’과 이형태 관계로, 대개 비타동사와 결합하였다.

%9-10 지비: 집에. 집+이(부사격 조사). 이때 ‘이’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장소”를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부사격 조사 ‘이/의’는 본래 ‘집, 아츰, 낮, 나조ㅎ, 밤, 앞, 봄, 7술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는데,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에’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11 열즈와늘: 여쭙거늘. 열즈오-(←열즈-)+-아닐(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열즈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열즈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닐/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닐/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2 세니라: 세웠다. 세+-니라(종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서’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이다.

%10-1 주인공 명: 금지(今之)

%10-2 성씨: 미상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남도

%10-5 지역2: 진주시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성종

%10-8 신분: 평민

%10-9 성별: 여성

%10-10 역사 사건:

금지(今之). 조선 전기의 효녀. 모친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극력 저항하여 모친의 시신을 지켜냈고, 옷을 팔아 예에 맞춰 장례를 치렀다. 후에 정문과 복호를 받았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緯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 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21년(1490년) 6월 20일(신축)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전지(傳旨)를 내리기를, “효자(孝子)와 열부(烈婦)는 간혹 우부우부(愚婦愚夫)로서 지극히 미천한 자에게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대개 상도(常道)를 지키려는 천성(天性)이 일찍이 소멸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므로 한번 격발(激發)시키는 바가 있으면, 착한 마음이 곧 싹트는 것이니, 더욱이 윗사람이 가상(嘉尙)하게 여겨 장려(獎勵)하는 것이겠는가? 그래서 보고 느껴서 흥기(興起)하는 기틀이 저절로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근래에 도성(都城) 아래에 계산(戒山)이라고 하는 우민(愚民)이 있었는데, 여진 마음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잡시의 고통을 참고 어미의 목숨을 잊게 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겨 곧 포상(褒賞)하여 장려(獎勵)하였으니, 백성을 교화(教化)하여 풍속(風俗)을 이루는 데에는 이보다 절실한 바가 없다. 그러니 여러 도(道)에 효자와 열부를 널리 물어서 치계(馳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조이(曹伊)라고 하는 밀양(密陽)의 여인이 딸 금지(今之)를 데리고 과부(寡婦)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금지를 데리고 집 북쪽 산의 밭에 가서 김을 매고 있는데, 뜻밖에 호랑이가 나타나 (조이를) 잡아 끌고 가니, 금지가 죽을 마음을 먹고 내달아 한 손으로 어미의 다리를 잡고 거의 1백 보에 이르러 주먹에 쥔 돌로 호랑이를 때리자, 호랑이가 내버리고 갔다. 그 어미를 보니, 물린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므로, 입고 있던 벼로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屍身)을 안고 지키다가, 옷을 팔아 관곽(棺槨)을 사고 예(禮)를 갖추어 장사지냈다 한다. (후략)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4인의 행적(行蹟)을 사유(事由)를 갖추어 계문(啓聞) 하였으므로, 유사(有司)에 명하여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도록 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3ㄱ-13ㄴ

%1 한로상리(漢老嘗痢)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3ㄱ

%3 전한로가 똥을 맞보다

%4 전한로는 부여 사람이다. 나이 아홉 살 때에 아버지가 이질을 앓았는데, 전한로는 (아버지의 병세를 알기 위해 아버지의) 대변을 맞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삼 년 동안 묘 옆에 초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면서 소금과 나물을 먹지 않았다. 또한 열세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아버지 때와 같이 하였다.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전한로에게) 벼슬을 내리셨다.

%5 전한로는 석성 사루미라 %5-1나히 아홉 %5-2서레 아비 %5-3즈칙유물 %5-4어더늘 %5-5한뢰 대변을 맞보더니 죽거늘 삼 년 시묘하고 소금이며 %5-6누물홀 먹디 %5-7아니타라 %5-8열세헤 어미 죽거늘 쏘 %5-9그 양으로 하더니 %5-10열즈와날 벼슬 %5-11히이시니라

%6 田漢老石城人 年九歲 父得泄痢 漢老嘗糞 及歿 廬墓三年 不食鹽菜 十三歲 母沒 亦如之事聞特授司勇

%7 전한로석성인 년구세 부득설리 한로상분 급물 여묘삼년 부식염채 십삼세 모물 역여지 사문특수사용

%8 전한로는 석성 사람이다. 나이 아홉 살에 아비가 이질을 얻거늘 한로가 대변을 맞보더니 (아비가) 죽거늘 삼 년을 시묘하고 소금이며 나물을 먹지 아니하였다. 열세 살에 어미가 죽거늘 또 그런 양으로 하더니 (임금께) 여쭙거늘 벼슬을 시키시니라.

%9-1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이’의 옛말인 ‘나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하여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2 서레: 살에. 설+에(부사격 조사). 중세 국어에서는 “나이를 세는 단위”의 의미를 지닌 의존 명사가 ‘살’과 ‘설’ 두 가지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설’은 “한 해”의 의미와 “한 해의 처음”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근대 국어 시기에 점차 ‘살’은 “나이를 세는 단위”를, ‘설’은 “한 해의 처음”을 가리키게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여전히 “나이를 세는 단위”로 ‘설’이 쓰였음을 볼 수 있다.

%9-3 즈칙유물: 설사함음. 즈칙+-음(명사형 어미)+음(목적격 조사). ‘즈칙다’는 “설사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이다.

%9-4 어더늘: 얻거늘. 얻+-어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늘/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5 한뢰: 한로가. 한로(고유명사)+ㅣ(주격 조사).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할 때에는 이처럼 ‘ㅣ’가 쓰였다. 17세기에 주격 조사 ‘가’가 등장하였으나 그 쓰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19세기까지도 문헌에는 ‘ㅣ’가 쓰인

경우가 많았다.

%9-6 **나무홀**: 나무을. 나무홀+을(목적격 조사). '나무'의 옛말인 '나무홀'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나무'로 나타났다. 현대 국어 '나무'은 '나무>나무>나무>나무'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이다.

%11

%9-7 **아니터라**: 아니하였다. '아니ㅎ--+더-(선어말 어미)+-리(←-다, 종결 어미)'가 줄어든 형태이다.

%12 이승희

%9-8 **열세해**: 열셋에. 열세ㅎ+에(부사격 조사). 수사 '셋'의 옛말인 '세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세'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은 근대 국어 이후에 종성의 'ㅎ'이 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수사 '세ㅎ, 네ㅎ'는 각각 '셋, 넷'으로 종성의 'ㅎ'이 '스'로 변화하였다.

%9-9 **그 양으로**: 그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그#양+으로(부사격 조사).

%9-10 **연조와늘**: 여쭙거늘. 연조오-(←연조-)++아늘(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연조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연조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늘/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1 **히이시니라**: 하게 하셨다, 시키셨다. 히이--+시-(선어말 어미)+-니라(종결 어미). '히이다'는 동사 '히-'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사동사이다.

%10-1 주인공 명: 한로(漢老)

%10-2 성씨: 전(田)

%10-3 본관: 미상

%10- 4 지역1: 충청남도

%10- 5 지역2: 부여군

%10- 6 시기: 조선

%10-7 연도: 단종

%10-8 신분: 양반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석성(石城). 현재의 충청남도 부여의 옛 지명.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단종 2년(1454년) 8월 17일(병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중략) 전한로(田漢老)는 나이 여덟 살이었을 때 알찍이 스승에게 글을 배웠는데, 스승이 배(梨)하나를 주었더니 전한로가 먹지 아니하므로, 스승이 그 까닭을 물으니, ‘어머니가 병환을 앓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드리고 와서 다시 공부를 하였다 합니다. 14세 되는 해에 그 아버가 죽자, 곡읍(哭泣)을 그치지 않고 무덤 곁에서 여묘(廬墓)살이 하므로 어미와 친족들이 연소(年少)함을 딱하게 여기고 굳이 말렸으나, 이를 듣지 않고 3년을 마쳤으며, 또 어미 상을 당해서도 역시 이처럼 하였습니니다. (중략) 이들은 모두 효행(孝行)이 탁이(卓異)하니, 청컨대,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소서.(중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교지(教旨)를 내려 효자(孝子)·절부(節婦)를 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제도(諸道) 감사(監司)가 그 실상과 자취[實跡]를 기록하여 아뢰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충청남도 부여군 석정면 정각리의 전한로 정려 사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00672&cid=200000000&categoryId=200003812>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4ㄱ-14ㄴ

%1 녹련료부(祿連療父)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4ㄱ

%3 이녹련이 아버지를 치료하다

%4 이녹련은 거창 사람이다. 아홉 살 때에 아버지가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는데, 이녹련이 손가락을 베어 약에 섞어 드리니 (아버지가 드시고) 병이 나왔다.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니록년이는 거창 사르미라 %5-1나히 아홉 %5-2서래 아비 %5-3사오나온 병 %5-4어더 늘 손가락을 %5-5버혀 약에 %5-6섯째 머기니 병이 %5-7도흐니라 %5-8연즈와늘 흥문 %5-9세니라

%6 李祿連居昌人 年九歲 父得惡疾 斷手指和藥以進 病愈 事聞旌閭

%7 이록련 거창인 년구세 부득악질 단수지화약이진 병유 사문정려

%8 이녹련은 거창 사람이다. 나이 아홉 살에 아버가 나쁜 병을 얻거늘 손가락을 베어 약에 섞어 먹이니 병이 좋으니라. (임금께) 여쭙거늘 흥문을 세우니라.

%9-1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이의 옛말인 '나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하여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2 서래: 살에. 설+애(부사격 조사). 중세 국어에서는 "나이를 세는 단위"의 의미를 지닌 의존 명사가 '살'과 '설' 두 가지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설'은 "한 해"의 의미와 "한 해의 처음"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근대 국어 시기에 점차 '살'은 "나이를 세는 단위"를, '설'은 "한 해의 처음"을 가리키게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여전히 "나이를 세는 단위"로 '설'이 쓰였음을 볼 수 있다.

%9-3 사오나온: 심한. 고치기 힘든. 사오나오-(←사오납-)+-ㄴ(관형사형 어미). '사오납다'는 현대 국어의 '사납다'가 지닌 의미 외에 "품질이 떨어지다, 열등하다, 정도가 심하다" 등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9-4 어더늘: 얻거늘. 얻+-어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아닐/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흐다'와 결합할 때는 '-야닐/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5 버혀: 베어. 버히+-어(연결 어미). '버히다>베히다>베다'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현대 국어의 '베다'가 되었다. '버히다'는 "베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빙-'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15세기에는 모음 교체형인 '바히다'도 같이 쓰였다.

%9-6 셋째: 섞어. 섞+-어(연결 어미). '섞다>섞다'의 형태 변화를 겪었다. '셋거'가 '셋째'로 표기된 것은 뒤 음절 초성이 된소리가 된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9-7 도흐니라: 좋아졌다. 나왔다. 돌+-으니라(종결 어미). 이때 '돌다'는 "좋아지다"의 의미를 지닌 자동사로서 사용되었다.

%9-8 연즈와늘: 여쭙거늘. 연즈오-(←연즈-)+-아닐(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연즈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연즈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닐/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흐다'와 결합할 때는 '-야닐/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9 세니라: 세웠다. 세+-니라(종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번 더 결합한 것이다.

%10-1 주인공 명: 녹련(祿連)

%10-2 성씨: 이(李)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남도

%10-5 지역2: 거창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미상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緯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 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5ㄱ-15L

%1 을시부부(乙時負父)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5ㄱ

%3 김을시가 아버지를 업고 나오다

%4 김을시는 창성 사람이다. 성 안에 불이 나서 김을시의 집에 옮겨붙었는데, 아버지가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김을시가 불 속으로 달려 들어가 아버지를 업고 나오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다.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쌀을 주시고 효자문을 세워 주었다.

%5 김을시는 창성 사루미라 성 %5-1안해서 불 나 제 지비 니어 볼거늘 아버 %5-2병하여 니러나디 못하더니 을시 브레 %5-3드라 드러가 아버 어버 내다가 %5-4어비아드리 브레다 주그니라 %5-5연조와늘 %5-6쌀 주시고 홍문 %5-7세니라

%6 金乙時昌城人 城中失火延及其家 父病不能起 乙時直入火焰中 負父而出 父子觸火俱死 事聞賜粟旌門

%7 김을시 창성인 성종실화연급기가 부병불능기 을시직입화장중 부부이출 부자축화구사 사문사속정문

%8 김을시는 창성 사람이다. 성 안에서 불이 나 제 집에 연이어 붙거늘 아버가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더니 을시가 불에 달려 들어가 아버를 업어 내다가 아버와 아들이 불에 다 죽으니라. (임금께) 여쭙거늘 쌀을 주시고 홍문을 세우니라.

%9-1 **안해서**: 안에서. 안ㅎ+애서(부사격 조사). ‘안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안’으로 나타났다.

%9-2 **병하여**: 병이 나서. 병들어. 병ㅎ--+여(연결 어미). ‘병하다’는 “병들다, 병이 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이다.

%9-3 **드라**: 달려. 돌-(←돈-)+아(연결 어미). “빨리 뛰어가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돈다’는 ㄷ 불규칙 용언으로서 모음 어미 앞에서는 그 여간 형태가 ‘돌’로 교체되었다.

%9-4 **어비아드리**: 아버지와 아들이. 어비아들+이(주격 조사). ‘어비아들’은 명사 ‘아버’와 ‘아들’이 결합한 합성어로, 합성 과정에서 ‘아버>어비’의 음운 교체가 일어났다.

%9-5 **연조와늘**: 여쭙거늘. 연조오(←연좁-)+아늘(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연좁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연조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늘/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6 **쌀**: 쌀. 현대 국어 ‘쌀’의 옛말인 ‘쌀’에서 어두의 ㅁ은 [ps]로 발음되는 어두자음군이였다. 현대 국어에서도 ‘조+쌀→좁쌀, 메+쌀→멧쌀’ 등과 같은 합성어에 ‘쌀’의 어두음 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어두자음군은 근대 국어 시기에 사라지고, 된소리로 바뀌었다.

%9-7 **세니라**: 세웠다. 세--+니라(종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서-’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번 더 결합한 것이다.

%10-1 주인공 명: 을시(乙時)

%10-2 성씨: 김(金)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평안북도

%10-5 지역2: 창성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성종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 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 명종 13년(1558년) 11월 16일(기축)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략) 본조(本曹)가 간수하고 있는 『등록(騰錄)』을 일일이 찾아보니 혹 불 속에서 어미를 업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혹 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으며,【김을시(金乙時)인데 창성(昌城) 사람이다. 성종조에 정려(旌閭)하고 쌀과 콩을 내렸다.】 김씨(吉氏)인데 홍원(洪原) 교생(校生) 서운문(徐允文)의 아내이다. 중종조(中宗朝)에 정려하고 복호(復戶)했다. (중략) 포상(褒賞)하는 특전은, 정문하고 복호하기도 하고, 정표(旌表)하고 물건을 상주기도 하고, 정문하고 그 자손을 벼슬시키기도 하여 그때마다 같지 않았습니다. 본조가 함부로 하기는 어렵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표하고 상품도 주고, 자손을 녹용하라.”
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6ㄱ-16ㄴ

%1 이박추호(二朴追虎)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6ㄱ

%3 두 박씨(박운과 박운산)가 호랑이를 쫓아가다

%4 박운은 창녕 사람이다. 그가 열네 살이고 동생 박운산이 여덟 살일 때,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혀갔다. 박운은 작은 도끼를 가지고 박운산과 함께 (호랑이를) 삼십여 걸음이나 쫓아가면서, 하늘을 부르며 크게 울었다. 그러자 호랑이가 아버지를 버리고 갔다. 박운은 아버지의 시신을 지고 돌아오고, 아우 박운산은 도끼를 들고 (형을) 따랐다.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박운이는 창녕 사르미라 %5-1나히 %5-2열네히오 제 %5-3아우 운산이는 나히 여덟이러니 제 아버 버미게 %5-4자피여 가거늘 박운이는 자근 %5-5도치 가지고 운산이와 %5-6뿔와 %5-7설흔나몬 거르미나 가며 하늘 부르며 %5-8하 운대 버미 %5-9버려늘 박운이는 주검 지고 운산이는 도치 가지고 %5-10미조차 오니라 %5-11연즈와늘 흥문 %5-12세니라

%6 朴云昌寧人 年十四 其弟云山年八 其父爲虎所攬 云持小斧 與云山追之三十餘步 呼天大哭 虎乃棄之 云負屍 云山執斧以隨 事聞旌閭

%7 박운창녕인 년십사 기제운산년팔 기부위호소람 운지소부 여운산추치삼십여보 호천대곡 호내기지 운부시 운산집부이수 사문정려

%8 박운이는 창녕 사람이다. 나이가 열넷이고 그의 아우 운산이는 나이 여덟이더니 그 아버가 범에게 잡혀 가거늘 박운이는 작은 도끼를 가지고 운산이와 따라가 서른 남짓 걸음이 나 가며 하늘을 부르며 매우 우니 범이 (아비를) 버리거늘 박운이는 주검을 지고 운산이는 도끼를 가지고 뒤쫓아 오니라. (임금께) 여쭙거늘 흥문을 세우니라.

%9-1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이의 옛말인 '나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하여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2 열네히오: 열넷이고. 열네ㅎ+이-(서술격 조사)+-오(←고, 연결 어미). 수사 '넷'의 옛말인 '네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한 '네'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은 근대 국어 이후에 종성의 'ㅎ'이 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수사 '세ㅎ, 네ㅎ'는 각각 '셋, 넷'으로 종성의 'ㅎ'이 'ㅅ'으로 변화하였다. 연결 어미 '-고'와 같이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어간 말음이 반모음 'y' 또는 'ㄹ'인 용언과 결합할 때에는 '-ㄱ'이 약화·탈락하여 '-오'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9-3 아우: 아우. 15세기에는 '아수'로 나타났는데, 16세기 이후에 △이 사라지면서 근대 국어에서는 '아우' 형태가 등장하였다. 현대 국어의 '아우'는 '아수>아우>아오>아우'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이다.

%9-4 자피여: 잡혀. 자피--어(연결 어미). '자피다'는 동사 '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다.

%9-5 도치: 도끼. 15세기에는 '도취'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에는 '도취'와 함께 '돛귀'도 존재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도끼'는 '돛귀>돛고>돛과>도끼'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9-6 뿔와: 따라. 뿔오--어(연결 어미). 현대 국어 '따르다'는 '뿔오>ㅍ르다>ㅍ르다>따르다'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이다.

%9-7 설흔나몬: 서른이 조금 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설흔/설흔'은 '서른'의 옛말이다. '나몬'은 동사 '남-'에 관형사형 어미 '-온'이 결합한 것으로 수사와 결합하여 "(해당하는 수를) 조금 넘는"의 의미를 나타내었는데, 현대 국어 '여남은'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9-8 하: 많이. 크게. 매우. "많다, 크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하다'의 어간이 그 자체로 접미사 없이 부사로 파생된 것이다.

%9-9 버려늘: 버리거늘. 버리--어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늘/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0 미조차: 뒤쫓아. 미쫓--아(연결 어미). "(~의 뒤를) 따르다"의 의미를 지닌 '미쫓다'의 '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한자 '尾'나 '密' 또는 용언 어간 '밋-, 밀-'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명확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9-11 연즈와늘: 여쭙거늘. 연즈오-(←연즈-)+-아늘(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연즈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연즈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늘/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2 세니라: 세웠다. 세--니라(종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이다.

%10-1 주인공 명: 운(云), 운산(云山)

%10-2 성씨: 박(朴)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남도

%10-5 지역2: 창녕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성종

%10-8 신분: 평민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흥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緯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흥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흥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 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흥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3년(1472년) 2월 29일(병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오백창(吳伯昌)의 계본(啓本) 안에, (중략) 창녕(昌寧) 사람 박운(朴云)·박운산(朴云山)은 선군(船軍) 박중생(朴衆生)의 아들로서, 박운은 나이 14세, 박운산은 나이 8세인데, 하루는 박중생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산골에 가서 김을 매다가 날

이 저물었는데, 박중생(朴衆生)이 범에게 물리게 되자 박운(朴云)은 작은 도끼를 갖고, 박운산(朴云山)은 그 아버지를 붙들고 놓지 않고 30보(步)를 끌려 가다가 범을 꾸짖고 하늘을 부르며 크게 우니, 범이 곧 버리고 갔습니다. 박운(朴云)은 그 시체를 호위하여 범과 더불어 상대하고, 박운산은 마을로 달려와 사람들에게 알려 함께 그 시체를 메고 집에 이르러 관곽(棺槨)을 갖추어서 장사지냈습니다. (후략) 신 등이 《대전(大典)》의 권장하는 조목을 자세히 보니, 이르기를, ‘효우(孝友)와 절의(節義)가 특이한 자는 벼슬, 혹은 물건으로 상을 주고, 더욱 특이한 자는 정문(旌門)·복호(復戶)한다.’ 하였으니, 득비(得非)·구음방(仇音方)·이판명(李判明)·박운(朴云)·박운산(朴云山)·곽송의(郭崇儀)의 처 정씨(鄭氏)는 행의(行義)가 뛰어나게 특이하니, 청컨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복호(復戶)하고 정문(旌門)하게 하며, 이양(李陽)의 처 김씨(金氏)는 정렬(貞烈)이 특이하니, 청컨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진(奠)을 드리고 정문(旌門)하게 하며, 백효원(白孝元)·박우효(朴由孝)·표연말(表浴沫)은 효행(孝行)이 가상할 만하니, 청컨대 이조(吏曹)·병조(兵曹)로 하여금 재주에 따라 탁용(擢用)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특별히 박운(朴云)·박운산(朴云山)에게는 쌀·콩 아울러 10석(碩)을 내려 주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7ㄱ-17ㄴ

%1 사용담토(思用擔土)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7ㄱ

%3 전사용이 흙을 저 나르다

%4 전사용은 정읍 사람이다. 열두 살 때 어머니가 죽으니 흙과 돌을 저 날라 무덤을 만들었다.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전사용이는 정읍 사름이라 %5-1나히 %5-2열둘헤 어미 죽거늘 흙기며 %5-3돌흙 지어 무덤 %5-4밍ㄱ더니 %5-5열조와늘 흥문 %5-6세니라

%6 全思用井邑人 年十二 母歿 擔土石成墳 事聞旌閭

%7 전사용정읍인 년십이 모몰 담토석성분 사문정려

%8 전사용은 정읍 사람이다. 나이 열둘헤 어미가 죽거늘 흙이며 돌을 지어 무덤을 만들더니 (임금께) 여쭙거늘 흥문을 세우니라

%9-1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이’의 옛말인 ‘나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하여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2 **열둘헤**: 열둘헤. 열둘ㅎ+에(부사격 조사). 수사 ‘둘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둘’로 나타났다.

%9-3 **돌흙**: 돌을. 돌ㅎ+을(목적격 조사). ‘돌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둘’로 나타났다.

%9-4 **밍ㄱ더니**: 만들더니. 밉ㄱ-(←밍굴-)+-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밍굴다>밍들다>민들다/민들다>문들다/문들다>만들다’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현대 국어의 ‘만들다’가 된 것이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서 어간 말 자음 ‘ㄱ’을 지닌 용언이 어미와 결합할 때 ‘ㄱ’이 탈락하는 양상이 현대 국어와는 달라서,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더-, -디-, -디’ 앞에서 ‘ㄱ’이 탈락하였다.

%9-5 **열조와늘**: 여쭙거늘. 열조오-(←열좁-)+-아늘(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열좁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열조오-’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늘/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6 **세니라**: 세웠다. 세+--니라(종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서-’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번 더 결합한 것이다.

%10-1 주인공 명: 사용(思用)

%10-2 성씨: 전(全)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전라북도

%10-5 지역2: 정읍시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미상
- %10-8 신분: 미상
- %10-9 성별: 남성
- %10-10 역사 사건: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 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 18ㄱ-18ㄴ

%1 귀손연옹(龜孫兪癈)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8ㄱ

%3 김귀손이 종기를 빨다

%4 김귀손은 노비인데, 개성 땅에서 살았다. 어려서 어머니가 죽었는데, 자라서도 이를 슬퍼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여, 신주를 만들어 두고 아침저녁으로 제사드렸다. (또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매우 효성스럽게 섬겼다. (어느 날) 아버지가 종기가 나서 몹시 힘들어하였는데, 김귀손이 종기를 입으로 빨았더니 병이 나았다. 후에 아버지가 죽으니 묘 옆에 초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제사드렸다. 그런 후에는 의붓어머니에게 가서 뵈고 의붓어머니가 먹을 것들을 살펴본 후에야 초막으로 돌아갔다. 이 일을 삼년 동안 계속하였다. (이 일을 임금께) 여쭙니 효자문을 세우고, 부역과 조세를 면해 주셨다.

%5 김귀손이 천인이니 지성부 %5-1짜해서 %5-2사더니 %5-3저머서 어미 주것찌니 즈라 %5-4슬허 그려 신주를 %5-5땡 ㄱ라 두고 아츰 %5-6나죄 제허더라 아비와 %5-7후어미 섬교디 ㄱ장 효도허더니 아비 종기를 내여 ㄱ장 %5-8설워허거늘 손이 썩니 %5-9도허니라 후에 죽거늘 시묘하며 매일 아츰 나죄 제헌 후에 %5-10다슴어미를 가 %5-11뵈오 며 글 것쉴 슬퍼보고 시묘막에 도라가더니 이리 호물 삼 년을 그치지 아니터라 %5-12연즈와늘 홍문 %5-13세교 %5-14복호하시니라

%6 金龜孫賤隸也 居開城府 幼失母 既長哀慕 作主朝夕祭之 事父及後母盡孝 父嘗患腫甚苦 龜孫吮之得愈 及歿廬於墓側 每朝夕奠罷來省繼母 審視饌具 還其廬 如是三年不輟 事聞旌閭復戶

%7 김귀손천예야 거개성부 유실모 기장애모 작주조석제지 사부급후모진효 부상환종심고 귀손 연지득유 급몰려어묘축 매조석전파래성계모 심시찬구 환기려 여시삼년불철 사문정려복호

%8 김귀손은 천인이니 개성부 땅에서 살더니 어려서 어미가 죽었더니 자라서 슬퍼하며 그리워하여 신주를 만들어 두고 아침저녁 제사하더라. 아비와 계모를 섬기되 가장 효도하더니 아비가 종기를 내어 몹시 서러워하거늘 귀손이 (종기를) 빠니 (병이) 좋으니라. 후에 (아비가) 죽거늘 시묘하며 매일 아침저녁 제사한 후에 계모를 가 뵈고 먹을 것들을 살펴보고 초막에 돌아가더니 이렇게 함을 삼 년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임금께) 여쭙거늘 홍문을 세우고 복호하시니라.

%9-1 **짜해서:** 땅에서. 짜ㅎ+애셔(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 '땅'의 옛말인 '짜ㅎ'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짜'로 나타났다.

%9-2 **사더니:** 살더니. 사-(←살-)+-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서는 어간 말 자음 'ㄹ'을 지닌 용언이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양상이 현대 국어와는 달라서,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더-', '-디, -다' 앞에서 'ㄹ'이 탈락하였다.

%9-3 **저머서:** 어려서. 접--+어셔(연결 어미). 현대 국어 '쪼다'는 이 '접다'로부터 변화한 것인데, '접다'의 의미가 "어리다"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 '쪼다'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한문

원문에서 '저머서'에 대응되는 부분이 '幼'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의 의미로 쓰였던 '어리다'가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서 '점다'가 가리키는 나이의 영역이 위로 올라간 것이다.

%9-4 슬허: 슬퍼하여. 슬--어(연결 어미). '슬다'는 "슬퍼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여기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것이 '슬프다'이다.

%9-5 밉글라: 만들어. 밉글--어(연결 어미). 현대 국어의 '만들다'는 '밉글다>밉돌다>민들다/민들다>민돌다/민들다>만들다'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이다.

%9-6 나죄: 저녁에. "저녁"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나조ㅎ'과 '나죄' 두 어형이 공존하였다.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된 어형으로 추정되는데,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7 훗어미: 계모(繼母). '후(後)+시(관형격 조사)#어미'의 구성을 지닌 합성어이다.

%9-8 설워ㅎ거늘: 서러워하거늘. 설워ㅎ--거늘(연결 어미). '설워ㅎ다'는 형용사 '설우(←설-)'에 '-어ㅎ-'가 결합하여 동사가 된 것이다.

%9-9 죠ㅎ나라: 좋아졌다. 죠--어(종결 어미). 이때 '죤다'는 "좋아지다"의 의미를 지닌 자동사로 사용되었다.

%9-10 다슴 어미틀: 의붓어미를. 계모를. '다슴'은 인위적으로 맺어진 아버지나 자식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9-11 뵤오: 뵤고. 뵤--오(←고, 연결 어미). 연결 어미 '-고'와 같이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어간 말음이 반모음 y나 르인 용언과 결합할 때 ㄱ이 약화·탈락하는 현상이 있었다.

%9-12 연조와늘: 여쭙거늘. 연조--어(←연조--어(연결 어미)). 동사 '여쭙다'의 옛말인 '연조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연조--'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ㅎ다'와 결합할 때는 '-야늘/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3 세고: 세우고. 세--고(연결 어미). '세-'는 '서다'의 옛말인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사동사 '세-'에 사동 접미사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이다.

%9-14 복호ㅎ시나라: 복호(復戶)하였다. 복호ㅎ--시-(선어말 어미)+--나라(종결 어미). '복호(復戶)'는 조선시대에 충신·효자·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

%10-1 주인공 명: 귀손(龜孫)

%10-2 성씨: 김(金)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황해도

%10-5 지역2: 개성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미상

%10-8 신분: 천민

%10-9 성별: 남성

%10-10 역사 사건:

개성(開城). 현재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직할시의 지명.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緯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 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10-11 기타

%11

%12 이승희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9ㄱ-19ㄴ

%1 속함시약(叔威侍藥)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19ㄱ

%3 최속함이 약 시중을 들다

%4 최속함은 익산 사람이다. 고을에 큰 전염병이 돌아 어머니의 병세가 심하였다. 아버지와 형과 동생들은 다 병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으나 최속함은 혼자 남아 어머니를 간병하였다. 어머니의 변을 맞보니(변이 쓰면 병이 낫고 변이 달면 병이 심해진다고 함) 맛이 썼는데, 실제로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땅과 노비를 나누어 주려 하였는데, 최속함은 거친 땅과 늪은 종을 제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형제들에게 양보하였다. 이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칭송하여 말하기를 “옛날 중국의 유명한 효자인 유검루(아버지의 변을 맞보며 간병하였음)와 형제 간에 우애 있기로 유명했던 설포(이복 형제들에게 좋은 재산을 양보하였음)의 행실을 오랜 세월 동안 우러러 왔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 둘을 겸하였구나.” 라고 하였다.

%5 최속함이는 직산 사르미라 함열 %5-1짜해 %5-2사더니 큰 %5-3시병에 %5-4어미 병이 %5-5디뎃거늘 아비와 형과 %5-6아오돌흔 다 %5-7비접나고 속함이 %5-8혼자서 시병하며 어미 대변을 맞보니 쓰더니 과연 병이 %5-9도흐니라 후에 어미 죽거늘 아비 조식의게 뎃디 노비를 논화 주려 한데 속함이 다 %5-10사오나온 발과 늪은 종을 제 모긔 내오 그 %5-11나무니란 형태를 준대 무을 사르미 닐오디 네 유검류와 설포의 형덕을 %5-12천지에 %5-13울어더니 흐물며 흐 사르미 검홀서 흐더라

%6 崔叔威 稷山人 居威悅 嘗大疫 母疾篤 父兄諸弟皆避 叔威獨侍藥 嘗母糞而苦 母果愈 後母歿 父欲分與子女土田臧獲 叔威皆占嶠薄老衰者 餘皆推與兄弟 鄉人稱之曰 庾黔婁薛包之行 千載景仰 況一人兼之者乎 %6-1 19ㄴ

%7 최속함 직산인 거함열 상대역 모질독 부형제제개피 속함독시약 상모분이고 모과유 후모물 부육분여자녀토전장획 속함개점요박로최자 여개추여형제 향인칭지왈 유검루설포지행천재 경양 황일인검지자호

%8 최속함(崔叔威)은 직산인(稷山人)이다. 함열(威悅) 땅에 살더니 큰 시병(時病)으로 어미의 병이 질었거늘 아비와 형과 아우들은 다 피접(避接) 나가고 속함이 혼자서 시병(侍病)하며 어미의 대변을 맞보니 (맛이) 쓰더니 과연 (어미의) 병이 좋으니라. 후에 어미가 죽거늘 아비가 자식에게 전지(田地)와 노비를 나누어 주려 한데 속함은 좋지 않은 밭과 늪은 종을 제 몫으로 하고 남은 것은 형제를 준데 마을 사람들이 이르되 옛 유검류와 설포의 행적을 천재(千載)에 우러렸더니 하물며 한 사람이 겸하였구나 하였다.

%9-1 **짜해:** 땅에. 짜ㅎ+애(부사격 조사). ‘짜ㅎ’은 ‘ㅎ’을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이었는데 이 ‘ㅎ’이 현대에는 ‘ㅇ’으로 바뀌어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9-2 **사더니:** 살더니. 사-(← 살-)+-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어간 말의 ‘ㄹ’은 ‘ㄷ, ㅈ, ㄴ’ 앞에서 탈락하였다.

%9-3 **시병애:** 전염병으로 인해. 시병(時病)+애(부사격 조사). ‘시병(時病)’은 한문 원문의 ‘大疫’을 언해한 것이다. 여기서 부사격 조사 ‘애’는 원인의 의미로 해석된다.

%9-4 **어미:** 어머니의. 엄(← 어미)+이(관형격 조사). ‘어미, 아비’와 같이 기원적으로 접미사 ‘-이’가 들어 있는 체언(주로 유정 체언)들은 관형격 조사나 호격 조사와 통합할 때 ‘이’가 탈락한다.

%9-5 **디뎃거늘:** 질거늘. 심하거늘. 뎃-+-엇-(선어말 어미)+-거늘(연결 어미). 『속삼강행실도』에는 ‘되어늘’로 표현되어 있는데 ‘되-’ 역시 ‘병세 등이 심하다’의 의미이다.

%9-6 **아오돌흔:** 아우들은. 아오+돌ㅎ(복수접미사)+은(보조사). ‘아오’는 15세기에는 ‘아수’에서 ‘ㅏ’이 소실된 형태이다. 『속삼강행실도』에는 ‘아수돌흔’으로 되어 있다.

%9-7 **비접나고:** 비접 나가고. 현대 국어 사전에 ‘비접’은 ‘피접(避接)’에서 변한 말로 “얕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요양함. 병을 가져오는 액운을 피한다는 뜻이다.”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병을 가져오는 액운을 피한다”는 의미를 고려하면 ‘얕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요양하거나 전염병이 돌 때 병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김’ 정도로 풀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전염병이 돌 때 병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김’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9-8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보조사). 『속삼강행실도』에는 ‘호사서’로 되어 있다. ‘혼자’는 ‘흐불+사>ㅎ북사>호오사>호오자/호사>호자>혼자’와 같은 변화를 거쳤다.

%9-9 **도흐니라:** 좋아졌다. 나왔다. 동-+-오니라(종결 어미). ‘동-’이 자동사로 쓰여 ‘좋아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9-10 **사오나온:** 품질이 좋지 못한. 사오나오-(←사오남)+-은(관형사형 어미). ‘사오남다’는 현대국어의 ‘사남다’가 가진 의미 외에 ‘품질이 떨어지다, 열등하다, 정도가 심하다’ 등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9-11 **나무니란:** 남은 것은. 남-+-은(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란(보조사). 보조사 ‘-란’은 목적어에 통합하여 주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9-12 **천지에:** 천년에. 천년 동안에. 천지(千載)+에(부사격 조사). ‘ㅣ’ 모음 뒤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예’가 쓰인다.

%9-13 **울어더니:** 우러렸는데. 울어-(←울얼)+-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울얼-’은 근대 국어 시기에 ‘ㅇ’가 덧붙여 ‘우러르-’가 되었다. 이와 같이 ‘ㅇ’가 덧붙은 단어로 ‘머물- > 머무르-, 거슬- > 거스르-’ 등이 있다.

%10-1 주인공 명: 속함(叔威)

%10-2 성씨:최(崔)

%10-3 본관: 직산(稷山)

%10-4 지역1: 전라북도

%10-5 지역2: 익산시 황등면(현재 함열읍은 별도의 행정 구역)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중종 이전

%10-8 신분: 양반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유검루(庾黔婁). 중국 남조(南朝)의 제(齊)나라 사람. 『남사(南史)』의 「유검루전(庾黔婁傳)」과 『소학(小學)』 「외편 선행 실명문」에 나온다. 유검루는 여러 차례 관직을 제의받았지만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번번이 사양하였으나 부득이 잔등령(隰陵令)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임한 지 열흘이 안 되어 갑자기 가슴이 떨리고 온몸에 땀이 흐르자 벼슬을 버리

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의 아버지가 병환이 나서 누워 있었다. 의원이 '병세를 알려면, 똥을 맛보아 맛이 달면 병세가 심한 것이고, 맛이 쓰면 차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유검루는 주저하지 않고 변을 맛보았다. 달고 매끄러운 것으로 보아 며칠 넘기지 못할 상태였다. 그래서 유검루는 밤에 북극성(北極星)을 향하여 자신으로 대신 죽도록 해 달라고 빌었지만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다. 제나라의 화제(和帝)는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높은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사양하였다.

설포(薛包). 중국 후한(後漢) 때의 사람. 『자치통감(資治通鑑)』 「동한(東漢) 안제기(安帝記)」와 『소학(小學)』 「외편 선행 실명론」에 나온다. 설포는 배움을 좋아하고 행실이 두터웠다. 아버지가 후처(後妻)를 얻고부터 설포를 미워하며 분가해 내쫓아버리려 했다. 설포는 밤낮으로 소리 높여 울며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몽둥이로 내치려 하므로 여쩔 수 없이 집 옆에다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아침에 들어와 물 뿌리며 마당을 쓸었다. 아버지가 성내어 또 쫓아내니 이번에는 마을 입구에다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물 뿌리며 쓸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이 일이 일 년이 넘도록 계속되자 부모는 부끄럽게 여겨 설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복 동생들은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기를 원하였다. 이에 설포는 말릴 수가 없어서 재산을 나누었는데 자신은 높은 노비, 거친 논밭과 허물어진 오두막, 낡고 깨진 살림살이를 가지고 아우들에게는 젊은 노비, 기름진 논밭, 새집, 좋은 살림살이를 주었다. 후에 아우들이 나누어준 재산을 탕진해 버리자 다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10-11 기타

%11

%12 황선업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0ㄱ-20ㄴ

%1 윤문도형(閔文圖形)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0ㄱ

%3 복윤문이 (부모님의) 형상을 그리다

%4 복윤문은 전주 사람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6년 동안을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매우 슬퍼하여 여위어서 뼈만 남을 정도로 마르고 병이 들 정도였다. 6년 상을 다 마치고 나서는 부모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벽에 걸어 두고 아침저녁으로 밥을 올려 제사 지냈는데 정성이 지극하여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임금님께 이러한 복윤문의 효행을) 알리니 임금님께서 효자문을 세워 주고 표창하셨다.

%5 복윤문이는 %5-1전쥬 사르미라 부모의 거상 니버 여섯 히를 시묘하여 %5-2슬허 여위여 뼈만 %5-3이셔 %5-4병드러찌니 탈상하고 %5-5아버의 %5-6얼구를 그려 두고 아침 %5-7나죄 뉘 제하야 정성이 지극하야 게을리미 업더니 %5-8연즈외날 흥문 %5-9세오 표장하시니라

%6 卜閔文 全州人 居父母喪前後廬墓六年 哀毀過禮 骨立成疾 喪畢圖父母形 朝夕上食 至誠無怠 事聞表異

%7 복윤문 전주인 거부모상전후려묘록년 애훼과례 골립성질 상필도부모형 조석상식 지성무태 사문표이

%8 복윤문(卜閔文)은 전주(全州) 사람이다. 부모의 거상(居喪)을 입어 여섯 해를 시묘(侍墓)하며 슬퍼하여 여위어서 뼈만 있어 병들었더니 탈상(脫喪)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 두고 아침저녁에 메로 제사하여 정성이 지극하여 게을리함이 없더니 (임금께) 여쭙니 흥문(紅門)을 세우고 표장(表彰)하시니라.

%9-1 전쥬: 전라북도 전주(全州). '州'의 한자음으로는 '쥬'와 '쥬'가 공존하였는데 이 문헌에서는 주로 '쥬'가 쓰였다.

%9-2 슬허: 슬퍼하여. 슬--+어(연결 어미). '슬다'는 "슬퍼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인데 현대 어에서는 안 쓰이게 되었고 여기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슬프다'만이 남아 있다.

%9-3 이셔: 있어. 이시--+어(연결 어미). '이시-'는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이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잇-'으로 교체된다.

%9-4 병드러찌니: 병들었더니. 병들었는데. 병(病)#들--+엇-(선어말 어미)+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선어말 어미 '-엇-'과 '-더-'가 통합된 '-엇더-'는 이 문헌에서 '엇더/연더/엇찌' 등으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이 문헌에서는 받침의 '스'이 'ㄷ'으로 표기되어 나타나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것에 비해 이 어형은 받침에 '스'으로 표기된 예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9-5 어버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어버이+(관형격 조사). '이'를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주로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가 많음) 중 관형격 조사나 호격 조사가 결합할 때 '이'가 탈락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버이'도 그러한 명사 중 하나이다. 이런 명사에 나타나

는 ‘이’는 기원적으로 접미사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9-6 **얼구률**: 형상을. 모습을. 얼굴+울(목적격 조사). ‘얼굴’은 ‘모습, 형체, 신체’ 등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점차 ‘안면, 낯’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9-7 **나죄**: 저녁에. ‘저녁’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나조ㅎ’과 ‘나죄’의 어형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으로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8 **연즈외닐**: 여쭙거늘. 아뢰니. 연줄-+-아닐(연결 어미). ‘연자와닐’의 잘못이다. ‘연줄-’은 동사어간 ‘연-’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9-9 **세오**: 세우고. 세-+-오(←고, 연결 어미). ‘세다’는 동사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여기에 다시 ‘-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세우다’가 쓰인다.

%11

%12 황선업

%10-1 주인공 명: 윤문(閔文)

%10-2 성씨: 복(卜)

%10-3 본관: 면천(海川)

%10-4 지역1: 전라북도

%10-5 지역2: 전주시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단종(1455년)

%10-8 신분: 양반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단종 3년(1455년) 2월 29일(을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효자·열녀 등을 아뢰다.

전주(全州)의 유학(幼學) 복윤문(卜閔門)은 어머니 죽자 여묘(廬墓)살이를 하면서 친히 스스로 음식을 끓여서 지성(至誠)으로 전(奠)을 드리었고, 집이 15여 리(里)의 거리였는데도 매일 아버지께 혼정신성(昏定晨省)하면서 3년을 마쳤습니다. 어머니 영정(影幀)을 깨끗한 방에 걸어 놓고 삭망(朔望)에 제사를 지내고, 그 시물(時物)을 바치고, 나갈 때 고(告)하고 돌아와서 뵈오면서 섬기기를 살았을 때와 같이 하였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전라도 전주부].

“박유성: 나이 50세 때에 부모가 죽자 6년간 묘막 생활을 했다. 상을 마친 뒤에는 부모의 형상을 그려 벽에 붙이고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그치지 아니했다. 성종(성종) 6년에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 특별히 광흥창 봉사(光興倉奉事)에 제수되었다. 복윤문: 효행이 있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복윤문은 아버지가 살아 있어 혼정신성을 다했고 6년 동안 부모의 시묘살이를 한 것은 박유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속삼강행실도』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을 가져오면서 ‘박유성’에 관한 기록을 바로 뒤의 나오는 ‘복윤문’에 관한 것으로 잘못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박유성’에 관한 애초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성종실록』 성종 2년(1471년) 6월 23일(갑자) 5번째 기사에 보인다.

“전주(全州) 사람 진무부위(進武副尉) 박유성(朴有誠)은 어버이를 섬겨 효도하더니, 부모(父母)가 죽으매 묘(墓) 곁을 떠나지 않고 3년상을 마쳤고 양친(兩親)의 진영(眞影)을 그려, 삭망(朔望)에 치제(致祭)하되 지금까지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1ㄱ-21ㄴ

%1 득인감왜(得仁感倭)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1ㄱ

%3 김득인이 왜구를 감동시키다

%4 김득인은 동래 사람이다.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이 가난했는데 어머니를 봉양하기를 정성껏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묘 옆에 초막을 짓고 3년을 산 후, 아버지를 어머니 묘 옆으로 이장하고 또 3년을 묘 옆에서 살았다.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산 것이 모두 9년이였다. 그때에 흉년이 들어 부산 바닷가에 왜구들이 와서 사방에서 노략질을 하다가 김득인의 초막에 와서 보고 그 정성스러운 효성에 감동하여 감탄하고 갔는데 그 이후 이따금 미역과 쌀과 향을 가져다 주었다. 조선 성종 때인 1472년에 벼슬을 주었다.

%5 김득인이는 동리 사르미라 %5-1나히 %5-2저머서 아버 죽거늘 지비 %5-3간난호디 어미 효양호물 지그기 허더니 어미 죽거늘 시묘 삼 년 산 후에 아버를 %5-4어미 %5-5분뫓 %5-6거퇴 천장하고 또 삼 년 시묘하니 %5-7대되 거상을 아홉 히를 니브니라 %5-8마초와 %5-9너름 사오나와 %5-10부산개 %5-11예들히 %5-12훗터니와 도죽하다가 득인의 시묘막에 와 보고 그 정성된 효도를 감격하야 차탄하고 간 후에 잇다감 머육과 쌀과 향과 가져다가 주더라 %5-13강정대왕도애 벼슬히이시니라

%6 金得仁 東萊縣人 幼年喪父 家貧 養母至孝 母歿 廬墓三年後 遷其父墓于母塋 又居三年 前後居喪九年 值年飢 釜山浦 倭奴四散剽掠 猝至得仁廬 感其誠孝 嗟嘆而去 後以海菜米香遺之 康靖大王三年 特授豐儲倉副奉事

%7 김득인 동래현인 유년상부 가빈 양묘지효 모뫓 려묘삼년후 천기부묘요모영 우거삼년 전후 거상구년 치년기 부산포왜노 사산포락 졸지득인려 감기성효 차탄이거 후이해체미향유지 강정대왕삼년 특수풍저창부봉사

%8 김득인(金得仁)은 동래(東萊) 사람이다. 나이가 어려서 아버가 죽었거늘 집이 가난하되 어미 효양(孝養)하기를 지극히 하더니 어미가 죽거늘 시묘(侍墓) 삼 년 산 후에 아버를 어미의 분묘(墳墓) 곁에 천장(遷葬)하고 또 삼 년 시묘(侍墓)하니 대되 거상(居喪)을 아홉 해를 입으니라. 마침 작황이 나빠서 부산포(釜山浦)에 왜구들이 흠어져 와서 도적질하다가 득인의 시묘막(侍墓幕)에 와 보고 그 정성스러운 효도에 감격하여 감탄하고 간 후에 이따금 미역과 쌀과 향을 가져다가 주더라. 강정대왕(康靖大王) 때에 벼슬시키시니라.

%9-1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ㅎ'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나히'가 된 후 어종의 'ㅎ'이 탈락하여 현대어의 '나이'가 되었다.

%9-2 저머서: 어려서. 점--+어(연결 어미)+서(보조사). '점-'은 한문 원문의 '幼年'에 대응되는 것으로 '어리다'의 의미이다. 근대 국어 이후 양순음인 'ㄹ' 앞에 'ㄹ'이 첨가되고 단모음화를 겪어 형태적으로도 변화하고 의미도 변하여 현대어의 '젊다'가 되었다. '저'는 '이시-'의 이형태 '시-'에 연결 어미 '-어'가 붙어 만들어진 것으로 점차 선행하는 연결 어미와의 결합력이 높아져 '-어서/아서, -고서' 등이 하나의 연결 어미로 굳어지게 되었다.

%9-3 간난호디: 가난하되. 가난했지만. 간난ㅎ--+오디(연결 어미). 어근인 '간난'은 한자어

'艱難'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동음 생략이 일어나 '가난'이 되었다. 중세 국어에서도 이미 '가난'이 널리 쓰이고 있었으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도 이 예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난'으로 나타난다.

%9-4 어미: 어머니의. 어미+의(관형격 조사). '이'를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주로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가 많음) 중 관형격 조사나 호격 조사가 결합할 때 '이'가 탈락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미'도 그러한 명사 중 하나이다. 이런 명사에 나타나는 '이'는 기본적으로 접미사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9-5 분뫓: 분묘의. 분묘(墳墓)+스(관형격 조사). '스'은 무정 체언이나 존칭의 유정 체언에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였는데 점차 그 기능을 잃게 되어 현대 국어에서는 사이시옷이나 사잇소리 현상으로 일부 합성명사에서만 흔적을 남기고 있다.

%9-6 거퇴: 곁에. 옆에. 곁+의(부사격 조사). '곁'은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옆'을 의미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유정체언의 옆을 의미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는바 사전에서는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라고 풀이하고 있다. '의'는 최초의 부사격 조사로 대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들에 결합한다.

%9-7 대되: 모두, 통틀어

%9-8 마초와: 맞추어. 마침. 마초--+어(연결 어미). '맞-'의 사동사 '맞초-'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한 '마초아'에서 원순성 동화가 일어난 것을 반영한 형태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때맞추어'의 꼴로 쓰여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시기에 알맞도록'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나 여기서는 흉년을 만난 경우에서 쓰여 현대 국어와 같이 긍정적인 느낌은 없음을 알 수 있다.

%9-9 너름 사오나와: 흉년이 들어. '너름'은 열매를 뜻하는 '너름'의 이표기로 '·'가 2음절 이하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오납-'은 '열등하다, 좋지 않다, 사납다, 정도가 심하다' 등의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의 '사납다'가 되면서 의미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너름 사오납-'은 '흉년이 들다, 농사가 잘 되지 않다'의 의미이다.

%9-10 부산개: 부산포에. '개'는 한자어 '포(浦)'에 대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물가'를 의미한다.

%9-11 예들히: 왜구들이. 예+들ㅎ(복수접미사)+이(주격 조사). 일본을 뜻하는 '倭'는 일반적으로 상성의 성조를 가지는 '예'로 변역되었다. 『훈몽자회』에는 '倭:예 와'(중:2b)와 같이 나타난다. 신라 향가 <해성가>의 '倭理'를 고려할 때 '예'는 '여리'에서 축약이 일어난 형태로 추정된다.

%9-12 훗터니와: 흠어져 나와서. 흠--+어(연결 어미)#나오--+어(연결 어미). 『속삼강행실도』에는 '훗터 나와'로 되어 있는바 '훗터니와'는 '훗터 나와'의 잘못 판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9-13 강정대왕도애 벼슬히이시니라: 성종대왕 시절에 벼슬을 시켰다. 한문 부분은 『속삼강행실도』와 같이 '康靖大王三年 特授豐儲倉副奉事(강정대왕 3년에 특별히 풍저창 부봉사를 제수하였다.)'로 되어 있으나 연해에서는 간단히 '강정대왕도애 벼슬히이시니라'와 같이 변역하였다. 연해가 한문에 대한 직역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강정대왕(康靖大王)은 성종이다. 성종의 묘호는 '成宗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성종강정인문헌무흠성공효대왕)'이다.

%10-1 주인공 명: 득인(得仁)

%10-2 성씨: 김(金)

%10-3 본관: 미상

%10-4 지역: 경상남도

- %10-5 지역2: 부산 동래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성종(1472년)
- %10-8 신분: 양반
- %10-9 성별: 남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1년(1470년) 2월 7일(병진)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윤자(尹慈)는 아뢰기를, “(중략)동래(東萊) 사람 김득인(金得仁)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효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섬기다가 어머니가 죽으니, 3년 동안 여묘살이하며 피눈물을 흘려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묘가 바다 어귀에 있는데, 마침 왜인(倭人)이 몰래 도둑질을 하여도 김득인이 오히려 묘 곁을 떠나지 않고 흙집 속에 숨어서 조석전을 폐하지 않으니, 왜적 두어 사람이 와서 겁박(劫迫)하다가 김득인이 효성이 있는 것을 알고는 칭탄(稱歎)하고 가서 뒤에 쌀을 가지고 와서 주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3년(1472년) 8월 11일(을해) 첫 번째 기사.

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중략) 동래(東萊) 사람 학생(學生) 김득인(金得仁)은 집이 본래 가난하고 어려서 고독하였는데, 3년상(三年喪)을 치르자 어머니가 죽어 묘를 지키기를 3년 동안이나 하면서 그 아버지를 추념(追念)하여 모영(母塋)에 합장(合葬)하고, 또 묘를 지키기를 3년 동안을 해서 전후(前後) 9년 동안이나 피눈물을 흘려 초췌(樵悴)하게 되었습니다. 묘가 황령산(荒嶺山) 아래에 있는데, 마침 흉년(凶年)을 만나 여러 번 도적(盜賊)과 왜구(倭寇)의 겁탈(劫奪)을 입었어도 마침내 거려(居廬)하기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재주를 따라 기록했다가 쓰도록 하소서. (중략)”하니, 그대로 따랐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황선엽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2ㄱ-22나

%1 우명순효(友明純孝)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2ㄱ

%3 하우명의 효성이 지극하다

%4 하우명은 진주 사람인데 영의정을 지낸 하연의 아들이다. 인천의 소래산 밑에서 살았는데 어머니에게 지극히 효도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몸소 맷감을 지고 와서 제사 음식을 만들었다. 탈상한 후에는 어머니의 영정을 모실 집을 지어 어머니의 초상을 그려 놓고서 제철 음식이 나오면 반드시 먼저 어머니 영정 앞에 올릴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였다. 하우명의 이러한 효성을 임금님께 아뢰니 임금님께서 효자문을 세워 주시고 세금을 면해 주셨다. 나중에 벼슬을 동지중추부사까지 하였다.

%5 하우명이는 %5-1진쥬 사르미니 령의정 하연의 아드리라 인천 %5-2고을 짜 소리산 %5-3미티서 %5-4사더니 어머니를 지그기 효도하다가 죽거늘 시묘하야 친히 나모 %5-5지여 제물 %5-6빙?더니 거상 %5-7바순 후에 영당 짓고 그려 두고 들윗 시절 %5-8거시어든 %5-9의식 몬져 제하고 효성이 지극하더라 %5-10옛소와날 흥문 %5-11세오 복호 하시니 내중에 벼슬을 등디등추부스 %5-12지이히니라

%6 河友明 晉州人 領議政演之子 居仁川府蘇來山下 事母李氏至孝 及歿廬墓 親負薪供祭 喪畢造影堂 凡節物必先薦 孝誠純篤 事聞旌閭復戶 官至同知中樞府事

%7 하우명 진주인 영의정연지사 거인천부소래산하 사모이씨지효 급물려모 친부신공제 상필 조영당 범절물필선친 효성순독 사문정려복호 관지동지중추부사

%8 하우명(河友明)은 진주사람이니 영의정 하연(河演)의 아들이다. 인천 고을 소래산 밑에서 살더니 어머니를 지극히 효도하다가 (어미가) 죽거늘 시묘(侍墓)하여 친히 나무를 저다가 제물(祭物)을 만들더니 거상(居喪) 벗은 후에 영당(影堂)을 짓고 초상을 그려 두고 무릇 제철 것이면 반드시 먼저 제사(祭祀)하고 효성이 지극하더라. (임금께) 여쭙니 흥문(紅門)을 세우고 복호(復戶)하시니 나중에 벼슬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까지 하니라.

%9-1 진쥬: 경상남도 진주(晉州). ‘州’의 한자음으로는 ‘쥬’와 ‘쥬’가 공존하였는데 이 문헌에서는 주로 ‘쥬’가 쓰였다.

%9-2 고을: 고을. ‘고을’은 ‘ㄱ을ㅎ’에서 원순성 동화가 일어난 어형이다. 어간 말의 ‘ㅎ’이 실현되지 않는 환경에 쓰인 예여서 어간 말의 ‘ㅎ’이 소실되었는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ㄱ을>고을>고을’의 변화를 겪어 현대 국어에서는 ‘고을’로 남아 있는데 ‘州, 郡, 府’ 등의 의미로 쓰였다.

%9-3 미티서: 밑에서. 아래에서. 밑+(의(부사격 조사)+서(보조사)). ‘의’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로 대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들에 결합한다.

%9-4 사더니: 살더니. 살았는데. 살--+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어간 말의 ‘르’은 ‘ㄷ, ㅈ, ㄴ’ 앞에서 탈락하였다.

%9-5 지어: 지어서. 지--+어(연결 어미). 어간 말의 ‘ㅣ’ 뒤에 ‘ㅈ, ㅊ, ㄴ, ㄷ’가 오면 이 둘이 한 음절로 축약되어 ‘ㅈ, ㅊ, ㄴ, ㅈ, ㅊ, ㄴ, ㅈ, ㅊ’가 되거나 ‘ㅣ’ 뒤에 별도의 음절 ‘ㅈ, ㅊ, ㄴ, ㅈ, ㅊ, ㄴ’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하우명의 효자정각이 남아 있음.

%11

%12 황선엽

로 실현되었다.

%9-6 **망?더니**: 만들더니. 만들었는데. 망골+-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어간 말의 ‘ㄹ’은 ‘ㄷ, ㅈ, ㄴ’ 앞에서 탈락하였다.

%9-7 **바손**: 벗은. 벗+-은(관형사형 어미). ‘벗-’은 ‘벗-’의 모음교체형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벗-’과 ‘벗-’이 의미적인 차이 없이 공존하였는데 점차 ‘벗-’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

%9-8 **거시어든**: 것이거든. 것이면. 것+-이-(서술격 조사)+-거든(연결 어미). ‘-거든’은 비티동사에 결합하며 타동사 뒤에서는 ‘-어든/아든’으로 교체되었다. 여기서는 서술격 조사 뒤에서 ‘-거든’의 ‘ㄱ’이 약화되어 ‘거시어든’으로 실현되었다.

%9-9 **의식**: 반드시. 꼭. ‘의식’은 주로 ‘必’의 연해에 쓰이며 16세기의 교화서류에 많이 나타난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쓰인 예들은 거의가 『속삼강행실도』에 쓰인 예를 가져온 것들이다.

%9-10 **엿조와늘**: 여쭙니. 여쭙았는데. 엿조오-(←엿줄-)+-아늘(연결 어미). ‘엿줄-’은 기원적으로 동사어간 ‘엿-’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줄-’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엿줄-’이 타동사여서 ‘-거늘’의 이형태 ‘-아늘’이 결합하였다.

%9-11 **세오**: 세우고. 세+-오(←고, 연결 어미). ‘세다’는 동사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여기에 다시 ‘-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세우다’가 쓰인다.

%9-12 **지이허나라**: 한문 원문 ‘宦至同知中樞府事’에서 ‘至’를 번역한 것이다. 이 어형은 이두나 석독구결 등에서 ‘至亦, 至卍’로 나타나며 ‘니르리, 이르히’ 등으로 읽혀 왔는데 ‘至亦, 至卍’를 음독하여 ‘지이’로 읽고 여기에 ‘허-’를 붙여 ‘지이허-’란 어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0-1 주인공 명: 우명(友明)

%10-2 성씨:하(河)

%10-3 본관: 진주(晉州)

%10-4 지역1: 경기도

%10-5 지역2: 인천 소래

%10-6 시기: 조선 전기/15세기

%10-7 연도: 1413년(태종 13)~1493년(성종 24)

%10-8 신분: 양반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4년(1473년) 6월 5일(갑자) 네 번째 기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인천(仁川)에 사는 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하우명(河友明)은 어려서부터 양친을 봉양함에 있어서 괴로움을 꺼리지 않고 친히 스스로 집찬(執爨)하며 정성을 다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자 여묘(廬墓)살이 3년을 하면서 직접 땀감을 저다가 밥을 지었고, 복(服)을 마치자 묘(墓) 곁에 영당(影堂)을 만들고, 삭망(朔望)에 전(奠)드리기를 폐하지 않았으며, 무릇 계절의 물건이면 반드시 이를 올렸으니, 그 효성이 순박하고 지극합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정문(旌門)을 세우고 복호(復戶)하여 권장(勸獎)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14년(1483년) 12월 1일(경신) 두 번째 기사.

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안호(安瑚)가 전(前)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하우명(河友明)의 효행(孝行)이 특이함을 천거하였다.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3ㄱ-23ㄴ

%1 경연득리(慶延得鯉)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3ㄱ

%3 경연이 잉어를 얻다

%4 경연은 청주 사람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아버지가 병 들어서 매울 때에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자 경연이 그물을 가지고 물에 들어가 잉어 두 마리를 잡아 드시게 하니 병이 나았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6년을 살며 제사를 예법대로 지냈다. 제사 음식을 아내와 함께 직접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니 마을 사람들이 다 감동하였다. 성종(조선 제9대 왕)이 (경연의 효성에 대해) 들으시고 역마를 이용해 (서울의 궁궐로) 부르게 하여 만나 보시고 “훌륭하다”고 하시며 특별히 벼슬을 4등급 올려 사재감이란 기관의 주부를 시키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산(현재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고을의 현감이 되었는데, 고을의 아전과 백성들이 경외하면서도 사랑하였다. 경연이 죽자 고을 사람들이 장사지내는 데 쓸 물건과 기름, 꿀 등을 모아서 주었는데 경연의 아내가

“내 남편의 깨끗한 덕을 어찌 더럽힐 수 있겠는가?” 하고 다 받지 않았다.

%5 경연이논 %5-1천쥬 사름미라 성이 지극 효도롭더니 아비 병하야서 %5-2ᄃ장 치위에 심션을 먹고저거늘 경연이 그물 가지고 므레 드러 %5-3리어 돌출 어더 %5-4머건대 병이 도흐니라 후에 량친이 죽거늘 시묘를 여섯 히를 호디 제사를 %5-5가례대로 하며 겨집과 하야 친히 밍ᄃ라 제호더니 %5-6무올히 다 감화호더라 %5-7강정대왕이 드르시고 역마로 %5-8블러 보시고 %5-9어디다 하샤 각벼리 %5-10네 가지 주어 %5-11스지쥬부 호이시다 아니 오라셔 %5-12이산 현감 하니 향리며 백성이 저코 사랑호더니 죽거늘 고을 사름미 상상에 쓸 것 기름 꿀 뉘화 %5-13주워늘 겨지비 날오디 었디 내 남지니 청덕을 %5-14더러이로 호고 다 받디 아니 호니라

%6 慶延 淸州人 性至孝 其父有疾 隆寒思食鮮魚 延持網入水 得二鯉以進 病愈 後二親歿 廬墓前後六年 奉祭祀 一依家禮 與其妻手自割烹 隣里皆化 康靖大王 驛召引見於宣政殿 慰獎之 特陞四資 拜司宰監主簿 未幾出爲尼山縣監 吏民畏愛 及卒 邑人備葬需油蜜 以遺其妻 妻曰 何敢累吾夫清德 皆不受

%7 경연 청주인 성지효 기부유질 용한사식선어 연지망입수 득이리이진 병유 후이친물 려묘전 후륙년 봉제사 일의가례 여기처수자할행 린리개화 강정대왕 역소인견어선정전 위장지 특승사자 배사재감주부 미기출위니산현감 리민외에 급졸 읍인비장수유밀 이유기처 처할 하 감루오부청덕 개별수

%8 경연(慶延)은 청주 사람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아버가 병들어서 심한 추위에 생선을 먹고자 하거늘 경연이 그물을 가지고 물에 들어가 잉어 둘을 얻어 (아버지) 먹인 데 (아버지의) 병이 좋으니라. 후에 양친(兩親)이 죽거늘 시묘(侍墓)를 여섯 해를 하되 제사를 가례(家禮) 대로 하며 아내와 같이 친히 만들어 제사하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감화하더라. 강정대왕(康靖大王)이 들으시고 역마로 불러 보시고 어질다 하시어 각별히 네 품계

를 가자(加資)하여 사재감(司宰監) 주부(主簿)를 제수하시었다. 오래지 않아 이산(尼山) 현감 하니 향리(鄕吏)며 백성이 두려워하고 사랑하더니 죽거늘 고을 사람이 상사(喪事)에 쓸 것, 기름, 꿀을 모아 주거늘 아내가 이르되 어찌 내 남편의 청덕(淸德)을 더럽히리오 하고 다 받지 아니 하니라.

%9-1 천쥬: 충청북도 청주(淸州). ‘州’의 한자음으로는 ‘쥬’와 ‘쥬’가 공존하였는데 이 문헌에서는 주로 ‘쥬’가 쓰였다. 한자음의 경우 말음의 ‘ㄴ’이 ‘ㅇ’으로 나타나는 16~17세기 문헌의 예들이 더러 있음을 고려할 때 역으로 ‘ㅇ’이 ‘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아 ‘淸’의 한자음이 ‘청, 천’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으나 ‘청주’가 『동국속삼강행실도』에 모두 22회 나타나는데 이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쥬’로 기록되었음을 고려할 때 ‘천쥬’는 ‘청쥬’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9-2 ᄃ장: 매우. 현대 국어에서 ‘가장’은 ‘最’의 의미로만 쓰이나 이전에는 ‘極, 大, 盡’ 등의 언해에 쓰여 ‘매우, 크게’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隆寒’의 ‘隆’을 언해한 것인데 명사 ‘치위’를 수식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9-3 리어: 잉어. 한자어 ‘鯉魚’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16세기 문헌인 『훈몽자회』에 ‘리어’가 보이기는 하지만 17세기 초 문헌인 『태산집요언해』에 ‘닝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현실음은 ‘니어’ 내지 ‘닝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어(鮪魚)>붕어, 리어(鯉魚)>잉어’ 등과 같이 ‘魚’ 앞에 종성 ‘ㅇ’이 나타나는 것은 모음충돌 회피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魚’의 한자음이 기원적으로 초성에 음가를 가지는 ‘ㅇ’을 가지고 있는 ‘어’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생각된다. ‘상어, 승어’ 등도 기원적으로 한자어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魚’의 한자음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다.

%9-4 머건대: 먹이니. 먹이-+-ㄴ대(연결 어미). ‘-ㄴ대’는 ‘원인, 이유, 결과’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현대 국어에서는 ‘-건대’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9-5 가례: 가례(家禮). 송나라의 학자 주희(朱熹)가 가정에서 일용하는 예절을 모아 엮은 책.

%9-6 무올하: 마을이. 마을 사람들이. 무올ㅎ+(주격 조사). ‘무올ㅎ’은 ‘무술ㅎ’에서 ‘ㄷ’이 소실된 모습을 보여 준다. ‘무올’은 이후 ‘무을>마을’의 변화와 종성의 ‘ㅎ’ 탈락을 겪어 현대 국어의 ‘마을’이 되었다. 15세기에는 관청을 뜻하는 ‘마술’과 마을 뜻하는 ‘무술ㅎ’이 형태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었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이들이 모두 ‘무을, 마을, 무올’ 등으로 표기되는 동음이의어가 되었다.

%9-7 강정대왕이: 성종께서. 강정대왕(康靖大王)은 성종이다. 성종의 묘호는 ‘成宗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성종강정인문헌무흠성공효대왕)’이다.

%9-8 블러: 부르게 하여. 블러-+-어(연결 어미). 뒤에 연결된 ‘보시고’를 고려하면 ‘브르-’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블러’의 잘못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브르-’의 사용사 ‘블러-’에 연결 어미 ‘-어’가 통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9-9 어디다: 어질다. 훌륭하다. 어덜-+-다(종결 어미). 어간 말의 ‘ㄹ’은 ‘ㄷ, ㅈ, ㄴ’ 앞에서 탈락하였다. 한문 원문의 ‘慰獎之’를 의역한 것으로 ‘어덜-’은 ‘어질다’는 의미 외에 ‘훌륭하다, 현명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9-10 네 가지 주어: 네 등급을 가자(加資)하여. 네 등급을 올려서. 한문 원문의 ‘陞四資’를 언해한 것이다. ‘가자(加資)’에 접미사 ‘-이’가 붙어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9-11 스지쥬부: 사재감(司宰監) 주부(主簿). 사재감은 조선 시대 궁중의 어류, 육류, 소금, 쌀나무, 햇볕 등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경국대전』에는 어물(魚物)·육류(肉類)·식염(食鹽)·소목(燒木)·거화(炬火) 등을 맡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조(提調, 종2품) 1인, 정(正, 3품) 1인, 부정(副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종4품) 1인, 주부(主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 참봉(參奉, 종9품) 1인 등을 두었다. 뒤에 『속대전』에서는 정·부정·참봉을 감원하고 봉사(奉事) 1인을 증원했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9-12 **니산:**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 정조가 1776년에 즉위하자 그의 이름 '이산(李祿)'(당시 발음은 '니산')과 발음이 같은 충청도의 이산현(尼山縣)과 평안도에 있는 이산현(理山縣)이 피휘로 인해 이성현(尼城縣), 초산현(楚山縣)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1800년에 정조가 이름을 '성'으로 개명함에 따라 다시 이성현(尼城縣)은 노성현(魯城縣)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9-13 **주워늘:** 주거늘. 주었는데. 주--+어늘(연결 어미). '주어늘'이 원순성동화를 입어 '주워늘'로 나타났다.

%9-14 **더러이료:** 더럽히겠는가. 더럽힐 수 있겠는가. 더러이--+료(종결 어미). '더러이-'는 형용사 '더럽-'에 사동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더러빅-'에서 '빙'이 소실된 어형으로 '더레이-'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 %10-1 주인공 명: 연(延)
- %10-2 성씨: 경(慶)
- %10-3 본관: 청주(淸州)
- %10-4 지역1: 충청북도
- %10-5 지역2: 청주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성종(1472년~1476년)
- %10-8 신분: 양반
- %10-9 성별: 남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3년(1472년) 2월 18일(을유) 네 번째 기사.

예조(禮曹)에서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영유(金永濡)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중략) 청주(淸州) 사람 종사랑(從仕郎) 경연(慶延)은 타고난 성품이 정직하여 아버지를 색양(色養)하며, 반드시 감지(甘旨)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질병이라도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소 약을 다리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 아버지가 일찍이 병에 걸려 낫지 않았는데 정월에 큰 비가 내려 냇물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선한 회(鮮膾)를 맛보고자 하므로, 경연(慶延)이 즉시 냇가에 가서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그물을 쳤으나 물결이 사납고 급하므로, 경연은 다시 물결이 순하게 흐르는 데로 그물을 옮겨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기다리니, 마침내 큰 고기 두어 마리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가지고 와서 바치니,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오직 물고기만 먹고 싶었는데 이제 얻어 먹게 되니 매우 입에 맞으며, 내 병이 차도(差度)가 있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과연 병이 나으니 사람이 경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뒤에 아버지가 죽자 3일을 물과 장을 입에 넣지 않고 초상의 제도를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준수하여 젓(醢)·장(醬)을 먹지 않고 지나치게 슬퍼하며 뼈만 남았으며, 3년 동안 여묘(廬墓)하면서 일찍이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묘(家廟)를 세워 삭망(朔望)에 반드시 제사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고하여 살았을 때와 같이 섬기고, 새 음식물이 생기면 반드시 천신(薦新)하고, 천신하지 않고는 먹지 않았습니다. 어미를 섬기기에 더욱 부지런하여 반드시 주육(酒肉)으로 봉양(奉養)하고, 밤이면 어미가 잠자리에 누워야만 물러났고, 나이가 40이 넘어도도 출세하기를 일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혹 벼슬하기를 권하면 말하기를, ‘궁(窮)하고 영달(榮達)하는 것은 명(命)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구한다고 되겠느냐?’ 하였습니니다. 아버지가 일찍 노비 2구(口)를 주었는데, 아버가 죽은 뒤 경연(慶延)은 아우와 누이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귀신을 믿고 부처를 숭배하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물리치니 향리(鄉里)가 감화(感化)하였습니다. (중략) 신 등은 『대전(大典)』의 장권(獎勵) 조

를 자세히 참고하니, ‘효우(孝友)와 절의(節義)가 특이(特異)한 자는 벼슬로 상을 주고, 혹은 물건으로 상을 주며, 더욱 특이한 자는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청컨대 복승정(卜承貞)·박지(朴地)·김득중(金得中)·조승례(曹崇禮)·경연(慶延)은 이조(史曹)·병조(兵曹)로 하여금 재주에 따라 탁용(擢用)하고, 안지의(安止義)의 첩(妾) 지지(芷芝)는 열녀문(烈女門)을 세워 징표(旌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7년(1476년) 5월 27일(기사) 첫 번째 기사.

우승지(右承旨) 임사홍(任士洪)이 예조(禮曹)의 계목(啓目)을 가지고 아뢰기를, “청주(淸州)에 사는 진 훈도(訓導) 경연(慶延)은 효(孝)로써 아버지를 섬겨서 생존(生存)했을 때의 봉양(奉養)과 사망(死亡)했을 때의 장례(葬禮)에 있어서 각기 정경(誠敬)을 다하였으므로, 향당(鄉黨)에서 칭송하며 사모(思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조(史曹)와 병조(兵曹)로 하여금 재능(才能)에 따라 발탁하여 채용하게 하였으므로, 지난 계묘년에 남부 참봉(南部參奉)에 제수(除授)하였으나 모상(母喪)으로 인하여 부임(赴任)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연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지극한 정성에서 우러난 것이어서 사망했을 때나 생존하였을 때의 섬기는 것이 시종 여일(始終如一)하였으므로 향당(鄉黨)에서 그 성효(誠孝)에 감복(感服)하여, 심지어는 감읍(感泣)까지 하는 자가 한 고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도(道)에서 사모하여 조정(朝廷)에서까지 효자라고 자자하게 일컫고 있으니, 그 지극한 순효(純孝)는 퇴폐한 풍속을 충분히 장려(獎勵)할 만하여 하나의 절개(節介) 있는 선비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풍속을 놀라게 한 데에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삼가 《대전(大典)》의 장려조(獎勵條)를 고찰(考察)하건대 효우(孝友)와 절의(節義)가 특이(特異)한 자는 벼슬로 상(賞)을 내리고 혹은 물품(物品)으로 상을 내리기도 하며, 더욱 특이한 자는 정문(旌門)과 복호(復戶)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경연을 특별히 발탁하여 채용하고, 정문·복호하여 효도를 포창(褒彰)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정승(政丞)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떠한가?” 하니, 좌의정(左議政)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신(臣)도 이 사람의 효행(孝行)이 특이하다는 것을 들었었는데, 지금 예조(禮曹)에서 아뢴 것을 들으니, 참으로 그의 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충신(忠臣)을 구하려면 반드시 효자(孝子)라야 한다고 했으니, 빨리 불러오게 하라.”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7년(1476년) 7월 1일(임인) 다섯 번째 기사.

심한(沈澣)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성준(成俊)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조 참의(史曹參議)로, 권열(權堧)을 통덕랑(通德郎)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경연(慶延)을 사재 주부(司宰主簿)로, 이계손(李繼孫)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겸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심안인(沈安仁)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경원 도호부사(鏡源都護府使)로, 고대필(高台弼)과 홍익성(洪益誠)을 아울러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권열은 무안 현감(務安縣監)으로 치적(治績)이 뛰어나고, 경연은 효행(孝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차서를 뛰어난이 제수되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국조인물고 권33 휴일(休逸) <경연(慶延)> 조 참고.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신행서원(莘巷書院)에 배향되어 있음.

%11

%12 황선업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4ㄱ-24ㄴ

%1 조금획록(趙錦獲鹿)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4ㄱ

%3 조금이 사슴을 잡다

%4 조금은 춘천 지방에 있던 부창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섬기기를 매우 효성스럽게 하여 다른 사람이 좋은 음식을 주면 반드시 품에 품어다가 부모님을 드시게 했다. 자라서는 명절이 되면 반드시 마을의 어른들을 초청하여 부모님의 장수를 비는 잔치를 하였다. 아버지가 72세에 돌아가시자 매우 심하게 슬퍼하였다. 어머니가 늙어서 몸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조금은 곁에서 떠나지 않으며 어머니를 부축하여 일으키고 눕히고 하였으며 손수 음식을 만들되 꼭 맛있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한번은 장수를 비는 잔치를 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사슴이 문으로 들어오기에 잡아서 잔치를 하였다. 1475년에 (임금님께서) 효자문을 세워 주시고 세금을 면해 주셨다.

%5 조금이 춘천 %5-1고을 %5-2역지라 %5-3저문 제부터 아버지 %5-4성교물 7장 효도 할야 늑미 도헌 음식을 %5-5어든 %5-6의식 %5-7푸머다가 이받더니 %5-8조라는 명일 이어든 의식 모을 얼운을 청하야다가 %5-9아버에게 헌수하더니 아버 나히 날흔돌헤 죽거늘 조금이 %5-10슬허호물 %5-11례에 너모 하더라 어미 늘거 기거 못하거늘 조금이 %5-12겨터 떠나디 아니하야서 %5-13뵈드러 날며 %5-14누이며 하고 친히 음식 %5-15밍?로디 모로매 맛난 거시 잇게 하더니 흥버는 헌수호려 하니 %5-16마초와 사스미 %5-17문의 들어늘 자바 쓰니라 %5-18성화 저기 흥문 세시고 복호하시니라

%6 趙錦 春川府富昌驛吏也 自幼 事親至孝 人遺異味必懷而獻之 及壯 節日必上壽邀鄉黨父老以助歡 父年七十二而歿 錦哀毀過禮 母老不能起居 錦不離側扶持起臥 親執饌具 必有甘旨 欲上壽 忽有鹿至門 獲以供之 成化十一年旌門復戶

%7 조금 춘천부부창역리야 자유 사친지효 인유이미필희이헌지 급장 절일필상수요향당부ροι 조환 부년칠십이이물 금애획과래 모로불능기거 금불리축부지기와 친집친구 필유감지 욱상수 홀유록지문 획이공지 성화십일년정문복호

%8 조금(趙錦)은 춘천 고을의 역리(驛吏)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이 섬기기를 매우 효도하여 남이 좋은 음식을 주면 반드시 품어다가 이받더니 자라서는 명일(名日)이면 반드시 마을 어른을 청하여 아버지께 헌수(獻壽)하더니 아버가 나이 일흔 둘에 죽거늘 조금이 슬퍼하기를 예에 넘게 하더라. 어미가 늙어 기거를 못하거늘 조금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부축하여 일으키며 눕히며 하고 친히 음식을 만들되 모름지기 맛난 것이 잇게 하더니 한번은 헌수(獻壽)하러 하니 마침 사슴이 문에 들어오거늘 잡아서 쓰니라. 성화(成化)에 흥문(紅門)을 세우고 복호(復戶)하시니라.

%9-1 고을: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고을(ᄃ)’과 ‘고을(ᄂ)’이 공존하는데 ‘고을(ᄃ)’의 예가 더 많다.

%9-2 역지라: 역자(驛子)이다. 역즈(驛子)+ㅣ-(서술격 조사)+-라(←다, 종결 어미). ‘역자’는 ‘역에서 일을 보던 사람’을 말한다.

%9-3 **저문**: ‘점-’은 한문 원문의 ‘幼’에 대응되는 것으로 ‘어리다’의 의미이다. 근대 국어 이후 양순음인 ‘ㄹ’ 앞에 ‘ㄹ’이 첨가되고 단모음화를 겪어 형태적으로도 변화하고 의미도 변하여 현대어의 ‘젊다’가 되었다.

%9-4 **섬교물**: 섬김을. 섬기기를. 섬기--+음(명사형 어미)+울(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로 오면 서 명사형 어미 ‘-음(←-음)’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기’의 쓰임이 늘어났다.

%9-5 **주어든**: 주면. 주--+어든(연결 어미). 타동사 ‘주-’에 연결 어미 ‘-거든’의 이행태 ‘-어든’이 결합한 것이다. ‘-어든’은 선어말 어미 ‘-거-’의 교체 조건과 동일하게 타동사 어간에 결합하며 모음조화에 따라 ‘-아든’으로 교체된다.

%9-6 **의식**: 반드시. 꼭. ‘의식’은 주로 ‘必’의 연해에 쓰이며 16세기의 교화서류에 많이 나타난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쓰인 예들은 거의가 『속삼강행실도』에 쓰인 예를 가져온 것들이다.

%9-7 **푸머다가**: 품어다가. 품어 가지고 와서. 품--+어(연결 어미)+다가(보조사). 보조사 ‘다가’는 기원적으로 동사 어간 ‘다-’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뒤에 붙어 중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다가’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9-8 **즈라논**: 자라서는. 성장해서는. 즈라--+아(연결 어미)+논(보조사). 현대 국어에서와 같이 보조사 ‘-서’가 결합한 ‘즈라서논’과 같은 예는 보이지 않는다. 중세 국어 문헌에서 ‘-어서논/아서논’은 ‘-고서논’의 의미를 지녀 계기성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하였을 때에는’과 같이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된 예가 대부분이다.

%9-9 **어비의계**: 어버이에게. 부모님께. 어버이+의계(여격조사). ‘이’를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주로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가 많음) 중 관형격 조사나 호격 조사가 결합할 때 ‘이’가 탈락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버이’도 그러한 명사 중 하나이다. 이런 명사에 나타나는 ‘이’는 기원적으로 접미사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여격조사 ‘의계’는 기원적으로 관형격 조사 ‘의’에 ‘그에’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9-10 **슬허호물**: 슬퍼함을. 슬퍼하기를. 슬허호--+음(명사형 어미)+울(목적격 조사). ‘슬허호-’는 동사어간 ‘슬-’에 강조를 나타내는 ‘-어 호-’ 구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슬-’은 사라지고 그 파생형용사 ‘슬프-’만이 남아 있다.

%9-11 **례에 너모 허더라**: 예에 넘치게 하였다. 중세 국어 문헌에서 ‘너모’는 ‘평평’의 성조형을 지니는바 ‘넘-’의 사동사 ‘너므/너무-’에서 영파생된 부사 ‘너므/너무’가 원순성동화를 입어 ‘너모’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15세기부터 ‘너모’와 ‘너무’가 공존한다. 부사 ‘너모’는 이 예에서와 같이 논항을 취하기도 한다.

%9-12 **겨틱**: 곁에서. 곁+의(부사격 조사). ‘의’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로 대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들에 결합한다.

%9-13 **삐드러**: 옆구리를 끼고 들어서. 부축하여. 삐들--+어(연결 어미). ‘삐들-’은 ‘삐-’(挾)와 ‘들-’(攬)이 비통사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9-14 **누이며**: 놀리며. 누이--+며(연결 어미). ‘누이-’는 ‘놀-’의 사동사이다.

%9-15 **밍꺠로디**: 만들되. 만들었는데. 밍꺠--+오디(연결 어미). 연결 어미 ‘-오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가 탈락하면서 뒤 음절에 흔적을 남겨 ‘-되’로 변화하였다.

%9-16 **마초와**: 때맞춰. 때마침. 마초--+아(연결 어미). ‘마초와’는 ‘마초아’에서 원순성동화가 일어난 형태이다. ‘마초-’는 ‘맞-’의 사동 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9-17 **문의**: 문에. 문(門)+의(부사격 조사). ‘의’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로 대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들에 결합한다. ‘門’은 15세기부터 부사격 조사 ‘에/애’와 ‘의’가 결합한 예들이 공존하는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문의’와 같이 ‘의’가 결합한 예만 나타난다.

%9-18 **성화**: 성화(成化). 명나라 제8대 황제 헌종(憲宗)의 연호로 1465년부터 1487년까지 사용되었다.

%10-1 주인공 명: 금(錦)
 %10-2 성씨: 조(趙)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강원도
 %10-5 지역2: 춘천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성종(1475년)
 %10-8 신분: 평민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6년(1475년) 3월 21일(경오) 네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봉(李封)이 치계(馳啓)하기를,
 “부창(富昌)의 역자(驛子) 조금(趙錦)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지성으로 효도하여, 다른 사람들이 별미(別味)를 주면 반드시 가지고 가서 부모에게 드리고, 춘하 추동(春夏秋冬) 4계절에 잔치를 베풀어서 아버지의 장수(長壽)를 축하할 때에는 반드시 향당(鄉黨)의 부모(父老)들을 초청하여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아버가 죽자 조금은 너무도 슬퍼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였으며, 삼년상(三年喪)을 마치도록 아침저녁으로 곡전(哭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연로하자 곁을 떠나지 않고 몸소 찬구(饌具)를 장만하여 맛있는 음식이 끊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어느날 어머니의 장수를 축하하려고 하여 고기를 구하였으나 언질을 못하였는데, 마침 사슴이 홀연히 문 앞에 들어오므로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가 이질(痢疾)을 앓으면서 붕어를 먹고 싶어 하므로 조금이 얼음을 깨고 붕어를 찾으니, 마침 한 쌍의 붕어가 뛰어들어 구해다가 올렸는데, 그것을 먹고는 어머니의 병이 나았습니다. 정려(旌閭)를 내려서 풍속을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禮曹)에서 그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를,
 “조금(趙錦)은 사망(死亡)하였을 때나 생존(生存)하였을 때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지성에서 우리나라 효행(孝行)이 뛰어나므로, 관찰 관청으로 하여금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여 정문(旌門)·복호(復戶)하게 하는 한편, 특히 그 자신에게는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고, 또 그 어머니에게는 매달 주육(酒肉)을 내려 주어 효행을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황선엽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5ㄱ-25ㄴ

%1 서만득어(徐萬得魚)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5ㄱ

%3 서만이 물고기를 얻다

%4 서만은 천안 목천 사람이다.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 매우 효성스럽게 하여 매달 초하루가 되면 반드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다. 서만이 얼음을 깨뜨리고 하늘에 비니 물고기 네 마리가 솟구쳐 나왔다. 그것을 가져와 아버지에게 드시게 하니 병이 즉시 나았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살며 손수 제사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올리고 한 번도 자기 집에 가지 않았다. 1480년에 (임금께) 아뢰니 벼슬을 주셨다.

%5 서만이는 %5-1목천 사르미라 아비를 섬교디 7장 효도하야 미양 %5-2초홀리어든 %5-3 의식 술와 %5-4차반 장만하야 이받더라 아비 병 어더셔 물고기 먹고져 하더니 %5-5보야호로 치운 %5-6저기어늘 서만이 어름 두드리고 %5-7하늘씩 비니 고기 네히 뛰여 나가늘 가져와 머기니 병이 즉제 도하니라 후에 아비 죽거늘 삼 년 시묘하야 %5-8손소 제를 밍고고 훈 번도 제 %5-9지비 오디 아니더라 %5-10성화 경즈에 열조와날 벼슬히이시니라

%6 徐萬 木川人 事父至孝 月朔必具酒饌以奉 父嘗得疾欲食魚 時方寒沍 萬叩水祝天 有四魚躍出 持還以進 父病即愈 後父歿 廬墓三年 躬具奠饌 一不至家 成化庚子 事聞命授官

%7 서만 목천인 사부지효 월삭필구주찬이봉 부상득질육식이 시방한호 만고빙축천 유사어약출 지환이진 부병즉유 후부몰 려묘삼년 궁구전찬 일부지가 성화경자 사문명수관

%8 서만(徐萬)은 목천(木川) 사람이다. 아비를 섬기되 매우 효도하여 매번 초하루면 반드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받더라. 아비가 병을 얻어서 물고기를 먹고자 하더니 바야호로 추운 때이거늘 서만이 얼음을 두드리고 하늘에 비니 (물)고기 넷이 뛰어 나오거늘 가져와 먹이니 병이 즉시 좋으니라. 후에 아비가 죽거늘 삼 년 시묘(待墓)하여 손수 제물(祭物)을 만들고 한 번도 제 집에 오지 아니 하더라. 성화(成化) 경자년(庚子年)에 여쭙니 벼슬을 시키시니라.

%9-1 목천: 목천(木川). 천안의 옛 지명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과 그 일대를 말한다.

%9-2 초홀리어든: 초하루이면. 초하루가 되면. 초홀르(←초홀르)+이-(서술격 조사)+어든(←거든, 연결 어미). ‘홀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홀르’로 교체되었다. 서술격 조사나 선어말 어미 ‘-리-, -니-’ 뒤에서는 반모음 ‘ㅣ’와 같이 ‘ㄱ’이 약화되었다.

%9-3 의식: 반드시. 꼭. ‘의식’은 주로 ‘必’의 언해에 쓰이며 16세기의 교화서류에 많이 나타난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쓰인 예들은 거의가 『속삼강행실도』에 쓰인 예를 가져온 것들이다.

%9-4 차반: 음식. ‘차반’은 한자어 ‘茶飯’에서 온 말로 15세기부터 한글 표기로 나타나며 18세기까지 음식을 뜻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19세기부터 잘 안 쓰이게 되었다. 현

대 국어에서는 같은 한자에서 유래한 ‘茶飯事, 恒茶飯’을 ‘다반사, 항다반’으로 읽는다.

%9-5 보야호로: ‘方’의 언해에 사용되는 ‘보야호로’에서 원순성 동화가 일어난 형태이다. ‘보야호로, 보야호로, 보야호로, 비야호로, 비야호로, 비야호로, 보야호로, 보야호로, 보야호로, 보야호로, 비야호로, 비야호로, 비야호로, 비야호로, 비야호로’ 등과 같이 다양한 표기 및 형태로 나타난다.

%9-6 저기어늘: 적이거늘. 적이었는데. 때였는데. 적+이-(서술격 조사)+어늘(←거늘, 연결 어미). 서술격 조사나 선어말 어미 ‘-리-, -니-’ 뒤에서는 반모음 ‘ㅣ’와 같이 ‘ㄱ’이 약화되었다.

%9-7 하늘씩: 하늘에. 하늘+씩(여격조사). ‘씩’는 기원적으로 관형격 조사 ‘스’에 ‘그’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9-8 손소: 손수. 『속삼강행실도』에는 ‘손소’로 되어 있다. 중앙어에서 ‘ㅅ’은 대개 소실되어 ‘ㅇ’이 되나 일부 단어에서는 ‘스, 스’로 남게 되었는데 ‘손수(손소<손소)’가 ‘스’로 남은 대표적인 예이다. ‘손소’는 인간류를 제외하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처음 등장하여 다수의 예를 보여 주며 ‘손수’는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9-9 지비: 집에. 집+(의(부사격 조사)). ‘의’는 최초의 부사격 조사로 대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들에 결합한다. ‘집’에 ‘에’가 결합한 형태는 15세기에는 “오직 한 집에 7독하느니<능엄경언해 목판본 2:40a, 활자본 2:35a>”가 유일하며 17세기부터 몇 예가 나타나다 18세기 이후에 많은 예를 보인다.

%9-10 성화 경즈: 성화(成化) 경자년(庚子年). ‘성화(成化)’는 명나라 제8대 황제 헌종(憲宗)의 연호로 1465년부터 1487년까지 사용되었다. 성화 경자년은 1480년(조선 성종 11년)이다.

%10-1 주인공 명: 만(萬)

%10-2 성씨: 서(徐)

%10-3 본관: 이천(利川)

%10-4 지역1: 충청남도

%10-5 지역2: 천안시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성종(1480년)

%10-8 신분: 양반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면 사당리에 잉어못[鯉魚潭]이 있는데 서만이 이 못에 서 빌자 잉어 네 마리가 솟아 나왔다고 한다. 아버지께 두 마리를 고아 드리자 아버지의 병이 나아 나머지 두 마리는 다시 이 못에 넣어 살려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이 못 위쪽에 정문거리가 있는데 이곳에 서만의 효자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시멘트로 정문지라는 표식을 해놓았다.

%11

%12 황선엽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6ㄱ-26ㄴ

%1 응정도천(應貞禱天)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6ㄱ

%3 강응정이 하늘에 빌다

%4 생원 강응정은 진주 사람으로 중추부 지사를 지낸 강익의 아들이다. 열일곱 살 때에 어머니가 병이 들어 여러 달을 앓다가 아버지 또한 설사병이 들었다. 강응정이 항상 병간호를 하며 허리를, 대님 등을 풀지 않고 옷을 입고서 밤새도록 자지 않았다. 대변의 맛을 보기도 하였으며 향을 피우고 하늘에 기도하되 부모님 대신에 죽겠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어서 돌아가시자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살기를 5년이나 하였는데 술과 과일, 나물, 소금을 먹지 않고 너무 슬퍼하여 지팡이를 짚어야만 일어날 정도였다. (임금님께) 아뢰니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생원 강응정은 %5-1진쥬 사르미나 %5-2뉘츄 강의의 아드리라 나히 %5-3열릴구베 어머니 병하야 %5-4두어 드를 도티 아니코 아버지 %5-5복질하엿겨늘 응정이 미양 시병하며 옷 닦고 찌 %5-6뉘찌 아니하야 새도록 자디 아니코 대변을 맛보며 향 피우고 %5-7하늘께 %5-8비로디 %5-9어버의 갑새 %5-10죽거지라 하더라 아버지 니어 죽겨늘 시묘 다투 하고 술과 과일 누물 소금 먹디 아니코 너무 슬허하야 막대 %5-11뉘고야 %5-12니더니 연주와늘 흥문 세니라

%6 生員姜應貞 晉州人 中樞毅之子 年十七 母邁疾 數月不痊 父又患病 應貞常侍藥 衣不解帶 達曙不寐 取糞嘗之 焚香禱天 請以身代 及父母相繼而歿 廬墓凡五年 不食酒果鹽菜 哀毀過禮 杖而後起 事聞旌闕

%7 생원강응정 진주인 중추의지자 년십칠 모구질 수월불전 부우환리 응정상시약 의불해대 달서불매 취분상지 분향도천 청이신대 급부모상계이물 려묘범오년 불식주과염채 애휨과례 장이후기 사문정려

%8 생원(生員) 강응정(姜應貞)은 진주(晉州) 사람이니 중추(中樞) 강의(姜毅)의 아들이다. 나이 열일곱에 어머니가 병들어 두어 달을 좋지 아니하고 아버지 또 복질(腹疾)하였거늘 응정이 항상 시병(侍病)하며 옷을 입고 띠를 벗지 아니하여 (밤이) 새도록 자지 아니하고 대변을 맛보며 향 피우고 하늘께 빌되 어머니 대신에 죽겠다고 하더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어서 죽거늘 시묘(侍墓)를 다섯 해 하고 술과 과일, 나물, 소금을 먹지 아니하고 너무 슬퍼하여 막대를 짚고서야 일어나더니 (임금께 이 일을) 여쭙니 흥문(紅門)을 세우니라.

%9-1 진쥬 사르미나: 진주 사람인데. 본관이 진주인데. 『속삼강행실도』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生員姜應貞 晉州人 中樞毅之子’이라는 한문 원문에 의거하여 추가한 것으로 문맥상 ‘사르미니’의 잘못으로 추정된다.

%9-2 뉘츄: 중추(中樞). 중추부(中樞府)의 벼슬을 지칭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관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추부(中樞府)는 조선 시대 서반(西班)의 종1품 아문(衙門)으로 특정한 관장 사향이 없이 문무의 당상관으로서 소임이 없는 자들을 소속시켜 대우하던 기관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영사(領事, 정1품) 1인, 판사(宗1품) 2인, 지사(정2품) 6인, 동지사(宗2

품) 7인, 첨지사(정3품, 당상관) 8인, 그리고 경력(經歷, 종4품) 1인, 도사(都事, 종5품) 1인이 있었다.

%9-3 열릴구베: 열일곱에. 열일곱 살에. 열일곱(←열닐곱)+에(부사격 조사). 『속삼강행실도』에 ‘열릴구베’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열닐곱’으로 주로 나타난다. ‘닐곱’은 15세기부터 보이며 17세기까지 널리 쓰이다가 점차 잘 안 쓰이게 되고 16세기부터 나타난 ‘닐곱’에 자리를 물려 주게 되었다.

%9-4 두어: 『속삼강행실도』에는 ‘두서’로 되어 있다. ‘△’이 소실된 모습을 보여 준다.

%9-5 복질하엿겨늘: 복질(腹疾)이 생기니. 설사병이 났는데. 복질(腹疾)하-+엿-(선어말 어미)+-겨늘(연결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엿(얏/엿)-’ 뒤에 ‘-겨늘(겨닐)’이 결합한 경우 ‘-어쎄-’와 같이 표기된 예도 있으나 대부분 이 예와 같이 ‘-엿쎄-’로 표기되거나 ‘-엿거-’로 표기되었다.

%9-6 뉘찌: 뉘찌. 뉘-+디(연결 어미). ‘뉘-’은 ‘뉘-’의 모음교체형인데 두 어형이 의미차이 없이 쓰였다.

%9-7 하늘께: 하늘에. 하늘+씩(여격조사). ‘씩’은 기원적으로 관형격 조사 ‘스’에 ‘그에’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9-8 비로디: 빌되. 기도하기를. 빌-+디(연결 어미). 연결 어미 ‘-오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가 탈락하면서 뒤 음절에 흔적을 남겨 ‘-되’로 변화하였다.

%9-9 어버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어버이+의(관형격 조사). ‘이’를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주로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가 많음) 중 관형격 조사나 호격 조사가 결합할 때 ‘이’가 탈락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이’도 그러한 명사 중 하나이다. 이런 명사에 나타나 는 ‘이’는 기원적으로 접미사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9-10 죽거지라: 죽고 싶다. 죽겠다. 죽-+거지-+라(←다, 종결 어미). ‘-거지-’는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거-’는 확인법 선어말 어미와 동일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

%9-11 뉘고야: 짚고서야. 짚어야만. 뉘-(←뉘)+고(연결 어미)+야(보조사). ‘야’는 ‘사’가 변화한 어형으로 ‘△’이 소실된 다른 어형과 달리 반모음 ‘j’가 첨가된 점이 특이하다.

%9-12 니더니: 일어나더니. 일어났는데. 날-+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어간 말의 ‘ㄹ’은 ‘ㄷ, ㅈ, ㄴ’ 앞에서 탈락하였다.

%10-1 주인공 명: 응정(應貞)

%10-2 성씨: 강(姜)

%10-3 본관: 진주(晉州)

%10-4 지역1: 충청남도

%10-5 지역2: 논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성종(1470년, 1483년)

%10-8 신분: 양반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강응정(應貞). 조선 학자. 자는 공직(公直), 호는 중화재(中和齋). 충남 은진 출신. 1470(성종 1)년 효행으로 관직에 천거되었으나 사의. 1478(성종 9)년 심원(沈淵)이 상소를 올려 정극인·정여창·이윤종·남효온 등과 어울려 소학계(小學契)를 만들어 이들을 심철(十哲)이라 했으며 부자(夫子)라 추존했다고 한다. 경서·사주 관상·의술·지리 등에 정통했다. 1483년 생원시에 합격, 성균관 유생으로 김용석·신종호·박연 등과 함께 향약을 만들고 『소학(小學)』을 강론했다. 사림(士林)에서 고향에 효자 정문을 세웠는데 불행하게도 임진

란 때 불타 없어졌는데, 1713(숙종 39)년 우암 선생의 상소로 중건된 것을 1868(고종 5)년 철거령에 의거 철거했다가 1925년 사람에서 옛터에 다시 중건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1년(1470년) 2월 7일(병진)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양경(金良瓚)이 치계(馳啓)하기를,
“(중략) 같은 고을 사람 강응정(姜應貞)은 검중추(檢中樞) 강의(姜毅)의 아들인데, 어미가 오랫동안 병을 앓으니, 강응정이 두어 달 동안이나 옷에 띠를 풀지 않고 밤이 새도록 자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병이 위급해지니, 강응정은 분향하여 하늘에 빌면서 몸으로 대신하기를 구하였고, 똥을 가져다가 맛보아 병이 덜하고 더한 것을 점쳤으며, 부모가 죽자 5년 동안이나 여묘(廬墓)살이하며 술·과실·소금·채소를 먹지 않았습니다. (중략)”
하였고 (중략) 예조(禮曹)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상항(上項)의 민씨(閔氏) 등은 소행이 탁이(卓異)하여 향리에서 칭찬하고 탄복하니, 마땅히 포상(褒賞)을 가하여 후래(後來)를 권하여야 합니다. 청건대 아울러 정문(旌門)·복호(復戶)하고 임사(任使)할 만한 사람은 이조(吏曹)·병조(兵曹)로 하여금 자급(資級)을 승진하여 녹용(錄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에 있는 조선 전기 효자 강응정의 정려가 있음.

%11

%12 황선업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7ㄱ-27ㄴ

%1 종손단지(從孫斷指)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7ㄱ

%3 옥종손이 손가락을 베다

%4 옥종손은 동래의 하급 관리인 옥석근의 아들이다. 열한 살 때에 아버지가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는데 자기 손가락을 베어서 약에 섞어 드시게 하니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효자문을 세워 주시고 부역을 면해 주셨다.

%5 옥종손이는 동리 향리 석근의 아드리라 나히 열흐나힌 제 아비 %5-2사오나온 병 어더늘 제 손싸락을 %5-3버혀 %5-4야게 섰서 머긴대 아비 병이 도흐니라 열즈와날 흥문 %5-5세오 면역흐니라

%6 玉從孫 東萊縣吏石根之子 年十一 父得惡疾 自斷手指 和藥以進 父疾乃瘳 事聞旌閭免役

%7 옥종손 동래현리석근지자 년십일 부득약질 자단수지 화약이진 부질내료 사문정려면역

%8 옥종손(玉從孫)은 동래(東萊) 향리(鄕吏) 석근(玉石根)의 아들이다. 나이가 열한 살일 때 아버지가 심한 병 얻거늘 자기 손가락을 베어 약에 섞어 먹인데 아버지의 병이 좋으니라. (임금께 이 일을) 여쭙니 흥문(紅門)을 세우고 면역(免役)하니라.

- %9-1 **향리**: 향리(鄕吏). 조선 시대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를 처리하던 하급 관인계층이다.
- %9-2 **사오나온**: 심한. 고치기 힘든. 사오나온-(←사오납)+-은(관형사형 어미). ‘사오납다’는 현대국어의 ‘사납다’가 가진 의미 외에 ‘품질이 떨어지다, 열등하다, 정도가 심하다’ 등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惡疾’의 ‘惡’을 번역한 것이다.
- %9-3 **버혀**: 베어. 버히-+-어(연결 어미). ‘버히-’는 주동사 ‘뵈-’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15세기에는 모음교체형인 ‘바히-’도 같이 쓰였다.
- %9-4 **야게**: 약(藥)에. 약+에(부사격 조사). 『속삼강행실도』에는 ‘야게’로 되어 있다. 모음조화가 깨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9-5 **세오**: 세우고. 세-+-오(←고, 연결 어미). ‘세다’는 동사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여기에 다시 ‘-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세우다’가 쓰인다.

- %10-1 주인공 명: 종손(從孫)
- %10-2 성씨: 옥(玉)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경상남도
- %10-5 지역2: 부산시 동래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중종(1507년)
- %10-8 신분: 중인
-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11

%12 황선엽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8ㄱ-28ㄴ

%1 득평거려(得平居廬)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8ㄱ

%3 권득평이 초막에 살다

%4 진사 권득평은 풍기 사람이다. 아버지가 앓을 보지 못하였는데 아버지가 출입할 때에 항상 부축하였고 음식을 반드시 몸소 봉양하였다. 부모님이 며칠 사이에 이어서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살았고 어머니를 위하여 또 삼년상을 치렀다. 사당에 아침저녁으로 메를 올려 제사를 지냈으며 나갈 때는 아뢰고 돌아오면 뵈기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와 같이 하였다. 1499년에 (임금님께) 아뢰니 효자문을 세워 주었다.

%5 진사 권득평이는 풍기 사루미라 제 아버 눈을 못 보거늘 나며 들 제 미양 %5-1뻘들며 음식을 반드시 친히 이받더니 어버이 두 날 사이에 %5-2니어 죽거늘 삼 년 시묘 살고 어머니 위하야 또 삼 년 거상 니브니라 스당애 아츰 %5-3나죄 뉘 제하며 나갈 제 고하고 도라와 뵈요물 산 제 7티 허더라 %5-4홍티 괴미에 열즈와늘 흥문 세니라

%6 進士權得平 豊基人 其父失明 出入常扶持 飲食必親奉 父母數日連逝 居廬三年 爲母又服齊衰三年 家廟朝夕上食 出告反面如生時 弘治己未 事闈旌閭

%7 진사권득평 풍기인 기부실명 출입상부지 음식필친봉 부모수일언서 거려삼년 위모우복자죄 삼년 가묘조석상식 출곡반면여생시 흥치기미 사문정려

%8 진사(進士) 권득평(權得平)은 풍기(豊基) 사람이다. 제 아버가 눈을 못 보거늘 나며 들 제 매번 부축하며 음식을 반드시 친히 이받더니 어버이가 두어 날 사이에 이어서 죽거늘 삼년 시묘(侍墓) 살고 어머니를 위하여 또 삼년 거상(居喪)을 입으니라. 사당(祠堂)에 아침저녁 메로 제사하며 나갈 제 고하고 돌아와 뵈기를 (부모가) 살았을 제 같이 하더라. 흥치(弘治) 기미(己未)에 (임금께 이 일을) 여쭙니 흥문(紅門)을 세우니라.

%9-1 뻘들며: 옆구리를 끼고 들며. 부축하며. 뻘--어(연결 어미)#들--어(연결 어미). 『동국속삼강행실도』에는 ‘뻘-’(挾)와 ‘들-’(攀)이 비통사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뻘들-’도 같이 나타난다.

%9-2 니어: 이어서. 니-(←녕)+어(연결 어미). 『속삼강행실도』에는 ‘니서’로 되어 있는바 ‘△’이 소실된 예를 보여 준다. 바로 앞의 ‘어버이’와 ‘스이’의 경우에는 『속삼강행실도』에서도 이미 ‘△’이 쓰이지 않고 있다.

%9-3 나죄: 저녁에. ‘저녁’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나조ㅎ’과 ‘나죄’의 어형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으로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4 홍티: 흥치(弘治). 명나라 제9대 황제 효종 때의 연호로 1488년부터 1505년까지 사용되었다.

%10-1 주인공 명: 득평(得平)

- %10-2 성씨: 권(權)
- %10-3 본관: 안동(安東)
- %10-4 지역1: 경상북도
- %10-5 지역2: 영주시 풍기읍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연산군(1499년)
- %10-8 신분: 양반
- %10-9 성별: 남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11

%12 황선업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9ㄱ-29ㄴ

%1 정문세효(鄭門世孝)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29ㄱ

%3 정씨 가문의 대를 이은 효성

%4 승지 벼슬을 지낸 정성근은 진주 사람으로 지중추부사였던 정척의 아들이다. 지조가 있고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광주에 합장을 하고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삼년상을 마쳤다. 슬픔으로 몸이 여월 정도로 예를 다하였는데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몸소 제사 음식을 준비하여 비록 그릇 씻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일도 하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나중에 벼슬을 하여 매우 바쁠 때에도 매일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묘소에 찾아가 뵙고 청소를 하며 제 올리기를 묘소에 초막을 짓고 살 때와 똑같이 하였는데 이를 죽을 때까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성종 임금이 돌아가시자 상주가 된 듯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3년을 지냈는데 연산군이 갑자사화 때인 1504년에 거짓으로 상을 입는 행실을 한 것이라 누명을 씌워 죽었다. 그러자 당시 승문원의 박사였던 정성근의 아들 정주신은 아버지가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애통하게 여겨 가슴을 치며 울다가 밥을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중종이 즉위하여 정성근을 이조참판으로 추증하였다.

%5 승지 명성근은 %5-1진췁 사름이니 %9-2디똥츄부스 턱의 아드리라 절개 %5-3인고 텃성 이 지극헌 %5-4회러니 부뵐 죽거늘 광췁 가 합장헌고 시묘헌야 상스를 %5-5문다 %5-6 슬허 여위여 넉을 다헌고 도석의 받드시 친히 제찬을 %5-7초고 비록 그릇 심는 저근 이리라도 췁을 %5-8만디디 아니헌더라 후의 벼슬헌야 비록 이리 겨를 업서도 미양 초허 췁 보름을 만나 %5-9무덤의 뵈여 췁레질허며 제 밍글기를 헌글기티 시묘에 이실 시절기티 헌야 모미 문도록 게을리 아니헌더라 %5-10강정대왕을 위헌야 심상 삼년 헌니 연산군이 갑즈애 뵈곰 거즌 헝실이라 헌야 주기니 아들 췁신이 아비 죄 업시 췁근 췁 설워 가슴 두드려 울고 밥 아니 먹고 죽다 %5-11공희대왕이 성근을 니조참판 튥증헌시다

%6 承旨鄭誠謹 晉州人 知中樞府事陟之子 有節操 天性至孝 父母歿 合葬於廣州 廬墓終喪 哀毀盡禮 朝夕必親奠具饌 雖滌器之微 不委僮僕 後爲官 雖務劇 每遇朔望 必詣墓省掃供祭 一如在廬時 終身不愈 爲康靖大王 心喪三年 燕山甲子 以爲詭行殺之 子舟臣 慟父非命 號擗不食而死 恭僖大王贈誠謹吏曹參判旌門

%7 승지정성근 진주인 지중추부사척지자 유절조 천성지효 부모물 합장어광주 려묘종상 애훼 진례 조석필친전구찬 수척기지미 불위동복 후위관 수무극 매우삭망 필예묘성소공제 일여 재려시 종신불태 위강정대왕 심상삼년 연산갑자 이위궐행살지 자주신 통부비명 호벽불식 이사 공희대왕증성근이조참판정문

%8 승지(承旨) 정성근(鄭誠謹)은 진주(晉州) 사람이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척(陟)의 아들이다. 절개가 있고 천성(天性)이 지극한 효성이더니 부모가 죽거늘 광주(廣州)에 가서 합장(合葬)하고 시묘(侍墓)하여 상사(喪事)를 마쳤다. 슬퍼하여 여위어 예를 다하고 조석(朝夕)으로 반드시 친히 제찬(祭饌)을 갖추고 비록 그릇 씻는 작은 일이라도 종에게 맡기지 아니하더라. 후에 벼슬하여 비록 일이 겨를 없어도 매번 초하루 보름을 만나면 무덤에 가 뵙고 쓰레질하며 제 지내기를 한결같이 시묘(侍墓)에 있을 시절같이 하여 종신(終身)토록

게을리 아니하더라. 강정대왕(康靖大王)을 위하여 심상(心喪)을 삼 년 하니 연산군(燕山君)이 갑자(甲子)에 거짓 행실이라 하여 죽이니 아들 주신(舟臣)은 아버가 죄없이 죽은 것을 서럽게 여겨 가슴을 두드리며 울고 밥을 아니 먹고 죽었다. 공희대왕(恭僖大王)이 성근(誠謹)을 이조참판(史曹參判)으로 추증(追贈)하였다.

- %9-1 **진췌**: 경상남도 진주(晉州). ‘州’의 한자음으로는 ‘췌’와 ‘췌’가 공존하였는데 이 문헌에서는 주로 ‘췌’가 쓰였다.
- %9-2 **지중추부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조선 시대 일정한 직무가 없는 당상관(堂上官)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인 중추부(中樞府)의 정2품 관직이다.
- %9-3 **인고**: 있고. 인-(←잇)+고(연결 어미). 자음 어미 앞에서는 ‘잇-’, 모음 어미 앞에서는 ‘이시-’로 교체되는 ‘잇-’은 ‘잇-’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예에서처럼 ‘인-’으로 표기된 예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다수 나타난다.
- %9-4 **회려니**: 효이더니. 효였는데. 효(孝)+ㅣ-(서술격 조사)+려-(←더, 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다른 예에서 한문 원문에 ‘孝’는 용언으로는 ‘효양하-, 효도하-, 효도롭-’ 등으로 번역되었고 명사로는 ‘효도, 효성’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서는 한자 그대로 ‘효’로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 %9-5 **묻다**: 마쳤다. 묻-(←묻)+다(종결 어미). 앞의 ‘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묻-(←묻)’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묻-’이 ‘묻-’으로 표기되었다. 아래의 ‘그른, 실눈, 말디디, 물도록, 거죽’도 마찬가지로 종성 표기 ‘ㅅ’이 ‘ㅈ’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묻-’에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묻히-’가 만들어져 현대 국어로 이어지게 되었다.
- %9-6 **슬허**: 슬퍼하여. 슬+-어(연결 어미). ‘슬다’는 “슬퍼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인데 현대 어에서는 안 쓰이게 되었고 여기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슬쁘다’만이 남아 있다.
- %9-7 **꺾초고**: 꺾추고. 꺾초+-고(연결 어미). ‘꺾초-’는 ‘구비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꺾-’에 사동 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현대 국어의 사동 접미사 ‘-추-’는 어간 말 ‘ㅈ’ 뒤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 ‘-호/후-’에서 유래한다.
- %9-8 **말디디**: 말기지. 말디-(←말디)+디(연결 어미). 이는 종성의 ‘ㅅ’을 ‘ㅈ’으로 표기하는 표기법적 특징을 강하게 보이는바 ‘말디-’가 ‘말디-’로 표기되었다. ‘말디-’는 ‘말-’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9-9 **무덤의**: 무덤에. 묘소에. 무덤+의(부사격 조사). 15세기에는 ‘무덤’에 처소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6세기 이후로 ‘의’가 결합한 예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 %9-10 **강정대왕을**: 성종을. 강정대왕(康靖大王)은 조선 제9대 왕 성종이다. 성종의 묘호는 ‘成宗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성종강정인문헌무흠성공효대왕)’이다.
- %9-11 **공희대왕이**: 중종이. 중종께서. 공희대왕(恭僖大王)은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다. 중종의 묘호는 ‘中宗恭僖敬文昭武欽仁誠孝大王(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이다.

- %10-1 주인공 명: 성근(誠謹)
- %10-2 성씨: 정(鄭)
- %10-3 본관: 진주(晉州)
- %10-4 지역1: 서울, 경기도
- %10-5 지역2: 서울, 경기도 광주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연산군(1504년)

- %10-8 신분: 양반
- %10-9 성별: 남
- %10-10 역사 사건: 갑자사화
- %10-11 기타

정성근(鄭誠謹). 1474년(성종 5)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479년 수찬으로 경연관(經筵官)을 겸하였다. 1481년 부교리로서 승지의 업무를 맡을 만한 인물로 추천되었고, 경차관(敬差官)으로 경기도에 파견되어 교동현의 유민(流民)을 진휼하였다. 이듬해에는 홍문관 부응교로서 구황적간(救荒摘奸)하기 위해 전라도에 파견되었으며, 1483년 황해도경차관이 되었다.

그 뒤 홍문관전환을 거쳐 대마도선위사(對馬島宣慰使)로 파견되었다. 1487년에는 시강관으로 경연에서 용인(用人)의 법도를 지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해 직제학이 되었다. 그가 선위사로 대마도에 갔을 때, 대마도주가 주는 화선·호초(胡椒) 등을 모두 되돌려주기도 하였다. 그 뒤에 도주가 그 물건을 또 특별히 보내와서 나눠주게 했으나, 그가 완강히 사양하여 왕은 그 물건을 도로 대마도에 돌려보냈다.

그 뒤 해주목사를 거쳐 1490년 반우형(潘佑亨)·표연말(表沿洙) 등과 함께 사유(師儒)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경기도경차관·우부승지를 거쳐 좌부승지에 이르렀는데, 이때 해주목사로 재직할 때의 부정으로 탄핵을 받아 사직을 청하였다. 1494년 성종이 즉자 3년 동안 수모했으며, 1495년(연산군 1) 행호군으로 한직에 물러나 있다가 다시 정계에서 축출되었으나, 1497년에 다시 서용되었다.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참수되었으나, 중종 즉위 후에 신원(伸寃,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되고, 그의 충효로 아들이 녹용(錄用)되었다. 1507년(중종 2)에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정문이 내려졌다. 또한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광주(廣州) 구암서원(龜巖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충절(忠節)이다.

<출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년(1504년) 윤4월 17일(정축) 네 번째 기사.

유순(柳洵)·허침(許琛)·박송질(朴崇質)·박건(朴健)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鄭誠謹)은 간사한 마음을 품고 거짓 충성한 체하여 감히 세속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조지서(趙之瑞)는 거만하고 재가 높은 체하며, 패만(悖慢)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구성(具誠)·최숙근(崔叔謹)은 은밀히 당여(黨與)를 만들어, 사람을 죽을 죄로 모함하였으니 모두 드러내어 베어서 마땅합니다. 성근과 지서는 성품과 행동이 같지 않지만, 남의 사삿일을 공격 고발하기를 좋아하며 사람을 상하고 물건을 해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하고, 강귀손(姜龜孫)·신준(申浚)·조득림(趙得琳)·이계동(李季叟)·여자신(呂自新)·이집(李諶)·정미수(鄭眉壽)·김수동(金壽童)·김감(金勘)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은 밝은 곧으나 안은 거짓이요, 감정을 죽여 이름을 얻으려 하였으며, 조지서는 부망(浮妄)하고 궤이(詭異)하여 남에게 오만하고 재가 높은 체하였으며, 구성·최숙근은 음흉 간사한 일을 날조(捏造)하여, 가까운 친족을 무함하였으니, 드러내어 베임 받음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유지(鄭有智)·최응현(崔應賢)·안처량(安處良)·이계남(李季南)·김무(金礎)·오순(吳純)·김경조(金敬祖)·윤탄(尹坦)·이병정(李秉正)·성세명(成世明)·임사홍(任士洪)·이창신(李昌臣)·장순손(張順孫)·이점(李沾)·이양(李良)·한형윤(韓亨允)·김의동(金義童)·노공유(盧公裕)·최관(崔灌)·김중(金攄)·변수(邊脩)·유호(兪顛)·유기창(俞起昌)·최진(崔璉)·유계장(柳季漳)·강삼(姜參)·성희안(成希顔)·정광필(鄭光弼)·신계종(申繼宗)·이성달(李成達)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정성근의 죄와 구성·최숙근 등의 죄는 그 범행이 사실 크니, 중죄에 처하여야 마

망합니다. 그 중에도 조지서는 궤이(詭異)한 행동하기를 좋아하며, 망령되이 자기를 높여 남의 위에 서려 하고, 큰 말이 합당한 것이 없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정성근은 심지가 괴벽하여, 꾸며 대어 거짓을 행하고 우직하여 사사일을 하여 남의 칭찬을 받고, 위에 잘 보이려 하였으니, 이 무리들은 모두가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둑질하며, 요사한 말과 요사한 행동으로 여러 사람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어찌 성명(聖明)한 세상에 용납될 것이겠습니까?”

하고, 허집(許輯)·민휘(閔暉)·반우형(潘佑亨)·홍자하(洪自河)·홍임(洪任)·육한(陸閑)·유사(劉廐)·심형(沈亨)·하맹운(河孟潤)·이열(李冽)·이과(李顛)·김전(金銓)·이중현(李仲賢)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정성근·구성·최속근 등은 이미 중한 죄를 범했으니 죄주는 것이 원래 당연합니다. 그 중에도, 지서는 큰 말과 거짓행동으로 거만하고 제가 잘난 척했으며, 성근은 남을 업신여기고, 저를 높이려 하며 발끈 성내고 또 우직하였으니, 모두 세상을 속이고 제 이름을 내리는 무리들로서 사람들이 많이 미워하였습니다.”

하고, 노효신(盧效愼)·홍정로(洪貞老)는 의논드리기를,

“조지서·정성근·구성·최속근 등은 죄를 주는 것이 지당합니다. 지서는 궤이(詭異)하기가 그 이상 없으며, 제 스스로 높은 체하고 선비들을 경멸하였으며, 성근은 강팍스럽기 이를 데 없고, 소행이 모두 거짓으로서 세속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이복선(李復善)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조지서·구성·최속근 등의 죄상은 지극히 중하여 형용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중형을 당하니, 공론이 매우 통쾌해 합니다. 성근·지서의 심술은 측량할 수 없으나, 안에 쌓인 것이 밖에 나타나서, 그 행적의 궤이하고 사특함이 이렇게까지 심하니, 그 심술의 흉악하고 부정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고, 손주(孫澍)·윤석보(尹碩輔)·윤은보(尹殷輔)·심정(沈貞)·정봉(鄭鵬)·이희보(李希輔)는 의논드리기를,

“조지서(趙之瑞)·정성근(鄭誠謹)·구성(具誠)·최속근(崔叔謹) 등의 죄주는 일은 매우 마땅합니다. 지서는 음흉하고 거만하며, 궤이(詭異)한 일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낚으며 남보다 앞서려 했으며, 성근은 거짓을 품고 고자질하기를 좋아하며 강팍스럽고 제가 높은 체하며, 거짓을 꾸며 세상을 속이기에 힘썼으니, 성명(聖明)께 용납되지 못하여야 합니다.”

하고, 신숙근(申叔根)·장충보(張忠輔)·이충걸(李忠傑)·김준손(金俊孫)·유속(柳續)·김승조(金崇祖)·박호겸(朴好謙)·양계벽(梁季璧)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조지서·구성·최속근 등을 죄준 일은 참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흡족합니다. 성근은 심술이 간사하여 감히 궤이(詭異)한 행동을 하고, 거짓을 꾸며 이름을 냈으며, 지서는 마음 씀이 흉악하고 음험(陰險)하며 발끈 성을 잘 내고 높은 체 하며 남을 업신여기고 세상을 속였으니,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고, 박삼길(朴三吉)·권인손(權仁孫)·심광보(沈光輔)·권구(權俱)·송걸(宋傑)·심담(沈淡)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정성근·최속근·구성 등을 죄준 일은 마땅합니다. 지서는 망령되이 문학으로 잘난 체하고 심술이 궤이하여 남을 깔보며 세상을 업신여겼으며, 성근은 성을 잘내고 제가 잘난 척하며, 모든 소행이 사실은 거짓으로써, 모두가 세속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유사한(柳自漢)·이의무(李宜茂)·이승녕(李承寧)·박승문(朴崇文)·김영우(金靈雨)·홍경창(洪慶昌)·김수말(金守末)·한사개(韓士介)·조중휘(趙仲輝)·유추(柳湫)는 의논드리기를,

“성근·지서·구성·최속근 등은 죄를 범한 것이 경하지 않으니, 형벌함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물며 성근은 성을 잘내고 잘난 체하며, 겉으로는 정직한 체하지만 속은 실지 간사하였으며, 지서는 망령되이 제 스스로 문학이 아무도 자기만 못하다하여 선비들을 업신여기며

크게 궤이(詭異)한 행동을 하였으니, 모두가 세상을 놀래고 윤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그들의 심술이 바르지 못함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유효산(柳孝山)·하형산(河荊山)·한충의(韓忠義)·손집경(孫執經)·신경(申經)·김종한(金從漢)·김윤온(金允溫)·이순명(李順命)·이순량(李純良)·구수종(具壽宗)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조지서·구성·최속근 등은 죄를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그들의 심술을 말하면, 성근은 속이 좁고 제가 잘난 척하여, 간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지서는 재주를 가졌고 남을 경하게 여기고 궤술(詭譎)하며 부정합니다.”

하고, 심순문(沈順門)·한세환(韓世桓)·강혼(姜渾)·방유녕(方有寧)·권민수(權敏手)·이조(李頹)·황맹헌(黃孟獻)·문근(文瑾)·김당(金瑤)·김윤문(金胤文)·이빈(李蘋)·김석필(金錫弼)은 의논드리기를,

“지서가 속으로 궤술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간하는 상소를 청탁하여 함부로 불경한 말을 하여 감히 군상(君上)을 업신여겼으며, 성근은 거짓 충성하며 제도를 어기고 명예를 구하며 은혜를 노렸으며, 구성·최속근은 없는 말을 지어 남을 중한 죄로 무함하였으니 다 함께 중한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실지 법에 마땅합니다. 또 지서와 성근의 사람됨은 그 평생 심술이 궤적(詭譎)하고 사위(詐僞)스러워서, 세속과 달리 하여 명예를 낚으려는 것이 모두 다 이렇습니다.” 하고, 변상(邊祥)·임유겸(任由謙)·남경(南憬)·신징(申澄)·최순(崔峻)·홍숙(洪淑)·윤세필(尹世霽)·이철균(李鐵鈞)·김지(金祉)·진담(秦澹)·김말문(金末文)·조계형(曹繼衡)·윤은필(尹殷弼)·이세응(李世應)·이기(李芑)·김안국(金安國)·김세우(金世瑀)는 의논드리기를,

“지서·성근·구성·최속근 등의 죄는 중형으로 다스림이 매우 마땅합니다. 지서는 음흉하고 궤이하며, 성근은 거짓을 꾸며 이름을 구하니 두 사람의 심술이 이릅니다.”

하고, 이운거(李云租)·우윤공(禹允功)·한순(韓珣)·최해(崔灌)·조원기(趙元紀)·유응룡(柳應龍)·신복순(申復淳)·김수경(金壽卿)·이창윤(李昌胤)·윤순(尹珣)·유방(柳芳)·최중홍(崔重洪)·신영철(申永澈)·손관(孫灌)·박겸무(朴兼武)·김곤(金琨)·이창년(李昌年)·최세준(崔世琰)·신세호(辛世瑚)·유익신(柳翼臣)·노종(盧種)·송징(宋徵)·이철명(李哲明)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정성근·구성·최속근 등의 죄범이 지극히 중하니, 극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성근은 간흉하고 사특하며, 지서는 궤술하고 오만하니, 그들의 심술이 대개 이릅니다.”

하고, 이익희(李益禧)·허광(許曠)·박승수(朴承燧)·권주(權驥)·조계상(曹繼商)·황종신(黃從愼)·이소원(李紹元)·신극성(愼克成)·김원필(金元弼)·이은(李閔)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조지서·구성·최속근의 죄는 다 함께 중한 형벌에 두어 마땅합니다. 성근은 성을 잘 내고 스스로 높은 체하며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내고, 지서는 궤술(詭譎) 부정하고, 재주를 부려 남을 깔보니 두 사람의 심술이 이릅니다.”

하고, 문운명(文允明)·이윤형(李允亨)·양자해(梁自海)·복희달(卜禧達)·윤탁(尹卓)·유호례(俞好禮)·장익(張翼)·유공석(柳公奭)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정성근·구성·최속근 등의 죄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지서는 궤술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진 척하여 남을 깔보았으며, 성근은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낚으려고 남과 다르게 하기를 애썼습니다.”

하고, 유첨정(柳添汀)·허수(許遂)·조계우(曹繼虞)·김윤관(金允灌)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조지서·구성·최속근 등의 죄는 중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성근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우나 속은 거짓이며, 지서는 음험하고 궤이하니, 두 사람의 심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이잠(李箴)·손세옹(孫世雍)·박상(朴祥)·박근(朴鯤)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정성근은 궤이한 것을 좋아하고, 위를 업신여기며, 구성·최속근은 혐의를 품고서 친한 이를 모함하였으며, 죄가 크고 악이 극하여 중형에 처하는 것이 사실 중심(衆心)에

통쾌합니다. 지서는 재주를 믿고 제가 잘난 척하며, 궤환한 일 하기를 좋아하고, 성근은 거짓으로 곧은 양하며, 감정을 억눌러 이름을 내려 합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1년(1506년) 9월 19일(을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듣건대, 정성근(鄭誠謹)은 행실이 고상한 사람인데, 폐왕조에서 시속에 합하지 못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하니, 봉작(封爵)하는 것이 어떠한가? 정승에게 의논하라.”
 하자, 정승이 아뢰기를,
 “성근은 과연 행실이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뿐만 아니라, 무릇 절의 있고 효성스럽고 청렴한 자는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계문하게 하여, 풍교(風教)를 장려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옳다고 전교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2년(1507년) 윤4월 17일(정축) 네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장령 안팽수(安彭壽)가 아뢰기를,
 “옛 임금들은 절의(節義)를 소중하게 여겨 표창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했고, 우리 성종조(成宗朝)에서도 중외에 절의 있는 자는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고 그 집 호역(戶役)을 면제하였습니다. 죽은 승지(承旨) 정성근(鄭誠謹)과 훈도(訓導) 이자화(李自華)는 다 충효의 행실이 있어, 성종께서 승하시자 마음으로 삼년상을 행했는데, 폐조 때에 억울하게 사형을 받았으니, 이제 그 정문을 세워 만세(萬世)에 본받도록 하소서. 또 절부(節婦)인 죽은 참판 송영(宋瑛)의 아내 신씨(申氏)의 정문은 폐조에서 헐어버렸으니,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의계하도록 하였으니, 다시 의논해서 하겠다.”
 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한문 원문 부분에 ‘親奠具饌’으로 되어 있는데 『속삼강행실도』에는 ‘親具奠饌’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속삼강행실도』의 것이 옳다. 또한 한문 원문 제일 마지막에는 ‘旌門’이라 내용이 있는데 언해에서는 번역이 누락되었다. 『속삼강행실도』에는 ‘紅旌門문 세니라’라는 내용이 더 들어 있다.

%12 황선엽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30ㄱ-30L

%1 자화진효(自華盡孝)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30ㄱ

%3 이자화가 효도를 극진히 하다

%4 이자화는 은산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효도하여 아침저녁 문안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손수 밥을 지어 봉양하며 제철 음식을 구하면 반드시 부모님이 드시게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슬퍼하기를 예에 넘칠 정도로 하고 탈상할 때까지 3년 동안 죽을 먹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또 그렇게 하였다. 성종 임금이 돌아가셔서 국상이 나자 삼년 동안 상을 입어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으며 술도 마시지 않고 소금, 간장, 나물, 과일도 먹지 않았다. 연산군이 즉위하여 처음에는 벼슬을 주고 홍살문도 세워 주었으나 갑자사화가 일어난 해인 1504년에 위선적인 행실이라고 하여 고문하고 신문하여 죽이려 하니 진술하기를
 “임금을 위하여 상을 입는 것은 명성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임금과 아버지가 똑 같다고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순순히 죽으니 모두 슬퍼하였다.

%5 니즈화는 은산 사리미라 %5-1저른 %5-2제부터 %5-3어버이를 효도하야 아츰 %5-4나죄 문안을 %5-5게을이 아니하야 친히 밥지어 이바드며 시절 것 %5-6어더든 %5-7의식 이 받더니 아비 죽거늘 %5-8슬허호물 %5-9례에 너무 하야 거상 %5-10받도록 죽 머그며 어미 죽거늘 쏘 그리타라 %5-11강정대왕 국상에 삼 년 거상 니버 문 닫고 나디 아니하며 술 먹디 아니하며 소곰 장 누물 과실 먹디 아니타라 연산도 %5-12처이미 벼슬히이며 흥문 세엿더니 갑즈년에 거죽 %5-13헝덕이라 하야 주기려 %5-14저주거늘 %5-15다듬을 호되 님금 위하야 거상호미 일흠 %5-16어두려 허는 주리 아니라 님금과 아비와 흥가진 가 너겨 %5-17호라 호고 %5-18종용히 죽거늘 모다 슬허허더라

%6 李自華 殷山人 自少事親孝 定省不懈 朝夕必躬爨以供 每遇時差必獻 父歿 哀毀過禮 啜粥終喪 母歿 亦如之 爲康靖大王 服喪三年 閉門不出 不飲酒 不食鹽醬菜菓 燕山初賞職旌門至甲子 以詭行 捕鞠將戮之 自華供曰 爲君服喪 非爲要名 妄料君父一體耳 遂從容就死 國人莫不傷痛

%7 이자화 은산인 자소사친효 정성불해 조석필궁찬이공 매우시수필헌 부물 애훼과래 철죽종상 모물 역여지 위강정대왕 복상삼년 폐문불출 불음주 불식염장채과 연산초상직정문 지갑자 이궤행 포국장록지 자화공왈 위군복상 비위요명 망료군부일체이 수종용취사 국인막불상통

%8 이자화(李自華)는 은산(殷山) 사람이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효도하여 아침저녁 문안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친히 밥 지어 이바으며 제철 것을 얻으면 반드시 이바더니 아비 죽거늘 슬퍼하기를 예에 너무 하여 거상(居喪)을 벗도록 죽을 먹으며 어미가 죽거늘 또 그리하더라. 강정대왕(康靖大王) 국상(國喪)에 3년 동안 거상(居喪)을 입어 문 닫고 나가지 아니하며 술 먹지 아니하며 소금, 장(醬), 나물, 과일을 먹지 아니하더라. 연산조(燕山朝) 처음에 벼슬시키며 흥문(紅門)을 세웠더니 갑자년(甲子年)에 거짓 행적(行蹟)이라 하여 죽

이러 국문(鞠問)하기를 공초(供招)하되 임금 위하여 거상(居喪)함이 이름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아버가 한가지라고 여겨 한 것이라 하고 조용히 죽거늘 모두 슬퍼하더라.

9-1 **저문:** 어린. 점--은(관형사형 어미). '점-'은 한문 원문의 '少'에 대응되는 것으로 '어리다'의 의미이다. 근대 국어 이후 양순음인 'ㄹ' 앞에 'ㄷ'이 첨가되고 단모음화를 겪어 형태적으로도 변화하고 의미도 변하여 현대어의 '젊다'가 되었다.

9-2 **제부터:** 적부터. 때부터. 제+부터(보조사). '제'는 '때'를 의미하는 명사 '적'에 시간이나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한 '저기'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이다. '부터'는 동사어간 '붙-'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여 조사로 문법화한 것이다.

9-3 **어버이를 효도하야:** 아버지께 효도하여. '효도하-'가 타동사로 쓰이는 일이 없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세 국어에서는 '효도하-'가 타동사로 쓰인 예가 많다. 목적어 자리에는 이 예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 등의 사람이 오기도 하고 '어버이 섬고물 7장 효도하야', '식어버이를 섬기를 효도하더니', '식어미 치기를 지극이 효도하더니'처럼 '섬품/섬김, 치기'와 같은 행위가 오기도 한다. 한편 '효도하-'가 '성이 본디 효도하며, 성이 순근하며 효도하고'와 같이 '효성스럽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처럼 쓰인 예도 많이 보인다.

9-4 **나죄:** 저녁에. '저녁'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나조ㅎ'과 '나죄'의 어형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으로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5 **게을리:** 게을리. 게으르게. '게으르-'에 '-이'가 붙어 파생된 부사는 이 문헌에서 '게을리'로 표기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와 같이 '게을이'로 나타나는 예가 드물게 보인다.

9-6 **어더든:** 얻으면. 구하면. 얻--어든(연결 어미). 연결 어미 '-어든'의 '어'는 선어말 어미 '-어-'와 같은 교체 양상을 보이는바 여기서는 음성모음을 가진 타동사 '얻-' 뒤에서 '어'로 실현되었다.

9-7 **의식:** 반드시. 꼭. '의식'은 주로 '必'의 언해에 쓰이며 16세기의 교화서류에 많이 나타난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쓰인 예들은 거의가 『속삼강행실도』에 쓰인 예를 가져온 것들이다.

9-8 **슬허호물:** 슬퍼함을. 슬퍼하기를. 슬허ㅎ+음(명사형 어미)+울(목적격 조사). '슬허ㅎ-'는 동사어간 '슬-'에 강조를 나타내는 '-어 ㅎ-' 구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슬-'은 사라지고 그 파생형용사 '슬프-'만이 남아 있다.

9-9 **례에 너무 하야:** 예에 넘치게 하여. 예절에 지나치게 하여. 중세 국어 문헌에서 '너무'는 '평평'의 성조형을 지니는바 '넘-'의 사동사 '너므/너무-'에서 영파생된 부사 '너므/너무'가 원순성동화를 입어 '너무'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15세기부터 '너모'와 '너무'가 공존한다. 부사 '너모/너무'는 이 예에서와 같이 논항을 취하기도 한다.

9-10 **반도록:** 벗을 떼까지. 반-(←받)+도록(부사형어미). 한문 원문에 '終喪'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뫋도록'의 종성 'ㅅ'을 'ㄷ'으로 표기한 '문도록'의 잘못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이 문헌에 '거상 받/벗-'의 예도 많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벗-'의 모음교체형 '뫋-'이 쓰인 예로 파악하였다.

9-11 **강정대왕:** 성종(成宗). 강정대왕(康靖大王)은 조선 제9대 왕 성종이다. 성종의 묘호는 '成宗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성종강정인문헌무흠성공효대왕)'이다.

9-12 **처이미:** 처음에. 초기에. '처이미'는 '처어미'의 잘못이다. 『속삼강행실도』에는 '처서미'로 되어 있다.

9-13 **힝덕이라:** 행실이다. '힝덕이라'는 '힝덕이라'의 잘못이다. '덕'의 'ㅣ'획의 가로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덕'에서 한 획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속삼강행실

도』에는 '힝덕이라'로 바르게 되어 있다.

9-14 **저주거늘:** 국문(鞠問)하거늘. 고문하며 신문(訊問)하여. 저주--거늘(연결 어미). '저주-'는 한문 원문의 '鞠'을 언해한 것이다. '국문(鞠問)'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 국청(鞠廳)에서 형장(刑杖)을 가하여 중죄인(重罪人)을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9-15 **다담을:** 공초(供招)를. 진술을. 다담+을(목적격 조사). '다담'은 한문 원문의 '供'을 번역한 것으로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공초(供招)'를 의미한다. '다담'은 구개음화를 겪고 의미 변화가 일어나 현대 국어의 '다짐'이 되었다.

9-16 **어두려:** 얻으려고. 얻--우려(연결 어미).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오려/우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9-17 **호라:** 하였다. ㅎ-(←ㅎ)+오-(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개재하지 않은 경우 동사는 과거의 의미로 파악된다.

9-18 **종용히:** 조용히. 순순히. '종용히'는 '종용ㅎ-'에서 파생된 부사이다. 어근 '종용'은 한자어 '從容'을 한글로 적은 것으로 15세기에도 '從容'과 '종용'이 같이 나타난다.

9-10-1 주인공 명: 자화(自華)

9-10-2 성씨: 이(李)

9-10-3 본관: 미상

9-10-4 지역1: 평안남도

9-10-5 지역2: 순천군 은산면

9-10-6 시기: 조선

9-10-7 연도: 연산군(1497년, 1504년)

9-10-8 신분: 양반

9-10-9 성별: 남

9-10-10 역사 사건:

9-10-11 기타

이자화의 효행과 논죄, 복원에 대한 기록은 『연산군일기』, 『중종실록』에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3년(1497년) 1월 16일(무오) 2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평안도 은산(殷山) 사람 이자화(李自華)가 효행이 특이하니 정문(旌門)을 지어 표창하고 부역을 면제하여 주기〔復戶〕바랍니다. 또 자화의 나이가 지금 63세인데, 늙어서 등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이웃 고을의 훈도(訓導)를 제수하여 후학을 교육 양성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자화는 소년 시절부터 조석으로 부모 섬기기〔定省〕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손수 밥을 지어 아버지를 봉양하고, 철따라 생기는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다 부모에게 드렸다.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 몸부림치며 토욕하였고, 죽은 이 섬기기를 생전과 같이 하였다. 아내와 함께 거처하지 않고 삼년상 중에는 죽을 먹었다. 그리고 성종의 상사를 듣고는 부모상을 당한것처럼 하여 3년 간을 문을 닫고 나들이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소금·장·채소·과일도 먹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9월 6일(계사) 2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여지승람(輿地勝覽)』을 보건대, 은산(殷山)에 사는 이자화(李自華)가 어릴 때부터 혼정신성(昏定晨省)을 조금도 게을리 않고,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손수 밥을 지으며, 매양 음식을 얻게 되면 반드시 가져다 부모에게 드리고, 돌아가시자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울어 죽은 사람 섬김을 산 사람 섬기듯 하며 부부가 같이 있지 않고 3년 동안 죽을 먹으

며, 성종(成宗)의 상사를 듣고는 부모의 상과 같이하여 3년 동안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복입기를 법에 지나치게 함은 너무나 괴상한 일이니, 그를 잡아다가 국문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옛 성인이 예를 제정할 때 사람들이 교만 방종할까 싶기 때문에 절문(節文)을 만든 것인데, 어찌 반드시 부부가 같이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그러나 지금 거상(居喪)하는 사람으로 부부가 같이 있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상례』에 주부가 아헌(亞獻)을 하는데, 어찌 반드시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친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자화란 자가, 그 부모의 상에 비록 애통해하다가 혹 죽게 된다 할지라도 무엇을 논하겠는가마는 군부(君父)의 상은 신자(臣子)가 다 같은 것인데, 성종의 상에 홀로 3년토록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니, 그 행동이 괴상하다. 조관(朝官)도 또한 이와 같이 괴상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는지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9월 17일(갑진) 2번째 기사.

김수동·송일·성희안이 아뢰기를,

“신 등이 하교를 받아 『여지승람(輿地勝覽)』을 고찰하건대, 부모의 상을 법에 지나치게 한 자는 혹 있으나, 이자화(李自華)와 같이 임금의 상에 법을 벗어나게 한 자는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자화를 극형에 처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자, 송일·성희안이 아뢰기를,

“이자화는 평안도 벽지에 살기 때문에, 미혹되어 무식하나, 그 행위가 괴이하므로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9월 17일(갑진) 3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치(李穡)가 증산 현령(甌山縣令)으로 이자화를 천거하였으니, 국문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9월 18일(을사) 1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자화의 죄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자화는 아주 시골 벽지 사람으로 학문만 알고 변통할 줄을 몰라, 지금 임금의 제도를 따르지 않았으니 잘못이나, 다만 나이 이미 60이니, 진출(進出)을 바라고 명예를 낚는 자와는 다릅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9월 18일(을사) 3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자화의 행위는 너무나 괴상하므로 마땅히 중한 벌에 처해야 하고, 다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마땅히 여러 사람과 같이 버려야 할 터이니, 살피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계동·정미수·임사홍·한사문이 의논드리기를,

“선왕(先王)이 정한 예가 스스로 떴던 것이 있는데, 자화가 괴상한 행위를 하였으니, 마땅히 전형(典刑)대로 바로잡아 은밀하고 해괴한 풍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고, 강귀손·신수근·신준·민효중·이종호·성세명·이손·민휘·성세순·신수영은 의논드리기를,

“선왕이 정한 법은 감히 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화는 임금의 상을 제도에 지나치게 하여 감히 괴상한 행위를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죄가 되므로 마땅히 중한 벌에 처해야 합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9월 23일(경술) 1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자화(李自華)는 후세에 명예를 바란 자이니, 내일 형을 집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9월 24일(신해) 2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자화를 첨형에 처하여 효수(梟首)하되, 백관들로 하여금 모여 보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인신(人臣)이 임금 섬김을 반드시 충성으로 하여, 임금 앞에서 옳다고 하였으면 물러가서도 또한 옳다 하고, 그러다 하였으면 물러가서도 또한 그러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자화는 괴상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 벌에 처한 것이니, 뒷말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처음에 의금부 관원이 그 집에 가니 비바람을 겨우 가리는 와실(蝸室)인데, 자화가 바로 나와 예(禮)로 절하였다. 그 목에 칼을 씌우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며 답하기를 ‘신이 신의 죄를 알고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다만 전도(顛倒)하며 명령을 받다가 진흙이 발에 묻으므로 바로 그 아들을 불러 물을 가져다 발을 씻어 신을 신고 길을 떠나니, 온 가족이 놀라며 울되, 또한 돌아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고, 죽음에 당해서도 신색(神色)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때 충효와 절조(節操)가 있는 사람을 괴상하다 하여 모두 죽이므로, 자화는 먼저 면하지 못할 것을 안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1년(1506년) 9월 19일(을미) 1번째 기사.

우부승지 이우(李堉)가 아뢰기를,

“고(故) 은산 훈도(殷山訓導) 이자화(李自華)는 품행이 바른 자입니다. 부모의 상사 때 매우 근신하게 여묘(廬墓)살이를 3년 동안 하였고, 또 성묘(成廟)의 국상을 3년 동안 행하였습니다. 관찰사가 그 행실을 가상히 여기고 사유를 갖춰 계문(啓聞)하여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해서 후세 사람을 권장하였는데, 폐주가 이를 듣고 괴이히 여겨 잡아다 중한 벌으로 다스리니, 다른 도의 정문(旌門) 받은 자들은 이를 듣고 자화처럼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그 정문을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청하건대 각도에 하유(下諭)하여 다시 세우게 해서 명교(名教)를 도탑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에게 물으라.”

하였다. 정승이 아뢰기를,
 “자화의 품행은 사람마다 능히 미칠 바가 아닙니다. 이제 즉위하신 초기에 절행(節行)이 있는 사람은 더욱 포장하여 충효를 권하여야 합니다.”
 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1년(1506년) 9월 22일(무술) 1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안침(安琛)에게 유시하기를,
 “근래 절의가 폐(廢弛)하여 풍교(風教)를 붙들어 세울 수 없었다. 이제 정치를 새롭게 하는 처음에 절의를 장려하는 일은 더욱 먼저하여야 할 바이다. 도내 은산(殷山)의 효자 이자화(李自華)는 충효가 특이하였는데 잘못 중죄를 입었으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에게는 이미 관작을 주게 하고, 그 자손은 녹용(錄用)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무너뜨린 정표(旌表)는 본관(本官)을 시켜 개수(改修)하여 세우게 하였거니와, 도내의 다른 충신·효자·절부(節婦)·열부(烈婦)의 정표로서 무너뜨려진 것도 아울러 개수하라.”

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황선업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31 ㄱ-31ㄴ

%1 유문복상(有文服喪)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31 ㄱ

%3 나유문이 상을 입다

%4 군인 나유문은 산청 사람이다. 연산군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때에는 3년 상을 줄여서 짧게 치르는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던 때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 법을 거스르지 못하였지만 나유문은 홀로 삼년상을 예법대로 매우 삼가 행하였다. 마을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말하기를

“고난이 매우 클 것이다.”

하고

“빨리 탈상해라.”

권하였다. 그러나 나유문은 끝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슬퍼하며 여위어서 병이 들었다. 죽기 전에 아내에게 말하기를

“어머니의 3년 제사를 내가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지내서 아침저녁으로 빠뜨리지 마시오. 또 나를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 주시오.”

하였다. 나유문이 죽자 그 아내 이씨는 남편의 말대로 하여 시어머니와 남편의 묘소에 친히 제사 지내기를 눈이나 비가 와도 그치지 않았다.

%5 %5-1정병 라유문이는 %5-2단성 사름이라 연산 저기 어미 죽거늘 %5-3그제 %5-4단상 흘 법이 엄엄하니 사름미 %5-5거스디 묻혀거늘 유문이 혼자 거상을 레로 7장 삼가 하 더니 무을하며 %5-6아음돌히 날오디 환란 그지 업스리라 하고 탈상하라 권한대 유문이 내종내 좃지 아니하고 %5-7슬허 여위여 병드러져니 주글 저기 거집 더브러 날오디 %5-8어미 삼 년 제를 내 사라 이실 적 7티 허야 아츰 %5-9나죄 게을이 말오 또 나를 어미 무덤 거티 무드라 한대 제 거집 니시 날온 대로 허야 어미와 %5-10남진의 분묘에 친히 제호몰 비록 눈비 와도 페티 아니허더라

%6 正兵羅有文 丹城人 燕山末 母死 時短喪法嚴 人不敢違 有文獨守 喪執禮謹 鄉中親戚皆言 禍且不測 勸脫喪 有文竟不從 因哀毀 感疾 臨死語妻曰 三年祭母 如我生時 朝夕無怠 且葬 我於母墳之側 其妻李氏 如其言 親祭母及夫墳 雖雨雪不廢

%7 정병라유문 단성인 연산말 모사 시단상법엄 인불감위 유문독수 상집례근 향중친척개언 화 차불측 권탈상 유문경불종 인애훼 감질 림사어처알 삼년제모 여아생시 조석무태 차장아어 모분지측 기처이씨 여기언 친제모급부분 수우설불폐

%8 정병(正兵) 나유문(羅有文)은 단성(丹城) 사람이다. 연산(燕山) 때에 어머니가 죽거늘 그때 단상(短喪)하는 법이 엄엄(嚴嚴)하니 사람들이 거스르지 못거늘 유문이 혼자 거상(居喪)을 예(禮)로 매우 삼가 행하니라 마을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이르되 환란(患亂)이 한이 없으리라 하고 탈상(脫喪)하라 권한대 유문은 끝끝내 좃지 아니하고 슬퍼하며 여위어 병이 들었다니 죽을 때에 아내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삼 년 제(祭)를 내가 살아 있을 때 같이 하여 아침저녁에 게을리하지 말고 또 나를 어머니 무덤 곁에 묻으라 하니 그 아내가 이른 대로 하여 (시)어미와 남편의 분묘(墳墓)에 친히 제(祭)하기를 비록 눈비 와도 폐(廢)하지

아니하더라.

%9-1 **정병**: 정병(正兵). 정병은 조선 시대 육군의 중심 병력으로서 일반 양민 농민으로 이루어진 병종(兵種)이며 사대부는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9-2 **단성**: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丹城)면.

%9-3 **그제**: 그때에. '그제'는 '그적의'가 축약되어 이루어진 어형이다.

%9-4 **단상홀**: 단상(短喪)하는. 상을 입는 기간을 단축하는. 단상(短喪)ㅎ--> 올(관형사형 어미). 조선 시대에는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므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이다'라는 성현의 말에 따라 3년상을 행하였는데 연산군 때에는 상기(喪期)를 줄이도록 강제하였다. 이에 따라 소혜왕후(昭惠王后)의 상기(喪期)를 단축하여 실시하기도 하였다. 궁인(宮人)들은 27일, 수사(水賜)는 12일, 사대부(士大夫)는 27일, 서민들은 12일로 상기(喪期)를 제한하였는데, 이때 경박한 무리들은 이대로 하였지만 조신한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하다가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200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관형사형 어미 '-을/을'은 현대 국어와 같이 미래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예에서와 같이 부정 시제로 쓰여 현재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9-5 **거스디**: 거스르지. 어기지. 거슬-->디(연결 어미). 어간 말의 '르'은 'ㄷ, ㅈ, ㄴ' 앞에서 탈락하였다. '거슬-'은 근대 국어 시기에 '으'가 덧붙여 '거스르-'가 되었다. 이와 같이 '으'가 덧붙은 단어로 '머물- > 머무르-, 울얼- > 우러르-' 등이 있다.

%9-6 **아옴돌히**: 친척들이. 아옴+돌ㅎ(복수 접미사)+이(주격 조사). '아옴'은 '친척'을 의미하는 '아옴'에서 'ㅅ'이 소실된 어형이다. '아옴'은 현대어에서 사라졌으나 '아저씨, 아재비, 아주머니' 등에 "앗"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9-7 **슬허**: 슬퍼하여. 슬-->어(연결 어미). '슬다'는 "슬퍼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인데 현대어에서는 안 쓰이게 되었고 여기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슬프다'만이 남아 있다.

%9-8 **어막**: 어머니의. 어미+(관형격 조사). '이'를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주로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가 많음) 중 관형격 조사나 호격 조사가 결합할 때 '이'가 탈락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미'도 그러한 명사 중 하나이다. 이런 명사에 나타나는 '이'는 기원적으로 접미사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9-9 **나죄**: 저녁에. '저녁'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나조ㅎ'과 '나죄'의 어형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으로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10 **남진의**: 남편의. 남진(男人)+(관형격 조사). '人'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ㅅ'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이 예와 같이 일부 단어에서는 'ㅅ'이 'ㅈ'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10-1 주인공 명: 유문(有文)

%10-2 성씨: 나(羅)

%10-3 본관: 수성(壽城)

%10-4 지역1: 경상남도

%10-5 지역2: 산청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연산군, 중종(1510)

%10-8 신분: 상민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5년(1510년) 1월 9일(병인) 8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강흔이 장계하여 효행(孝行)과 절의(節義)가 있는, 박인(朴胤)·나유문(羅有文) 및 그 처 이씨(李氏)와 박정견(朴廷堅)·옥석견(玉石堅) 등을 천거하니, 상이 모두 그 문려(門閭)를 정표(旌表)하게 하였다. 그 밖의 박수형(朴秀亨)·민구소(閔九韶) 등 10인에게도 모두 차등 있게 포상(褒賞)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황선엽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32ㄱ-32ㄴ

%1 속손입사(淑孫立祠)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32ㄱ

%3 김숙손이 사당을 세우다

%4 김숙손은 신천 사람이다. 부모님의 상을 입었을 때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살기를 삼 년 씩 하고 탈상하고 나서도 소금과 간장을 먹지 않았다. 묘소 옆에 사당을 지어 두고 아침 저녁으로 메를 올려 제사 지내기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와 같이 하였는데 나이가 여든 이 넘을 때까지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임금님께 아뢰니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5-1김숙손이는 신천 사르미라 %5-2어버의 몽상에 다 시묘를 %5-3삼 년곰 살고 %5-4 탈상하야도 소곰 장 먹디 아니하더니 무덤 %5-5겨퉁 스당 지어 두고 아침 %5-6나죄 %5-7뫼 제호를 산 적 7티 하야 나히 여드니 남도록 %5-8효고매도 게을리 아니터니 열 즈와날 흥문 세니라

%6 金淑孫 信川人 父母喪 皆廬墓三年 服闋猶不食鹽醬 立祠墓側 朝夕上食 一如生時 年過八十 未嘗小懈 事聞旌閭

%7 김숙손 신천인 부모상 개려묘삼년 복결유불식염장 립사묘측 조석상식 일여생시 년과팔십 미상소해 사문정려

%8 김숙손(金淑孫)은 신천(信川) 사람이다. 어버이의 몽상(蒙喪)에 다 시묘(侍墓)을 3년씩 살고 탈상(脫喪)하여도 소금, 장(醬)을 먹지 아니 하니라. 무덤 곁에 사당(祠堂)을 지어 두고 아침저녁 메로 제사(祭祀)하기를 살아 계실 적같이 하여 나이가 여든이 넘도록 조금만큼 도 게을리 아니 하더니 (임금께) 여쭙니 흥문(紅門)을 세우니라.

%9-1 김숙손이는: 김숙손은. '순'은 '숙'의 잘못이므로 '김숙손이는'이 되어야 한다.

%9-2 어버의: 어버이의. 부모님의. 어버이+(관형격 조사). '이'를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주로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가 많음) 중 관형격 조사나 호격 조사가 결합할 때 '이'가 탈락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버이'도 그러한 명사 중 하나이다. 이런 명사에 나타나 는 '이'는 기원적으로 접미사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어버이'는 '어비식'에서 'ㅅ'이 탈락한 어형으로 이 부분이 『속삼강행실도』에는 '어비식'로 되어 있다.

%9-3 삼 년곰: 삼 년씩. '곰'은 '그 수량이나 크기로 나뉘거나 되풀이됨'을 의미하는 보조사이 다. 현대 국어의 '씩'이 수량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만 붙는 데 비해 부사나 용언의 활용형 에도 결합할 수 있었다. 체언 뒤에서는 두음이 'ㄱ'인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ㄹ'이나 모음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움'으로 실현되었다.

%9-4 탈상하야도: 탈상(脫喪)하고서도. 상을 벗고 나서도. 중세 국어에서 연결 어미 '-아'의 의미역은 현대 국어보다 넓어 현대 국어의 '-고'가 담당하는 '계기, 동시성' 등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는데 17세기 초까지 이러한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9-5 겨퉁: 곁에. 옆에. 곁+(부사격 조사). '곁'은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옆' 을 의미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유정 체언의 옆을 의미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는바

사전에서는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라고 풀이하고 있다. '의'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로 대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1음절 고유어 명 사들에 결합한다.

%9-6 나죄: 저녁에. '저녁'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나조ㅎ'과 '나죄'의 어형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으로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7 뫼: 메. 뫼는 중세 국어에서는 '밥'을 뜻하는 명사였는데 현대어에서 '제사 때 신위(神位) 앞에 놓는 밥'을 의미하는 '메'와 '닭이나 날짐승의 먹이'를 뜻하는 '모이'로 의미와 형태가 변하여 남아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현대어 '메'의 의미로 쓰인 예만 나타나는바 의미 변화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9-8 효고매도: 조금만큼도. 조금+매(의존 명사)+도(보조사). '조곰'은 형용사 '적-(小)의 분화 형인 '족-'의 명사형 '족곰'에서 동음 생략이 일어난 형태이다. '매'는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마'가 변화한 형태로 『속삼강행실도』에는 이 부분이 '효고마도'로 나타난다.

%10-1 주인공 명: 속손(淑孫)

%10-2 성씨: 김(金)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황해도

%10-5 지역2: 신천(信川)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중종(1510년)

%10-8 신분: 양반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5년(1510년) 3월 28일(계미) 4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남곤(南袞)이 장계하기를,

“해주(海州) 사람 이성동(李姓同)·맹인 장수리동(張愁里同)·신천(信川) 사람 김숙손(金淑孫)·연안(延安) 사람 민경현(閔景賢)의 처 송씨(宋氏)가 효행과 절의가 칭찬할만 하니, 정 문(旌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황선엽

%0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33ㄱ-33ㄴ

%1 계주성효(繼周誠孝)

%2 동국속삼강행실도(효자) 33ㄱ

%3 정계주의 정성스러운 효성

%4 정계주는 안악 사람이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효성스럽게 모셔서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가는 곳을 말씀드려 허락을 청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빚고 인사드렸으며 주무실 때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일어나실 때는 문안을 여쭙었으며 더위와 추위를 살피 어머니 모시기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3년 동안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살기를 마치고 나서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3년을 더 초막에 살았다. 항상 명절 차례나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는 제사,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울면서 곡을 하였는데 그 정성이 높어서도 매우 지극하였다. 이런 사실을 임금님께 아뢰니 벼슬을 주시고 효자문을 세워 주셨다.

%5 정계주는 안악 사람이라 %5-1저머서 아버 죽거늘 어미를 효도하여 나갈 제 고하고 도라와 뵈며 %5-2닐 제 잘 제와 더운 치운 숲피물 %5-3효고매도 게을이 아니허더니 어미 죽거늘 삼 년 시묘 살고 탈상하고 쏘 아버 위하야 %5-4물려 삼 년을 니브니라 상네 명 일이며 시향 기일 제홀 제 %5-5의식 %5-6울오 효성이 늑도록 더욱 지극더라 열즈와늘 벼슬히이시고 흥문 세니라

%6 鄭繼周 安岳人 少喪父 事母孝 出告反面定省溫清 不少懈 及母歿 廬墓三年 又爲父追服三年 俗節四時忌日 祭必哭泣 誠孝至老彌篤 事聞 命授禮賓寺參奉 旌其門

%7 정계주 안악인 소상부 사모효 출곡반면정성온정 불소해 급모물 려묘삼년 우위부추복삼년 속절사시기일 제필곡을 성효지로미독 사문 명수레빈시참봉 정기문

%8 정계주(鄭繼周)는 안악(安岳) 사람이다. 어려서 아버지가 죽거늘 어미에게 효도하여 나갈 때 고하고 돌아와 뵈며 일어날 때, 잘 때와 더운 때 추운 때 살피기를 조금도 게을리 아니 하더라. 어미가 죽거늘 3년 시묘(侍墓) 살고 탈상(脫喪)하고 나서 또 아버지를 위하여 3년을 추복(追服)하였다. 항상 명일(名日)이나 시향(時享), 기일(忌日)에 제(祭)할 때 반드시 울고 효성이 늑을수록 더욱 지극하더라. (임금께) 여쭙니 벼슬 시키시고 흥문(紅門)을 세우니라.

%9-1 **저머서:** 어려서. 점--+어(연결 어미)+셔(보조사). '점-'은 한문 원문의 '少'에 대응되는 것으로 '어리다'의 의미이다. 근대 국어 이후 양순음인 'ㅁ' 앞에 'ㄹ'이 첨가되고 단모음화를 겪어 형태적으로도 변화하고 의미도 변하여 현대어의 '젊다'가 되었다. '셔'는 '이시-'의 이형태 '시-'에 연결 어미 '-어'가 붙어 만들어진 것으로 점차 선행하는 연결 어미와 결합력이 높아져 '-어서/아서, -고서' 등이 하나의 연결 어미로 굳어지게 되었다.

%9-2 **닐 제 잘 제와 더운 치운 숲피물:** 일어날 때, 잘 때와 더운 때 추운 때 보살핌을. 한문 원문의 '定省溫淸'을 풀어서 언해한 것으로 『속삼강행실도』에는 '닐 제 잘 제와 더운 치운 숲피물'로 되어 있다. '더운 치운 숲핌'이 오역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닐 제 잘 제'를 고려하면 '더운 제 치운 제 숲핌' 정도로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듯하다. '定省溫淸'은 『예기(禮記)』 <곡례(曲禮)』 편에 나오는 '昏定晨省冬溫夏淸'을 줄인 것이다. '淸'의 현대음

은 일반적으로 '청'이나 '定省溫淸'과 같은 성어에 쓰인 경우에는 전통에 따라 '정'으로 읽는다. 마찬가지로 한문 원문에서 바로 앞에 쓰인 '出告反面'의 '告'도 '고'가 아닌 '곡'으로 읽는다.

%9-3 **효고매도:** 조금만큼도. 쪼곰+매(의존 명사)+도(보조사). '쪼곰'은 형용사 '적-(小)의 모음 분화형인 '족-'의 명사형 '쪼곰'에서 동음 생략이 일어난 형태이다. '매'는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마'가 변화한 형태로 『속삼강행실도』에는 이 부분이 '효고마도'로 나타난다.

%9-4 **물려:** 거슬러서. 물리--+어(연결 어미). '물리-'는 '므르-'의 사동사이다. '므르-'와 '물리-'는 원순모음화를 겪어 현대 국어의 '무르-'와 '물리-'가 되었다. '무르-'는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입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있던 자리에서 뒤나 옆으로 옮기다' 등의 의미를 가지며 '물리-'는 이러한 의미들의 사동으로 쓰이며 '정해진 시기를 뒤로 늦추다'의 의미도 가진다. 여기서는 한문 원문 '追服(喪)을 당한 때에 사정이 있어 입지 못한 상복을 뒷날에 가서 입음'의 '追'를 번역한 것으로 '과거에 하지 못한 일을 나중에 함'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바 현대어와는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인다.

%9-5 **의식:** 반드시. 꼭. '의식'은 주로 '必'의 언해에 쓰이며 16세기의 교화서류에 많이 나타난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쓰인 예들은 거의가 『속삼강행실도』에 쓰인 예를 가져온 것들이다.

%9-6 **울오:** 울고. 울--+어(←고)(연결 어미). 중세 국어에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 선행 요소가 'ㄹ'이나 'ㅣ'일 때 'ㄱ'이 약화된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앞에 나타난 '살고'를 고려할 때 'ㄱ' 약화 현상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울오'는 『속삼강행실도』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임에 반해 『속삼강행실도』에 '삼 년 侍墓하고 脫喪하고'로 되어 있는 것을 '삼 년 시묘 살고 탈상하고'로 바꾸면서 당시의 어형인 '살고'를 쓴 것이라 생각된다.

%10-1 주인공 명: 계주(繼周)

%10-2 성씨: 정(鄭)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황해도

%10-5 지역2: 안악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중종(1511년)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6년(1511년) 9월 30일(정축) 5번째 기사.

정계주(鄭繼周)에게는 정문(旌門)을 세워주고, 강수익(康守義)에게는 상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정계주는 성심으로 어미를 섬겼으며, 아버지의 상(喪)을 추복(追服)함에 있어서는 나이가 70인데도 지성으로 아버지를 사모함이 시종 한결같았으니, 그 정성과 효도가 가상하였다. 강수익(康守義)은 어미의 상을 당하여는 이미 담제(禫祭)가 지났는데도 고기를 먹지 않고 애모(哀慕)함이 더욱 간절하였으니, 효성이 보통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0 동국속삼강행실도(충신) 1ㄱ-1ㄴ

%1 운혁토적(云革討賊)

%2 동국속삼강행실도(충신) 1ㄱ

%3 차운혁이 역적을 토벌하다

%4 차운혁은 회령 사람이다. 1467년에 이시애가 동생 이시합, 이시백과 함께 함경북도 길주
를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차운혁이 함경북도 종성 사람인 정휴명, 부령 사람인
조규, 경성 사람인 박성장과 함께 역적의 진중에 들어가 이시합과 이시백을 잡아 관군에
보냈다. (이후 이시합과 이시백은 도중에 도망쳤다.) 또 차운혁이 정휴명과 함께 회령과
종성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마운령을 막으니 이 때문에 이시애가 멀리 동쪽으로 가지 못하
였다. 그러나 그 후에 차운혁은 이시애에게 잡혀서 정휴명, 조규, 박성장과 함께 모두 단
천의 감옥에 갇혀 있다 죽었다. 나중에 조정에서 차운혁은 역적을 토벌한 공신(적개공신)
으로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두 당상관 벼슬을 주었다.

%5 차운혁은 %5-1회령 사람이니 %5-2성화 당시에 니시이 %5-3그 아우 시합이로 더브리
%5-4길쭈를 의거하야 %5-5반하야늘 운혁기 종성 사람 당휴명이와 부령 사람 조규와 경
성 사람 박성장이로 더브리 %5-6도적기 가운데 드러가 시합이와 시백기를 자바 미여
%5-7궐군의 보내고 또 휴명이로 더브리 종성 회령 군스를 거느려 %5-8마운령을 마그니
시이 일로써 기리 모라 등으로 가디 묻후다 후의 시이에게 잡피인 배 되어 휴명과 규와
성장이로 더브리 다 단천 %5-9옥등의 죽다 도당이 운혁을 덕개공신을 조초 기록히시고
나므니는 다 당상관을 튜증히시다

%6 車云革 會寧人 成化丁亥 李施愛 與其弟施合 據吉州叛 云革 與鍾城人鄭休明 富寧人曹糾
鏡城人朴成章 入賊中 執施合施伯 縛送官軍 又與休明 率鍾城會寧兵 截磨雲嶺 施愛以此不
得長驅而東 後爲施愛所執 與休明糾成章 俱死端川獄中 朝廷追錄云革賊愾功臣 餘并贈堂上
官

%7 차운혁 회령인 성화정해 이시애 여기제시합 거길주반 운혁 여종성인정휴명 부령인조규 경
성인박성장 입적중 집시합시백 박송관군 우여휴명 솔종성회령병 절마운령 시애이자부득장
구이동 후위시애소집 여휴명규성장 구사단천옥중 조정추록운혁적개공신 여병증당상관

%8 차운혁(車云革)은 회령(會寧) 사람이다. 성화(成化) 정해(丁亥)에 이시애(李施愛)가 그 아우
시합(施合)과 더불어 길주(吉州)를 의거(依據)하여 모반(謀叛)하거늘 운혁(云革)이 종성(鍾
城) 사람 정휴명(鄭休明)과 부령(富寧) 사람 조규(曹糾)와 경성(鏡城) 사람 박성장(朴成章)
과 더불어 도적 가운데 들어가 시합(施合)과 시백(施伯)을 잡아 묶어서 관군에 보내고 또
휴명(休明)과 더불어 종성(鍾城)과 회령(會寧) 군사를 거느리고 마운령(磨雲嶺)을 막으니
시애(施愛)가 이 때문에 멀리 (말을) 몰아 동쪽으로 가지 못하였다. 후에 시애(施愛)에게
잡힌 바 되어 휴명(休明)과 규(糾)와 성장(成章)과 더불어 모두 단천(端川)의 옥중(獄中)에
서 죽었다. 조정(朝廷)이 운혁(云革)을 적개공신(賊愾功臣)으로 좇아 기록하고 나머지 사람
들은 다 당상관(堂上官)으로 추증(追贈)하였다.

%9-1 회령: 함경북도 회령(會寧). ‘寧’의 한자음은 ‘녕’이나 지명 등에서 관용적으로 ‘령’으로

임히는 경우가 있다. 이곳의 '회령'과 뒤에 나오는 '부령(富寧)' 등이 그러하다.

%9-2 **성화 당히예:** 성화(成化) 정해(丁亥)년에. 1467년에. '성화(成化)'는 명나라 제8대 황제 헌종(憲宗)의 연호로 1465년부터 1487년까지 사용되었다.

%9-3 그 아우: 그의 아우. 자기의 동생. '아오'는 '아수'에서 'ㅅ'이 소실된 형태이다. '그 아오'는 한문 원문의 '其弟'를 번역한 것인데 『속삼강행실도』에는 '제 아수'로 되어 있다.

%9-4 **길쥬를:** 길주(吉州)를. '쥬'의 한자음으로는 '쥬'와 '쥬'가 공존하였는데 이 문헌에서는 주로 '쥬'가 쓰였다.

%9-5 **반호야늘:** 모반(謀叛)하였는데. 반(叛)호--+야늘(연결 어미). '반호-'의 '반(叛)'은 한자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연해 부분은 한글 전용 표기로 되어 있어서 '반호-'와 같이 표기되었다. '-야늘'의 '야'는 선어말 어미 '-거/어-'와 동일한 교체 양상을 보이는데 타동사인 '반호-' 뒤에서 '-야늘'로 실현된 것이다.

%9-6 **도적괴:** 도적의. 역적의. 도적+(의)관형격 조사). '도적괴'를 중철 표기한 것이다. 앞에 보이는 '운혁기'나 뒤에 보이는 '시빅기'도 마찬가지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이와 같은 중철 표기의 예가 자주 보인다.

%9-7 **권군의:** 관군에. 관군에게. 권군+(의)부사격 조사). '권군'은 '귀+ㅅ(속격조사)+군(軍)'의 구성을 가지는 합성 명사로 받침의 'ㅅ'이 'ㄷ'으로 표기된 것이다. '귀'는 '관청'을 의미하는 '그위'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인데 '그위'는 '구의, 구위'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9-8 **마울령을:** 마운령(磨雲嶺)을. '마울령'은 '마운령'에 설총음화가 일어난 것을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마운령'의 현대 국어 표준 발음도 [마울령]이다.

%9-9 **옥등의:** 옥중(獄中)에서. 옥등+(의)부사격 조사). 중세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의/이'는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1음절 고유어 명사들에 결합하였는데 여기서는 '권군의, 옥등의'와 같이 중세 국어라면 부사격 조사 '에/애'가 쓰일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문헌이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이 '의/이'의 쓰임이 더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10-1 주인공 명: 운혁(云革)

%10-2 성씨: 차(車)

%10-3 본관: 연안(延安)

%10-4 지역1: 함경북도

%10-5 지역2: 회령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세조(1467년)

%10-8 신분: 양반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이시애의 난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6월 5일(무술) 2번째 기사.

함길도 절도사(咸吉道節度使) 허중(許琮)이 치계(馳啓)하기를,
“별시위(別侍衛) 임맹지(林孟枝)가 북도(北道)의 성식(聲息)을 탐색하러 들어갔다 와서 고하기를, ‘5월 26일에 이시합(李施合)이 2천 4백여 병사를 거느리고 홍원(洪原)의 하탄동(河灘洞)에 둔진(屯陣)한 것을 보고, 『무슨 연고로 기병(起兵)하였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적병이 설한령(雪寒嶺) 등지에 많이 주둔하여 장차 거민(居民)을 다 죽이려 하고, 또 체찰사(體察使)와 절도사(節度使) 등이 군관(軍官)을 많이 거느리고 기계(器械)를 갖추어서 오니, 이것은 반드시 간당(姦黨)이 하는 짓인 까닭으로 형 이시애(李施愛)가 나

로 하여금 먼저 행군하여 방어하게 하였다.』고 하기에, 내가 진지와 2, 3리 남짓 거리에 있는 민가에 투숙하였더니, 밤중에 홍원(洪原)의 정병(正兵)이 와서 이르기를, 『이시합(李施合) 진중(陣中)의 군사(軍士)가 이시합을 잡으려고 사방을 포위하고 섰다.』고 하여, 내가 다음날 아침에 나와 함흥도(咸興道)로 향하다가 이시합과 그 아우 이시백(李施伯)을 보았더니, 보병 3인을 거느리고 황급하게 말을 달려 지나가기에, 그 연고를 자세하게 듣고는 곧 정휴명(鄭休明)·차운혁(車云革) 등과 더불어 회령(會寧) 군사와 모이어 의리를 부르짖어 밀약(密約)하고, 밤을 타서 포박(捕縛)하여 이시합을 말에 실어오려고 하는데, 잠깐 있다 1인이 뒤따라 불러 말하여 묶은 것을 풀게 한 까닭으로 이시합이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고 하니, 신이 그옥이 해아리건대, 홍원(洪原)은 이시애(李施愛)의 족속이 많이 있으며, 단천(端川)의 최자상(崔自祥)도 또한 이시합의 외숙(外叔)이니, 반드시 두 고을 사람이 동모(同謀)하여 해박(解縛)하였고, 그 나머지 군사는 이미 조정(朝廷)의 뜻을 안 까닭으로 유시를 듣는 날로 진(陣)을 파하고 흩어져 갔으니, 적이 사로잡히는 것도 멀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망하여 달아나 자진(自盡)할까 하여, 이미 군관(軍官) 맹득미(孟得美)·박사맹(朴師孟)·지득련(池得連), 진무(鎭撫) 방서동(方瑞同) 등으로 하여금 적의 소굴(巢窟)에 들어가 탐색하여 추격하여서 포박할 계책을 조치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6월 8일(신축) 2번째 기사.

이서장(李恕長)이 아뢰기를,
“이시애(李施愛)·이시합(李施合)은 수백의 병사를 거느리고 이성(利城)에 주둔하였고, 차운혁(車云革)·정휴명(鄭休明) 등은 경성(鏡城)·회령(會寧)의 병사를 거느리고 마운령(磨雲嶺)에 웅거하였는데, 이시애의 군중(軍中)에서 도망하여 흩어지는 자가 잇달아 차운혁에게 추부(趨附)하니, 적의 형세는 이미 해이(解弛)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6월 11일(갑진) 3번째 기사.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濬)이 길주 목사(吉州牧使) 최적(崔適)·절도사(節度使) 군관(軍官) 맹득미(孟得美) 등의 글을 얻어 치계(馳啓)하기를,
“이시애(李施愛)가 처음에 남쪽으로 향하려다가 길주(吉州)에 돌아와 웅거하게 된 것은 차운혁(車云革)이 회령(會寧)·종성(鍾城)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시합(李施合)을 잡아 묶은 뒤에, 남은 무리가 점점 도망하여 흩어진 까닭으로 스스로 계책이 궁한 것을 알고, 감히 장구(長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또 치계(馳啓)하기를,
“내수사(內需司) 종(奴) 막동(莫同)은 유서(諭書)를 가지고 복도에 들어와 널리 개유(開諭)를 퍼지 않고 군민이 직접 이시애에게 전하였으며, 또 그의 무리인 홍원(洪原)·길주(吉州)·단천(端川) 품관(品官)의 글을 받아서 돌아와 말하기를, ‘차운혁(車云革)은 북청(北靑)에 가두고, 마현손(馬賢孫)은 이성(利城)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신이 막동(莫同)의 하는 짓을 보건대, 자못 괴이하고 비밀스러운 까닭으로, 군관(軍官) 김백겸(金伯謙)으로 하여금 붙잡아서 보내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 글의 대략에 이르기를,
“이제 유서(諭書)를 받으니, 이시애가 모반(謀反)하였다 하여 신으로 하여금 포착(捕捉)하라고 하였으니, 신 등이 생각하기에도 이시애가 만약 과연 모반하였다면 포착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모역(謀逆)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하여 토반(討反)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6월 23일(병진) 3번째 기사.

진북 장군(鎭北將軍) 강순(康純)이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에게 글을 주기를,
 “우리 군사가 북청(北靑) 앞 평야에 주둔하니, 북청(北靑) 정병(正兵) 김원생(金元生)이 와서 고하기를, ‘이시합(李施合)이 배패(陪牌) 90인을 거느리고, 본부에 이르러 군량을 흘리고 단천(端川)을 향해 돌아갔으며, 이 앞서 12일 사이에 이명효(李明孝)는 이승언(李升彦)·서승례(徐崇禮)·맹득미(孟得美)·박자곤(朴自崐)·차운혁(車云革)·정휴명(鄭休明) 등을 죽이고, 오직 마현손(馬賢孫)만은 이약동(李約同)의 족친(族親)이라 하여 비호(庇護)하고 죽이지 않았다.’하고, 북청(北靑) 사람 이승명(李崇明)이 와서 고하기를, ‘이시합(李施合)이 이달 19일에 2만 2백여 군사를 거느리고 본부(本府)에 이르러, 군량을 흘리고는 이성(利城)으로 향해 돌아갔다.’고 하며, 또 이시합(李施合)이 이명효(李明孝)와 홍원(洪原)·북청(北靑)·이성(利城)·갑산(甲山)의 병사를 거느리고 북청의 여주을현(汝州乙峴)에 주둔하고, 이시애(李施愛)는 단천(端川) 이북의 제진(諸鎭)의 군사와 야인(野人) 5백여 군사를 거느리고 이성(利城) 고사리포(高沙里鋪)로부터 북청(北靑)의 두어소(頭於所)까지 관군(官軍)을 협공(夾攻)하려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8월 8일(신축) 3번째 기사.

이때에 관군(官軍)이 단천(端川)에 들어가 주둔하니, 사방에 사람의 기척이 없었고, 다만 냇가에 팽배(彭排)를 쌓아서 불태운 것을 보니, 타다가 남은 불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또 성(城) 밑에서 총통(銃筒)과 장전(長箭) 2마리[駄]·통전(筒箭) 1상재[筭]를 얻었는데, 통전(筒箭)은 그 살촉(鐵)을 다 빼버린 것이었다. 옥(獄) 중에 살해된 자가 4인 있었는데, 모두 반접(反接)하여 가쇄(加鎖)하였는데, 머리통이 박살이 나고, 또 한 사람을 말뚝으로 박아 놓았다. 머리 위가 모두 피었고, 핏자국이 얼굴에 엉겨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으나, 얼굴을 씻기고 보니 곧 차운혁(車云革)·정휴명(鄭休明)·조규(曹糾)·박성장(朴成章)이었으며, 말뚝에 막힌 자는 차운혁(車云革)이었다. 즉시 군수(郡守) 염상항(廉尙恒)으로 하여금 관(棺)과 짚을 준비하여 장사지내게 하고, 또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제사지내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8월 21일(갑인) 2번째 기사.

또 글로 이르기를,
 “나라를 위하여 몸을 망친 사람 차운혁(車云革)·정휴명(鄭休明)·조규(曹糾)와, 수령(守令)·만호(萬戶)·교수(教授)·훈도(訓導)와, 적(賊)에게 볼썽지 아니하다가 살해당한 자를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10월 14일(병오) 1번째 기사.

임금이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좌의정(左議政) 조석문(曹錫文)·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도승지(都承旨) 권맹희(權孟禧) 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에 죽고도 포상(褒賞)을 받지 못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그것을 속히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하니, 이준(李浚) 등이 아뢰기를,
 “회령(會寧) 사람 겸사복(兼司僕) 차운혁(車云革)은 분격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대의(大義)를 수창(首唱)하여, 바로 적의 예봉(銳鋒)을 범(犯)하여 이시합(李施合)을 잡다가 끝내 도리어 죽음을 당하였고, 종성(鐘城) 사람 겸사복(兼司僕) 정휴명(鄭休明)과 부령(富寧) 사람 겸사복(兼司僕) 조주(曹紉)와 경성(鏡城) 사람 사직(司直) 박성장(朴成章)과 단천(端川) 사람 갑사(甲士) 신원후(申元厚) 등이 차운혁을 따라 이시합을 잡다가 도리어 적병(賊兵)에게 해를 당하였으니, 추록(追錄)할 만합니다. 차운혁은 적계 삼등 공신(敵愾三等功臣)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당상관(堂上官)을 주어서 노비(奴婢) 4구(口)와 전지(田地) 40결(結)을 주고, 직자(直子)는 2자급(資級)을 초자(超資)하여 녹용(錄用)하며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11월 2일(갑자) 1번째 기사.

정충 적계 공신(精忠敵愾功臣) 추증 가정 대부(追贈嘉靖大夫) 병조 참판(兵曹參判) 연천군(延川君) 차운혁(車云革)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왕은 이르노라. 적계(敵愾)하여 절개(節介)로 항거하고, 능히 험난하거나 평탄하거나 변함이 없었으니, 덕(德)을 높여 공(功)을 보답하는 것이 어찌 살거나 죽거나 간격이 있겠는가? 의리를 헤아려 보면 그러한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로다. 생각건대 그대는 마음가짐이 충직(忠直)하고 기력(氣力)이 남보다 뛰어났다. 항오(行伍)에서 발탁하여 겸사복(兼司僕)을 맡기니, 효용(驍勇)하다는 명성이 들렸다. 지난번에 적신(賊臣) 이시애(李施愛)가 그 동생 이시합(李施合)과 더불어 불궤(不軌)를 모의(謀議)하여, 몰래 한 지방에 웅거(雄據)하여 군사를 일으켜 기세가 치열하여 흉악한 기염(氣焰)이 바야흐로 성하였다. 그대가 충분(忠憤)을 이기지 못하고 갓끈을 청(請)하여 바로 달려가서 단신(單身)으로 적(賊)의 진중(陣中)에 들어가 몰래 친사(親士)를 효유(曉諭)하고, 드디어 이시합(李施合)을 사로잡아서 바야흐로 수레에 실어 서울로 보내려고 하다가, 도리어 힘이 부족(不敵)하여 길에서 이시합의 도당(徒黨)에게 잡혔다. 중옥(重獄) 속에 유치(留置)되었다가 그들이 패주(敗走)하게 되자, 머리통을 도끼로 쳐서 죽였다. 그대가 적도(賊徒)에게 ‘섬멸시킨 다음에야 그만 두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적(賊)들이 그대에게 보복하기를 지극히 참혹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아아! 세번 이기려는 장(壯)한 뜻을 펴지 못하고 도리어 삼목(三木)의 원혼(冤魂)이 되었으니, 적(賊)에 대한 분노(憤怒)의 눈[目]을 죽어도 오히려 감지 못하였으리라. 적(賊)이 이제 머리를 바치니, 그대는 반드시 마음에 통쾌할 것이다. 내가 그대의 뜻을 불쌍히 여기니, 그대는 내 마음을 알라.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을 마땅히 남보다 먼저 해야 하므로, 이에 그대를 책훈(策勳)하여……하니, 이르거든 수령(受領)할지이다. 아아! 충혼(忠魂)과 장(壯)한 넋이 영령(英靈)으로 오히려 살아 있으리라 생각하니, 끼친 은덕(蔭德)과 꽃다운 이름을 자손에게 미치기를 바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11년(1516년) 5월 17일(정유) 6번째 기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손(李蓀)이 아뢰기를,
 “전에 정해년에 이시애(李施愛)가 길주(吉州)에서 반(叛)하되, 임금 결의 악(惡)을 제거한다고 성언(聲言)하매, 한 도(道)의 사람들이 그것이 반하는 것인 줄 몰랐는데, 홀로 종성(鍾城) 사람 차운혁(車云革)이 그것이 모반인 줄 알고서 심력(心力)을 다하여 적(賊)을 포박(捕縛)하려고 꾀하였으나, 도리어 적에게 잡혀서 이성(利城)의 옥에 갇혔다가 드디어 살해되니, 국가에서 그 공(功)을 기록하고 연천군(延川君)으로 추봉(追封)하였습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의지사(節義之士)는 쉽게 얻을 수 없어, 전조(前朝) 5백 년 동안에는 오직 정몽주(鄭夢周) 한 사람뿐이며, 윤혁의 절의는 옛 장순(張巡)·허원(許遠)일지라도 그보다 더할 것이 없거니와, 그 적장(嫡長)인 차득평(車得平)이 지금 북방에서 가난하게 살되 조정에 종사(從仕)하지 못하는데, 그 인물은 어떠한지 모르나 만약에 조금 학식이 있다면 특별히 수령(守令)이나 찰방(察訪)을 제수(除授)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직(軍職)을 제수하여 절의를 포상(褒獎)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이 아뢰고자 한 지 오래거니와 이를 아는 것은 오직 신뿐이니, 신이 죽으면 누가 다시 이를 아뢰겠습니까? 오를 마침 수의(收議)에 따라 아뢰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청백리(淸白吏) 및 충신(忠臣) 등의 자손은 이미 녹용(錄用)하라고 명하였다. 이제 아뢴 사람은 과연 나라에 큰 공이 있으나, 어떻게 자손이 있는 줄 알았으랴? 이제 경이 아람에

따라 비로소 있는 줄 알았으니, 살펴서 등용하게 해야 하겠다.” 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황선엽

%0 동국속삼강행실도(충신) 2ㄱ-2ㄴ

%1 김동활주(金同活主)

%2 동국속삼강행실도(충신) 2ㄱ

%3 김동이 주인을 살리다

%4 김동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 강녕부정 벼슬을 하고 있던 이기의 종이다. 연산군이 총애 하던 기생이 이기와 김동을 포함하였다. 이기와 김동을 옥에 가두고 불로 지져 고문을 하였는데 김동이 말하기를

“죄는 나에게 있다.”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모른다고 말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김동은

“내가 처벌을 면하면 우리 주인이 벌을 받을 것이니 주인을 모함하고 차마 나 혼자만 살 수는 없다.”

라고 하였다.

사형을 당할 때에 이르러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이르기를

“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오직 우리 주인이 죄 없이 매 맞고 귀양 간 것을 슬퍼한다.”

하고 어머니와 더불어 이별하며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살아 있어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것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술을 먹이니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주인은 멀리 귀양을 갔으니 누가 술을 먹여 줄 것인가?”

하고 매우 슬퍼하며 목메어 하니 보는 사람들이 다 슬퍼서 탄식을 하였다. 중종이 즉위하여 1508년에 홍살문을 세워 주셨다.

%5 %5-1김동은 종실 %5-2강녕부정 %5-3기의 종이라 연산군의 %5-4사랑하는 녀계 과와 민 동이를 하라 가도아 화형하여 저주니 동이 그로디 죄 내게 %5-5인르니라 놈이 날오 디 네 아디 문호노라 니르면 가히 면허리라 동이 그로디 내 면하면 항거시 죄에 싸달 거 시니 %5-6항거술 모함하고 스스로 사라나물 차마 문홀 배라 형벌의 다드라 논비출 변티 아니코 날오디 내 죽기는 족히 %5-7안갑디 아니커니와 다몬 내 항거시 죄입시 매 마자 귀향 가를 설워호노라 어미로 더브러 니별하여 굴오디 내 항거시 이시니 어미를 %5-8브 릴 거시니 슬허 마르쇼셔 사름이 수를 머기니 울고 날오디 내 항거시 멀리 %5-9구항 가 니 님 수를 머길고 인하여 %5-107장 %5-11슬허 목 메여 허거늘 보는 사름이 다 슬허 탄허더라 %5-12공희대왕 삼 년의 정문허시다

%6 金同 宗室 江寧副正祺之奴 燕山 嬖妓訴祺及同 并囚烙訊 同曰 罪在奴 或謂 汝若云不知 可免 同曰 奴若免 主必陷罪 陷主自活 吾所不忍 臨刑 顔色不變曰 奴死不足惜 只傷吾主無 罪杖配耳 與母訣曰 吾主在必護 母勿悲 人飲之酒 泣曰 吾主遠謫 誰爲饋酒 因悲咽不自勝 見者 皆傷嘆 恭僖大王三年旌閭

%7 김동 종실 강녕부정기지도 연산 폐기초기금동 병수락신 동알 죄재노 후위 여약운부지 가

면 동알 노약면 주필함직 함주자활 오소불인 림형 안색불변알 노사부족직 지상오주무죄장 배이 여모결활 오주재필호 모물비 인음지주 읍알 오주원직 수위괘주 인비열 불자승 견자 개상탄 공희대왕삼년정려

98 김동(金同)은 종실(宗室) 강녕부정(江寧副正) 이기(李祺)의 종이다. 연산군(燕山君)의 사랑 하는 여기(女妓)가 기(祺)와 동(同)을 비방하니 가두어 화형(火刑)하여 신문하니 동(同)이 말하되 죄는 내게 있나니라 (하니) 남이 이르되 네가 알지 못하노라 이르면 면하리라 (하였다.) 동(同)이 말하되 내가 면하면 주인이 죄에 빠질 것이니 주인을 모함하고 스스로 살아남을 차마 못할 바라. 형벌에 다다라 낯빛을 변하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 죽기는 족히 아깝지 아니하거니와 다만 내 주인이 죄 없이 매 맞아 귀양 감을 서러워 하노라. 어미와 더불어 이별하며 이르기를 내 주인이 있으니 어미를 보호할 것이니 슬퍼하지 마소서. 사람이 술을 먹이니 울며 이르되 내 주인이 멀리 귀양가니 누가 술을 먹일고 (하고 그로) 인하여 매우 슬퍼 목매어 하거늘 보는 사람이 다 탄식(歎息)하더라. 공희대왕(恭僖大王) 3년에 정문(旌門)하셨다.

99-1 김동은: 김동(金同)은. 『연산군일기』에는 ‘스音同’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중종실록』과 『속삼강행실도』에는 ‘金同’으로 기록되어 있다. ‘금동’을 ‘스音同’이나 ‘金同’으로 기록하였는데 한자 표기만 보고 ‘金同’을 ‘김동’으로 잘못 읽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속삼강행실도』에서 이미 독음이 ‘김동’으로 되어 있다.

99-2 강녕부정: 강녕부정(江寧副正). 강녕(江寧)은 고려 시대의 행정 구역의 이름으로 오늘날 경기도 수원 부근에 해당한다. 고구려의 당성군(唐城郡), 신라의 당은군(唐恩郡)을 고려 충렬왕 때 익주(益州)라 하였다가 강녕도호부(江寧都護府)로 고치고, 충선왕 때 남양부(南陽府)로 다시 개칭하였는데 조선 시대에도 남양(南陽)으로 칭해졌다. 부정(副正)은 조선 시대에 종친부·돈령부·봉상시·사복시·군기시와 그 밖의 여러 관아에 둔 종삼품 벼슬이다. 여기서는 종친부의 부정을 말한다.

99-3 괴의: 이기(李祺)의. 이기(李祺)는 세종의 손자인 영춘군(永春君) 이인(李仁)의 아들이다.

99-4 사랑하는 녀계: 사랑하는 여기(女妓)가. 한문 원문에는 ‘嬖妓’로 되어 있고 『속삼강행실도』에는 ‘스랑하시는 녀녀妓기’로 되어 있다. ‘녀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형으로 ‘녀기’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속삼강행실도』에는 ‘(燕山君) 사랑하시는’이 ‘(연산군의) 사랑하는’으로 된 것은 연산군에 대한 높임이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중종 당시만 해도 폐주(廢主) 연산을 어느 정도 대우해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9-5 인르나라: 있느니라. 있다. 인-(←잇-)+-르-(←-느-)+나라(종결 어미). ‘있느니라’에 자음동화가 적용된 ‘인느니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인르나라’로 잘못 표기되었다.

99-6 항거술 모함하고 스스로 사라나를 차마 문홀 배라: 주인을 모함하고 스스로 살아나는 일은 차마 못할 바이다. 주술 관계를 고려할 때 ‘사라나를’이 아니라 ‘사라나문/사라나미’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 잘못되었다. 『속삼강행실도』에 ‘항거 죄 니피고 내 사로물 차마 문홀로다’로 된 것을 수정하면서 문장 구조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99-7 앞갑디: 아깝지. 앞갑-(←앗갑-)+-디(연결 어미). 받침의 ‘스’을 ‘디’으로 표기하는 경향에 따라 ‘앗갑-’이 ‘앞갑-’으로 표기되었다. 앞부분의 ‘논비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앗갑-’은 동사 ‘앗기-’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압-’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99-8 브릴: 돌볼. 보호할. 브리-+-리(관형사형 어미). ‘브리-’의 중세 국어 어형은 ‘쁘리-’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어두의 ‘브’의 영향으로 ‘꾸리-’로 남아 있다. 17세기 초의 발음은 [끄리]였을 것이나 표기상 ‘ㅁ’으로 나타났.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집이나 물건 따위를 써서 묶다. 일을 추진하여 처리해 나가다’ 등의 의미로도 쓰였는데 여기서는 ‘護’의 번역으로 ‘돌보다, 보호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속삼강행실도』에는 ‘護’가 ‘保護’로 되어 있다.

어 있다. 『속삼강행실도』에서 가져온 다른 이야기들이 거의 『속삼강행실도』와 유사한 반면 이 이야기는 내용을 대폭 줄이고 번개도 심한 편인데 이는 16행 한 면에 한문 원문과 언해문을 모두 넣어야 하는 분량상의 제한 때문에 빚어진 문제로 생각된다.

99-9 구향: 귀양. 앞부분에서는 ‘귀향’으로 나타났으나 여기서는 ‘구향’이 쓰였다. ‘구향’은 현실 발음을 드러낸 표기로 보인다. 현대어의 ‘귀향’은 ‘귀향(歸鄉)’에서 ‘ㅎ’이 탈락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99-10 7장: 매우. 현대 국어에서 ‘가장’은 ‘最’의 의미로만 쓰이나 이전에는 ‘極, 大, 盡’ 등의 언해에 쓰여 ‘매우, 크게’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99-11 슬허: 슬퍼하여. 슬-+-어(연결 어미). ‘슬다’는 “슬퍼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인데 현대어에서는 안 쓰이게 되었고 여기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스플다’만이 남아 있다.

99-12 공희대왕: 중종(中宗). 공희대왕(恭僖大王)은 조선 11대 왕 중종이다.(재위 기간 1506년~1544년) 중종의 묘호는 ‘中宗恭僖敬文昭武欽仁誠孝大王(중종공희경문소무흠인성효대왕)’이다.

99-1 주인공 명: 김동(金同)

99-2 성씨: 미상

99-3 본관: 없음

99-4 지역1: 서울

99-5 지역2: 도봉구

99-6 시기: 조선

99-7 연도: 연산군(1506년, 1508년)

99-8 신분: 노비

99-9 성별: 남

99-10 역사 사건:

99-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2년(1506년) 3월 8일(무자) 4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강령 부정(江翎副正) 이기(李祺)의 종[奴] 금음동(金音同)이 부도(不道)한 말을 지껄여 속화(淑華)를 크게 꾸짖었으니, 의금부 당상·승지·정승은 그 주인을 아울러 국문하되, 기(祺)의 부모·처자와 형제·장인[妻父]까지 아울러 연좌(緣坐)하여 가두라. 그리고 그 집은 봉하고 그 노비(奴婢)도 짝 끊어 몰아오라. 기와 금음동이 불복하면 형장 신문하며, 그래도 불복하면 낙형(烙刑)하라.”

하였다.
나인 김숙화(金淑華)가 그 집을 빼앗고 싶었으나 강령(江翎)이 듣지 않으므로 거짓말로 왕에게 아뢰었는데, 왕이 노하여 이런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숙화는 나주(羅州) 기생 백견(白犬)이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2년(1506년) 3월 9일(기축) 1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기(李祺)의 아버지를 가두었으니 그 어미는 곧 석방하고 그 형제는 국문을 마친 후에 결죄(決罪)하게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옛말에 ‘죄를 잡으려 해도 그릇이 깨질 것이 두렵다.’고 하였다.”
하고, 또 이르기를,

“사명(使命)이 아무리 미천하더라도 왕명(王命)은 높여야 할 것인데, 기(祺)와 그 딸과 금 음동이 속화의 집안에 들어가서 꾸짖고 욕하였으므로 낙형(烙刑)을 명하여 사실을 알아내게 하였는데, 추관(推官)이 형장 신문만 하고 낙형은 쓰지 않았으니, 이것은 사사로이 죄인을 옹호하고 군명(君命)을 가벼이한 것이다. 오늘 다시 국문하여도 사실을 다 말하지 않으면 낙형을 쓰라. 그리고 기(祺)가 비록 ‘늘 아버지의 집에 있었는데 우연히 왔다가 잡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간사한 말이다. 비록 먼 곳에 있었더라도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형제를 먼저 결죄하여 배소를 분정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 12년(1506년) 7월 14일(신묘) 12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인좌(吳仁佐)는 장 1백을 처 외딴 섬으로 귀양보내되, 만약 다시 죄를 범하면 잡아다가 중형으로 다스리라. 이기(李祿)는 장 1백, 그 아버지는 80을 친 다음 아울러 귀양 보내되, 기는 다시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3년(1508년) 4월 5일(임신) 5번째 기사.

의노(義奴) 금동(金同)을 표창하는 문려(門閭)를 세우고 또 그 집의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기를 명령하였다. 금동(金同)은 곧 강녕부정(江寧副正) 기(祺)의 종이다. 폐주(廢主) 때 흥청(興淸)에 소속된 세은가이(世隱加伊)가 왕의 총애를 지극히 받았는데, 그의 아버가 권세를 믿고 기의 집을 빼앗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또 그 소실(小室)을 빼앗으려고 하여, 기가 능욕을 했다고 거짓말로 고소하니, 폐주가 크게 노하여 기와 금동을 잡아 가두고 곧 죽이려고 하였었다. 이때 금동이 진술하기를, “종이 한 것이요, 주인은 실상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였다. 여섯 차례나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조금도 변함이 없이 스스로 극형을 당하고 그 주인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6년(1511년) 11월 6일(임자) 2번째 기사.

의로운 종(義奴) 김동(金同)의 정문(旌門)을 세울 것을 명하였다. 김동은 강녕부정(江寧副正) 기(祺)의 종인데, 천한 종으로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급한 환란을 당하여 주인을 죽음에서 구제하였다. 그 충의가 천성에서 나오고 소행이 탁이하여, 예조가 장전(獎典) 거행하기를 청하므로 이 명이 내린 것이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영해군파 묘역: 이곳에는 세종의 아홉째 아들인 영해군(寧海君) 이당(李?; 1435~1477)을 비롯한 그의 장인과 후손들의 묘역이 있다. 영해군은 세종과 후궁 신빈 김씨(愼嬪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들 묘역군에는 크게 동편 능선에 영해군을 비롯하여 장인 신찬성공(申贊成公) 윤동(允東), 차남 길안도정(吉安都正) 의(義), 손자 완천군(完川君) 희(禧)와 강녕군(江寧君) 기(祺), 증손 평성수(平城守) 질, 그리고 충노(忠奴) 김동(金同) 등의 묘역이 있다.

%11

%12 황선엽

%0 동국속삼강행실도(충신) 3ㄱ-3ㄴ

%1 심원척간(深源斥姦)

%2 동국속삼강행실도(충신) 3ㄱ

%3 심원이 간신을 배척하다

%4 조선 왕실의 종친인 주계군 이심원은 학문이 정밀하면서도 깊었으며 또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다. 임원준과 임사홍 부자가 간사한 사람들임을 꿰뚫어 보고 대궐에 들어가 간곡히 아뢰기를 “임금님께서 제 말을 듣지 않으시면 결국 나라를 잘못 되게 만들 것입니다.” 하고서 또 울며 말하기를 “임사홍은 사실 제 고모부여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런 말을 아뢰었던 소식을 들으면 분명히 화내실 것입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 아버지 뜻을 거스르게 되어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합니다.” 하고 통곡하고 물러나왔다. 성종 임금께서 깨달으시고 임사홍을 외지로 귀양 보내셨다. 그러나 뒤이어 연산군이 왕이 되자 임사홍이 이심원에게 누명을 씌워 이심원은 물론 이심원의 아들 두 명까지 죽였다. 이후 10년 동안 임사홍이 나랏일을 마음대로 하고 훌륭한 선비들을 많이 죽여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모두 이심원이 일찍이 임사홍의 간사함을 알아본 것에 탄복하였다. 중종이 즉위하여 (이심원에게) 벼슬을 주고 홍살문을 세워 주셨다.

%5 종실 %5-1주계군 %5-2심원은 글하기 정교 갑부며 또 사람 아라보더니 임원준 스홍 부자의 간사함을 다 아라 %5-3대궐의 나아가 극히 열조와 그로디 상이 듣디 아니하시면 무춤 나라를 %5-4그른 밍굴렁이다 인하여 우리 그로디 스홍이신 진실로 신의 %5-5아침의 %5-6남집이니 신의 아버 드르면 반드시 노할 거시니 신이 나라를 위하여 어버이께 거스리니 신이 그장 설워하느니라 드디어 통곡하고 나오다 %5-7강정대왕이 씨드르샤 스홍이를 받기 귀향 보내시다 연산 저기 나르러 스홍이 심원을 얼겨 %5-8두 아들조차 주기고 열 히를 저저러 도스를 다 주겨 나라히 거의 기울게 되니 사람이 다 먼저 아라보물 %5-9항복하더라 공회대왕이 벼슬을 튜증하시고 정문하시니라

%6 宗室朱溪君深源 學問精深 且有鑑識 備知任元濬士洪父子姦邪 詣闕極陳曰 殿下不聽則 終必誤國 因泣曰 士洪 實臣姑夫 臣父聞之必怒 臣爲國忤親 臣切慙焉 遂痛哭而出 康靖大王 感悟 竄士洪於外 至燕山 士洪誣構深源 併二子殺之 用事十年 魚肉士類 國祚幾傾 人皆服其先見 恭僖大王贈爵旌門

%7 종실주계군심원 학문정심 차유갑식 비지임원준사홍부자간사 예궐극진알 전하불청즉 종필 오국 인읍알 사홍 실신고부 신부문지필노 신위국오친 신질민언 수통국이출 강정대왕감오 찬사홍어외 지연산 사홍무구심원 병이자살지 용사십년 어육사류 국조기경 인개복기선전 공회대왕증작정문

%8 종실(宗室) 주계군(朱溪君) 심원(深源)은 학문이 정밀하고 깊으며 또 사람을 알아보았다. 임원준(任元濬) 임사홍(任士洪) 부자(父子)의 간사(姦邪)함을 모두 알아 대궐에 나아가 극진히 여쭙어 말하되 상(上)이 듣지 아니하시면 마침내 나라를 그릇되게 만들 것입니다 인하여 울며 말하되 사홍은 진실로 신(臣)의 고모의 남편이니 신(臣)의 아버가 들으면 반드시 노할 것이지만 신(臣)이 나라를 위하여 어버이를 거스르니 신(臣)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하고) 드디어 통곡하고 나왔다. 강정대왕(康靖大王)이 깨달으시어 사홍을 밖으로 귀양

보내셨다. 연산군 때에 이르러 사옹이 심원을 (무고하게) 얹어 두 아들까지 죽이고 열 해를 (제멋대로) 저질러서 조사(朝事)를 다 죽여 나라가 거의 기울게 되니 사람이 모두 먼저 알아봄을 탄복하였다. 공희대왕(恭僖大王)이 벼슬을 추증(追贈)하시고 정문(旌門)하시니라.

9-1 **주계군:** 주계군(朱溪君). 주계(朱溪)는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의 옛 지명이다. 조선(朝鮮) 태종(太宗) 14년인 1414년에 주계(朱溪)와 무풍(茂豊)을 통합하여 무풍(茂豊)의 무(茂)자와 주계의 주(朱)자를 따서 무주(茂朱)라는 새로운 지명을 만들었다. 주계는 원래 백제의 영토였고 무풍(茂豊)은 신라의 영토로 신라 시대에는 무산(茂山)으로 불렸다. 군(君)은 고려와 조선 시대의 종실·외척·공신에게 주었던 작호(爵號)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종실의 경우 왕의 적자는 대군(품계는 없음), 서자는 군(품계는 없음)이라 한다 하고 종1품군(從一品君)은 대군승습적장자(大君承襲嫡長子)의 초수(初授), 정2품군은 세자중자(世子衆子)·대군승습적장손(大君承襲嫡長孫)·왕자군승습적장자(王子君承襲嫡長子)의 초수, 종2품군은 세자중손(世子衆孫)·대군중자승습적장손(大君衆子承襲嫡長曾孫)·왕자군승습적장손(王子君承襲嫡長孫)의 초수 봉작으로 정하였다.

9-2 **심원:** 이심원(李深源)은. 이심원(李深源, 1454~1504)은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증손자이다.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문이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에 남아 있다.

9-3 **대궐의:** 대궐에. 대궐(大闕)의(부사격 조사). 중세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의/이'는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들에 결합하였는데, 여기서는 중세 국어라면 부사격 조사 '에/애'가 쓰일 자리에 '의/이'가 나타나고 있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문헌이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이 '의/이'의 쓰임이 더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9-4 **그릇:** 그릇. 받침의 'ㅅ'을 'ㄷ'으로 표기하는 경향에 따라 '그룻/그룻'이 '그론'으로 표기되었다. 다음에 나오는 '받긔'도 마찬가지이다.

9-5 **아즘의:** 아주머니의. 고모의. 아즘(←아즈미)의(관형격 조사). '이'를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주로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가 많음) 중 관형격 조사나 호격 조사가 결합할 때 '이'가 탈락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즈미'도 그러한 명사 중 하나이다. 이런 명사에 나타나는 '이'는 기원적으로 접미사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즈미'는 '백모, 속모, 외속모, 고모, 이모' 등을 일컫는 말로 현대 국어의 '아주머니'로 남아 있다. 여기서는 '姑'를 번역한 것으로 '고모'의 의미로 쓰였다.

9-6 **남진이니:** 남편이니. '남진'은 한자어 '男人(남신)'에서 온 말로 'ㅅ'이 'ㅈ'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9-7 **강정대왕이:** 강정대왕(康靖大王)께서. 성종(成宗)께서. 강정대왕(康靖大王)은 조선 제9대 왕 성종이다. 성종의 묘호는 '成宗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성종강정인문헌무흠성공효대왕)'이다.

9-8 **두 아들조차:** 두 아들까지. 한문 원문의 '併二子'를 번역한 것이다. '조차'는 '併'의 의미므로 15세기 국어에서는 '겸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조치-'의 활용형에서 유래한 '조쳐'가 쓰일 자리에 나타난 예이다.

9-9 **항복하더라:** 탄복하더라. 탄복하였다. 여기서 '항복하-'는 한문 원문의 '服'을 번역한 것으로 현대어로는 '탄복하다'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9-10 **공희대왕이:** 중종께서. 공희대왕(恭僖大王)은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다. 중종의 묘호는 '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이다.

10-1 주인공 명: 심원(深源)
10-2 성씨: 이(李)
10-3 본관: 전주(全州)

10-4 지역1: 서울
10-5 지역2: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성종(1478년)
10-8 신분: 왕족
10-9 성별: 남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9년(1478년) 4월 29일 (경신) 1번째 기사.

주계 부정(朱溪副正) 심원(深源)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중대한 일을 아뢰고자 하는데 재주가 졸렬하고 또 근색하여 글로 쓰지 못하고, 마음에 품은 바가 많아서 친계(親啓)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좌부승지 김승경(金升卿)이 말하기를,

“만약 일이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것이면 친계함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으면 말이 비록 많을지라도 전해서 아뢰게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자, 심원이 말하기를,

“일이 사직에 관계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심원을 인견(引見)하자, 심원이 아뢰기를,

“신이 요즘 말한 일이 광패(狂悖)하여 죄가 만 번 죽어도 마땅하므로, 헤아리지 못할 형벌을 얹드리 기다린지 며칠이 되었는데, 전하께서 신의 우직(愚直)함을 가엾게 여기시어 목베어 죽임을 가하지 아니하시니, 기쁘고 감격함이 망극합니다. 신은 종척(宗戚)의 후손(後孫)으로서 큰 일을 들으면 계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제 하문(下問)하시기를, ‘사직에 관계되느냐?’고 하시니, 신은 무슨 일 무슨 일이 사직에 관계되는 지는 알지 못하지만, 군자(君子)·소인(小人)을 쓰고 버리는 것과 형벌이 전도(顛倒)되는 것은 또한 사직에 관계된다고 이를 만하기 때문에 감히 친계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이르는 바 군자·소인을 쓰고 버리는 것과 형벌이 전도(顛倒)되었다는 것을 듣고 싶다.”

하니, 심원이 말하기를,

“어제 듣건대, 홍문관·예문관의 관원이 임사홍 및 그 아버지 임원준의 간사함을 논계(論啓)하자 전하께서 모두 인견하고 힐문(詰問)하셨는데, 다만 임원준의 간사한 형상은 묻지 아니하였으며, 곧 임사홍의 직첩을 거두고 홍문관·예문관 20여 관원을 파직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양관(兩館)의 말이 옳으면 임사홍 부자를 죄주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아니하면 양관의 관원을 죄주는 것이 옳는데, 무슨 까닭으로 아울러서 죄를 가하십니까? 또 임원준 부자는 소인이 아닙니까?”

하였다.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네가 이를 위해 왔느냐?”

하니, 심원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자세히 말씀하셔서 신의 의혹을 풀게 하소서. 신은 직질(職秩)이 비록 낮을지라도 종사(宗社)와 더불어 휴척(休戚)을 같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히 두루 전달(陳達)함을 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임사홍이 진실로 소인이라면, 일찍이 승지와 이조 참의가 되었으니 또한 작은 벼슬이 아닌데, 홍문관·예문관의 관원은 바로 임금의 덕을 보양(輔養)하는 것으로서, 그 때에 임사홍이 소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르러서 말한 것은 늦었다. 또 《서경

(書經)에 이르기를, ‘사람을 안다는 것은 명철(明哲)함이니, 요임금도 어렵게 여겼다.’고 하였으니, 요임금 같은 큰 성인(聖人)도 오히려 사람알기가 어려웠었는데, 하물며 저들이 어찌 소인임을 알겠는가? 그 말하는 바가 마땅치 못하기 때문에 파직을 명한 것이고, 임사홍은 비록 소인이 아닐지라도 일찍이 내게 말하기를, ‘대간의 말은 다 따를 수 없다.’고 하였고, ‘김수온도 반궁(泮宮)의 양로연(養老宴)에 참여할 만하다.’고 하였으니, 이 두 말이 마땅치 못하였기 때문에 고신(告身)을 거둔 것이다. 임원준은 비록 간사하고 탐탁(貪濁)하다고 말하나 어찌 애매하고 형적이 없는 말을 믿고 죄를 정하겠는가?”

하니, 심원이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임사홍은 신의 숙모부(叔母夫)이기 때문에 그 사람됨을 자세히 아는데, 참으로 소인입니다. 또 사람을 보는 방법은 쉽게 할 수 없으니, 비록 한 가지 일과 한 마디 말의 실수를 보았을지라도, 처음에는 오직 나의 본 바가 옳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생각합니다. 또 그 잘못을 보면 과오(過誤)일 것을 두려워하여 우선 용서하나, 경력이 이미 오래고 나타난 실수가 점점 많아지거나, 혹은 그 말하는 것과 일하는 자취를 보고 혹은 그 심술(心術)의 공평하고 편협됨을 되풀이해 자세히 살펴서, 과연 간사함이 보이고 털끝 만큼의 의심이 없는 뒤에야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그 하는 바를 보고, 그 말미암는 바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바를 관찰하면, <한 인간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홍문관·예문관 관원이 이보다 먼저 소인임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서 감히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 전하의 성명(聖明)하심으로도 오히려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지 못하시었는데, 양관(兩館)의 선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임원준은 참으로 무상(無狀)한 소인입니다. 이제 중외(中外)의 모든 신료(臣僚)와 여항(閭巷)의 백성들까지 누가 임원준이 소인인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홀로 전하께서는 구중(九重) 안에 계시어 총명을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신이 앞의 상소에서 진(秦)나라·당(唐)나라·송(宋)나라의 소인(小人)을 두루 인용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후세에서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에서 옛일을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는데, 바로 임원준의 무리를 일컬은 것입니다. 다만 신이 바로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밝히지 아니한 것은 전하께서 신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를 보려 한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신을 믿으시면 반드시 누구를 이르는 것인가를 물어서 출척(黜陟)을 행할 것이므로, 그때를 당하여 전하께서 다만 세조조(世祖朝) 공신의 한 가지 재예(才藝)가 있는 자를 대우하는 도리를 물으셨을 뿐, 누가 소인인가를 묻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신은 전하께서 믿지 아니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고, 비록 말할지라도 쓰이지 아니할 것이므로 오직 물음에 따라 대답하고 감히 뜻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신공(申公)이 한(漢)나라 무제(武帝)에게 대답한 뜻입니다. 홍문관·예문관의 관원은 전하께서 날마다 세 번씩 접하시므로 본래 친신(親信)하는 자들로서, 그 간사함을 말하자 오히려 믿고 살피지 아니하고 모두 내치시는데, 하물며 낮고 미천한 종속(宗屬)이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통분하여 때를 기다리며 감히 밝히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제 홍문관·예문관의 20여 관원들과 대간들이 한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모두 간신이라고 말하였으니, 임원준의 간사함은 본래 드러난 것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조금도 간사한 형상을 묻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말한 자를 허물하시니, 임원준의 간사함은 이로부터 더욱 꺼리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경사(經史)를 널리 보셔서 무릇 국가의 치란(治亂)과 흥망의 까닭과 군자(君子)·소인(小人)의 진퇴(進退)·소장(消長)의 이치를 밝게 통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어지러운은 항상 다스려진 데에서 생기니, 한 사람의 소인이 나아가면 여러 군자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한(漢)나라 말기(末期)를 비유하여 말하면, 선제(宣帝)는 역사에서 중흥(中興)의 임금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조광한(趙廣漢)·함관유(蓋寬饒)·한연수(韓延壽)·양운(楊惲)을 죽이자 조정에서 모두 머리를 움츠리고 입을 봉하며 목숨을

보전함을 다행으로 삼았으니, 그러한 폐단으로 왕씨(王氏)가 권세를 조종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왕망(王莽)에 이르러서는 스스로를 주공(周公)에 비하면서 무릇 간사하고 괴이하고 비밀스런 일이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었는데, 당시에 여러 신하들이 어찌 왕망의 형상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심은 근본이 튼튼하고 내려온 폐단이 멀어서 비록 슬기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어찌하지 못하고 한(漢)나라의 조업(祚業)을 옮기는데 이르렀는데, 하물며 우리 나라는 땅이 좁아서 중국처럼 인물이 많지 아니한 데이겠습니까? 국사(國士)를 정선(精選)한 것은 경약(經軛)과 같은 것이 없는데, 하루 아침에 모두 내치며 일개 소인(小人)을 옹호하니, 대간(臺諫)을 맡은 자가 만약 소인이 아니라면 이를 쫓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 신하들 가운데 임원준과 뜻이 다른 자가 모두 떠나면 조정에 있는 자는 임원준의 무리가 아닌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때를 당하여서는 비록 1백 명의 왕망(王莽)이 함께 조정에 벌여 있을지라도 누가 감히 의논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하다면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의 거취(去就)가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임원준을 소인이라고 이르니 모름지기 임원준이 소인인 형상을 차례로 말하여라.”

하자, 심원이 말하기를,

“소인은 형상을 말하기 어려운 것이니, 만약 무슨 일, 무슨 말이 소인이 된다고 말한다면 이는 잘못을 해야 할 만한 것인데, 어찌 참 소인이겠습니까? 예전에 송(宋)나라 신종(神宗)이 왕안석(王安石)을 등용하여 참지 정사(參知政事)로 삼자 여러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얻었다고 기뻐하였으니, 홀로 어사 중승(御史中丞) 여회(呂誨)는 탄핵하여 아뢰기를, ‘크게 간사한 것은 충성처럼 보이고, 큰 사기는 믿음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여회가> 내침을 당하였습니다. 그때를 당하여 신종의 뜻으로는 반드시 생각하기를, ‘왕안석은 신참(新參)이므로 이전에 행한 일이 많지 아니한데, 여회가 어찌 왕안석이 소인임을 참으로 알겠는가? 이는 반드시 광망(狂妄)하고 애매(曖昧)한 말일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친 것인데, 지금 보면 선종이 여회를 죄준 것이 옳습니까, 잘못입니까? 대저 소인의 마음은 깊이 알 수는 있어도 그려 내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의 전(傳)에 이르기를, ‘소인이 혼자 있을 때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하되 안 하는 바가 없다가, 군자(君子)를 본 뒤에는 감쪽같이 그 옳지 못한 것을 덮고 그 옳은 것을 드러내지만, 남이 자기를 보기를 그 폐(肺)와 간(肝)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이 하는 데 있어서라.’라고 하였습니다. 주희(朱熹)는 말하기를, ‘무릇 음(陰)은 반드시 유(柔)하고, 유하면 반드시 어둡고, 어두우면 반드시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성인(聖人)이 《역경(易經)》을 지으며 음(陰)을 소인으로 삼았으니, 무릇 아부하고 은밀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이 소인입니다. 이제 임원준의 사람됨과 언어와 행동이 소인이 아닌 것이 없으니, 무릇 말을 내는 데에는 그 양단(兩端)을 가지고 회회(回回)하며 머뭇거리는 것이며, 말을 내려고 하다가 다시 그만두며, 일을 행한 자취는 애매하여 밝히기 어렵습니다. 신이 혼인의 인연으로 집에 있을 때의 일을 자세히 아는데, 참으로 형상할 수 없는 소인입니다. 신은 성리학(性理學)을 대강 알아서 무릇 옛 성현의 사람 보는 법을 참고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그 소인을 논한 것에, 임원준의 태도와 맞지 않음이 없습니다. 우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를 밝히겠습니다. 처음에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사자(嗣子)는 바로 신의 종조부(從祖父) 원천군(原川君)이었는데, 원천군이 졸(卒)하자 적자(嫡子)는 없고 장첩(長妾)의 아들 열산수(列山守)가 있어, 이로써 성녕 대군의 뒤를 잇게 하는 일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국론(國論)이 어지러웠습니다. 임원준이 말하기를, ‘지금 일천군이 적자가 없으니 성녕 대군의 제사를 반드시 다른 데로 옮기야 될 것인데,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아들 보성군(寶城君)만이 성녕 대군의 뒤를 이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녕 대군의 노비(奴婢)가 매우 많았으므로, 만약 보성군이 이를 얻으면 그 아들인 임사홍의 아내도 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해 도모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원천군의 첩자(妾子) 열산수가 뒤를 잇기로 이미 정

한 뒤에, 임원준이 신에게 이르기를, ‘전자에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첩자(妾子) 오천 부정(烏川副正)이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대군의 둘째 적자인 함양군(咸陽君)이 되었다. 듣건대 족하(足下)가 오천 부정과 사이가 좋다고 하니, 모름지기 가서 달려서 열산수의 예(例)를 끌어 상언(上言)하게 하여 양녕 대군의 봉사(奉祀)를 요구하게 하면, 조정에서 반드시 오천 부정의 일로써 예(例)를 삼을 것이고, 열산수로 하여금 성녕 대군의 뒤를 잇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성녕 대군의 후사(後嗣)가 정적(正嫡)에게로 옮겨진다면 그대의 조부인 보성군(寶城君)이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임원준의 꾀가 매우 간혹(奸譎)하다고 생각하여 대답하기를, ‘증조부(曾祖父) 효령 대군의 뜻이 이와 같지 않으셨는데, 조부인 보성군께서 어찌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녕 대군의 뒤를 잇기를 즐겨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임원준이 말하기를, ‘80여 세가 된 대군이 어찌 세상에 오래 살겠는가? 비록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임원준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한 마디 말로 미루어 보면 다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大小臣僚) 가운데 누가 임원준이 소인인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홀로 전하께서 알지 못하실 뿐입니다.”

하고, 승지 홍귀달(洪貴達)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그대는 학문을 대강 아는 사람인데도 임원준이 소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만약 안다면 그대도 근신(近臣)인데 어찌하여 이때에 두루 진술하지 아니하는가?”

하였다. 임금이 안색을 고치며 말하기를,

“계사(繼嗣)의 일은 임원준이 잘못한 것이다.”

하고, 인하여 승지에게 물기를,

“임원준이 참으로 소인인가?”

하니, 심원이 승지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일은 가법지 아니하니 천군(天君)을 속여서 만세의 기롱(譏弄)을 받지 말라.”

하자, 도승지 손순효(孫順孝)는 대답하기를,

“임원준이 재리(財利)에 급급하니, 군자(君子)가 아닙니다.”

하고, 좌승지 박숙진(朴叔蓁)은 대답하기를,

“임원준은 선조(先朝)에서 더러운 행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이 처음에는 비록 불초(不肖)했을지라도 뒤에 만약 행실을 고쳐서 착하게 되면 군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 임원준의 행한 바를 살피건대, 바로 심원의 말과 같습니다.”

하였으며, 우승지 홍귀달(洪貴達)은 대답하기를,

“신은 초야(草野)의 천한 선비로서 벼슬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보고 들음이 넓지 못해서 임원준이 소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좌부승지 김승경(金升卿)은 대답하기를,

“신이 임원준과 같은 해에 급제(及第)하였으므로 자세히 압니다. 그 집이 본래 가난하였는데, 근래에 갑자기 부자가 되어 가산(家産)이 매우 넉넉하니, 무릇 사람은 재리(財利)에서 그 지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였으며, 우부승지 이경동(李瓊叟)은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대, 임원준은 곡경(曲選)한 데에서 기신(起身)하였으니 간사하고 바르지 못하며, 이용(李瑢)에게 아부하다가 악을 훔쳐서 도망하였으니, 그간의 더러운 행실은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근래에 신이 임원준과 같이 경연관(經筵官)이 되어서 그 사람됨을 살펴 보니, 군센 행실이 없고 무릇 말을 내는 데에 앞뒤를 돌아보면서 지체하고 머뭇거리며 발(發)하지 아니하거나 발(發)하고자 하다가 다시 그만두니, 바로 심원의 말과 같습니다. 무릇 소인의 태도가 진실로 이와 같기는 하나, 근신(謹愼)하는 군자도 이와 같으니, 신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아들 임사홍의 태도는 이와 반대로 매우 교만합니다.”

하였다. 심원이 말하기를,

“대신의 진퇴(進退)를 비록 가볍게 할 수 없으나, 이제 홍문관·예문관과 대간들이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모두 임원준을 간신(奸臣)이라고 말하였는데, 전하께서 무슨 까닭으로 듣고서 묻지 아니하십니까? 신은, 전하께서 마음으로는 임원준의 간사함을 아시면서 묻지 아니하는 것인지, 임원준을 옹호하고자 하여 묻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하기를,

“임원준은 묘당(廟堂)의 대신인데, 만약 그 간사한 형상을 물어서 이것이 사실이면 다시 용납할 수 없으니, 이 때문에 묻지 아니한 것이다.”

하자, 심원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 사람의 간신을 보호하고자 하여 스물 한 명의 군자(君子)를 내치시니, 이는 소인이 더욱 끼리는 바가 없게 되는 소이(所以)입니다. 신이 사관(史官) 표연발(表浴沫)에게서 듣건대, 전일 현석규(玄碩圭)의 일은 모두 임사홍이 몰래 사주(使嗾)한 바로서, 그때 한 대간(臺諫)은 바로 임사홍의 심복이었습니다. 임사홍은 현석규의 하는 바를 사사로이 살펴서, 행동하면 곧 말을 전하니, 대간들이 임사홍의 술책에 빠져 저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심원에게 물기를,

“현석규는 소인인가?”

하자, 심원이 대답하기를,

“현석규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온후(溫厚)·관화(寬和)한 도량(度量)은 없으나 청개(淸介)하여 일을 당하면 용감하게 말하니, 무상(無狀)한 소인은 아닙니다.”

하자, 임금이 놀라며 말하기를,

“임사홍이 몰래 사주하여 현석규를 공격하였으니, 바로 간사한 자이다. 네가 임사홍 부자(父子)와 더불어 혼인한 인연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 간사함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면 어찌 감히 이같이 하겠는가?”

하니, 심원이 말하기를,

“신이 비록 소원(疏遠)하고 미천하나 마음은 항상 사직(社稷)에 있습니다. 두보(杜甫)의 시에 이르기를, ‘해바라기 해를 따라 기울어지니, 만물의 성품은 빼앗을 수 없구나[葵藿傾大謀 物性固莫奪] 하였으니, 신이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만약 국가가 위태로우면 신이 먼저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감히 이처럼 주륙(誅戮) 당함을 무릅쓴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면, 신은 청컨대 주살(誅殺)을 당하여 하늘에 계시는 조종(祖宗)의 영령(英靈)께 저버림이 없게 하소서. 《역경(易經)》 박괘(剝卦)에 이르기를, ‘큰 과일은 먹히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홍문관·예문관 관원과 대간 등이 모두 청함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죽음으로써 감히 아뢰니, 원하건대 전하는 신의 고충(孤忠)을 살피소서. 이는 비록 신이 하는 바이나 반드시 하늘에 계시는 조종의 영혼이 음(陰)으로 시키신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통곡하며 말하기를,

“신이 사직(社稷)의 연고 때문에 감히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임사홍은 조부의 사랑하는 사위이며 일문(一門)의 망족(望族)입니다. 신의 아버가 평소애 지병(持病)이 있는데, 만약 이 일을 들으면 반드시 놀라고 슬퍼하며 신을 심히 그르게 여기어 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신이 또한 무슨 면목으로 다시 조부모와 부모를 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아버가 어찌 경을 그르게 여기겠는가?”

하니, 심원이 말하기를,

“신이 나라를 위해 아버이를 잊었으니, 신은 진실로 낭패입니다.”

하고, 드디어 통곡하면서 물러갔다. 도승지 손순효(孫順孝)가 아뢰기를,

“홍문관·예문관 관원의 말한 바가 공정하였는데, 언사(言事) 때문에 파직되었으니, 사체(事體)에 어찌합니까? 하물며 양관(兩館)의 20여 관원은 모두 선임(選任)된 자인데, 하루 아침에 모두 파면하고 새 사람을 얻고자 하면 인재를 구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도 그렇게 여긴다. 아직 제목(除目)을 내리지 말라. 이제 심원의 말을 들었는데, 만약 참으로 그렇다면 임사홍은 참으로 소인이다. 곧 임원준 부자와 표면말(表浴沫) 등을 불러서 묻고, 또 정승과 육조(六曹)의 참판 이상과 대간을 불러서 참여하여 듣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0년(1504년) 윤4월 20일(경진) 2번째 기사

의금부 낭청이, 사천(泗川)에서 이유녕(李幼寧)을 잡아왔다. 전교하기를,

“곧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베어 저자에 효수(梟首)하되, 백관이 차례로 서서 <보기를> 전과 같이 하라.”

하고, 승지 박열(朴說)·이계맹(李繼孟)과 내관(內官)을 명하여 형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효유하게 하기를,

“네가 경솔하게 친구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발설하되 공론(公論)이라 칭탁하여, 중죄에 빠지게 무고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리하여 형벌에 처하게 하니, 그리 알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유녕은 태종의 5대 손으로 학문을 좋아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뽕허 승문원(承文院)에 보임되었다. 후에 이조 좌랑(史曹佐郎)이 되었으며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올랐다가, 구세건(具世健)의 일로 하여 베임을 당하였다. 처음 유녕의 아버지 주계군 이심원(朱溪君李深源)이 성종(成宗)을 면대하여, 임사홍(任士洪)의 간사함을 극론하였는데, 사홍이 이로 하여 오래도록 폐출 금고(禁錮)되어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다. 그러나 말하지 못하다가 뜻을 얻은 후에는 죄를 엮어 만들어서, 유녕과 그 아버지 심원, 아우 이유반(李幼盤)을 죽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9월 26일(계축) 4번째 기사.

유순·허침·박승질·강귀손·신준·김감·이계남·김수동·임사홍·송일·정미수·이계동·성희안·윤구·박열·신수영·최관·민이·박삼길·심광보·민휘·성세순·김준손·이창윤·권주·이성동·김극성이 의논드리기를,

“심원의 죄가 중하므로 마땅히 중한 벌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반드시 엄중히 징계하여야 악한 자가 또한 모두 마음을 고치게 되는 것이니, 이른바 ‘한 사람을 징계하여 천만 사람을 두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뒤에 누가 말하는 자 있겠는가? 또 이유령과 변형량(卞亨良)의 처자를 중으로 삼되, 죄인의 처첩을 종삼은 것을 사람마다 보고 경계할 줄 알게 하여 ‘아무는 무슨 죄로 그 처자를 보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 하라. 또 무오년의 도당은 재주를 믿고 서로 결탁, 조정의 일을 비판하여 난신(亂臣)과 같으니, 죄를 추가하는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라.”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9월 27일(갑인) 2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심원(深源)은 형을 집행하여 가산을 몰수하라.”

하였다. 승지 권균과 윤순이 형 집행을 감독하고, 백관과 종친으로 하여금 모여 보도록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10월 1일(무오)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심원(深源)은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그 형제들은 모두 장 1백에 처하여 먼 지방으로 정배하는 것이 어떨까? 정승들에게 물노라.”

하니, 유순(柳詢)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10월 1일(무오) 8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주의 아들을 난신(亂臣) 율(律)로써 논죄하고, 심원(深源)은 조관(朝官)들과 결탁하여 국정을 어지럽혔으니, 그 자식은 모두 살려 둘 수 없다.”

하니, 유순 등이 아뢰기를,

“심원의 죄는 진실로 중하나 위에 속하는 말은 없었으니, 이주의 위에 속하는 죄와는 같이 처단할 수 없는 듯합니다.”

하였다.

심원은 태종(太宗)의 4대 손자로서 총민(聰敏)하고 박학(博學)하며 경전(經傳)을 연구하는 마음이 조금도 해이한 때가 없으므로 이때 종실(宗室)의 영재(英才)라고 칭찬하였었다. 천성이 충효(忠孝)스럽고 정직하여, 일찍이 성종을 면대하여 임사홍(任士洪)의 간사한 형상을 극력 논하니, 사홍이 이로써 죄를 받았었다. 사홍은 심원의 고모부이므로 드디어 그 조부 보성군 이합(寶城君李咨)의 미움을 받아, 불효(不孝)로써 죄를 받아 수십 년 폐치(廢置)되니, 인륜의 변을 당한 것을 스스로 상심함이 몸둘 곳이 없는 것 같았다. 아들 이유령(李幼寧)이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나 조정에서도 난처하여 마침내 서용(敍用)되지 못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임사홍 부자의 모함으로 화를 당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10월 1일(무오) 10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심원(深源)은 마음씨가 불초하고 또 불초한 자식을 두었으니, 이와 같이 풍속을 고치는 때에 마땅히 특별한 법으로 논죄한 연후에야 이와 같은 사람은 거의 남는 부류가 없어질 것이다. 만약 이런 종류가 있게 된다면 이는 그 근본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식까지 아울러 모두 참형에 처한 뒤에야 가할 것이니, 바로 오늘 처참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순 등이 아뢰기를,

“심원의 아들은 나이 차지 못한 자만 있고, 외방에 있는 자는 미처 잡아오지 못하였습니 다.”

하니, 전교하기를,

“외방에 있는 자는 잡아다가 처참하고, 나이 차지 못한 자는 대년(待年)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년) 10월 3일(경신) 2번째 기사.

왕자군(王子君) 이하 종친을 모두 명하여 불러, 전교하기를,

“종친들은 녹만 먹으면 되는데, 학문을 알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심원(深源)은 학문을

알아 볼 초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중한 벌에 처하였다. 너희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참형에 처한 것이 지당합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황선엽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ㄱ-1ㄴ

%1 약가정신(藥哥貞信)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ㄱ

%3 약가가 정조와 신의를 지키다

%4 약가는 구미에 사는 조을생의 아내이다. 조을생이 왜적에게 잡혀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고기와 마늘을 먹지 않고, 옷을 벗고 편히 자지도 않았다. 그녀의 부모님께서 그녀를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려 하니 그녀가 죽음을 맹세하며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 8년 만에 조을생이 살아 돌아와 둘은 다시 부부가 되었다.

%5 약가는 선산 %5-1사르미니 %5-2도을싱의 %5-3겨지비라 을싱이 %5-4에게 %5-5자피여 %5-6니거늘 %5-7주근동 산동 몰라 고기와 %5-8마늘과 %5-9막디 %5-10아니하며 옷 %5-11바사 %5-12자디 %5-13아니허더니 제 아버지 %5-14남진 얼오려 현대 %5-15주고 모로 밍세하고 %5-16쫓디 아니허더니 %5-17여둘 %5-18히마니 을싱이 사라 %5-19오나 늘 도로 %5-20남진겨지비 %5-21되니라

%6 藥哥 善山人 趙乙生妻也 乙生爲倭寇擄去 藥哥未知存歿 不食肉不茹葷 不脫衣服而寢 父母欲奪志 矢死不從 凡八年而乙生還 爲夫婦如初 %6-1 1ㄴ

%7 약가 선산인 조을생처야 을생위왜구창거 약가미지존몰 불식육불여훈 불탈의복이침 부모욕 탈지 시사부종 범팔년이을생한 위부부여초 %7-1 1ㄴ

%8 약가(藥哥)는 선산(善山) 사람이니 조을생(趙乙生)의 처(妻)이다. 을생(乙生)이 왜(倭)에게 잡혀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고기와 마늘을 먹지 아니하며 옷 벗고 자지 아니하더니 제 아버이 남자와 결혼시키려 하니 죽음으로 맹세하고 쫓지 아니하더니 여덟 해만에 을생이 살아오거늘 도로 부부가 되니라.

%9-1 사르미니: 사람이니. 사름+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름이니’의 연철 표기이다.

%9-2 도을싱의: 조을생의. 도을싱+(의(관형격 조사). ‘趙’의 중세 독음 ‘도’가 18세기 이후 구개음화하여 ‘조’가 되었다. ‘싱>생’은 ‘·>ㅅ’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9-3 겨지비라: 아내이다. 겨집+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겨집이라’의 연철 표기이다. ‘겨집’은 이 시기에는 “여자”, “아내”의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였으며 현대 국어에서와 같이 낫잡아 이르는 의미는 없다.

%9-4 에게: 왜에게. 예+에게(부사격 조사). 한자 ‘倭’의 중세 독음으로 ‘예’, ‘왜’, ‘와’가 공존하였는데 『동국속삼강행실도』에서는 ‘예’가 쓰였다.

%9-5 자피여: 잡혀. 자피+-어(연결 어미). ‘자피다’는 동사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파생 동사이다. ‘잡히어’의 연철 표기이다.

%9-6 니거늘: 가니. 니-[去]+-거늘(연결 어미). 현대 국어 ‘가다’에 해당하는 중세어형에는 ‘니다, 녀다, 녀다, 가다’ 등이 있었다. ‘녀다>에다’의 ‘에다’는 현대 국어에서도 예스러운 표현에 쓰이기도 한다. ‘기러기 울어 예는 하늘 구만리~’라는 노래 가사가 그 한 예이다.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

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늘/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한다.

%9-7 **주근둥 산둥**: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은동(연결 어미)#사-(←살-)+-L 동(연결 어미). '-L/은동'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L/은동 ~L/은동'의 중첩의 형태로 쓰이며 주로 동사 뒤에 쓰인다.

%9-8 **마늘과**: 마늘과. 마늘+과(접속 조사). '葷'은 냄새 나는 채소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마늘'로 연해하였다. 불가(佛家)에서 금하는 마늘·달래·부추·파·홍거를 오훈채(五葷菜)라고 한다.

%9-9 **먹디**: 먹지. 먹--+디(연결 어미). 어미 '-디>-지'의 구개음화가 되기 전의 표기이다.

%9-10 **아니 혀며**: 않으며. 아니 혀--+며(연결 어미). '아니 혀다>않다'의 변화는 18세기 이후에 일어났다.

%9-11 **바사**: 벗고. 바--+아(연결 어미). "(웃을) 벗다"라는 의미로 '바다'과 '벗다'가 공존하였다.

%9-12 **자디**: (잠) 자지. 자--+디(연결 어미). 어미 '-디>-지'의 구개음화가 되기 전의 표기이다.

%9-13 **아니 혀더니**: 않더니. 아니 혀--+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아니 혀다>않다'의 변화는 18세기 이후에 일어났다.

%9-14 **남진 얼오려**: 남자와 인연을 맺어 주려. 남자에게 시집보내려. 남진#얼오--+려(연결 어미). '남진(男人)'에서 'ㅅ'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ㄷ'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ㅌ'이 'ㅅ'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짇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어려'는 '얼어'의 연철 표기이다. '얼다'는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정절(貞節)을 지키는 과부(寡婦)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려고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로 쓰였다. 한문 원문의 '從人'에 해당한다.

%9-15 **죽고모로**: 죽음으로써. 죽--+옴(명사형 어미)+으로(부사격 조사).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옴/-옴'이 쓰였고, 명사 파생 접사로는 '-옴/-옴'이 쓰였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기'의 쓰임이 늘어났다.

%9-16 **쫓디**: 따르지. 쫓--+디(연결 어미). '쫓다'는 '쫓다'의 받침 'ㅈ'이 8종성가죽음에 의해 'ㅅ'으로 표기된 것이다. 어미 '-디>-지'의 구개음화가 되기 전의 표기이다.

%9-17 **여둡**: 여덟. '·'의 1단계 변화 이후 '·'와 'ㅡ'의 혼기로 '여둡'과 '여뵐' 형태가 같이 쓰였다.

%9-18 **Hits마니**: 해 만에. 히+ㅅ(관형격 조사)+만(의존 명사)+이(부사격 조사).

%9-19 **오나늘**: 오니. 오--+나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나늘'은 '오다'와 결합하고, 같은 기능의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야늘/여늘'과 결합하고, 동사 '하다'에는 '-야늘/여늘'이 결합한다. 다양한 이형태 교체 양상을 볼 수 있다.

%9-20 **남진겨지비**: 부부가. 남진#겨집+이(주격 조사). '남진(男人)'에서 'ㅅ'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ㄷ'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ㅌ'이 'ㅅ'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짇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겨집'은 이 시기에는 '여자/아내' 등의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였으며 당시에는 현대 국어에서와 같은 낯잡아 이르는 의미는 없었다.

%9-21 **되나라**: 되었다. 되--+나라(종결 어미). '-나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10-1 주인공 명: 약가

%10-2 성씨: 미상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북도
 %10-5 지역2: 구미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세종
 %10-8 신분: 평민(추정)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약가(藥哥). 조선 전기의 열녀. 약가이(藥加伊)라는 이름으로도 전한다. 선군(船軍) 조을생(趙乙生)의 아내로 남편이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생사를 알지 못하자 8년 동안 수절하였다가 남편이 살아 돌아오자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한다.

조을생(趙乙生). 조선 전기의 선군(船軍)이었다.

선산(善山). 경상북도 선산군으로 1995년 구미시로 통합되었다.

%10-11 기타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2ㄱ-2ㄴ

%1 송씨서사(宋氏誓死)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2ㄱ

%3 송씨가 죽음을 맹세하다

%4 송씨는 익산 사람이다. 남편 정희중이 일찍 죽으니 삼년상을 치르는 내내 울며 지냈다. 송씨의 부모님께서 딸이 젊어서 과부가 된 것을 불쌍히 여겨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려고 하니 송씨가 죽음을 맹세하며 말하였다.

“시어머니께서 김제에 계시고, 다른 자식이 없으니 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시어머니는 어디 가서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시니 송씨가 아기를 업고 시집으로 도망가 여러 해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님께서 그 지극한 정성에 감격하여 자신들의 집 옆에 별실을 지어 주시니, 송씨가 시어머니를 모셔와 살며 직접 음식을 만들어 드리며 살았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삼년상을 치르는 내내 울며 지냈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니 홍문을 세우고 부역과 조세를 면제하여 주셨다.

%5 %5-1송시논 려산 %5-2사르미라 %5-3제 %5-4남진 %5-5명희등이 일 죽거늘 %5-6거상 삼 년을 %5-7우리 디내나라 어버이 %5-8저머셔 홀어미 된 %5-9줄를 %5-10어엿비 너 거 %5-11남진 얼오려 हु대 송시 %5-12주구모로 밍세하야 %5-13닐오디 %5-14식어미 %5-15김테 %5-16이셔 녀느 주식 %5-17업스니 내 %5-18남진곳 어르뎨 식어미 어디 가 %5-19의탁하리오 %5-20하야늘 어버이 듣디 %5-21아니हु대 송시 아기 업고 도망하야 %5-22식지비 가 여러 %5-23히를 %5-24도라오디 %5-25아니하더니 어버이 그 지극헌 %5-26정성을 감격하야 집 %5-27겨티 별실 %5-28지어준대 송시 식어미 %5-29드려와 살며 친히 %5-30음식하야 주더니 식어미 %5-31죽거늘 %5-32거상 삼 년을 %5-33내 우리 디내나라 %5-34열즈와늘 홍문 %5-35세오 %5-36복호하시니라

%6 宋氏 礪山人 其夫鄭希重早死 泣血終喪 父母憐其少寡 欲奪志 宋以死自誓曰 姑在金堤 無他子 我若從人則姑終何托 父母不聽 宋負兒逃歸姑氏 累年不還 父母感其至誠 乃於舍傍構別室 與之 宋奉姑來居 躬供菽水 姑歿泣血終喪 事聞旌門復戶 %6-1 2ㄴ

%7 송시 려산인 기부정희중조사 읍혈중상 부모런기소과 욱탈지 송이사자서 왓고재김제 무타 자 약악종인죽고종하탁 부모불청 송부아도귀고씨 누년불환 부모감기지성 내어사방구별실 여지 송봉고래거 궁공숙수 고물읍혈중상 사문정문복호 %7-1 2ㄴ

%8 송씨(宋氏)는 여산 사람이다. 제 남편 정희중(鄭希重)이 일찍 죽거늘 거상 삼 년을 울며 지내니라. 어버이 젊어서 홀어미 된 것을 불쌍히 여겨 남편 얻어 주려고 하였는데 송씨 죽음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시어미 김제에 계시 다른 자식 없으니 내가 남편을 얻으면 시어미는 어디 가 의탁하리오 하거늘 어버이 듣지 아니하니 송씨 아기 업고 도망하여 시집에 가 여러 해를 돌아오지 아니하더니 어버이 그 지극한 정성에 감격하여 집 곁에 별실 지어 주니 송씨 시어미를 데려와 살며 친히 음식하여 주더니 시어미 죽거늘 거상 삼 년을 내내 울며 지내니라. (임금님께) 여쭙니 홍문을 세우고 복호하시니라.

%9-1 송시논: 송씨는. ‘氏’자의 독음이 이 시기에는 ‘시’였다.

%9-2 사르미라: 사람이라. 사름+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사름이라’의 연철 표기이다.

%9-3 제: 제. 자기의.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9-4 남진: 남편. ‘남진(男人)’은 “사내”와 “남편”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 ‘男人’의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이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9-5 명희등이: 정희중이. 명희등+이(주격 조사). ‘명>정, 등>중’의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표기이다.

%9-6 거상: 거상(居喪). 소상(1년째 지내는 제사)과 대상(2년째 지내는 제사)을 합한 삼년상을 의미한다.

%9-7 우리 디내나라: 울며 지내었다. 울--+어(연결 어미)#디내--+니라(종결 어미).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어도 이를 과거로 풀이한다. 이를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라고 한다.

%9-8 저머셔: 젊어서, 젊을 때에. 점--+어셔(연결 어미).

%9-9 줄를: 것을. 줄+를(목적격 조사). 이 경우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에 오는 명사의 말음이 ‘르’인 경우 ‘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중철 표기로 보기도 한다.

%9-10 어엿비: 가엾게. 불쌍하게. 어엿브--+이(접미사).

%9-11 남진 얼오려: 남자와 인연을 맺어 주려. 남자에게 시집보내려. 남진#얼오--+려(연결 어미). ‘남진(男人)’에서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어리’는 ‘얼어’의 연철 표기이다. ‘얼다’는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사동형 ‘얼오다’가 쓰였다. ‘남진 얼오려’는 원문의 ‘欲奪志’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절(貞節)을 지키는 과부(寡婦)를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어주려 하다”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9-12 주구모로: 죽음으로써. 죽--+음(명사형 어미)+오로(부사격 조사).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음/움’이 쓰였고, 명사 파생 접미사로는 ‘음/움’이 쓰였다.

%9-13 닐오디: 말하기를. 이르되. 닐오--+오디(연결 어미). ‘니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닐-’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오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가 탈락하면서 뒤 음절에 흔적을 남겨 ‘-되’로 변화하였다.

%9-14 식어미: 시어머니. 식#엿(←어미). ‘어미, 아비’와 같이 기원적으로 접미사 ‘-이’가 들어 있는 체언(주로 유정 체언)들은 관형격 조사나 호격 조사와 통합할 때 ‘이’가 탈락한다.

%9-15 김테: 김제. ‘테 > 제’의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표기이다. 현재 전라북도 김제시이다.

%9-16 이셔: 있는데. 이시--+어(연결 어미). ‘이시다’는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이시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있다’로 교체된다.

%9-17 업스니: 없으니. 없--+오니(연결 어미).

%9-18 남진곳 어르뎨: 남자와 인연을 맺으면. 남진+곳(보조사)#얼--+오면(연결 어미). ‘남진(男人)’에서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곳’은 의미를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얼다’는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정절을 지켜야 할 과부가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어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 9-19 **의탁하리오**: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겠습니까. 의탁하--리오(종결 어미).
- 9-20 **하야늘**: (말) 하여도. 하--야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야늘/어늘'은 동사 '하다'와 결합하고, 비타동사는 '-거늘'과 결합하고, 타동사는 '-아늘/어늘'과 결합하고,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로 이형태 교체를 한다.
- 9-21 **아니훈대**: 않으므로. '아니하--나디(연결 어미)'. '아니하다>않다'의 변화는 18세기 이후에 일어난다.
- 9-22 **식지빅**: 시집에. 식집+의(부사격 조사).
- 9-23 **히를**: 해를. 히+-를(목적격 조사).
- 9-24 **도라오디**: 돌아오지. 돌+-어(연결 어미)#오--디(연결 어미). 어미 '-디>-지'의 구개음화가 되기 전의 표기이다.
- 9-25 **아니하더니**: 않았다. '아니하--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아니하다>않다'의 변화는 18세기 이후에 일어난다.
- 9-26 **정성을**: 정성에. 정성+-을(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의 '감동하다'는 '~에 감동하다'라는 문형으로 쓰이지만, 이 시기에는 '~을 감동하다'로 쓰였다.
- 9-27 **겨타**: 결에. 결+-이(부사격 조사). '결'은 일반적으로 '옆'을 의미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유정 체언의 옆을 의미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어 사전에서는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라고 풀이하고 있다. 형태상으로 관형격 조사와 동일한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츰, 낮, 나조ㅎ, 밤, 앞, 봄, 그술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 9-28 **지어준대**: 지어주니. 짓--어(연결 어미)#주--나대(연결 어미). '짓다'의 어간 말음은 15세기에는 △이어서 '지서'로 표기되었는데, '△ > ∅'의 변화에 의해 '지어'로 나타난다.
- 9-29 **드려와**: 데려와. 드리--어(연결 어미)#오--아(연결 어미). '드려오다'는 '드리다'와 '오다'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 동사이다.
- 9-30 **음식하야**: 음식을 만들어. 음식하--아(연결 어미). 원문의 '供菽水'에 해당하는데, '菽水之供(가난한 중에도 정성껏 부모를 잘 섬기는 일)'에서 온 말이다.
- 9-31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늘/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늘/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한다.
- 9-32 **거상**: 거상(居喪). 삼년상. 소상(1년째 지내는 제사)과 대상(2년째 지내는 제사)을 의미한다.
- 9-33 **내**: 내내. 계속.
- 9-34 **연즈와늘**: 여쭙니. 아뢰니. 연--줄/즈오-(선어말 어미)+아늘(연결 어미). 겸양법의 객체 존재 선어말 어미인 '-줄-'은 '-술-'으로도 나타나는데, 15세기 중기에는 '-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줄-'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즈오-'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늘/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한다.
- 9-35 **세우**: 세우고. 세-[立]+-오(연결 어미). '세다'는 자동사 '서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자동사 어간 '서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된 이중 사동의 형태이다.

태이다. 연결 어미 '-고'가 '-오'가 된 것은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르', '리' 다음의 'ㄱ' 탈락에 의한 것인데, 원간본의 표기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 9-36 **복호하시니라**: 복호하시었다. 복호하--시-(선어말 어미)+-니라(종결 어미). '복호(復戶)'는 조선시대에 충신·효자·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을 말한다. 이때 '복호하시니라'의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시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송(宋)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전라북도
 - 10-5 지역2: 익산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세종(1439년)
 - 10-8 신분: 양반
 - 10-9 성별: 여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세종 21년(1439년) 5월 22일(경오)의 두 번째 기사.
-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여산(礪山) 사람 송(宋)씨는 나이가 21세에 생원 정희중(鄭希重)에게 시집가서 한 아들을 낳았는데, 희중이 병들어 죽으매 애통하게 상제(喪制)를 마치고 절개를 더욱 굳게 지키니, 그 부모가 일찍 과부된 것을 가엾이 여겨, 그 뜻을 빼앗고자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미 납채(納采)까지 하였으나, 송씨가 사양하기를,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가 있고 다른 자손이 없는데,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가면, 누가 시어머니를 봉양할 것이며, 또 부녀가 한 남편을 섬기는 의리에 허물어짐이 있습니다.’고 하면서, 절개를 고치지 않기를 맹서하였습니다. 부모가 강제하므로, 아버 없는 어린애를 데리고 김제(金堤)의 시어머니 집에 도망해 가 숨었습니다. 부모가 가엾이 여겨 딸을 위해서 곁에 집을 짓고 와서 살도록 두세 번 청하였으나, 그 뜻을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간절히 사양하고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부가 울면서 청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시어머니를 받들고 와서 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봉양하기를 게을리 아니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70세에 죽자 슬프게 통곡하며 3년상을 행하였습니다. 또 부모가 모두 풍병(風病)을 앓았는데, 친히 약이(藥餌)를 대접하고 음식을 조절(調攝)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부모가 돌아가게 되자 슬퍼하고 애통해 하면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모 든 초상 장사를 차림에 정례(情禮)가 극진하였습니다. 절행(節行)이 탁연(卓然)하오니 정 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시기를 청하옵니다.”
-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緙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闈)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3ㄱ-3ㄴ

%1 최씨수절(崔氏守節)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3ㄱ

%3 최씨가 수절하다

%4 최씨는 충주 사람으로 한약과 결혼을 약속하였다. (조선이) 일본을 정벌할 때, 한약이 쫓아가 싸우다 죽었지만 최씨는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절개를 지켰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니 홍문을 세워 주셨다.

%5 %5-1최씨는 %5-2튕쥬 %5-3사람이니 %5-4한약이와 혼인을 %5-5덩ㅎ얏찌니 일본국 %5-6털 %5-7제 %5-8한약기 %5-9조차 %5-10갓짜가 %5-11사호매 %5-12죽거늘 최씨 %5-13죽도록 %5-14남진 아니하니라 %5-15연즈와늘 홍문 %5-16세니라

%6 崔氏 忠州人 與副使韓約定婚約 從征日本 戰歿 崔終身守節 事聞旋聞 %6-1 3ㄴ

%7 최씨 충주인 여부사한약정혼약 종정일본 전물 최종신수절 사문정려 %7-1 3ㄴ

%8 최씨(崔氏)는 충주 사람이니 한약(韓約)과 혼인을 정하였다. 일본국 칠 때 한약이 쫓아갔다가 싸우다 죽거늘 최씨 죽도록 남편을 (맞이하지) 아니하니라. (임금님께) 여쭙니 홍문 세우니라.

%9-1 최씨는: 최씨는. '氏'자의 독음이 이 시기에는 '시'였다.

%9-2 튕쥬: 충주. '튕>충'은 구개음화에 의한 것이다. 한자 주(州)의 독음이 이 시기에는 '쥬'와 '쥬'가 공존하였는데 이 문헌에서는 주로 '쥬'가 쓰였다.

%9-3 사꺾미니: 사람이니. 사꺾+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람이니'의 연결 표기이다.

%9-4 한약이와: 한약과. 한약+이(접미사)+와(공동격조사).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 다음에 붙는다.

%9-5 덩ㅎ얏찌니: 정하였더니. 덩ㅎ--얏-(선어말 어미)+-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찌니'는 '-더니'가 'ㅅ' 다음에서 경음화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9-6 털: 칠. '티 → 치-'는 구개음화에 의한 것이다.

%9-7 제: 때. 현대 국어에서도 예스러운 표현에 '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9-8 한약기: 한약이. 한약+이(주격 조사). '한약기'는 받침을 반복 표기한 중첩 표기이다.

%9-9조차: 쫓아. 쫓--아(부사형 어미).

%9-10 갓짜가: 갔다가. 가--앗-(선어말 어미)+-다가(연결 어미). 동사의 어간이 '가'일 때 '앗'은 'ㅅ'만으로 나타난다. '-짜가'는 '-다가'가 'ㅅ' 다음에서 경음화된 표기이다.

%9-11 사호매: 싸움에서. 사흙+애(부사격 조사). '사흙'은 동사 '사호다'에서 온 파생 명사이다.

%9-12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한다.

%9-13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도록(연결 어미).

%9-14 **남진 아니하니라**: 남편을 맞지 않았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남진#아니하--니라(종결 어미). 한자 '인(人)'의 15세기 음은 '신'이었는데 이것이 '진'으로 나타난 것이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아니하다>않다'의 변화는 18세기 이후에 일어난다. '-니라'가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어도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라고 한다.

%9-15 **연즈와늘**: 여쭙니. 아뢰니. 연--+줄/즈오-(선어말 어미)+아늘(연결 어미). 겸양법의 객체 존대 선어말 어미인 '-줄-'은 '-술-'으로도 나타나는데, 15세기 중기에는 '-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줄-'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즈오-'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로,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로,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늘/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6 **세니라**: 세웠다. 세-[立]+--니라(종결 어미). '세다'는 자동사 '서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자동사 어간 '서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된 이중 사동의 형태이다.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10-1 주인공 명: 미상

%10-2 성씨: 최

%10-3 본관: 충주

%10-4 지역1: 충청북도

%10-5 지역2: 충주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세종

%10-8 신분: 양반(추정)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4ㄱ-4ㄴ

%1 서씨포죽(徐氏抱竹)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4ㄱ

%3 서씨가 대나무를 안다

%4 서씨는 풍기 사람으로 서사달의 딸이다. 같은 고을에 사는 도운봉과 결혼하였는데, 도운봉이 결혼한 지 일 년 만에 죽었다. 서씨는 지나치게 슬퍼하여 늘 집 뒤 대숲에 가서 대나무를 안고 울었는데, 하루는 흰 대나무 세 대가 나오더니 삼 년째에는 일곱 여덟 대가 되었다. 세종(조선의 제4대 왕)께서 흰 대나무를 그려 올리라 하시고, 그 집의 부역과 조세를 면제하여 주시고 홍문을 세우라 하시었다.

%5 %5-1서씨는 %5-2풍기 %5-3사루미니 서사달의 %5-4씨리라 훈 %5-5고을 %5-6인는 사루민 도운봉이 %5-7어른 훈 %5-8히타니 %5-9죽거늘 %5-10설위호물 너모하야 %5-11미양 집 뒷 %5-12대숲에 가 대를 %5-13안고서 %5-14우더니 %5-15홀튼 %5-16흰 대 세 떨기 나 삼 년채 날곱 %5-17어둠 %5-18떨기 되니라 장현대왕이 %5-19흰 대 그려 %5-20드리라 하시고 %5-21복호하고 홍문 %5-22세라 %5-23히시다

%6 徐氏 豊基人 徐思達之女 嫁同郡都雲峯 纔一年夫死 哀毀過禮 常日就堂後竹林 抱竹號泣 忽一日 生白竹三叢 三年至七八叢 正統戊午莊憲大王 命圖白竹以進 復戶旌閭 %6-1 4ㄴ

%7 서씨 풍기인 서사달지녀 가동군도운봉 재일년부사 애휼과례 상일취당후죽림 포죽호을 홀 일일 생백죽삼총 삼년지칠팔총 정통무오장현대왕 명도백죽이진 복호정려 %7-1 4ㄴ

%8 서씨(徐氏)는 풍기(豊基) 사람이니 서사달(徐思達)의 딸이다. 한 고을 있는 사람 도운봉(都雲峯)이 결혼한 한 해 만에 죽거늘 서러워함을 너무하여 늘 집 뒤의 대숲에 가 대를 안고 서 울더니 하루는 흰 대가 세 떨기(叢) 나고 삼 년째에는 일곱 여덟 떨기(叢)가 되니라. 장현대왕이 흰 대 그려 올리라 하시고 복호하고 홍문을 세우라 하셨다.

%9-1 **서씨는**: 서씨는. 서#시+는(보조사). 당시 '氏'의 한자음이 '시'였음을 알 수 있다.

%9-2 **풍기**: 풍기. '기>기'는 한자음의 변화이다.

%9-3 **사루미니**: 사람이니. 사루+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루이니'의 연철 표기이다.

%9-4 **씨리라**: 딸이다. 씨+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씨이라'의 연철 표기이다.

%9-5 **고을**: 고을. '고을'은 'ㄱ을ㅎ'에서 원순성 동화가 일어난 어형이다. 보유했던 'ㅎ'이 실현되지 않는 환경에 쓰인 예여서 당시 'ㅎ'이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ㄱ을>고을'의 변화를 겪어 현대 국어에서는 '고을'로 남아 있는데 "州, 郡, 府" 등의 의미로 쓰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고을(ㅎ)'과 '고을(ㅎ)'이 공존하는데 '고을(ㅎ)'의 예가 더 많이 확인된다.

%9-6 **인는**: 있는. 잇--+는(관형사형 어미). '잇는'은 자음 동화가 반영되어 '인는'으로 표기되었다.

%9-7 **어른**: 결혼한. 일--+은(관형형 어미). '일다'는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9-8 **hitmani**: 해 만에. 히+스(관형격 조사)+만(의존 명사)+-이(부사격 조사).
 %9-9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닐/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한다.
 %9-10 **설위호물**: 서러워하기를. 설위호+-옴(명사형 어미)+-올(목적격 조사).
 %9-11 **미양**: 매양, 늘, 항상. 한자어 '每常'에서 기원한 것으로, '미상>미상>미양>미양'과 같은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의 부사 '매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하나, 한자어 매양(每樣)의 한글 표기이다.
 %9-12 **대슈페**: 대수에. 대슈+에(부사격 조사). '슈페'는 '숲'의 'ㅍ'을 'ㅍ-비' 앞 뒤 음절에 모두 표기한 이른바 중철 표기이다.
 %9-13 **안고서**: 안고. 안+-고서(연결 어미)
 %9-14 **우더니**: 울더니. 울+-더니(연결 어미). '울더니>우더니'는 'ㄷ' 앞에서의 'ㄹ' 탈락 현상에 의한 것이다.
 %9-15 **홀른**: 하루는. 홀르+는(관형사형 어미). 현대 국어 '하루'의 15세기 어형 '홀르'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특수 어간 교체를 보이는 명사의 하나이다.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홀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홀르'로 나타난다. '홀른'은 '홀르'에 'ㄴ'이 결합한 형태인데, '홀른'이 '홀는'으로 표기된 것은 이른바 순행적 유음화(ㄹㄴ→ㄹㄴ)로 인한 역표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면 '홀리'가 된다.
 %9-16 **힌**: 흰. 히+-ㄴ(관형사형 어미).
 %9-17 **여둡**: 여덟. 15세기에는 '여덟'이었는데 '·'의 1단계 변화 이후 '·'와 'ㅡ'의 혼기로 '여둡/여둑' 형태가 같이 쓰였다.
 %9-18 **펼기**: '펼기[叢]'의 오각으로 보인다.
 %9-19 **힌**: '힌'의 오각으로 보인다.
 %9-20 **드리라**: 들여라. 드리+-라(종결 어미). '(으)라'는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와는 달리 간접적인 명령 혹은 인용문에 쓰인다.
 %9-21 **복호호고**: 부역과 조세를 면제하여 주고. 복호호+-고(연결 어미). '복호(復戶)'는 조선 시대에 충신·효자·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을 말한다.
 %9-22 **세다**: 세우라. 세-[立]+-라(종결 어미). '세다'는 자동사 '서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자동사 어간 '서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된 이중 사동 형태이다.
 %9-23 **히시다**: 하시었다. 히+-시-(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지만 과거로 풀이하였다. 이를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라고 한다.

%10-1 주인공 명: 미상
 %10-2 성씨: 서(徐)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북도
 %10-5 지역2: 영주시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세종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풍기. 경상북도 영주 지역의 옛 지명.
도운봉(都雲峯). 서씨의 남편으로 군위(軍威) 사람이었다고 전한다.
장헌대왕(莊憲大王). 1397~1450. 조선의 제4대왕 세종(世宗)의 시호(諡號). 재위 기간 1418~1450. 태종의 셋째 아들로 1418년 태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집현전을 만들어 젊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각종 의례 및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 및 과학 기술, 음악, 의학 등 각종 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하였다. 특히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민족문화 번영의 기틀을 닦았다. 국방면에서도 북방정책으로 영토를 넓히는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5ㄱ-5ㄴ

%1 석금손생(石今損生)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5ㄱ

%3 석금이 목숨을 끊다

%4 석금은 고양의 향리인 식배의 아내이다. 단종(조선 제6대 왕) 때에 식배가 누명을 쓰고 죽으니 석금은 옛새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밤낮을 울며 말하였다.

“나도 반드시 귀향 가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나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몸을 더럽힐 것이니 내가 살아 있음이 죽음만 같지 못하다.”

그리고는 목매달아 죽었다.

%5 %5-1석금미는 고양 향리 식배의 %5-2겨집비라 로산 %5-3저고 식비 %5-4죄 니버 %5-5죽거늘 석금이 옛새를 음식 아니 먹고 밤나줄 울며 %5-6널오디 %5-7내 %5-8미리 귀향 갈 %5-9거시니 필연 %5-10드러갈 사름의게 %5-11더러오미 되리니 %5-12사라 %5-13이쇼미 %5-14주곰만 %5-15곧디 %5-16몰ㅎ니라 하고 목 미야 드라 %5-17주그니라

%6 石今 高陽郡吏植培妻 魯山時 植培被誅 石今六日不食 晝夜號泣曰 我應例配達方 必爲押去者所汚 生不如死 遂縊以死 %6-1 5ㄴ

%7 석금 고양군리 식배처 로산시 식배피주 석금육일불식 주야호읍울 아웅레배달방 필위압거 자소오 생불여사 축액이사 %7-1 5ㄴ

%8 석금(石今)은 고양(高陽) 향리 식배(植培)의 아내이다. 노산 때에 식배 죄 입어 죽거늘 석금이 옛새를 음식 먹지 않고 밤낮으로 울며 이르되 내가 반드시 귀향 갈 것이니 필연 데려가는 사람에게 더러움이 될 것이니 살아 있음이 죽음만 같지 못하니라 하고 목 매달아 죽으니라.

%9-1 **석금미는**: 석금이는. 석금+이(접미사)+ㄴ(보조사). 받침을 반복 사용한 중철 표기이다.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 다음에 붙는 접미사이다.

%9-2 **겨집비라**: 아내이다. 겨집+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겨집이라’의 중철 표기이다. ‘겨집’은 이 시기에는 “여자”, “아내”의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였으며 당시에는 현대 국어에서와 같은 낯잡아 이르는 의미는 없었다.

%9-3 **저고**: 시대에. 때에. 적+의(부사격 조사). 때[時]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적’과 조사 ‘의’가 결합된 ‘적의’가 연철 표기된 것이다.

%9-4 **죄 니버**: 죄를 입어.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아. 누명을 써. 죄#닙+-어(연결 어미).

%9-5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여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닐/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한다.

%9-6 **널오디**: 말하기를. 널 오+-오디(연결 어미). ‘니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닐-’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오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가 탈락하면서 뒤 음절

에 흔적을 남겨 ‘-되’로 변화하였다.

%9-7 **내**: 내가. 나+ㅣ(주격 조사).

%9-8 **미리**: 반드시(應). 현대 국어에서 같은 형태로 쓰이는 ‘미리’와는 의미가 다르다.

%9-9 **거시니**: 것이니. 것+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것이니’의 연철 표기이다.

%9-10 **드러갈**: 데려가는. 드리+-어(연결 어미)#가+-르(관형사형 어미). ‘드러가다’는 ‘드리다’와 ‘가다’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 동사이다.

%9-11 **더러오미**: 더럽힘을 받게. 더러오+-ㅁ(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더러오다’는 형용사 어간 ‘더럽다’에 사동 접미사 ‘-오-’가 결합한 ‘더러보다’에서 ‘빙’이 소실된 어형이다.

%9-12 **사라**: 살아. 살+-아(연결 어미). ‘살아’의 연철 표기이다.

%9-13 **이쇼미**: 있음이. 있는 것이. 이시+-ㅁ(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이시다’는 모음이 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이시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잇다’로 교체된다.

%9-14 **주곰만**: 죽음만. 죽+-ㅁ(명사형 어미)+만(보조사).

%9-15 **곧디**: 같지. 곧+-디(연결 어미). 이때 어간 ‘곧-’은 본래의 어간 형태인 ‘곧ㅎ다’에서 ‘-ㅎ-’가 떨어진 형태이다. ‘-디>-지’의 구개음화가 되기 전의 표기이다.

%9-16 **몰ㅎ니라**: 못하다. 몰ㅎ+-니라(종결 어미). 이때 ‘ㅎ니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라고 한다.

%9-17 **주그니라**: 죽었다. 죽+-오니라(종결 어미). ‘-오니라’의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10-1 주인공 명: 석금(石今)

%10-2 성씨: 미상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기도

%10-5 지역2: 고양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단종(1454년)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이식배(李植培). 조선 전기 고양의 기관(記官). 직책 사칭, 청탁 및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참형을 당했다. 그 아들 또한 연좌되어 죽음을 당했다.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단종 2년(1454년) 3월 2일(계축) 세 번째 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략) 전 지안악군사(知安岳郡事) 황의현(黃義軒)은 예전에 이웅(李瑢)과 사귀어 친하게 지내고, 지난 계유년 10월 초1일에 사냥을 한다고 칭탁(稱托)하여 경내(境內)의 군사 9백 74명을 징집하고, 용(瑢)이 대역(大逆)을 범했다는 말을 듣고 기관(記官) 양영(楊榮)을 서울에 보내어 동정(動靜)을 탐문하였으며, 고양(高陽)의 기관(記官) 식배(植培)

培)는 자주 용(琮)을 따라 사냥을 하고, 또 용(琮)의 말[馬]을 자기 집에서 사육(飼育)하여 주고 명주 1필을 받았으며, 현감(縣監) 고덕칭(高德稱)과 병방 기관(兵房記官) 중은(仲銀)은 성식(聲息)을 사칭(詐稱)하고 문서[帖]를 총패(摠牌)에 내려보내어 군마(軍馬)를 정제(整齊)하게 하였고, 또 계유년 9월에 민호(民戶)의 군기(軍器)를 많이 거두어 들였으며, 또, 고덕칭은 여러 차례 용(琮)에게 알현(謁見)하고 그 청(請)을 들어 노원우(魯元祐)로 압도 감고(鴨島監考)를 삼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역신(逆臣)과 사귀어 통하였으니, 청컨대 황의헌과 식배·고덕칭·중은 등을 모두 율(律)에 의하여 능지 처사(凌遲處死)하소서.”

하니, 봉교(奉敎)하기를,

“참형(斬刑)을 시행하고 가산(家產)을 적몰(籍沒)하고, 그 연좌(緣坐)된 사람 가운데 아비는 제주도(濟州島)·진도(珍島)·남해도(南海島)·거제도(巨濟島) 등의 고을[郡]에 종[奴]으로 영속(永屬)시키고, 자식은 나이 16세 이상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가산을 적몰하며, 15세 이하는 어머니에게 주어서 기르게 하여 장정이 되거든 <중으로> 영속시키고, 어머니와 딸·처첩(妻妾)·할아버지·손자·형제(兄弟)·자매(姊妹), 그리고 자식의 처첩도 또한 관노비(官奴婢)로 영속시키고, 나이 15세 이하는 어머니에게 주어서 기르게 하여 장정이 되거든 <중으로> 영속시키고, 백부(伯父)·숙부(叔父)와 형제(兄弟)의 자식은 외방(外方)에 안치(安置)하고, 15세 이하는 어머니에게 주어서 기르게 하여 장정이 되거든 안치하라.”

하였다. 식배의 아내는 목을 매어 죽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8년(1477년) 7월 23일(무자) 여덟 번째 기사.

예조(禮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박중선(朴仲善)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양(高陽)의 향리(鄕吏)인 이식배(李植培)는 계유년에 죽음을 당하자, 그의 처(妻) 석을금(石乙今)이 주야(晝夜)로 호곡(號哭)하여, 한 모금의 마실 것도 입에 넣지 않고 장사지내는 일도 몸소 스스로 경영하더니, 장사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탄식하기를, ‘나의 지아버가 죽었으니, 나는 반드시 관비(官婢)가 될 것인데, 사람에게 더럽혀질까 두렵다.’하고, 오래도록 애통하고는, 그 밤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 그 절의(節義)를 상줄 만합니다. 청컨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정문(旌門)하여 뒷사람을 장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향리(鄕吏), 고려 및 조선 시대에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말단 관인 계층. 지방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던 고려 시대와는 달리, 중앙집권화를 추구했던 조선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영향력이 한정되었으며, 그 신분 또한 상층의 기회가 박탈되어 중인 신분으로 정착되었다. 그들의 신분은 보통 훈인에 의해 세습되었다. 해당 지역의 조세, 형옥, 영송(迎送), 공문서 작성 등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였다.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6ㄱ-6ㄴ

%1 구씨사진(仇氏寫眞)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6ㄱ

%3 구씨가 남편 얼굴을 그리다

%4 구씨는 익산 사람으로 조민의 아내이다. 나이 열다섯에 시집을 가 일찍 과부가 되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고 맹세하였다. 그리고는 남편의 얼굴을 그려 벽에 걸고 남편이 입던 옷까지 그림 아래에 놓고 밤낮으로 슬피 울며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지냈다. 나가고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고하고, 꼭 제철 음식으로 반드시 제사하고, 나물과 국도 먹지 않고, 죽을 때까지 흰옷을 입었다. 성종(조선의 제9대 왕) 때에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니 쌀을 주시고, 홍문을 세워 주셨다.

%5 %5-1구씨는 익산 %5-2사루미니 조민의 %5-3겨지비라 %5-4나히 %5-5열다스신 %5-6제 %5-7남진의 %5-8지빅 가 %5-9일 홀어미 %5-10도여 머리 버히고 %5-11뎡세호디 다시 남진 %5-12아니호리라고 남진의 상 그려 %5-13보루매 걸고 닦던 %5-14웃조차 노코 밤나줄 %5-15슬허 울며 %5-16아츨 나죄로 %5-17제허며 나가며 드러올 제 %5-18의 식 고히며 %5-19시절 거슬 의식 제허고 %5-20노물도 먹디 아니허며 %5-21깡도 먹디 아니허고 %5-22죽도록 %5-23헌 옷 %5-24나브니라 %5-25강정대왕도애 %5-26열즈와 늘 %5-27쌀 주시고 홍문 %5-28세시니라

%6 仇氏 益山人 曹敏妻也 年十五 歸曹門早寡 斷髮誓不再適 寫夫眞掛壁 陳衣服 日夜哀號 朝夕上食 出入必告 時物必薦 不茹蔬蕪羹 素服終身 康靖大王二年 事聞賜粟旋閭 %6-1 6ㄴ

%7 구씨 익산인 조민처야 년십오 귀조문조과 단발서부재적 사부진괘벽 진의복 일야애호 조석 상식 출입필고 시물필천 불여초철갱 소복종신 강정대왕이년 사문사속정려 %7-1 6ㄴ

%8 구씨(仇氏)는 익산(益山) 사람이니 조민(曹敏)의 아내이다. 나이 열다섯일 때 남편의 집에 가 일찍 홀어미 되어 머리카락 자르고 맹세하되 다시 남편 맞지 아니하리라 하고 남편의 얼굴 그려 벽에 걸고 입던 옷까지 놓고 밤낮을 슬피 울며 아침저녁으로 제사하며 나가며 들어올 때 반드시 고히며 제철 음식으로 반드시 제사하고 나물도 먹지 아니하며 국도 먹지 아니하고 죽도록 흰 옷을 입으니라. 강정대왕조에 여쭙니 쌀 주시고 홍문을 세우시니라.

%9-1 구씨는: 구씨는. 구#시+는(보조사). 당시 '氏'의 한자음이 '시'였음을 알 수 있다.

%9-2 사루미니: 사람이니. 사름+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름이니'의 연철 표기이다.

%9-3 겨지비라: 아내이다. 겨집+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겨집이라'의 연철 표기이다. '겨집'은 이 시기에는 "여자", "아내" 등의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였으며 현대 국어에서와 같이 낫잡아 이르는 의미는 없었다.

%9-4 나히: 나이가. 나ㅎ+ㅣ(주격 조사). '나ㅎ/나'는 '나이'의 옛말로,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히, 나홀, 나콰, 나토’ 등과 같이 ‘나ㅎ’으로, 그 밖의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 99-5 **열다스신**: 열다첫인. 열다스+이-(서술격 조사)+-ㄴ(관형사형 어미)
- 99-6 **제**: 때. 현대 국어에서도 예스러운 표현으로 ‘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 99-7 **남진의**: 남편의. 남진(男人)+의(관형격 조사). ‘남진(男人)’에서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짇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 99-8 **지빔**: 집에. 집+-의(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춤, 낮, 밤, 앞, 봄, 나조ㅎ, 7술, 스물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 99-9 **일**: 일찍. ‘이르다’에서 파생된 부사이다.
- 99-10 **도여**: 되어. 도이+-어(연결 어미). 현대 국어의 ‘되다’에 대응하는 16, 17세기 어형은 ‘되다, ㄷ되다, 도이다’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도이다’형이 쓰였다.
- 99-11 **밍세호다**: 맹세하기를. 밍세ㅎ+-오다(연결 어미). 연결 어미 ‘-오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가 탈락하면서 뒤 음절에 흔적을 남겨 ‘-되’로 변화하였다.
- 99-12 **아니호리라고**: 아니하리라 하고. 아니ㅎ+-오-(선어말 어미)+-리-(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ㅎ(←ㅎ-)+-(연결 어미).
- 99-13 **부름때**: 벽에. 부름+-애(부사격 조사). ‘부름’은 현대 국어의 ‘바람벽’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사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춤, 낮, 밤, 앞, 봄, 나조ㅎ, 7술, 스물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 99-14 **웃조차**: 웃까지. 웃+조차(보조사).
- 99-15 **슬허 울며**: 슬쁘게 울며. 슬+-어(부사형어미)#울+-며(연결 어미). ‘슬다’는 “슬퍼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여기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것이 ‘슬쁘다’이다. ‘슬허하다’는 동사 어간 ‘슬다’에 강조를 나타내는 ‘-어 ㅎ-’ 구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슬다’는 사라지고 ‘슬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파생 형용사 ‘슬쁘다’만이 남아 있다.
- 99-16 **아춤 나죄로**: 아침저녁으로. 아춤#나죄+로(부사격 조사). “저녁”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조ㅎ’과 ‘나죄’의 어형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으로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 99-17 **제ㅎ며**: 제사하며. 제사 지내며. 제ㅎ+-며(연결 어미)
- 99-18 **의식**: 잊지 않고, 반드시, 꼭. ‘의식’은 주로 ‘必’의 언해에 쓰이며 16세기의 교화서류에 많이 나타난다.
- 99-19 **시절거슬**: 제철 것을. 시절#것+을(목적격 조사).
- 99-20 **누물도**: 나물도. 누물+도(보조사). 15세기의 ‘누물’이 ‘누물>누물>누물>나물’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현대 국어의 ‘나물’이 되었다. 한문 원문의 ‘蔬蓴’에 해당하는 것으로 ‘蓴’은 낚새 나는 채소를 가리키는데 마늘로 언해되기도 한다.
- 99-21 **깁도**: 국도. 깁+도(보조사). 고유어 ‘국’에 해당하는 ‘羹’의 한자음에 보조사 ‘도’가 결합된 형태이다.
- 99-22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도록(연결 어미).
- 99-23 **흰 옷**: 흰 옷. 소복. 히+-ㄴ(관형사형 어미)#옷.

- 99-24 **니브니라**: 입었다. 님+-오-(선어말 어미)+-니라(종결 어미).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지만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라고 한다.
- 99-25 **강정대왕도애**: 강정대왕(성종) 시절에. 강정대왕(康靖大王)은 조선 제9대 왕 성종(成宗)으로, 재위 기간은 1469년~1494년이다. 본명은 이혈(李薔)이다.
- 99-26 **연조와늘**: 여쭙니. 아뢰니. 연+-조/조오-(선어말 어미)+-아늘(연결 어미). 겸양법의 객체 존재 선어말 어미인 ‘-줄-’은 ‘-술-’으로도 나타나는데, 15세기 중기에는 ‘-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줄-’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조오-’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타동사와 결합하고,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늘/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한다.
- 99-27 **빨**: 쌀. 중세 국어에서 ‘쌀’은 ‘빨’로 나타났는데, 이때 어두의 ㅂ은 [ps]로 발음되는 어두자음군이였다. 현대 국어에서도 ‘조+쌀→좁쌀, 메+쌀→멧쌀’ 등과 같은 합성어에 ‘빨’의 어두음 ‘ㅂ’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근대 국어 시기에 어두자음군은 사라지고 된소리로 바뀌어 표기도 ㅂ계 합용병서와 된소리를 표기하는 ㅅ계 합용병서, 그리고 각자병서가 서로 공존하게 되었다.
- 99-28 **세시니라**: 세우셨다. 세+-시-(선어말 어미)+-니라(종결 어미). ‘세다’는 자동사 ‘서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자동사 어간 ‘서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된 이중 사동 형태이다.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 100-1 주인공 명: 미상
- 100-2 성씨: 구(仇)
- 100-3 본관: 미상
- 100-4 지역: 전라북도
- 100-5 지역2: 익산시
- 100-6 시기: 조선
- 100-7 연도: 성종(1471년)
- 100-8 신분: 미상
- 100-9 성별: 여
- 100-10 역사 사건:
- 10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2년(1471년) 6월 23일(갑자) 네 번째 기사.

에조(禮曹)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중략) 익산(益山) 사람 학생(學生) 조민(曹敏)의 처 소사(召史)는 지아비가 죽으매 3년상을 행하고, 머리를 깎아 중이 되어 그 지아비의 형상을 그려 벽에 걸고 조석으로 분향하고 치전(致奠)하되, 애모(哀慕)하는 정성이 늙었어도 쇠하지 않는다 합니다. 청컨대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 각각 미두(米豆) 아울러 10석(石)을 주게 하고, 또 소거관(所居官)으로 하여금 때마다 치전(致奠)하는 식물(食物)을 주어,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이게 하며, 또 모든 사람의 절행(節行)한 실적(實迹)을 8도(八道)에 널리 효유하여, 풍속을 격려(激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조민(曹敏). 조선 성종 때의 사람 학생.

강정대왕(康靖大王). 1457~1494. 조선의 제9대 왕인 성종의 시호. 재위 기간은 1469년부터 1494년까지이다. 13세에 즉위하여 7년간 정희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였고 풍속 교화를 위해 재가금고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등 조선 초기부터 추구되었던 유교 이념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조선 왕조의 기반과 체계를 완성한 왕으로 평가된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7ㄱ-7ㄴ

%1 김씨자경(金氏自經)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7ㄱ

%3 김씨가 스스로 목을 매다

%4 김씨는 함양 사람으로 이양의 아내이다. 남편이 자식도 없이 일찍 죽으니 다른 사람이 김씨를 아내로 맞으려 하였다. 김씨는 자기 남편의 분묘로 달려가 풀을 헤치고 무덤에서 삼일 밤을 보냈다. 후에 또 김씨를 아내로 삼으는 사람이 나타나자 김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목 매달아 죽었다. 성종(조선의 제9대 왕)이 그 마을에 명하여, 그 분묘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고 홍문을 세워 주셨다.

%5 %5-1김시논 함양 %5-2사루미니 니양의 %5-3겨지비라 %5-4남진이 조식 업고 일죽거늘 다른 %5-5사루미 %5-6어루려 훈대 김시 %5-7제 남진의 분묘에 %5-8드라가 %5-9풀 %5-10허허고 사흘째물 %5-11자나라 후에 또 겨집 %5-12사모려 %5-13허리 %5-14잇거늘 김시 대답 아니하고 목 미야 드라 주그니라 %5-15강정대왕이 그 %5-16고을호로 그 분묘에 %5-17제하라 하시고 홍문 %5-18세시니라

%6 金氏 咸陽人 李陽妻也 陽無子早死 人欲娶之 金走之夫墳 披草 宿三夜 後又有求娶 金不應 自縊而死 康靖大王三年 命郡祭墓旌門 %6-1 7ㄴ

%7 김씨 함양인 이양처야 양무자조사 인육취치 김주지부분 피초 속삼야 후우유구취 김불음자 액이사 강정대왕삼년 명군제묘정문 %7-1 7ㄴ

%8 김씨(金氏)는 함양(咸陽) 사람이니 이양(李陽)의 아내이다. 남편이 자식 없고 일찍 죽거늘 다른 사람이 아내로 삼으려 하니 김씨는 자기 남편의 분묘에 달려가 풀 헤치고 사흘 밤을 자니라. 후에 또 아내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늘 김씨 대답 아니하고 목 매달아 죽으니라. 강정대왕이 그 고을로 하여금 그 분묘에 제사 지내라 하시고 홍문 세우시니라.

%9-1 김시논: 김 씨는. 김#시+논(보조사). 당시 '氏'의 한자음이 '시'였음을 알 수 있다.

%9-2 사루미니: 사람이니. 사롬+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롬이니'의 연철 표기이다.

%9-3 겨지비라: 아내이다. 겨집+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겨집이라'의 연철 표기이다. '겨집'은 이 시기에는 '여자/아내' 등의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였으며 현대 국어에서와 같은 낯잡아 이르는 의미는 없다.

%9-4 남진이: 남편이. 남진+이(주격 조사). '남진(男人)'에서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ㅅ'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ㅅ'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9-5 사루미: 사람이. 사롬+이(주격 조사). '사롬이'의 연철 표기이다.

%9-6 어루려: 남녀 관계를 맺으려. 결혼하려. 열+-우려(연결 어미). '열다'는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동사로,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 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9-7 제: 제. 자기의. 3인칭 재귀대명사이다.

%9-8 남진의: 남편의. 남진(男人)+의(관형격 조사). '남진(男人)'에서 '人'의 15세기의 한자음

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짇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9-9 **드라가**: 달러가. 드라가+-아(연결 어미). '드라가다'는 '들다'와 '가다'가 연결 어미 '-아'를 매개로 결합된 이른바 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 과정에서 'ㄷ'불규칙 용언인 '들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그 어간 형태가 '들다'로 교체되었다.

%9-9 **풀**: 풀. '풀>풀'은 양순음 아래에서 원순모음화한 것이다.

%9-10 **헤히고**: 헤치고. 헤히+-고(연결 어미). '헤치다/헤티다/헤히다'의 형태가 쓰였다.

%9-11 **자나라**: 잤다. 자+-나라(종결 어미). '-나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9-12 **삼오려**: 삼으려. 삼+-오-(선어말 어미)+-려(연결 어미). '삼으려'의 연철 표기이다.

%9-13 **하리**: 하는 사람이. 하+-리(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

%9-14 **잇거늘**: 있으니. 잇+-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5 **강정대왕이**: 강정대왕(성종)께서.

%9-16 **고을호**: 고을로. 고을ㅎ+로(부사격 조사). '고을'은 'ㄱ올ㅎ'에서 원순성동화가 일어난 어형이다. 보유했던 'ㅎ'이 실현되지 않는 환경에 쓰인 예여서 당시 'ㅎ'이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ㄱ올>고을>고을'의 변화를 겪어 현대 국어에서는 '고을'로 남아 있는데 '州, 郡, 府' 등의 의미로 쓰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고을(ㅎ)'과 '고을(ㅎ)'이 공존하는데 '고을(ㅎ)'의 예가 더 많다.

%9-17 **제하라**: 제사하라. 제하+-라(종결 어미).

%9-18 **세시나라**: 세우셨다. 세+시(선어말 어미)+나라(종결 어미). '세다'는 자동사 '서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자동사 어간 '서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된 형태이다. '-나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10-1 주인공 명: 미상

%10-2 성씨: 김(金)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남도

%10-5 지역2: 함양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성종(1472년)

%10-8 신분: 평민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3년(1472년) 2월 29일(병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禮曹)에서 아리기를,

“(전략) 또 함양(咸陽) 사람 김씨(金氏)는 수군(水軍) 김원(金源)의 딸인데, 나이 16세에 같은 고을 이양(李陽)에게 시집갔으나 이양이 죽어 초상을 치른 뒤, 그 시아버지 이순의(李

順義)가 그 나이 젊음을 가련하게 여겨 다시 혼인(醮)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김씨는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세하고 홀로 어머니와 더불어 살았는데, 같은 고을 여자근(呂自勤)이 그 아름다움을 듣고 첩으로 삼기 위하여 많은 종복을 데리고 그 집을 습격하여 반드시 얻으려고 하였으나, 김씨는 북쪽 들창으로 나와서 지아비의 무덤에 이르러 풀을 헤치고 자면서 호곡(號哭)하기를, ‘양인(良人)은 알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끌고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하니, 여자근이 강요할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돌아갔습니다. 뒤에 박덕룡(朴德龍)이란 자가 있어 또한 아내를 삼으려고 가서 구혼하였으나, 김씨가 분연(奮然)히 꾸짖으니 그 태도가 너무도 의연(毅然)하여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박덕룡을 피하여 형(兄)의 집에 옮겨 가서 살았는데, 박덕룡이 다시 와서 구혼하자, 그 형이 말하기를, ‘너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으니 너는 반드시 면하지 못할 것이다. 가난하게 과부로 사는 것보다 시집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니, 김씨가 길게 한숨을 쉬며 슬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죽을까 두려워 늘 지켰는데, 어느 날 밤에 어머니가 조금 해이(懈弛)하자 김씨는 이미 지붕 마루에 목을 매었습니다. (후략)

신 등이 《대전(大典)》의 권장하는 조목을 자세히 보니, 이르기를, ‘효우(孝友)와 절의(節義)가 특이한 자는 벼슬, 혹은 물건으로 상을 주고, 더욱 특이한 자는 정문(旌門)·복호(復戶)한다.’ 하였으니, 득비(得非)·구음방(仇音方)·이관명(李官明)·박운(朴云)·박운산(朴云山)·곽승의(郭崇儀)의 처 정씨(鄭氏)는 행의(行義)가 뛰어난게 특이하니, 청컨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복호(復戶)하고 정문(旌門)하게 하며, 이양(李陽)의 처 김씨(金氏)는 정렬(貞烈)이 특이하니, 청컨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전(奠)을 드리고 정문(旌門)하게 하며, 백효원(白孝元)·박유효(朴由孝)·표연말(表浴沫)은 효행(孝行)이 가상할 만하니, 청컨대 이조(吏曹)·병조(兵曹)로 하여금 재주에 따라 탁용(擢用)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특별히 박운(朴云)·박운산(朴云山)에게는 쌀·콩 아울러 10석(碩)을 내려 주었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강정대왕(康靖大王). 1457~1494. 조선의 제9대 왕인 성종의 시호. 재위 기간은 1469년부터 1494년까지이다. 13세에 즉위하여 7년간 정희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였고 풍속 교화를 위해 재가금고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등 조선 초기부터 추구되었던 유교 이념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조선 왕조의 기반과 체계를 완성한 왕으로 평가된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緯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8ㄱ-8ㄴ

%1 구음방도야(仇音方逃野)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8ㄱ

%3 구음방이 들로 달아나다

%4 구음방은 손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임금님의 친척이나 신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청의 여종이다. 남편이 죽으니 구음방의 아버지께서는 딸이 일찍 과부가 된 것을 가엾게 여겨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구음방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들로 도망가서 숨기를 두세 번을 하였다. 죽을 때까지 고기와 마늘과 파를 먹지 않고, 항상 “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무당을 섬기기도 하지 않았다. 성종(조선의 제9대 왕) 때에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니 흥문을 세워 주셨다.

%5 구음방이 는 레빙시 %5-1하던이라 %5-2남지니 %5-3죽거늘 %5-4제 %5-5아버라서 %5-6일 홀어미 된 줄 %5-7어엿째 너겨 %5-8남진 %5-9얼리려커늘 구음방이 밍세하야 %5-10다르니게 가디 %5-11아니호려코 도망하야 %5-12드르헤 가 %5-13숨기늘 두 세 번 하코 %5-14죽도록 고기와 %5-15마늘 파 %5-16먹디 아니하코 쏘 상네 어서 %5-17죽거지라 하코 무당 %5-18신스하기를 %5-19아니하더라 %5-20강정대왕도애 %5-21연즈와늘 흥문 %5-23세시니라

%6 仇音方 禮賓寺婢也 夫死 父哀其寡 欲奪志 仇音方 誓不他適 逃匿于野者再三 終身不食肉 不茹葷 且冀速死 不事巫祀 康靖大王四年 事聞旋聞 %6-1 8ㄴ

%7 구음방 레빙시비아 부사 부애기조과 육탈지 구음방 서불타적 도익우야자재삼 종신불식육 불여헌 차기속사 불사무사 강정대왕사년 사문정려 %7-1 8ㄴ

%8 구음방(仇音方)은 예빈시(禮賓寺)의 여종(婢)이다. 남편이 죽거늘 제 아버가 일찍 홀어미 된 것을 불쌍히 여겨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려 하니 구음방이 맹세하여 다른 이에게 가지 아니하려고 도망하여 들에 가 숨기를 두 세 번 하고 죽도록 고기와 마늘 파를 먹지 아니하고 또 항상 어서 죽고 싶다 하고 무당 신사하기를 아니하더라. 강정대왕(康靖大王)조에 여쭙니 흥문을 세우시니라.

%9-1 **하던이라**: 종이라. 하던(下典)+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9-2 **남지니**: 남편이. 남진+이(주격 조사). 한자 ‘인(人)’의 15세기 음은 ‘신’이었는데 이것이 ‘진’으로 나타난 것이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9-3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4 **제**: 제. 자기의.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9-5 **아버라서**: 아버지께서. 아버+ㅣ 라서(주격 조사).

%9-6 **일**: 일찍. ‘일’은 ‘이르다’에서 파생된 부사이다.
%9-7 **어엿째**: 가엾게. 불쌍하게. 어엿브-+이(접미사).
%9-8 **남진**: 남편. ‘남진(男人)’은 “사내”와 “남편”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 ‘男人’의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이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ㅅ’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ㅅ’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9-9 **얼리려커늘**: (남자와) 인연을 맺어주려 하거늘. 결혼시키려고 하거늘. 얼리-+-려-(연결 어미)#ㅎ-(←ㅎ-)+-거늘(연결 어미). ‘얼리다’는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인 ‘얼다’의 사동사인데 여기에서는 “정절(貞節)을 지키는 과부(寡婦)를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0 **다르니게**: 다른 사람에게. 다르-+-ㄴ(관형사형 어미)#ㄹ(←이, 의존 명사)+이게(부사격 조사). 이때 ‘이’ 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명사 뒤에 호격, 관형격, 부사격의 조사가 올 때 ‘이’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보인다.
%9-11 **아니호려코**: 안 하려고. 아니ㅎ-+-오려(연결 어미)#ㅎ(←ㅎ-)+-고(연결 어미).
%9-12 **드르헤**: 들에. 드르ㅎ+에(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침, 낮, 밤, 앞, 봄, 나초ㅎ, 7솔, 스물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에’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9-13 **숨기늘**: 숨기를. 숨-+-기(명사형 어미)+늘(목적격 조사).
%9-14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도록(연결 어미).
%9-15 **마늘 파**: 마늘과 파. 마늘#파. 접촉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葷’은 냄새 나는 채소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마늘로 이해하고 있다. 불가(佛家)에서 금하는 마늘·달래·부추·파·홍거를 오흔채(五葷菜)라고 한다.
%9-16 **먹디**: 먹지. 먹-+-디(연결 어미). 어미 ‘-디>-지’의 구개음화가 되기 전의 표기이다.
%9-17 **죽거지라**: 죽고 싶다. 죽겠다. 죽-+-거지라(종결 어미). ‘-거지라/어지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어미로 ‘-거/어-’는 확인법 선어말 어미와 동일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는 ‘죽다’가 자동사이므로 ‘-거지라’가 결합하였다.
%9-18 **신스하기를**: 제사지내기를. 섬기기를. 신스ㅎ-+-기(명사형 어미)+를(목적격 조사).
%5-19 **아니하더라**: 않았다. 아니ㅎ-+-더-(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 ‘아니ㅎ->않-’의 변화는 18세기 이후에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나타나기 전이므로 ‘-더-’가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9-20 **강정대왕도애**: 강정대왕(성종) 시절에.
%9-21 **연즈와늘**: 여쭙니. 아뢰니. 연-+-줄/즈오-(선어말 어미)+-아닐(연결 어미). 겸양법의 객체존대선어말 어미인 ‘-줄-’은 ‘-술-’으로도 나타나는데, 15세기 중기에는 ‘-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줄-’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즈오-’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아닐/어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22 **세시니라**: 세우셨다. 세-+-시-(선어말 어미)+-니라(종결 어미). ‘세다’는 자동사 ‘서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자동사 어간 ‘서다’가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된 형태이다.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 %10-1 주인공 명: 구음방(仇音方)
- %10-2 성씨: 미상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경상북도
- %10-5 지역2: 영덕군 영해면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단종(1452년)
- %10-8 신분: 천민
- %10-9 성별: 여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단종 즉위년(1452년) 윤 9월 24일(계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계문(啓聞)하기를,
 “(전락) 예빈사(禮賓寺) 여종[婢] 구음방(仇音方)은 그 남편이 죽자 밤낮으로 애통(哀慟)해 하며 매양 초하루·보름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행하고 8년에 이르도록 어육(魚肉)과 혼채(葷菜)를 먹지 아니하였는데 그 아버지가 개가(改嫁)시키려고 하니 몰래 도망치고 듣지 아니 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3년(1472년) 2월 29일(병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전락) 영해(寧海)에 사는 계집종 구음방(仇音方)은 나이 19세에 사노(私奴) 진언(眞言)에게 시집갔는데 나이 35세에 지아버가 죽으니, 그 아버지가 과부된 것을 슬퍼하여 그 지조를 뺏으려고 하니, 구음방(仇音方)이 이를 알고서 들로 도망하여 자취를 감추고 여러 날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여러 번 하여 아버지가 끝내 그 뜻을 빼앗지 못 하였으며, 절개를 지키어 더럽히지 않았고, 또 고기와 마늘을 먹지 않으니 향당(鄉黨)에서 칭복(稱服)하였습니다. (중략)
 신 등이 《대전(大典)》의 권장하는 조목을 자세히 보니, 이르기를, ‘효우(孝友)와 절의(節義)가 특이한 자는 벼슬, 혹은 물건으로 상을 주고, 더욱 특이한 자는 정문(旌門)·복호(復戶)한다.’ 하였으니, 득비(得非)·구음방(仇音方)·이관명(李官明)·박운(朴云)·박운산(朴云山)·곽송의(郭崇儀)의 처 정씨(鄭氏)는 행의(行義)가 뛰어나게 특이하니, 청컨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복호(復戶)하고 정문(旌門)하게 하며, 이양(李陽)의 처 김씨(金氏)는 정렬(貞烈)이 특이하니, 청컨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전(奠)을 드리고 정문(旌門)하게 하며, 백효원(白孝元)·박유효(朴由孝)·표연말(表沿沫)은 효행(孝行)이 가상할 만하니, 청컨대 이조(吏曹)·병조(兵曹)로 하여금 재주에 따라 탁용(擢用)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예빈사(禮賓寺). 조선 시대에 빈객의 대접과 종실 및 재상들을 위한 음식물 공급 등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아다.

강정대왕(康靖大王). 1457~1494. 조선의 제9대 왕인 성종의 시호. 재위 기간은 1469년부터 1494년까지이다. 13세에 즉위하여 7년간 정희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였고 풍속 교화를 위해 재가금고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등 조선 초기부터 추후되었던 유교 이념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조선 왕조의 기반과 체계를 완성한 왕으로 평가된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9ㄱ-9ㄴ

%1 손씨수지(孫氏守志)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9ㄱ

%3 손씨가 지조를 지키다

%4 손씨는 밀양 사람으로 손윤하의 딸이다. 열 여섯 살 때 초계에 사는 안근과 결혼했는데, 안근이 결혼한 지 겨우 이틀만에 죽으니 손씨는 삼 년을 내내 울면서 아침저녁으로 직접 제사를 드렸다. 삼년상을 마치자, 손씨의 조부모님께서 손씨의 나이가 젊은 것을 불쌍하게 여겨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려 하니 손씨가 말하였다.

“죽어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노하시러 강제로 결혼시키려 하시니 손씨가 몰래 대숲에 가서 목을 매었는데, 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끈을 풀었다. 손씨는 곧바로 시댁으로 돌아가서 아침저녁으로 잊지 않고 남편에게 제사한 후에야 밥을 먹으며 살다가 나이 서른둘에 죽었다.

%5 %5-1손시논 밀양 %5-2사르미니 손윤하의 %5-3씨리라 %5-4열여수신 %5-5제 %5-6초계 인 %5-7안근이를 %5-8어려 %5-9계우 %5-10두어 나른 %5-11하야 %5-12죽거늘 삼 %5-13년늘 %5-14내 울고 %5-15아춤 나죄 친히 %5-16제하더니 %5-17탈상하야늘 %5-18할아버이 %5-19나히 %5-20저른 주를 %5-21어엿째 너겨 %5-22남진 %5-23얼리려커늘 손시 %5-24죽거도 %5-25아니호리라 하더니 할아버 노하야 %5-26구턱어 얼리려커늘 손시 %5-27그마니 %5-28뎡숨퍼 가 %5-29목 미야 들엿째늘 %5-30제 %5-31형이 보고 %5-32그르니라 죽제 %5-33식어버의 %5-34지비 가 살며 아춤 나죄 %5-35의식 %5-36남진외게 제하 %5-37후에야 밥 먹더니 나히 %5-38설흔돌헤 %5-39주그니라

%6 孫氏 密陽府人 胤河之女 年十六 嫁草溪人安近 纔數日近死 泣涕三年 躬奠朝夕 服闋 祖父 母憐其年少 欲奪志 孫氏以死固拒 祖父怒強之 孫氏潛入園中 竹林自縊 其兄見而解之 即歸 舅姑家 居焉朝夕 必先祭夫 然後乃食 年三十二而終 %6-1 9ㄴ

%7 손씨 밀양부인 윤하지녀 년십육 가초계인안근 재수일근사 읍체삼년 궁전조석 복결 조부모 련기년소 육탈지 손씨이사고거 조부노강지 손씨잠입원중 죽림자액 기형견이해지 죽귀구고 가 거언조석 필선제부 연후내식 년삼십이이종 %7-1 9ㄴ

%8 손씨(孫氏)는 밀양(密陽) 사람이니 손윤하(孫胤河)의 딸이다. 열 여섯 살 때 초계(草溪)에 있는 안근(安近)과 결혼하여 겨우 두어 날 지나 죽거늘 삼 년을 내내 울고 아침저녁 친히 제사하더니 탈상하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이 젊은 것을 불쌍히 여겨 남편을 얻어주려 하거늘 손씨 죽어도 아니하리라 하더니 할아버지 노하여 강제로 남편을 얻어주려 하니 손씨 몰래 대숲에 가 목 매달았거늘 제 형(언니)이 보고 끄르니라. 즉시 시어머니의 집에 가 살며 아침저녁 꼭 남편에게 제사한 후에야 밥 먹더니 나이 서른둘에 죽으니라.

%9-1 손시논: 손씨는. ‘氏’자의 독음이 이 시기에는 ‘시’였다.

%9-2 사르미니: 사람이니. 사름+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름이니’의 연철 표기이다.

%9-3 씨리라: 딸이라. 쫘+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쫘이라’의 연철 표기이다.

%9-4 열여수신: 열 여섯일. 열#여섯+이-(서술격 조사)+니(관형사형 어미).

%9-5 제: 때.

%9-6 초계인논: 초계에 있는, 초계에 사는. 초계#잇+--논(관형사형 어미). 자음 동화가 반영되어 ‘잇논’이 ‘인논’으로 표기되었다.

%9-7 안근이를: 안근을. 안근+이(접미사)+를(목적격 조사).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 다음에 붙는다.

%9-8 어려: 남편으로 맞아. 결혼하여. 열+--어(연결 어미). ‘얼다’는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9-9 계우: 겨우. ‘키’가 ‘케’로 나타난 예이다. 이는 현대 국어의 ‘머느리/메느리’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다.

%9-10 두어: 두어. 두엇(數). ‘두어ㅎ’에서 ‘ㅎ’이 탈락된 형태이다. ‘두어ㅎ’은 수사 ‘둘’과 ‘서ㅎ[←세ㅎ]’이 결합한 합성어로, ‘둘서ㅎ>두서ㅎ>두어ㅎ’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 중세 국어에서 ㅎ을 보유했던 체언은 근대 국어 이후에 종성의 ㅎ이 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수사 ‘세ㅎ, 네ㅎ’는 각각 ‘셋, 넷’으로 종성의 ㅎ이 스로 변화하였는데 ‘두어ㅎ’ 역시 종성의 ㅎ이 스로 바뀌어 현대 국어의 ‘두엇’으로 변화하였다.

%9-11 하야: 하여. 지나. 하+--야(연결 어미).

%9-12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3 년늘: 년을. 년+을(목적격 조사). ‘년을’의 중철 표기이다.

%9-14 내: 내내. 계속.

%9-15 아춤 나죄: 아침저녁. 아춤#나죄. “저녁”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조ㅎ’과 ‘나죄’의 어형이 공존하였다.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으로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16 제하더니: 제사 지내니. 제하+--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9-17 탈상하야늘: 탈상하니. 탈상하+--야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아닐’은 ‘-어닐, -거늘, -나닐’과 이형태 관계로, 동사 ‘~하다’와 결합한다.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8 할아버이: 조부모님께서.

%9-19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ㅎ/나’는 ‘나이’의 옛말로,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히, 나흠, 나과, 나토’ 등과 같이 ‘나ㅎ’으로, 그 밖의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20 저른: 젊은. 젊+--은(관형사형 어미).

%9-21 어엿째: 가엽게, 불쌍히. 어엿째+--이(접미사).

%9-22 남진: 남편. ‘남진(男人)’은 “사내”와 “남편”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 ‘男人’의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이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9-23 얼리려커늘: 남자와 인연을 맺어 주려 하거늘. 남자에게 시집보내려 하거늘. 얼리+--려(연결 어미)#ㅎ-[←ㅎ-]+--거늘(연결 어미). ‘얼리다’는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인 ‘얼다’의 사동사인데 여기에서는 “정절(貞節)을 지키는 과부(寡婦)를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같은 장의 앞 줄에서는 ‘얼리려커늘’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여기의 ‘얼리려커늘’은 오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한다.

%9-24 **주거도**: 죽어도. 죽--+어도(연결 어미). '죽어도'의 연철 표기이다.

%9-25 **아니호리라**: 안 할 것이다. 아니ㅎ--+오-(선어말 어미)+-리-(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

%9-26 **구터어**: 억지로. 강제로. 현대 국어의 '구태어'에 해당하는 형태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

%9-27 **꺄마니**: 몰래. 현대 국어의 '가만히'에 해당하는 형태이다. '꺄마니'는 형용사 '꺄몬ㅎ다'의 불규칙적 어근인 '꺄만'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된 파생 부사이다. 현대 국어의 '가만히'에 해당하는 형태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

%9-28 **뺏습퍼**: 대숲에. 뺏습+(부사격 조사). '퍼'는 '픽'의 오각으로 보인다. '습퍼'는 '숲'의 '표'을 '표-터' 앞 뒤 음절에 모두 표기한 이른바 중철 표기이다.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츰, 낮, 밤, 앞, 봄, 나조ㅎ, 꺄술, 스물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29 **목 미야 돌엿새늘**: 목매달려 있으니. 목매달엿겨늘. 목#미--+야(연결 어미)#들--+이-(선어말 어미)+-엇-(선어말 어미)+-겨늘(연결 어미). '돌이다'는 현대 국어에서 '달리다' 형태로 실현된다. 연결 어미 '-겨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30 **제**: 제. 자기의.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9-31 **형이**: 언니가. 형(兄)+이(주격 조사). 문맥으로는 '형'이 언니인지 오빠인지 알 수 없지만, 도판의 그림으로 보아 언니로 보인다.

%9-32 **그르니라**: 끝났다. 풀었다. 그르--+니라(종결 어미). 이때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9-33 **식어버의**: 시부모님의. 식#어버이.+의(관형격 조사). '어버의'에서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명사가 관형격 조사 '이/의'와 결합할 때에는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였다. 비슷한 예로 '아비+이→아비, 늘그니+의→늘그닉' 등과 같이 예도 나타난다.

%9-34 **지빔**: 집에. 집+(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츰, 낮, 밤, 앞, 봄, 나조ㅎ, 꺄술, 스물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35 **의식**: 반드시. 꼬박꼬박. '의식'은 주로 '必'의 연해에 쓰이며 16세기의 교화서류에 많이 나타난다.

%9-36 **남진의게**: 남편에게. 남진+의게(부사격 조사). '남진(男人)'에서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인'이었었는데 일반적으로 'ㅅ'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ㅅ'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9-37 **후ैया**: 후에야. 후+에(부사격 조사)+야(보조사).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츰, 낮, 밤, 앞, 봄, 나조ㅎ, 꺄술, 스물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38 **설흔돌헤**: 서른돌에. 설흔#돌ㅎ+에(부사격 조사). 수사 '돌ㅎ/돌'은 모음이나 꺄,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돌히, 돌흠, 돌과, 돌토' 등과 같이 '돌ㅎ'으로, 그 밖의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돌'로 나타났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캐, 암돼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츰, 낮, 밤, 앞, 봄, 나조ㅎ, 꺄술, 스물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39 **주그니라**: 죽었다. 죽--+으니라(종결 어미). '-으니라'의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손(孫)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경상남도
 - %10-5 지역2: 밀양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미상
 - %10-8 신분: 양반
 - %10-9 성별: 여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 손윤하(孫胤河). 병조정랑을 지냈던 손조서(孫肇瑞)의 장남이다. 광흥승(廣興丞)을 지냈다고 전해진다.
- %11
 -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0ㄱ-10ㄴ

%1 량씨포관(梁氏抱棺)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0ㄱ

%3 양씨가 관을 끌어안다.

%4 양씨는 무주 사람으로 구길생의 아내이다. 구길생이 죽으니 초장(시신을 짚으로 싸서 임시로 매장)을 하고 아침저녁으로 직접 제사를 드렸다. 어느 날 양씨가 제사 지내러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부모님께서 이상하게 여겨 가서 살펴보니 양씨가 초장한 것을 열고 관을 안고서 울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양씨를 부축하여 데려 오는데 마침 집 앞 냇물이 불어난 것을 보고 양씨가 갑자기 물에 뛰어들자 양씨의 오빠가 건져 내었다. 두어 달쯤 지나서 자기가 자는 방에서 목 매달아 죽으니 부모님께서 불쌍히 여겨 남편과 한 곳에 묻어 주었다.

%5 %5-1량시는 %5-2무쥬 %5-3사름미니 구길생의 %5-4겨지비라 길생이 %5-5죽거늘 %5-6초장하고 %5-7아춤 나죄 친히 %5-8제허더니 %5-9홀는 가 제하고 %5-10오래도록 %5-11도라오디 %5-12아니홀시 어머니 황당히 너져 가 %5-13어더 보니 초장한 %5-14디 %5-15열오 관을 안고서 %5-16울어늘 어머니 %5-17블드러 %5-18드려오더니 %5-19마초아 집 앞 %5-20내해 %5-21물 %5-22디엇더니 량시 큰득 %5-23뵈어들어늘 %5-24제 오라비 %5-25겨너내니라 %5-26두어 %5-27드룬 %5-28허야 제 자는 방의서 목 미야 드라 죽거늘 어머니 %5-29어엿째 너져 %5-30남진과 혼 디 %5-31무드니라

%6 梁氏 茂朱人 具吉生之妻 吉生死 藁殮 朝夕 親奠 一日往奠 移時不返 父母恠而尋之 則開殮抱棺而哭 父母扶而歸適 家前川水方漲 梁遂投入 其兄援出 居數月 自縊于寢房 父母哀之 同穴而葬 %6-1 10ㄴ

%7 량씨 무주인 구길생지처 길생사 고빈 조석 친전 일일왕전 이시불반 부모괴이심지 즉개빈 포관이곡 부모부이귀적 가전천수방창 량수투입 기형원출 거수월 자액우침방 부모애지 동혈이장 %7-1 10ㄴ

%8 양씨(梁氏)는 무주(茂朱) 사람이니 구길생(具吉生)의 아내이다. 길생이 죽거늘 초장(草葬)하고 아침저녁 친히 제사하더니 하루는 가 제사하고 오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어머니 황당하게 여겨 가 살펴보니 초장한 것을 열고 관을 안고서 우니 어머니 부축하여 데려오더니 마침 집 앞 내의 물이 불어나니 양씨 갑자기 뛰어들거늘 제 오라비가 건져 내니라. 두어 달 지나 자기 자는 방에서 목 매달아 죽으니 어머니 불쌍히 여겨 남편과 한 곳에 묻으니라.

%9-1 량시논: 양씨는. 량#시+논(보조사). 당시 '氏'의 한자음이 '시'였음을 알 수 있다.

%9-2 무쥬: 무주. 한자 주(州)의 독음이 이 시기에는 '쥬'와 '쥬'가 공존하였는데 이 문헌에서는 주로 '쥬'가 쓰였다.

%9-3 사름미니: 사람이니. 사름+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름이니'의 중철 표기이다.

%9-4 겨지비라: 아내이다. 겨집+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겨집이라'의 연철 표기이다.

다. '겨집'은 이 시기에는 '여자/아내' 등의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였으며 현대 국어에서와 같은 낮춤의 의미는 없었다.

%9-5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닐/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6 초장하고: 초장(草葬)하고, 시신을 짚으로 싸서 임시로 매장하고. 초장하+--고(연결 어미). '초장(草葬)'은 옛 장례 방식의 하나로, 죽은 후에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짚이나 풀로 임시로 움집을 짓고 관을 그 안에 넣어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백골만을 추려 땅에 매장하는 풍습이다. 주로 산간 및 해안 지방이나 섬 지역에 있었던 풍습인데, 지금도 남해안에는 이런 풍습이 남아 있다. '초장'을 '초분(草墳)'이라고도 한다.

%9-7 아춤 나죄: 아침저녁. 아춤#나죄. "저녁"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조ㅎ'과 '나죄'의 어형이 공존하였다.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으로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8 제허더니: 제사 지내니. 제하+--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9-9 홀는: 하루는. 허+논(보조사). 현대 국어 '하루'의 15세기 어형 '허'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특수 어간 교체를 보이는 명사의 하나이다. 단독으로 쓰이거나 처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허',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홀'로 나타난다. '홀'은 '허'에 '논'이 결합한 형태인데, '홀'이 '홀'으로 표기된 것은 이른바 순행적 유음화(ㄹ→ㄹ)로 인한 역표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면 '홀리'가 된다.

%9-10 오래도록: 오래도록. 오라+--도록(연결 어미). '오라다'는 현대 국어의 '오래다'에 해당한다.

%9-11 도라오디: 돌아오지. 돌+--어(연결 어미)#오+--디(연결 어미). 어미 '-디>-지'의 구개음화가 되기 전의 표기이다.

%9-12 아니홀시: 아니하므로. 아니하+--리시(연결 어미).

%9-13 어더 보니: 찾아 보니. 살펴보니. 얻+--어(연결 어미)#보+--니(연결 어미).

%9-14 디: 곳. 데. 것. 현대 국어에서 '데'는 장소를 지칭하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것'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9-15 열오: 열고. 열+--고(연결 어미). 연결 어미 '-고'가 '-오'가 된 것은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ㄹ', 'ㅣ' 다음의 'ㄱ' 탈락에 의한 것인데, 원간본의 표기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9-16 울어늘: 우니. 울+--어늘(←-거늘, 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닐/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7 블드러: 불들어. 불들+--어(부사형어미). '불'이 '불-/불'이 되는 것은 양순음 'ㅂ'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 때문이다.

%9-18 드려오더니: 데려오니. 드리+--어(연결 어미)#오+--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드려오-'는 '드리-'와 '오-'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 동사이다.

%9-19 마초아: 맞추어. 마침. 마초+--아(연결 어미). '마초-'는 '맞-'의 사동 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때맞추어'의 풀로 쓰여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시기에 알맞도록'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9-20 내해: 내에. 내ㅎ(川)+애(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 '내'는 '내ㅎ>내'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내'는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내히, 내출' 등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개, 암돼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

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침, 낮, 밤, 앞, 봄, 나조ㅎ, 7술, 스물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11

%9-21 물: 물. ‘물>물’의 변화는 양순음 ‘ㄹ’ 아래에서 원순모음화가 된 것이다.

%12 유경민

%9-22 디엌더니: (물) 넘치니. 불어나니. 홍수가 나니. 디--+엌-(←엌-, 선어말 어미)+-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9-23 뛰어들어늘: 뛰어들거늘. 뛰어들--+어늘(←거늘, 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늘/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늘/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24 제: 제. 자기의.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9-25 거녀내나라: 건져 내었다. 거녀내--+나라(종결 어미). 이때 ‘-나라’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라고 한다.

%9-26 두어: 두엇(數). ‘두어ㅎ’에서 ‘ㅎ’이 탈락된 형태이다. ‘두어ㅎ’은 수사 ‘둘’과 ‘서ㅎ[←세ㅎ]’이 결합한 합성어로, ‘둘서ㅎ>두서ㅎ>두어ㅎ’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 중세 국어에서 ㅎ을 보유했던 체언은 근대 국어 이후에 종성의 ㅎ이 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수사 ‘세ㅎ, 네ㅎ’는 각각 ‘셋, 넷’으로 종성의 ㅎ이 ㅅ으로 변화하였는데 ‘두어ㅎ’ 역시 종성의 ㅎ이 ㅅ으로 바뀌어 현대 국어의 ‘두엇’으로 변화하였다.

%9-27 두룬: 달은. 둘[月]+은(보조사). ‘·’의 변화와 관련해 ‘둘>달’의 형태 변화를 볼 수 있다. ‘둘은’의 연결 표기이다.

%9-28 햏야: 하여. 지나. 햏--+야(연결 어미).

%9-29 어엿째: 가엿게. 불쌍하게. 어엿브--+이(접미사).

%9-30 남진과: 남편과. 남진+과(접속조사). ‘남진(男人)’은 “사내”와 “남편”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 ‘男人’의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이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ㅅ’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ㅅ’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짚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9-31 무드나라: 묻었다. 묻--+으나라(종결 어미). ‘-나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10-1 주인공 명: 미상

%10-2 성씨: 양(梁)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전라북도

%10-5 지역2: 무주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미상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1ㄱ-11ㄴ

%1 권씨부토(權氏負土)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1ㄱ

%3 권씨가 흙을 지어 나르다

%4 권씨는 안동 사람으로 권계생의 딸이다. 스무 살에 남편 송효종이 죽었는데, 권씨가 직접 흙을 등에 지어 날라 집 뒤에 무덤을 만들고, 다섯 살 먹은 아기를 데리고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아침저녁으로 무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호랑이가 와서 아기를 물어 갔는데 권씨가 왼손으로 아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호랑이를 물리치며 말하였다.
“하늘이시여, 여기 이 일을 아시거든 굶어살피소서.”
그러자 호랑이가 아기를 버리고 갔다.

%5 %5-1권씨는 안동 %5-2사르미니 계생의 %5-3씨리라 %5-4나히 %5-5스물흔 %5-6제 %5-7남진 송효종이 %5-8죽거늘 %5-9친히 흙 %5-10지여 집 %5-11뒤에 묻고 다섯 %5-12살 %5-13머근 아기 %5-14드리고 삼 년을 %5-15아춤 나죄 무덤 %5-16거터 뼈 나디 %5-17아니허더니 %5-18홀는 %5-19범이 와 아기를 %5-20머리가거늘 권씨 %5-21왼쪽 소노로 아기 잡고 %5-22올흔 소노로 %5-23범을 %5-24물리와드며 %5-25 날오디 %5-26하늘하 %5-27아르시거든 비최여 보쇼셔 현대 범이 %5-28버리고 %5-29가 니라

%6 權氏 安東人 啓生之女 年二十 其夫宋孝從死 親自負土葬於家北 携五歲兒 朝夕 不離墓側 終三年 一日 虎攬其子 權氏 左手持子 右手拒虎曰 皇天有知 乞賜照臨 虎乃棄去 %6-1 11ㄴ

%7 권씨 안동인 계생지녀 년이십 기부송효종사 친자부토장어가북 휴오세아 조석 불리묘축 종 삼년 일일 호람기자 권씨 좌수지자 우수거호왈 황천유지 결사조림 호내기거 %7-1 11ㄴ

%8 권씨(權氏)는 안동(安東) 사람이니 계생(啓生)의 딸이다. 나이 스물일 때 남편 송효종(宋孝從)이 죽거늘 친히 흙 지어 집 뒤에 묻고 다섯 살 먹은 아기 데리고 삼 년을 아침저녁 무덤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니 하루는 범이 와 아기를 물어가거늘 권씨 왼쪽 손으로 아기 잡고 오른쪽 손으로 범을 물리치며 이르되 하늘이여 아시거든 비최 보소서 하니 범이 버리고 가니라.

%9-1 권씨는: 권씨는. 권#시+ㄴ(보조사). 당시 ‘氏’의 한자음이 ‘시’였음을 알 수 있다.
%9-2 사르미니: 사람이니. 사#ㅁ+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름이니’의 연철 표기이다.
%9-3 씨리라: 딸이다. 씨+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씨이라’의 연철 표기이다.
%9-4 나히: 나이가. 나#ㅁ+ㅣ(주격 조사). ‘나#/나’는 ‘나이’의 옛말로,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히, 나홀, 나과, 나토’ 등과 같이 ‘나#’으로, 그 밖의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나’로 나타났다. ‘나#’에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5 스물흔: 스물일. 스#ㅁ+이-(서술격 조사)+-ㄴ(관형사형 어미).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

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스물히’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캐, 암태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9-6 제: 때. 현대 국어에서도 옛스러운 표현에 ‘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9-7 남진: 남편. ‘남진(男人)’은 “사내”와 “남편”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 ‘男人’의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이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ㅅ’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ㅅ’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짇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9-8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9 친히: 몸소. 현대 국어에서 ‘친히’는 ‘몸소’와 같은 뜻이기는 하나 여기에서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그 주체가 존귀한 인물이라는 차이가 있다.
%9-10 지여: 지어. 지어 날라. 지-+-어(연결 어미)
%9-11 뒤해: 뒤에. 뒤#+-애(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침, 낮, 밤, 앞, 봄, 나조ㅎ, ㄱ술, 스#ㅁ, 뒤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12 설: 살. 중세 국어에서는 “나이를 세는 단위”의 의미를 지닌 의존 명사가 ‘살’과 ‘설’ 두 가지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설’은 “한 해”의 의미와 “한 해의 처음”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서면 차츰 ‘살’은 “나이를 세는 단위”를, ‘설’은 “한 해의 처음”을 가리키게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여전히 “나이를 세는 단위”로 ‘설’이 쓰였음을 볼 수 있다.
%9-13 머근: 먹은. 먹-+-은(관형사형 어미). ‘먹은’의 연철 표기이다.
%9-14 드리고: 데리고. 드리-+-고(연결 어미).
%9-15 아춤 나죄: 아침저녁. 아춤#나죄. “저녁”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조ㅎ’과 ‘나죄’의 어형이 공존하였다.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으로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16 거터: 곁에. 곁에서. 곁을. 곁+이(부사격 조사). ‘곁’은 일반적으로 ‘옆’을 의미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유정 체언의 옆을 의미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는바 사전에서는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라고 풀이하고 있다.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침, 낮, 밤, 앞, 봄, 나조ㅎ, ㄱ술, 스#ㅁ, 뒤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17 아니허더니: 않더니. 아니#+-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아니#->않-’의 변화는 18세기 이후에 일어났다.
%9-18 홀는: 하루는. #ㅎ+ㄴ(보조사). 현대 국어 ‘하루’를 나타내는 15세기 어형 ‘#ㅎ’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특수 어간 교체를 보이는 명사 중의 하나였다.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ㅎ’,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홀#’로 나타난다. ‘홀#’은 ‘#ㅎ’에 ‘ㄴ’이 결합한 형태인데, ‘홀#’이 ‘홀#’으로 표기된 것은 이른바 순행적 유음화(ㄹㄴ→ㄹㄹ)로 인한 역표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면 ‘홀리’가 된다.
%9-19 범미: 범[虎]이. 호랑이가. 범+이(주격 조사). 현대 국어에서는 ‘범’을 지칭하는 동물명으로 ‘호랑이’를 더 많이 사용한다. ‘호랑이’는 범을 나타내는 ‘虎’와 이리를 나타내는 ‘狼’

이 결합된 것으로 무서운 혹은 사나운 동물을 지칭하는 통칭이었다.

%9-20 **므려가거늘**: 물어 가니. 물-+-어(연결 어미)#가-+-거늘(연결 어미). ‘물->물-’의 변화는 양순음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 현상이다.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흐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21 **왼넥 소노로**: 왼쪽 손으로. 왼+넥(접미사)#손+오로(부사격 조사).

%9-22 **올흔 소노로**: 오른 손으로. 올흔#손+오로(부사격 조사).

%9-23 **범을**: 범을. 호랑이를. 범+을(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에서는 ‘범’을 지칭하는 동물명으로 ‘호랑이’를 더 많이 사용한다. ‘호랑이’는 범을 나타내는 ‘虎’와 이리를 나타내는 ‘狼’이 결합된 것으로 무서운 혹은 사나운 동물을 지칭하는 통칭이었다.

%9-24 **물리와드며**: 물리치며. 물리왈-+-드며(연결 어미). ‘물리-’는 ‘므르-’의 사동사이다. ‘므르-’와 ‘물리-’는 원순모음화를 겪어 현대 국어의 ‘무르-’와 ‘물리-’가 되었다. ‘무르-’는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이미 행한 일을 그전의 상태로 돌리다, 있던 자리에서 뒤나 옆으로 옮기다” 등의 의미를 가지며 ‘물리-’는 이러한 의미들의 사동으로 쓰이며 “정해진 시기를 뒤로 늦추다”의 의미도 가진다. 여기서는 한문 원문 ‘拒’를 번역한 것으로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와는 다르다.

%9-25 **닐오디**: 말하기를. 닐오-+-오디(연결 어미). ‘니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닐-’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오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가 탈락하면서 뒤 음절에 흔적을 남겨 ‘-되’로 변화하였다.

%9-26 **하늘하**: 하늘이시여. 하늘+하(호격 조사).

%9-27 **아르시거든**: 아시면. 알-+-으시-(선어말 어미)+-거든(연결 어미). ‘-거든’은 비타동사에 결합하며 타동사 뒤에서는 ‘-거든’의 이형태인 ‘-어든/아든’으로 교체되었다. ‘-어든’은 선어말 어미 ‘-거-’의 교체조건과 동일하게 타동사 어간에 결합하며 모음조화에 따라 ‘-아든’으로 교체된다.

%9-28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연결 어미).

%9-29 **가나라**: 갔다. 가-+-나라(종결 어미). ‘-나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권(權)
 - %10-3 분관: 미상
 - %10-4 지역1: 경상북도
 - %10-5 지역2: 안동 (⇒ 신증동국여지승람 24권에는 예천군으로 되어 있음, 확인 요망)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미상
 - %10-8 신분: 미상
 - %10-9 성별: 여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 %11
- %12 유경민

-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2ㄱ-12L
- %1 김씨의백(金氏衣白)
-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2ㄱ
- %3 김씨가 흰옷을 입다
- %4 김씨는 부안 사람이다. 젊어서 남편이 죽으니 부모님께서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려 하였다. 그러자 김씨는 다른 남편을 맞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물에 뛰어들어 죽으려 하니 부모님께서 두려워하여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죽을 때까지 흰옷을 입고 제사드리며 고기를 먹지 않았다.
- %5 %5-1김씨는 부안 %5-2사릉미라 %5-3저머서 %5-4남진 죽거늘 어버이 %5-5다르니 %5-6열이고져 흐더니 김시 밍세하야 다른 남진 아니호려 호고 %5-7므레 %5-8드러 주구려 훈대 어버이 두려 아니 열이니라 김시 %5-9죽도록 %5-10흰옷 니버서 %5-11제던 호고 고기 먹디 %5-12아니흐더라
- %6 金氏 扶安人 早喪夫 父母欲奪志 金誓不他適 欲投江 父母懼而止 金終身衣白 奉祭祀 不食肉 %6-1 12L
- %7 김씨 부안인 조상부 부모욕탈지 김서불타적 욱투강 부모구이지 김종신의백 봉제사 불식육 %7-1 12L
- %8 김씨(金氏)는 부안(扶安) 사람이다. 젊어서 남편 죽거늘 어버이가 다른 이에게 시집 보내려 하니 김씨 맹세하여 다른 남편 맞지 아니하려 하고 물에 들어 죽으려 하니 어버이 두려워 아니 결혼시키니라. 김씨 죽도록 흰옷 입고 제사하고 고기 먹지 아니하더라.
- %9-1 김시논: 김씨는. 김#시+논(보조사). 당시 ‘氏’의 한자음이 ‘시’였음을 알 수 있다.
- %9-2 사릉미라: 사람이라. 사름+이(서술격 조사)+-라(←다, 연결 어미). ‘사름이라’의 연철 표기이다.
- %9-3 저머서: 젊어서, 젊을 때에. 점-+-어셔(연결 어미).
- %9-4 남진: 남편. ‘남진(男人)’은 “사내”와 “남편”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 ‘男人’의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이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 %9-5 다르니: 다른 사람. 다른#이(의존 명사). ‘다른이’의 연철 표기이다.
- %9-6 열이고져: 남자와 맺어 주려. 결혼시키려. 열이-+-고져(연결 어미) ‘열이-’는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동사 ‘열-’에 사동의 접사 ‘이’가 결합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정절(貞節)을 지키는 과부(寡婦)를 강제로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어 주려고 한다”는 사동의 의미로 쓰였다.
- %9-7 므레: 물에. 물+에(부사격 조사). 양순음 ‘ㄹ’ 아래에서 원순모음화에 의하여 ‘물>물’이 되었다.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츰, 낮, 밤, 앞, 불, ㄱ술, 나조ㅎ, 스물ㅎ, 뒤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8 드러: 들어가. 들--+어(연결 어미). '들어'의 연철 표기이다.

%9-9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도록(연결 어미).

%9-10 흰옷: 소복. 희--+ㄴ(관형사형 어미)#옷.

%9-11 제면하고: 제사드리고. 제면ㅎ--+고(연결 어미)

%9-12 아니히더라: 앓았다. 아니히--+더라(종결 어미).

%10-1 주인공 명: 미상

%10-2 성씨: 김(金)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전라북도

%10-5 지역2: 부안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미상

%10-8 신분: 미상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3ㄱ-13ㄴ

%1 성이패도(性伊佩刀)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3ㄱ

%3 성이가 칼을 차다

%4 성이는 김해 지방 관리인 허후동의 아내이다. 성이가 스무 살 때 남편이 죽었는데, 제사에 쓰는 그릇을 따로 두고 깨끗이 하여 아침저녁으로 특별한 그릇에 깨끗이 차려 올렸고 제사를 드렸으며, 초하루와 보름에는 제철 음식을 장만하였다. 또 계절에 맞는 옷을 지어 올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불에 태웠다. 항상 우악스럽고 사나운 남자에게 더럽혀질까 염려하여 칼을 차고 노끈을 두르고 다니며 맹세하였다.

“칼로 죽지 못하면 노끈으로 목을 매어 죽을 것이다.”

삼년상을 치르는 내내 울면서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니 흥문을 세워 주셨다.

%5 성이는 김히 향니 허후동의 %5-1겨지비라 %5-2나히 %5-3스물힌 %5-4제 %5-5남진니 죽거늘 %5-6아춤 나죄 %5-7제덴을 각별힌 그르세 %5-8조히하며 %5-9삭망이어든 %5-10시절 차바늘 %5-11ㄱ초 장만하고 %5-12시절 오솔 %5-13조차 %5-14지어 %5-15제하고 제후 후에 %5-16스더라 상네 강포흔 %5-17노미 %5-18더러일가 %5-19저허 칼 초고 %5-20노홀 찍여서 밍세햐야 %5-21널오디 %5-22칼호로 죽디 문흐면 노호로 목 미야 %5-23주구리라 하고 삼 년을 %5-24내 %5-25우리 %5-26사름드려 마조 서디 %5-27아니히더라 %5-28연즈와늘 흥문 %5-29세니라

%6 性伊 金海府吏 許厚同妻 年二十 夫歿 凡朝夕奠具務欲潔精 別置鼎俎以供 每遇朔望 備時物製時服以祭 祭畢焚之 常恐有強暴之汚 佩刀帶繩以自誓曰 刀不能決繩以縊之 泣血三年 未嘗與人對面 事聞旋聞 %6-1 13ㄴ

%7 성이 김해부리 허후동처 년이십 부물 범조석전구무욕결정 별치정조이공 매우삭망 비시물 제시복이제 제필분지 상공유강폭지오 패도대승이자서왈 도불능결승이역지 읍혈삼년 미상 여인대면 사문정려 %7-1 13ㄴ

%8 성이(性伊)는 김해(金海) 향리 허후동(許厚同)의 아내이다. 나이 스물일 때 남편이 죽거늘 아침저녁 제사를 각별한 그릇에 깨끗이 하며 초하루와 보름(朔望)에는 제철 음식을 갖춰 장만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지어 제사하고 제사한 후에 불사르더라. 항상 강포(強暴)한 사람이 더럽힐까 두려워 칼 차고 노끈을 띠어 맹세하여 이르되 칼로 죽지 못하면 노끈으로 목 매어 죽으리라 하고 삼 년을 내내 울며 사람과 마주 서지 아니하더라. (임금님께) 여쭙니 흥문 세우니라.

%9-1 겨지비라: 아내이다. 겨집+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겨집이라'의 연철 표기이다. '겨집'은 이 시기에는 '여자/아내' 등의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였으며 현대 국어에서와 같은 낫춤의 의미는 없었다.

%9-2 나히: 나이가. 나ㅎ+ㅣ(주격 조사). '나ㅎ/나'는 '나이'의 옛말로,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히, 나홀, 나과, 나토' 등과 같이 '나ㅎ'으로, 그 밖의 조사 앞

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3 **스물흔**: 스물일. 스물ㅎ+ㅣ-(서술격 조사)+-ㄴ(관형사형 어미). 수사 ‘스물ㅎ/스물’은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스물흔’과 같이 ‘스물ㅎ’으로, 그 밖의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스물’로 나타났다.

%9-4 **제**: 때. 현대 국어에서도 옛스러운 표현에 ‘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9-5 **남진니**: 남편이. 남진+이(주격 조사). ‘남진이’의 중철 표기이다. ‘남진(男人)’에서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9-6 **아츨 나죄**: 아침저녁. 아츨#나죄. “저녁”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조ㅎ’과 ‘나죄’의 어형이 공존하였다.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으로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7 **제던을**: 제사를. 제던+을(목적격 조사).

%9-8 **조히ㅎ며**: 깨끗이 하며. 조히#ㅎ--+며(연결 어미)

%9-9 **삭망이어든**: 삭망(朔望)에는. 초하루와 보름에는. 삭망+이-(서술격 조사)+-어든(←-거든, 연결 어미). 삭망은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이다.

%9-10 **시절 차바늘**: 계절 음식을. 시절#차반+을(목적격 조사).

%9-11 **꺄초 장만ㅎ고**: 갖추어 장만하고. 꺄초#장만ㅎ--+며(연결 어미). ‘꺄초-’는 “구비하다”라는 의미의 ‘꺄-’에 사동 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현대 국어의 사동 접미사 ‘-추-’는 어간 말 ‘ㅈ’ 뒤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 ‘-호/후-’에서 유래한다.

%9-12 **시절 오술**: 계절에 맞는 옷을. 시절#옷+을(목적격 조사).

%9-13 **조차**: 따라. 좃--+아(연결 어미). 국어사적으로 ‘좃->조차’의 문법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헌에서는 “(∼의 뒤를) 따르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의 쓰임과 “까지”라는 의미를 지닌 조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9-14 **지어**: 지어. 짓--+어(연결 어미). 15세기 국어에서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짓고, 짓게, 짓느’ 등과 같이 활용되었고,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지스며, 지서, 지술’, 혹은 ‘지을, 지어, 지으니’ 등과 같이 활용되었다.

%9-15 **제ㅎ고**: 제사하고. 제ㅎ--+고(연결 어미).

%9-16 **수더라**: (불에) 살랐다. 술--+더-(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

%9-17 **놈이**: 놈이. 사람이. 놈+이(주격 조사). ‘놈이’의 연철 표기이다. ‘놈’은 이 시기에는 현대 국어에서와 같은 낮춤의 의미는 없었다.

%9-18 **더러일가**: 더럽혀질까. 더러이--+르가(종결 어미). ‘더러이다’는 ‘더러비다’로부터 변화되어 온 것으로 이는 형용사 어간 ‘더러-’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타동사이다.

%9-19 **저허**: 두려워하여. 절--+어(연결 어미).

%9-20 **노홀**: 끈을. 노ㅎ+을(목적격 조사). ‘노’는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노홀, 노ㅎ로’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개, 암태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9-21 **널오디**: 말하기를. 널ㅇ--+오디(연결 어미). ‘니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널-’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오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가 탈락하면서 뒤 음절에 흔적을 남겨 ‘-되’로 변화하였다.

%9-22 **칼ㅎ로**: 칼로. 칼ㅎ+으로(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 ‘칼’은 ‘갈ㅎ>칼ㅎ>갈’의 변화를 겪었다. ‘갈’은 본래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칼히, 칼ㅎ로’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개, 암태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9-23 **주구리라**: 죽겠다. 죽--+우(←으, 선어말 어미)+-리-(선어말 어미)+-라(←다, 종결 어미).

%9-24 **내**: 내내. 계속.

%9-25 **우리**: 울어. 울--+어(부사형 어미). ‘울어’의 연철 표기이다.

%9-26 **사름 드러**: 사람과. 사람더러. 사름+드려(보조사). ‘드려’는 현대 국어의 ‘더러’에 대응하는 형태이지만, 여기서는 ‘과’의 의미로 쓰였다. ‘드려’의 의미 변화를 볼 수 있다. ‘드려’는 “데리다”의 옛말인 동사 ‘드리-’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기원한 것이다. 중세 국어 시기에 ‘드려’가 조사로 정착하기 이전에는 종종 ‘-를 드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9-27 **아니ㅎ더라**: 없었다. 아니ㅎ--+더-(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 ‘아니ㅎ->않-’의 변화는 18세기 이후에 일어난다. 이 시기에는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나타나기 전이므로 ‘더’가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9-28 **열조와늘**: 여쭙니. 아뢰니. 열--+줄/조우-(선어말 어미)+-아늘(연결 어미). 겸양법의 객체 존대 선어말 어미인 ‘-줄-’은 ‘-술-’으로도 나타나는데, 15세기 중기에는 ‘-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줄-’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조우-’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아늘/어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늘’,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늘/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29 **세니라**: 세웠다. 세-[立]+-니라(종결 어미). ‘세-’는 자동사 ‘서-’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자동사 어간 ‘서-’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된 이중 사동의 형태이다.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10-1 주인공 명: 성이(性伊)

%10-2 성씨: 배(裵)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남도

%10-5 지역2: 김해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성종(1494년)

%10-8 신분: 평민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성이(性伊). 조선 전기의 열녀. 향리 허후동(許厚同)의 부인이자, 호장(戶長) 배수의(裵守義)의 딸이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25년(1494년) 5월 19일(병오) 1번째 기사.

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김해부(金海府)의 향리(鄕吏) 허후동(許厚同)의 처(妻) 배성이(裵性伊)는 호장(戶長) 배수

의(喪守義)의 딸인데, 나이 스물 한 살에 허씨에게 시집을 갔으며 두 달이 지나 허후동이 물에 빠져 죽자 3년 동안 읍혈(泣血)하면서 웃음을 보이지 않고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누가 시아버지와 시어미를 섬기겠는가?' 하면서 시아버지의 호패(號牌)로써 신주(神主)를 만들어 신(神)이 의지하게 하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틀림없이 제사를 지내며, 몸소 베를 짜서 기일(忌日)을 당할 때마다 옷을 지어 놓고 제사를 지냈으며 제사를 마치면 그것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은 20여 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며 훈채(葷菜)를 먹지 않으면서 그 지조가 조금도 해이되지 않았습니다.

부모(父母)가 그가 일찍이 과부(寡婦)가 된 것을 민망하게 여겨 그의 뜻을 빼앗으려 하자, 딸이 말하기를, '제가 늘 칼을 차고 끈을 매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만일 저의 뜻을 뺏으려 하시면 곧바로 이것을 사용하여 자진(自盡)하려는 것입니다.'하므로, 부모가 두려워하여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와 시어미를 잘 섬기며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예(禮)로써 스스로 처신하면서 일찍이 울타리 밖을 나가지 않아 조행(操行)이 특이(特異)합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정문 복호(旌門復戶)하여 국가에서 절의(節義)를 숭상하고 장려하는 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향리(鄉吏). 고려 및 조선 시대에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말단 관인 계층. 지방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던 고려 시대와는 달리, 중앙집권화를 추구했던 조선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영향력이 한정되었으며, 그 신분 또한 상승의 기회가 박탈되어 중인 신분으로 정착되었다. 그들의 신분은 보통 혼인에 의해 세습되었다. 해당 지역의 조세, 형옥, 영송(迎送), 공문서 작성 등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였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4ㄱ-14ㄴ

%1 우씨부고(禹氏負姑)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4ㄱ

%3 우씨가 시어머니를 업다

%4 우씨는 담양 사람으로 김유정의 아내이다. 스무 살 때에 남편과 결혼하여 결혼한 지 4년 만에 남편이 죽고, 우씨는 시어머니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모셨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는데, 시어머니께서 높고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시니 우씨가 불 속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업고 나왔다. 남편의 삼년상을 마치자, 친정 부모님께서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려 하니 우씨가 말하였다.

“나에게 두 자식이 있으니 의지하여 살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이 죽을 때에 나에게 시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어찌 배반하겠습니까?”

하고 죽을 각오로 맹세하니, 부모님께서서는 강제로 우씨를 다른 남자와 맺어 주지 못하였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니, 우씨는 몹시 슬퍼하며 장례 치르는 일과 제사 지내는 일을 예법대로 하였다.

%5 %5-1우씨는 담양 %5-2사릉미니 %5-3김유명 %5-4겨지비라 %5-5나히 %5-6스물해 %5-7남진 여러 %5-8네 히재 남지니 %5-9죽거늘 식어미를 %5-10섬교디 %5-117장 호도허더니 지비 %5-12불 붙거늘 식어미 높고 %5-13병하야 %5-14니러나디 못허더니 우시 브래 %5-15드러가 어버 %5-16내니라 %5-17남진닉 %5-18거상 %5-19무차늘 어버이 %5-20다른 남진 %5-21얼유려 허더니 우시 %5-22날오디 내 두 주식이 %5-23이시니 가히 %5-24즈뢰하야 살 거시며 %5-25호물며 남지니 %5-26주글 저괴 %5-27날드려 식어미 섬길 %5-28이를 니르니 차마 비반하랴 하고 %5-29주그므로 밍세헌대 어버이 %5-30구티여 %5-31얼디디 못허니라 식어미 죽거늘 7장 %5-32슬허하고 %5-33송장과 제단을 %5-34네다이 %5-35허니라

%6 禹氏 潭陽人 金惟貞妻 年二十歸金 四年以夫死 事姑田氏甚孝 家嘗失火 田耄且病 不能起 禹冒火負而出 及夫喪畢 父母欲奪志 禹曰 我有二子 可資以生 況良人死時 屬我養姑 其忍背之 以死自誓 父母不能強 姑歿哀毀 葬祭以禮 %6-1 14ㄴ

%7 우씨 담양인 김유정 처 년이십귀김 사년이부사 사고전씨심호 가상실화 전모차병 불능기 우모후부이출 급부상필 부모욕탈지 우왈 आयुि자 가자이생 황랑인사시 촉야양고 기인배지 이사자서 부모불능강 고물애웨 장제이레 %7-1 14ㄴ

%8 우씨(禹氏)는 담양(潭陽) 사람이니 김유정(金惟貞)의 아내이다. 나이 스물에 남편과 결혼하여 네 해째 남편이 죽거늘 시어머니를 섬기되 가장 효도하니라. 집이 불 붙거늘 시어미 높고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더니 우씨 불에 들어가 업어 내니라. 남편의 거상 마치니 어버이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려 하니 우씨 이르되 내 두 자식이 있으니 가히 의지하여 살 것이며 하물며 남편이 죽을 적에 나에게 시어미 섬길 것을 이르니 어찌 배반하랴 하고 죽음으로 맹세하니 어버이 강제로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지 못하니라. 시어미 죽거늘 가장 슬퍼하고 장례와 제사를 예법대로 하니라.

%9-1 **우시논**: 우씨는. 우시+논(보조사). ‘氏’자의 독음이 이 시기에는 ‘시’였다.

%9-2 **사릅미니**: 사람이니. 사릅+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릅이니’의 연결 표기이다.

%9-3 **김유명**: 김유정. 한자 ‘貞’의 현대음은 ‘정’인데, ‘명’으로 표기되었다. ‘명>정’의 구개음화를 겪기 전의 표기 형태이다.

%9-4 **겨집비라**: 아내이다. 겨집+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겨집이라’의 연결 표기이다. ‘겨집’은 이 시기에는 ‘여자/아내’ 등의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였으며 현대 국어에서와 같은 낮춤의 의미는 없었다.

%9-5 **나히**: 나이가. 나ㅎ+ㅣ(주격 조사). ‘나ㅎ/나’는 ‘나이’의 옛말로,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히, 나흠, 나과, 나토’ 등과 같이 ‘나ㅎ’으로, 그 밖의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변화하였다.

%9-6 **스물혜**: 스물에. 스물ㅎ+에(부사격 조사). ‘스물’은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스물혜’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침, 낮, 밤, 앞, 봄, 7술, 나조ㅎ, 스물ㅎ, 뒤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7 **남진 여러**: 남자와 인연을 맺어. 남자와 결혼하여. #얼+--+어(연결 어미). ‘남진(男人)’에서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ㅅ’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ㅅ’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짇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어러’는 ‘얼어’의 연결 표기이다. ‘얼-’은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남녀의 인연을 맺다’, ‘결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9-8 **네**: 수사 ‘넷’의 옛말인 ‘네ㅎ/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네히, 네흠, 네과’ 등과 같이 ‘네ㅎ’으로,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네’로 나타났다.

%9-9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0 **섬교디**: 섬기되. 섬기+--+오디(연결 어미).

%9-11 **꺄장**: 매우. 심하게. 지극히. 현대 국어에서 ‘가장’은 ‘最’의 의미로만 쓰이나 이전에는 ‘極, 大, 盡’ 등의 언해에 쓰여 ‘매우, 크게’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9-12 **불 붙거늘**: 불 붙으니. 화재가 나니. 불#붙+--+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3 **병허야**: 병들어. 병ㅎ+--+아(연결 어미). ‘병ㅎ-’는 명사 ‘병’과 동사 ‘ㅎ-’가 결합된 형태로, “병들다, 병이 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형태이다.

%9-14 **니러나디**: 일어나지. 날+--+어(연결 어미)#나+--+디(연결 어미). 어미 ‘-디>-지’의 구개음화가 되기 전의 표기이다.

%9-15 **드러가**: 들어가. 드러가+--+아(연결 어미). ‘드러가’는 동사 ‘들다’와 ‘가다’의 어간이 연결 어미 ‘-어’에 의해 통사적으로 합성된 것으로 ‘들어가’의 연결 표기이다.

%9-16 **내니라**: 꺼내었다. 내+--+니라(종결 어미).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

거 시제이다.

%9-17 **남진니**: 남편의. 남진+의(관형격 조사). ‘남진’의 중철 표기이다.

%9-18 **거상**: 거상(居喪). 소상(1년째 지내는 제사)과 대상(2년째 지내는 제사)을 합한 삼년상을 의미한다.

%9-19 **무차늘**: 마치니. 못+--+아닐(연결 어미). 연결 어미 ‘-아닐/어늘’은 ‘-거늘, -나닐, -야닐/어늘’과 이형태 관계로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용언 어간이 양성 모음을 지닐 때는 ‘-아닐’, 음성 모음을 지닐 때에는 ‘-어늘’이 결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 두 형태가 섞인 ‘-아닐’이 나타나고 있다.

%9-20 **다른 남진**: 다른 남자. 다른+--+ㄷ(관형사형 어미)#남진.

%9-21 **얼유려**: 남자와 맺어주려. 남자와 결혼시키려. 얼이+--+우려(연결 어미). ‘얼이-’는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동사 ‘얼-’에 사동의 접사 ‘이’가 결합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정절(貞節)을 지키는 과부(寡婦)를 강제로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어 주려고 한다”는 사동의 의미로 쓰였다.

%9-22 **닐오디**: 말하기를. 날+--+오디(연결 어미). ‘니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닐-’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오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가 탈락하면서 뒤 음절에 흔적을 남겨 ‘-되’로 변화하였다.

%9-23 **이시니**: 있으니. 이시+--+니(연결 어미). ‘이시-’는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이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잇-’으로 교체된다.

%9-24 **즈뢰허야**: 자뢰(資賴)하여. 의지하여. 즈뢰ㅎ+--+아(연결 어미).

%9-25 **ㅎ물며**: 하물며. ‘ㅎ물며’는 2음절 이하에서의 ‘·>ㅡ’의 변화와 양순음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 1음절에서의 ‘·>ㅈ’의 변화에 의하여 현대 국어의 ‘하물며’가 되었다.

%9-26 **죽글 저과**: 죽을 때에. 죽+--+을(관형사형 어미)#적+--+의(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의’, ‘에/애’는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들에 결합하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27 **날드려**: 나에게. 나+르드려(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 조사 ‘-더러’의 옛말인 ‘드려’는 “데리다”의 옛말인 동사 ‘드리-’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기원한 것이다. 중세 국어 시기에 ‘드려’가 조사로 정착하기 이전에는 종종 ‘-를 드려’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9-28 **일울**: 일을. 것을. 일+울(목적격 조사). ‘일울’의 연결 표기이다.

%9-29 **죽고모**: 죽음으로. 죽+--+음(명사형 어미)+오로(부사격 조사).

%9-30 **구태여**: 억지로. 현대어의 ‘구태여’와는 의미가 다르다.

%9-31 **얼이디 묻허니라**: (다른 남자와) 맺어주지 못하였다. 얼이+--+디(연결 어미)#묻ㅎ+--+니라(종결 어미). ‘얼-’은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로, ‘얼이-’는 그 사동형으로 “정절(貞節)을 지키는 과부(寡婦)를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니라’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라고 한다.

%9-32 **슬허ㅎ고**: 슬퍼하고. 슬어ㅎ+--+고(연결 어미). ‘슬허ㅎ-’는 동사어간 ‘슬-’에 강조를 나타내는 ‘-어 ㅎ-’ 구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슬-’은 사라지고 ‘슬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파생형용사 ‘슬프-’만이 남아 있다.

%9-33 **송장과**: 송장(送葬)과. 장례 치르는 것과. 송장+과(접속조사).

%9-34 **네탌다이**: 예법대로. 네탌#답(접미사)+--+이(부사형어미).

%9-35 **ㅎ니라**: 하였다. ㅎ+--+니라(종결 어미).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

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우(禹)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전라남도
- %10-5 지역2: 담양군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미상
- %10-8 신분: 미상
- %10-9 성별: 여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5ㄱ-15ㄴ

%1 강씨포시(姜氏抱屍)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5ㄱ

%3 강씨가 시신을 끌어안다

%4 강씨는 남원 사람으로 최자강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으니 시신을 안고 칠일 동안을 밥을 먹지 않다가 죽었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니 홍문을 세워 주셨다.

%5 %5-1강씨는 남원 %5-2사릉미니 최자강의 %5-3겨지비라 %5-4남진니 %5-5죽거늘 %5-6신테를 안고 날웨를 밥 아니 머거 %5-7주그니라 %5-8연즈와늘 홍문 %5-9세니라

%6 姜氏 南原人 崔自江妻 夫死 姜抱屍七日 不食而死 事聞旋聞 %6-1 15ㄴ

%7 강씨 남원인 최자강처 부사 강포시칠일 불식이사 사문정려 %7-1 15ㄴ

%8 강씨(姜氏)는 남원(南原) 사람이니 최자강(崔自江)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거늘 시체를 안고 이레를 밥을 안 먹어 죽으니라. (임금님께) 여쭙니 홍문 세우니라.

%9-1 강지논: 강씨는. 한자 씨(氏)의 독음이 이 시기에는 '시'였다.

%9-2 사릉미니: 사람이니. 사름+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름이니'의 연철 표기이다.

%9-3 겨지비라: 아내이다. '겨집+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의 연철 표기이다. '겨집'은 이 시기에는 '여자/아내' 등의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였으며 현대 국어에서와 같은 낮춤의 의미는 없었다.

%9-4 남진니: 남편이. 남진+이(주격 조사). '남진이'의 중철 표기이다. 한자 '인(人)'의 15세기 음은 '신'이었는데 이것이 '진'으로 나타난 것이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9-5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9-6 신테를: 시체를. 신테(←시테)+를(목적격 조사). '시테'를 '신테'로 표기한 것은 치찰음 앞에서의 'ㄴ' 첨가 현상인데 '까지>간치'의 예와 같다. 전라도 방언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원간본(가람문고본)에는 '屍시體테'로 표기되어 있다. '시테>시체'의 변화는 'ㄷ' 구개음화에 의한 것이다.

%9-7 주그니라: 죽었다. 죽-+-으니라(종결 어미). 이 시기에는 과거 시제가 부정법(不定法)으로 실현되었다.

%9-8 연즈와늘: 여쭙니. 아뢰니. 연-+-줄/즈오(-선어말 어미)+아늘(연결 어미). 겸양법의 객체존대선어말 어미인 '-줄-'은 '-술-'으로도 나타나는데, 15세기 중기에는 '-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줄-'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즈오-'로 나타난다.

%9-9 세니라: 세웠다. 세-[호]+-니라(종결 어미). '세-'는 자동사 '셔-'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자동사 어간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된 이중 사동의 형태이다.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

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강(姜)
- %10-3 본관: 진주
- %10-4 지역1: 전라북도
- %10-5 지역2: 남원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단종
- %10-8 신분: 양반
- %10-9 성별: 여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최자강 처 진주 강씨. 조선 전기 김천 지역의 열녀. 본관은 진주(晋州). 이조판서에 증직된 화순 최씨 최자강(崔自江)과 혼인하였다. 아들은 절의(節義)로 알려진 최선문(崔善門)이다. 진주 강씨의 남편 최자강이 중부령(中部令)으로 있던 37세에 전라도 광양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남편을 뜻을 좇는 것은 자식을 훌륭히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서 안 된다.”, “남자에게 의리를 빼면 허수아비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엄하고 바르게 훈도하였다. 남편이 13년간의 유배를 끝내고 고향인 김천시 양천동 하로 마을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집안이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였다. 하지만 병고에 시달리던 남편이 남원에 이르러 병사하였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남편에게로 달려간 강씨는 남편을 꺼안고, “이제라도 남편을 따르지 않으면 어찌 남의 아내라 하라!”고 말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7일간 남편의 살은 썩어 문드러졌으며, 그녀도 그 기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 결국 뼈만 남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 %11
-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6ㄱ-16ㄴ

%1 소사자서(召史自誓)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6ㄱ

%3 조이가 스스로 맹세하다

%4 조이는 산청 사람이다. 열여섯 살 때 남편이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죽으니 너무 슬피하여 뼈만 남은 모습이 되었다. 조이는 부모님께서 자기의 정절을 빼앗을까 두려워하며 늘 맹세하였다.

“내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어찌 저승에 가서 남편을 보겠습니까?”

그러더니 하루는 그녀의 부모님께서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려 하니 조이가 알고 목매달아 죽었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니 홍문을 세워 주셨다.

%5 %5-1조이는 %5-2단성 %5-3사르미라 %5-4나히 %5-5열여스새 %5-6남진니 나모하라 가 %5-7버미게 %5-8죽거늘 조이 %5-9슬허 썩만 %5-10잇더라 아버지 %5-11제 %5-12쁘들 %5-13아올가 허야 상네 밍세호디 내 다른 %5-14뭍몹곳 머그면 어찌 남진늘 %5-15짜 아래 가 보로 허더니 %5-16홀는 제 아버지 과연 남진 %5-17얼오려 현대 조이 %5-18알오 목 미야 두라 %5-19주그니라 %5-20열즈와늘 홍문 %5-21세니라

%6 召史 丹城人 年十六 其夫採薪 爲虎所害 召史 毀骨立恐 恐父母奪志 常自誓曰 我苦有他 將何以見亡人於地下 一日 其父母 果懲嫁召史 知之縊死 事聞旌閭 %6-1 16ㄴ

%7 소사 단성인 년십육 기부채신 위호소해 조이 휘척골립 공부모탈지 상자서왈 아고유타 장하이견망인어지하 일일 기부모 과육가소사 지지역사 사문정려 %7-1 16ㄴ

%8 조이(召史)는 단성(丹城) 사람이다. 나이 열여섯에 남편이 나무하러 가 범에게 죽거늘 조이 슬피 뼈만 있더라.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앗을까 하여 늘 맹세하되 내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어찌 남편을 땅 아래 가서 보리오 하더니 하루는 제 아버지가 과연 남편을 얻어주려 하니 조이가 알고 목매달아 죽으니라. (임금님께) 여쭙니 홍문 세우니라.

%9-1 **조이**는: 소사(召史)는. 조이+는(보조사). ‘召史’는 현대 국어에서는 ‘소사’로 읽히지만, 이 시기에는 “양민의 아내나 과부를 이르는 말.”로 ‘조이’라고 읽었다.

%9-2 **단성**: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丹城)면. ‘성>성’의 변화는 후기 중세 국어의 ㅅ의 음가와 근대 국어의 ㅅ의 음가가 달라진 데에서 온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의 표기상의 변화이다.

%9-3 **사르미라**: 사람이라. 사름+이-(서술격 조사)+-라(←다, 연결 어미). ‘사름이라’의 연결 표기이다.

%9-4 **나히**: 나이가. 나ㅎ+ㅣ(주격 조사). ‘나ㅎ/나’는 ‘나이’의 옛말로,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히, 나홀, 나과, 나토’ 등과 같이 ‘나ㅎ’으로, 그 밖의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변화였다.

%9-5 **열여스새**: 열 여섯에. 열#여섯+애(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형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츰, 낮, 밤, 앞, 봄, ㄱ술, 나조ㅎ, 스물ㅎ, 뒤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

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6 **남진니**: 남편이. 남진+이(주격 조사). '남진이'의 중철 표기이다. '남진(男人)'에서 '人'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9-7 **범의계**: 범에게. 호랑이에게. 범+의계(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에서는 '범'을 지칭하는 동물명으로 '호랑이'를 더 많이 사용한다. '호랑이'는 범을 나타내는 '虎'와 이리를 나타내는 '狼'이 결합된 것으로 무서운, 혹은 사나운 동물을 지칭하는 통칭이었다.

%9-8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9 **슬허**: 슬퍼. 슬-+-어(연결 어미). '슬허'는 동사어간 '슬-'에 강조를 나타내는 '-어'가 'ㅎ' 구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슬-'은 사라지고 '슬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파생형용사 '슬프-'만이 남아 있다.

%9-10 **있더라**: 있었다. 있-+-더(-선어말 어미)+-라(←-다, 종결 어미). 이 시기에는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나타나기 전이므로 '더'가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9-11 **제**: 제. 자기의.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9-12 **뜻들**: 뜻을. 뜻+을(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의 '뜻'과는 달리 "절개" 또는 "정절"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9-13 **아올가 햏야**: 앓을까 하여, 정절을 지키려는 마음을 빼앗을까 하여. 앓-+-올가(종결 어미)#햏-+-야(연결 어미).

%9-14 **무옴곳**: 마음. 무옴+곳(보조사). '무옴'은 2음절 이하에서의 '·>'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의 변화에 의하여 현대 국어의 '마음'이 되었다.

%9-15 **ㅈ 아래**: 땅 아래, 저승. ㅈ아래. 'ㅈ햏/ㅈ'는 '땅'의 옛말로,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ㅈ히, ㅈ흫, ㅈ과, ㅈ토' 등과 같이 'ㅈ햏'으로, 그 밖의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ㅈ'로 나타났다.

%9-16 **홀논**: 하루는. 홀+논(보조사). 현대 국어 '하루'의 15세기 어형 '홀르'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명사의 하나이다.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홀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홀리'로 나타난다. '홀르'는 '홀르'에 '논'이 결합한 형태인데, '홀르'이 '홀논'으로 표기된 것은 이른바 순행적 유음화(ㄹㄴ→ㄹㄹ)로 인한 역표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면 '홀리'가 된다.

%9-17 **얼오려**: 남자와 인연을 맺어 주려. 남자에게 시집보내려. 얼오-+-려(연결 어미). '얼-'은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사동형 '얼오-'가 쓰였다. '남진 얼오려'는 "정절(貞節)을 지키는 과부(寡婦)를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어주려 하다"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9-18 **알오**: 알고. 알-+-오(←-고, 연결 어미). 'ㄹ', 'ㅣ' 모음 다음의 'ㄱ' 탈락에 의하여 연결 어미 '-고'가 '-오'가 된 것인데, 이는 후기 중세 국어 시기의 특징으로 원간본의 표기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9-19 **주그니라**: 죽었다. 죽-+-으니라(종결 어미). '-으니라'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라고 한다.

%9-20 **연즈와늘**: 여쭙니. 아뢰니. 연-+-즈/즈오(-선어말 어미)+-아닐(연결 어미). 겸양법의 객체존대선어말 어미인 '-즈'는 '-술-'으로도 나타나는데, 15세기 중기에는 '-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즈'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는 '-즈오-'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아닐/어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거늘',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21 **세니라**: 세웠다. 세-[立]+-니라(종결 어미). '세-'는 자동사 '셔-'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자동사 어간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된 이중 사동의 형태이다.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미상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경상남도
- %10-5 지역2: 산청군 단성면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미상
- %10-8 신분: 미상
- %10-9 성별: 여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7ㄱ-17ㄴ

%1 옥금불오(玉今不汚)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7ㄱ

%3 옥금이 더럽혀지지 않다

%4 옥금은 함양 사람이다. 열일곱 살에 남편이 죽으니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옥금을 범하려 하니, 옥금은 이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 남자가 끝까지 쫓아와 문까지 따라오니 옥금은 이를 피하지 못할 줄 알고 목 매달아 죽었다.

%5 %5-1옥금이는 %5-2안음 %5-3사름이라 %5-4나히 %5-5열닐구배 %5-6남지니 %5-7죽거늘 %5-8시아버이 %5-9조차 %5-10사더니 %5-11제 %5-12무올 사름이 %5-13길헤 %5-14맛보아 %5-15어로려커늘 거스러 %5-16쫓디 %5-17아니터니 그 %5-18노미 다 %5-19조차 %5-20무늬 %5-21오나날 옥금이 %5-22면티 묻힐 줄 %5-23알오 목 미야 드라 %5-24주그니라

%6 玉今 安陰人 年十七 夫死 隨舅姑而居 路遇里人慾汚之 拒不從 里人逼之至門 玉今知不免 縊死 %6-1 17ㄴ

%7 옥금 안음인 년십칠 부사 수구고이거 로우리인옥오지 거부중 리인핍지문 옥금지불면 역사 %7-1 17ㄴ

%8 옥금(玉今)은 안음 사람이다. 나이 열 일곱에 남편이 죽거늘 시어버이를 따라 살더니 제 마을 사람이 길에서 만나 범하려 하거늘 거부하여 따르지 아니하더니 그 사람이 다 쫓아 문에 오니 옥금이 피하지 못할 줄 알고 목 매달아 죽으니라.

%9-1 옥금이는: 옥금이는. 옥금+이(접미사)+는(보조사).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 다음에 붙는다.

%9-2 안음: 안음. 경상남도 함양군의 옛 지명이다.

%9-3 사름이라: 사람이다. 사름+이(서술격 조사)+라(연결 어미). '사름이라'의 연철 표기이다.

%9-4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ㅎ/나'는 '나이'의 옛말로.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히, 나홀, 나과, 나토' 등과 같이 '나ㅎ'으로, 그 밖의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5 열닐구배: 열 일곱 살에. 열#닐곱+에(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츰, 낮, 밤, 앞, 봄, 7술, 나조ㅎ, 스물ㅎ, 뒤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6 남지니: 남편이. 남진+이(주격 조사). 한자 '인(人)'의 15세기 음은 '신'이었는데 이것이 '진'으로 나타난 것이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9-7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

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8 식어버이: 시부모님. 식#어버이. '어미, 아버'와 같이 기원적으로 접미사 '-이'가 들어 있는 체언(주로 유정 체언)들은 관형격 조사나 호격 조사와 통합할 때 '이'가 탈락한다.

%9-9조차: 쫓아. 쫓-+-아(연결 어미). 국어사적으로 '쫓->조차'의 문법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헌에서는 "(~의 뒤를) 따르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의 쓰임과 "까지"라는 의미를 지닌 조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동사로 쓰였다.

%9-10 사더니: 살았는데. 사-(←살-)+-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이 시기에는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나타나기 전이므로 '더'가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살'의 'ㄹ'이 탈락한 것은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ㄴ, ㄷ, ㅅ' 등으로 시작되는 형태와 결합할 때에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술+나무→소나무' '알+디→아디(知)' '딸+님→따님' '갈(耕)+소→가소' 등이 그 예이다.

%9-11 제: 제. 자기의.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9-12 무올: 마을. 2음절 이하에서의 '·>—'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ㅈ'의 변화에 의하여 현대 국어의 '마을'이 되었다. '무올ㅎ'은 '무솔ㅎ'에서 'ㅅ'이 소실된 모습을 보여 준다. '무올'은 이후 '무올>마을'의 변화와 종성의 'ㅎ' 탈락을 겪어 현대 국어의 '마을'이 되었다. 15세기에는 관청을 뜻하는 '마을'과 마을 뜻하는 '무솔ㅎ'이 형태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었다. 현대 국어 '마을'은 '무솔ㅎ>무올>무올>마을'의 변화를 겪어 왔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이들이 모두 '무올, 마을, 무올' 등으로 표기되었다.

%9-13 길헤: 길에서. 길ㅎ+에(부사격 조사). '길'은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길히, 길홀' 등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캐, 암돼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때 부사격 조사 '-이'는 '길히 마자 몽쥬를 터 주기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술어 '맛다'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할 때 "-에서"의 의미로 파악된다.

%9-14 맛보아: 만나. 맛보-+-아(연결 어미). '맛보-'는 동사 '맛-'과 '보-'의 어간이 직접 결합하여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맛-'의 'ㅈ' 받침이 'ㅅ'으로 표기된 것은 8종성 가축용에 의한 것이다.

%9-15 어로려커늘: 남녀 관계를 맺으려 하거늘, 결혼하려 하거늘. 열-+-오려(연결 어미)#ㅎ-+-거늘(연결 어미). '열-'은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로, 여기에서는 "남자가 정절(貞節)을 지키는 과부(寡婦)를 강제로 취하려고 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16 쫓디: 따르지. 쫓-+-디(연결 어미). 국어사적으로 '쫓->조차'의 문법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헌에서는 "(~의 뒤를) 따르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의 쓰임과 "까지"라는 의미를 지닌 조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동사로 쓰였다.

%9-17 아니터니: 않으니. 아니ㅎ-+-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아니ㅎ터니'에서 어간의 '·'가 탈락하고 'ㅎ'과 'ㄱ'이 축약된 형태이다.

%9-18 노미: 놈이. 사람이. 놈+이(주격 조사). '놈이'의 연철 표기이다. '놈'은 이 시기에는 현대 국어에서와 같은 낮춤의 의미는 없었다.

%9-19조차: 쫓아. 따라. 쫓-+-아(연결 어미). 국어사적으로 '쫓->조차'의 문법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헌에서는 "(~의 뒤를) 따르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의 쓰임과 "까지"라는 의미를 지닌 조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동사로 쓰였다.

%9-20 무늬: 문에. 문+의(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츰, 낮, 밤, 앞, 봄, 7술, 나조ㅎ, 스물ㅎ, 뒤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

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21 **오나늘**: 오니. 오--+나늘(연결 어미). '-나늘'은 '오-'에 결합하는 연결 어미로, '-거늘, -아늘/어늘, -야늘/여늘'과 이형태 관계에 있다.

%9-22 **면티**: 면하지. 면ㅎ-(←면ㅎ-)+-디(연결 어미). 어간의 '·'가 탈락하고 /ㅎ/과 /ㄷ/이 축약된 어형이다.

%9-23 **알오**: 알고. 알--+오(←-고, 연결 어미). 연결 어미 '-고'가 '-오'가 된 것은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ㄹ', 'ㅣ' 다음의 'ㄱ' 탈락에 의한 것인데, 원간본의 표기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9-24 **주그니라**: 죽었다. 죽--+으니라(종결 어미). '-으니라'의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10-1 주인공 명: 옥금(玉今)

%10-2 성씨: 미상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상남도

%10-5 지역2: 함양군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성종(1494년)

%10-8 신분: 평민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25년(1494년) 2월 13일(임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안음현(安陰縣)에 사는 선군(船軍) 이영미(李永未)의 처(妻) 옥금(玉今)이 지아비를 잃고 시부모[舅姑]를 따라 살더니, 사노(私奴) 돌만(堧萬)이 간음하려고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자, 옥금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옥금(玉今)이 강포(強暴)하게 핍근(逼近)해 오는 것을 길에서 항거한 바 있는데, 돌만 등이 재차 와서 위협 침범하기를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이 하였는데도 끝내 절개를 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항의 거절하니, <그 기운이> 늠름하여 범하지 못하였는데, 조용히 계책을 결정하고는 드디어 생명을 버리고 절개를 보전하였으니, 비록 옛 열부(烈婦)라 하더라도 이에서 지남이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이를 높이고 포장(褒獎)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여 뒷사람들에게 권면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녀(烈女)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하나만을 따라 일생을 마친다 하였으니, 만일 옥금이 재가(再嫁)한 여자라면 큰 절개를 이미 훼손(虧損)한 것이므로, 지금 비록 절개를 지켜 죽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높이고 포장하는 무거운 은전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옥금의 전부(前夫)의 유무(有無)를 다시 상고해 아뢰도록 하소서. 돌만은 그 강포(強暴)만 믿고 과부(寡婦)를 침범하여 기필코 오욕(汚辱)하려고 그 난포(亂暴)를 자행하여 <옥금으로 하여금> 목매어 죽게 하였으니, 그 간악 흉포함이 막심하여 풍교(風政)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이 사면(赦免) 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논하게 되면, 악한 자를 징계할 도리가 없습니다. 청컨대 전가 사변(全家徙邊)케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 추안(推案)을 살펴보고 전교하기를, “옛날 문왕(文王)의 교화(教化)가 남국(南國)에도 미쳐서 강한(江漢) 일대의 음란하던 풍속이 변하여 정숙(貞淑)하게 되었다 한다. 내 감히 문왕에 비할 수는 없으나 옥금(玉今)의 일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가(再嫁)한 여자라면 그 절개가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으니, 그의 재가 여부를 감사(監司)로 하여금 상세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는 것이 옳다. 돌만의 죄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25년(1494년) 4월 10일(무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안음현(安陰縣) 사람 이영미(李永未)의 아내 옥금(玉今)은 지아비가 죽은 뒤에 시아비와 시어미를 따라 같이 사는데, 어느 날 거창현(居昌縣)에 근친(親親) 가다가, 사노(私奴) 석을만(石乙萬) 등 세 사람이 길에서 만나 옥을 보이려 하니, 옥금이 굳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석을만 등이 또 와서 침핍(侵逼)하니, 옥금이 노하여 꾸짖기를, ‘간악한 종놈이 어찌 수절(守節)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무례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옥을 당하지는 않겠다.’고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그 절의가 가상하니,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정문(旌門)해서 뒷사람들을 권려(勸勵)하도록 하소서. 석을만(石乙萬) 등이 범한 죄가 비록 사유(赦宥)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풍속(風俗)과 교화(教化)를 해쳤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전 가족을 변방(邊方)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8ㄱ-18ㄴ

%1 옥금자액(玉今自縊)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8ㄱ

%3 옥금이 스스로 목을 매다

%4 옥금은 양평 사람으로 신계종의 딸이다. 향리 이순명과 결혼하였는데, 이순명이 죽으니 아침저녁으로 울면서 초하루와 보름에 직접 제사하였다. 삼년상을 마치니, 부모님께서 일찍 과부가 된 것을 가엽게 여겨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중매하여 약속을 정하였다. 옥금은 이런 부모님의 뜻을 피하지 못할 것을 알고 목욕한 후에 옷 갈아입고 목 매달아 죽었다. 그때 옥금의 나이 서른 두 살이었다. 1500년에 흥문을 세워 주셨다.

%5 %5-1옥금이는 %5-2양근 %5-3사르미니 %5-4신계종의 %5-5씨리라 %5-6항니 이순명이 %5-7어렸찌니 순명이 %5-8죽거늘 %5-9아춤 나죄 %5-10울오 %5-11초호르 보로매 친히 %5-12제허더니 %5-13탈상하야늘 어버이 %5-14일 홀어미 된 주를 %5-15어엿싸 너겨 다른 %5-16남진 열요려 %5-17듬미하야 괴약을 %5-18일명하야늘 문 면할 줄 %5-19알오 %5-20모욕 굶고 옷 7라 닦고 목 미야 7라 %5-21주그니라 %5-22나히 설 혼 %5-23돌히러라 흥티 저기 흥문 %5-24세시니라

%6 玉今 楊根人 愼戒中女 嫁群吏李順命 順命死 朝夕哭泣 親奠朔望服闋 父母憫其早孀 欲改嫁 媒約已定 知不可免 沐浴更衣 自縊而死 年三十有二 弘治十三年 旌閭 %6-1 18ㄴ

%7 옥금 양근인 신계중녀 가군리이순명 순명사 조석곡을 친전삭망복결 부모민기조상 옥개가 매약이정 지불가면 목욕갱의 자액이사 년삼십유이 흥치십삼년 정려 %7-1 18ㄴ

%8 옥금(玉今)은 양근(楊根) 사람이니 신계중(愼戒中)의 딸이다. 향리 이순명(李順命)을 남편으로 맞았더니 순명이 죽거늘 아침저녁 울고 초하루 보름에 친히 제사하고 탈상하니 어버이 일찍 홀어미 된 것을 불쌍히 여겨 다른 남자에게 개가(改嫁) 시키려 중매하여 약속을 정하니 못 면할 줄을 알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목 매달아 죽으니라. 나이 서른 둘이라. 흥치(弘治) 적에 흥문 세우시니라.

%9-1 옥금이는: 옥금이는. 옥금+이(접미사)+는(보조사).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 다음에 주로 붙는다.

%9-2 양근: 양근과 지평을 합하여 지금은 양평이라 한다.

%9-3 사르미니: 사람이니. 사름+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름이니’의 연결 표기이다.

%9-4 신계종의: 신계중의. 신계등+(의(관형격 조사)). ‘申’의 독음은 ‘등>중’으로 구개음화와 단모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표기이다.

%9-5 씨리라: 딸이다. 씨+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씨이라’의 연결 표기이다.

%9-6 항니: 향리. 고려 및 조선 시대에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말단 관인 계층이다. 지방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던 고려 시대와는 달리, 중앙집권화를 추구했던 조선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영향력이 한정

되었으며, 그 신분 또한 상승의 기회가 박탈되어 중인 신분으로 정착되었다. 그들의 신분은 보통 혼인에 의해 세습되었다. 해당 지역의 조세, 형옥, 영송(迎送), 공문서 작성 등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였다.

%9-7 어렸찌니: 결혼하였는데. 어리+-엇-(선어말 어미)+-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선어말 어미 ‘-더-’가 된소리로 나는 것을 ‘-찌-’로 표기한 것이다.

%9-8 죽거늘: 죽으니.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야닐/여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9 아춤 나죄: 아침저녁. 아춤#나죄. “저녁”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조ㅎ’과 ‘나죄’의 어형이 공존하였다. ‘나죄’는 기원적으로 ‘나조ㅎ’에 부사격 조사 ‘이’가 통합한 ‘나조히’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어형으로 부사격 조사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9-10 울오: 울고, 울며. 울+-오(←고, 연결 어미). 중세 국어에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 선행요소가 ‘ㄹ’이나 ‘ㄷ’일 때 ‘ㄱ’이 약화된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의 다른 부분에서 확인되는 ‘살고’를 고려할 때 ‘ㄱ’ 약화 현상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원간본의 표기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9-11 초호르 보로매: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초호르#보름+애(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춤, 낮, 밤, 앞, 봄, 나조ㅎ, 7술, 스름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애/에’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12 제허더니: 제사 지내고. 제ㅎ+-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9-13 탈상하야늘: 상을 마치니. 탈상ㅎ+-야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야늘’은 ‘-어늘, -거늘, -나닐’과 이형태 관계로,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9-14 일: 일찍.

%9-15 어엿싸: 가엽게. 불쌍하게. 어엿브+-이(접미사).

%9-16 남진 열요려: 남자와 인연을 맺어 주려. 남자에게 시집보내려. 남진#열오+-려(연결 어미). ‘남진(男人)’에서 ‘ㅅ’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ㅅ’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ㅅ’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짇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어러’는 ‘얼어’의 연철 표기이다. ‘얼’은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정절(貞節)을 지키는 과부(寡婦)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려고 한다”라는 사동의 의미로 쓰였다.

%9-17 듨미하야: 중매하여. 듨미ㅎ+-아(연결 어미). ‘듨매>중매’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의 표기이다.

%9-18 일명하야늘: 정하니. 일명ㅎ+-야늘(연결 어미). ‘일명>일정(一定)’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의 표기이다.

%9-19 알오: 알고. 알+-오(←고, 연결 어미). 연결 어미 ‘-고’가 ‘-오’가 된 것은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ㄹ’, ‘ㄷ’ 다음의 ‘ㄱ’ 탈락에 의한 것인데, 원간본의 표기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9-20 모욕 굶고: 목욕하고. 모욕#굶+-고(연결 어미). ‘목욕(沐浴)’이 ‘모욕’이 된 것은 ‘목(沐)’의 음절 말 ‘ㄱ’이 탈락한 것이다. ‘목단(牧丹)>모단>모란’의 예와 같다.

%9-21 주그니라: 죽었다. 죽+-으니라(종결 어미). ‘-으니라’의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9-22 나히: 나이가. 나ㅎ+이(주격 조사). ‘나ㅎ/나’는 ‘나이’의 옛말로,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히, 나흘, 나과, 나토’ 등과 같이 ‘나ㅎ’으로, 그 밖의 조사 앞

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나’로 나타났다. ‘나ㅎ’에 ‘-이’가 결합한 ‘나히’에서 현대 국어와 같은 ‘나이’로 발전하였다.

%9-23 **둘히러라**: 둘ㅎ+이-(서술격 조사)+-러(←-더-, 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 수사 ‘둘ㅎ/둘’은 모음이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둘히, 둘흠, 둘라, 둘토’ 등과 같이 ‘둘ㅎ’으로, 그 밖의 조사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둘’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에서 ㅎ을 보유했던 체언은 근대 국어 이후에 종성의 ㅎ이 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수사 ‘세ㅎ, 네ㅎ’는 각각 ‘셋, 넷’으로 종성의 ㅎ이 ㅅ으로 변하였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캐, 암태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나타나기 전이므로 ‘더’가 과거 시제 기능을 담당하였다.

%9-24 **세시니라**: 세우+시-(선어말 어미)+-니라(종결 어미). ‘세-’는 자동사 ‘셔-’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자동사 어간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된 이중 사동의 형태이다.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10-1 주인공 명: 옥금(玉金)

%10-2 성씨: 미상

%10-3 본관: 미상

%10-4 지역1: 경기도

%10-5 지역2: 양평군 양평리 양근리

%10-6 시기: 조선

%10-7 연도: 연산군(1500년)

%10-8 신분: 평민

%10-9 성별: 여

%10-10 역사 사건:

%10-11 기타

양근(楊根). 경기도 양평 지역의 옛 지명. 양근과 지평을 합하여 양평이라 한다.

향리(鄉吏). 고려 및 조선 시대에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말단 관인 계층. 지방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던 고려 시대와는 달리, 중앙집권화를 추구했던 조선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영향력이 한정되었으며, 그 신분 또한 상승의 기회가 박탈되어 중인 신분으로 정착되었다. 그들의 신분은 보통 혼인에 의해 세습되었다. 해당 지역의 조세, 형옥, 영송(迎送), 공문서 작성 등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였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총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綽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9ㄱ-19ㄴ

%1 정씨불식(鄭氏不食)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19ㄱ

%3 정씨가 먹지 않다

%4 정씨는 상주 사람으로 홍문관 교리 권달수의 아내이다. 연산군(조선의 제10대 왕) 때에 폐비 율씨에게 왕비의 칭호를 주려고 하였는데, 권달수가 이를 반대하니 연산군이 권달수를 죽였다. 정씨는 시골에서 이 소식을 듣고 울음을 그치지 못하였는데 눈물이 다하여 눈에서 피가 흘렀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기를 두 달 넘게 하다가 종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 바로 죽지 않았겠는가? 차마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편의 시신이 오면 장례를 치르고 나도 그 곁에 묻히려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기운이 벌써 다하니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는 몹시 울다 죽었다. 중종(조선의 제11대 왕)이 이 사실을 듣고 권달수에게는 도승지를 주시고 정씨에게는 숙부인을 하사하고 홍문을 세워 주셨다.

%5 %5-1명시는 %5-2양쥬 %5-3사르미니 %5-4교리 %5-5권달수의 %5-6안해라 연산 %5-7저기 폐비를 %5-8투존호려커늘 %5-9달쥬 묻히려 %5-10하야늘 연사니 %5-11주기니라 명시 %5-12식골서 %5-13괴별 듣고 %5-14우루물 그치디 %5-15아니하니 %5-16눈물이 %5-17진하야 피 %5-18나더라 밝이며 %5-19물도 %5-20아니 마시물 두 달 남더니 %5-21종드려 %5-22날오디 내 어찌 죽제 죽디 아니하리오마는 차마 죽디 %5-23아니호문 %5-24남진의 %5-25신태 %5-26오나든 보와 %5-27송장하고 나도 그 %5-28겨티 무티려 %5-29하디니 %5-30내 원을 %5-31일우디 묻하야셔 %5-32괴운이 %5-33하마 진히니 %5-34내 주그리로드 하고 %5-357장 %5-36울오 %5-37주그니라 %5-38공희대왕이 %5-39권달수란 도승지 %5-40투증히시고 %5-41명시란 %5-42숙부인 봉하야 홍문 %5-43세시니라

%6 鄭氏 尙州人 監察繼金之女 適安東權達手 燕山甲子 讓追尊廢妃尹氏 達手時爲弘文館校理 以爲不可 遂被殺 時鄭氏在咸昌村舍 聞之 號哭不絕聲 淚盡繼血 食飲不入口者 凡六十餘日 語侍婢曰 我豈不能卽死 忍活至今者 待夫骸還葬 我便托骨其側耳 吾願未遂 而氣力已盡 吾其死矣 乃痛哭而絕 恭僖大王 贈達手都承旨 鄭氏淑夫人旌其閭 %6-1 19ㄴ

%7 정씨 상주인 감찰계금지녀 적안동권달수 연산갑자 이추존폐비율씨 달수시위홍문관교리 이위불가 촉피살 시정씨재함창촌사 문지 호곡부절성 루진계혈 식음불입구자 범욕십여일 어시비알 아개불능즉사 인할지금지 대부해환장 아편탁골기촉이 오원미수 이기력이진 오기사의 내통곡이절 공희대왕 증달수도승지 정씨숙부인정기려 %7-1 19ㄴ

%8 정씨(鄭氏)는 상주(尙州) 사람이니 교리(校理) 권달수(權達手)의 아내이다. 연산 때에 폐비를 추존(追尊)하려 하거늘 달수가 못 하리라 하여 연산이 죽이니라. 정씨 시골에서 소식을 듣고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니 눈물이 다하여 피가 나더라. 밥이며 물도 안 마시물 두 달 넘더니 종에게 이르되 내 어찌 죽지 죽지 아니하리오마는 차마 죽지 아니함은 남편의 시신이 오거든 보고 장사하고 나도 그 곁에 묻히려 하더니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기운

이 벌써 다하니 내가 죽으리다 하고 몹시 울고 죽으니라. 공희대왕이 권달수는 도승지를 추증(追贈)하시고 정씨는 숙부인을 봉하여 흥문 세우시니라

%9-1 **명시논**: 정씨는. 명#시+논(보조사). 당시 '氏'의 한자음이 '시'였음을 알 수 있다. '명>정(鄭)'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의 표기이다.

%9-2 **상쥬**: 상주. 한자 '주(州)'의 독음이 이 시기에는 '쥬'와 '쥬'가 공존하였는데 이 문헌에 서는 주로 '쥬'가 쓰였다.

%9-3 **사름이니**: 사람이니. 사름+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름이니'의 연철 표기이다.

%9-4 **교리**: 교리(校理). 조선 시대에, 집현전, 홍문관, 교서관, 승문원 따위에 속하여 문헌(文翰)의 일을 맡아보던 문관 벼슬. 정오품 또는 중요품이었다. 교리는 경연관, 사관, 지제교를 겸했으며 삼사의 일원으로 언론 활동에 참가하기도 했다.

%9-5 **권달수의**: 권달수의. 권달수+의(관형격 조사). '슈>수'의 변화는 처음 다음에서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의한 것이다.

%9-6 **안해라**: 아내이다. 안해+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9-7 **저긔**: 시대에. 적+의(관형격 조사). 때[時]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적'과 조사 '의'가 결합된 '적의'가 연철 표기된 것이다. 부사격 조사 '이/의', '에/애'는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들에 결합하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8 **튬존호러커늘**: 추존(追尊)하려 하였는데. 튬존ㅎ--오러(연결 어미)#ㅎ--거늘(연결 어미). '튬>추(追)'의 구개음화와 단모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의 표기이다.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9-9 **달슈**: 달수가. 달슈+ㅣ(주격 조사).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체언의 말이 자음일 때는 '이'로 실현되고 모음일 때는 'ㅣ'로 실현되어 그 모음과 결합하여 하향 이중모음을 형성한다. 또 체언의 말이 모음 '이(i)'나 하향이중모음인 'ㅣ(y)'로 끝날 때에는 주격 조사가 문장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때 체언의 끝 음절 모음의 성조가 평성(平聲)이면 양성(上聲)으로 그 성조가 바뀌고, 체언의 끝 음절 모음이 거성(去聲) 또는 상성(上聲)이면 성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10 **ㅎ아닐**: 하니. ㅎ--어닐(연결 어미). 연결 어미 '-아닐'은 '-거늘, -나닐, -어닐'과 이형태 관계로, 주로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9-11 **주기니라**: 죽었다. 주기--니라(종결 어미). '-니라'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라고 한다.

%9-12 **식골서**: 시골에서. 식골+서(부사격 조사). '식>시'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이다.

%9-13 **기별 들고**: 소식 들고. 기별#들--고(연결 어미). '기별>기별'의 변화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이다.

%9-14 **우루물**: 울음을. 울--+음(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음/-음'이 쓰였고, 명사 파생 접사로는 '-음/-음'이 쓰였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음(←-음)'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기'의 쓰임이 늘어났다.

%9-15 **아니 하니**: 아니오니. 아니ㅎ--니(연결 어미). '아니ㅎ->않-'의 변화는 18세기 이후에 일어난다.

%9-16 **눈물어**: 눈물이. 눈물+이(주격 조사). '눈물>눈물'은 양순 자음 아래에서 원순모음화 현상을 겪었다.

%9-17 **진하야**: 다하여. 진(盡)ㅎ--야(연결 어미).

%9-18 **나더라**: 났다. 나--더-(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 이 시기에는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나타나기 전이므로 '더'가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9-19 **물도**: 물도. 물+도(보조사). 양순음 'ㄹ' 아래에서 원순모음화에 의하여 '물>물'이 되었다.

%9-20 **아니 마시물**: 안 마심을. 아니#마시--+ㅁ(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명사형 어미가 '-음/음'의 형태가 아닌 '-음/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9-21 **종드려**: 종에게. 종+드려(부사격 조사). '종>종'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이다. 현대 국어 조사 '-더러'의 옛말인 '드려'는 "데리다"의 옛말인 동사 '드리'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기원한 것이다. 중세 국어 시기에 '드려'가 조사로 정착하기 이전에는 종종 '-를 드려'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9-22 **닐오디**: 말하기를. 닐+--오디(연결 어미). '니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닐'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오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가 탈락하면서 뒤 음절에 흔적을 남겨 '-되'로 변화하였다.

%9-23 **아니호문**: 앓음은. 아니#ㅎ--+음(명사형 어미)+은(보조사).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음/-음'이 쓰였고, 명사 파생 접사로는 '-음/-음'이 쓰였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음(←-음)'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기'의 쓰임이 늘어났다.

%9-24 **남진의**: 남편의. 남진(男人)+의(관형격 조사). '남진(男人)'에서 'ㅅ'의 15세기의 한자음은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ㅅ'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ㅅ'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9-25 **신테**: 시체. 시신. 신테. '시테>신테'는 치찰음 앞에서의 ㄴ 첨가 현상인데 '까치>간치'의 예와 같다. 남부 방언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續三綱行實圖』 동양문고본과 원간본(가람문고본)에는 '屍身體테'로 표기되어 있다. '시테>시체'는 구개음화와 단모음화를 겪은 것이다.

%9-26 **오나든**: 오면, 오거든. 오--+나든(연결 어미).

%9-27 **송장 하교**: 장사지내고. 송장(送葬)ㅎ--고(연결 어미).

%9-28 **겨티**: 곁에. 옆에. 곁+의(부사격 조사). '곁'은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옆'을 의미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유정체언의 옆을 의미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는바 사전에서는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라고 풀이하고 있다.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츰, 낮, 밤, 앞, 봄, 7월, 나조ㅎ, 스물ㅎ, 뒤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애'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9-29 **ㅎ다니**: 하였더니. ㅎ--다니(연결 어미).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라고 한다.

%9-30 **내**: 나의. 나+ㅣ(관형격 조사).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인칭 대명사의 주격형과 관형격 형은 그 실현형이 같아서 성조로 구별되었다. 1인칭 단수 대명사 '나'의 주격형과 관형격 형은 '내'인데 이들은 성조로 구별되어 주격형은 거성(去聲)으로, 관형격형은 평성(平聲)으로 나타났다.

%9-31 **일우디**: 이루지. 일우--디(연결 어미). 어미 '-디>-지'의 구개음화가 되기 전의 표기이다.

%9-32 **괴운어**: 기운이. 괴운+이(주격 조사). '괴운>기운'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의한 현상이다.

%9-33 **흐마:** 벌써.

%9-34 **내:** 내가. 나+이(주격 조사).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인칭 대명사의 주격형과 관형격형은 그 실현형이 같아서 성조로 구별되었다. 1인칭 단수 대명사 '나'의 주격형과 관형격형은 '내'인데 이들은 성조로 구별되어 주격형은 거성(去聲)으로, 관형격형은 평성(平聲)으로 나타났다.

%9-35 **꺄장:** 매우. 심하게. 몹시. 현대 국어에서 '가장'은 '最'의 의미로만 쓰이나 이전에는 '極, 大, 盡' 등의 언해에 쓰여 '매우, 크게'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9-36 **울오:** 울고, 울며. 울--+오(←고, 연결 어미). 중세 국어에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 선행요소가 'ㄹ'이나 'ㅣ'일 때 'ㄱ'이 약화된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의 다른 부분에서 확인되는 '살고'를 고려할 때 'ㄱ' 약화현상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원간본의 표기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9-37 **주그니라:** 죽었다. 죽--+으니라(종결 어미). '-으니라'의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9-38 **공희대왕이:** 공희대왕+이(주격 조사).

%9-39 **권달슈란:** 권달수는. 권달슈+란(보조사). '슈>수'의 변화는 치음 다음에서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의한 것이다. '으란/란'은 목적어에 통합하여 주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현대 국어의 '는'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보조사이다.

%9-40 **류증흐시고:** 추증(追贈)하시고. 류증흐--+시-(선어말 어미)+-고(연결 어미). '류증'은 구개음화 이전의 표기이다.

%9-41 **명시란:** 정씨는. 명#시+란(보조사). 당시 '氏'의 한자음이 '시'였음을 알 수 있다. 보조사 '으란/란'은 목적어에 통합하여 주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현대 국어의 '는'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보조사이다.

%9-42 **숙부인:** 숙부인. '숙>숙'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의한 것이다.

%9-43 **세시니라:** 세우셨다. 세--+시-(선어말 어미)+-니라(종결 어미). '세-'는 자동사 '셔-'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현대 국어 '세우다'는 자동사 어간 '셔-'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된 형태이다. '-니라'가 과거 시제를 갖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는 경우 이를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라고 한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정(鄭)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경상북도
- %10-5 지역2: 상주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연산군(1504년)
- %10-8 신분: 양반
- %10-9 성별: 여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1년(1506년) 11월 24일(기해) 첫 번째 기사.

강중진이 아뢰기를,

“폐왕 때 만조의 군신이 모두 거짓을 따라 구차스럽게 영합하였으니, 유독 김처선(金處善)은 직언하다가 죽었고, 권달수(權達手)의 아내는 정조를 지키다가 죽었으니, 이와같은 사람을 포상하여 사풍(士風)을 장려하소서. 즉위하신 처음에 마땅히 선을 포상하고 악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청컨대 그 방을 파하고, 그 사람을 내쳐서 사습을 새롭게 하소서.” 하니, 유허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중종 1년(1506년) 11월 28일(계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헌납 강중진(康仲珍)이 아뢴 바 있던 교리 권달수(權達手)의 아내 정씨(鄭氏)의 일을 다시 물어 아뢰라.”

하였다. 중진이 아뢰기를,

“정씨는 남편이 피주(被誅)됨을 듣고, 상주(尙州)에서 함창(咸昌) 고모의 집에 왔는데, 그 고모가 죽(粥)을 권하니, 대답하기를, '내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살아서 무엇하느냐?' 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교리(校理). 조선 시대 집현전, 홍문관, 승문원, 교서관 등에 배치된 정·종오품의 관직. 주로 해당 관아의 실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권달수(權達手). 1469(예종 1)~1504(연산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 1492년 문과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었고 정언, 이조좌랑 등을 거쳐 대교(待敎)가 되었다. 1498년 수찬, 부교리를 역임했다. 1504년 연산군이 생모 윤씨를 종묘에 모시려 하자, 이에 반대하다가 의금부에 하옥되어 장형을 받고 유배되었다. 그 뒤 다시 압송되어 국문을 받다가 죽었다.

연산군(燕山君). 조선의 제10대왕. 1476~1506. 재위기간은 1494년부터 1506년까지이다. 조선 최초로 폐위된 왕이다. 음탕하고 포악했다고 전한다. 두 차례의 옥사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했고, 언론 관련 제도 및 경연 제도 등을 모두 중단시켜버렸다. 결국 1506년 반정이 일어나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폐비. 여기서는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를 가리킨다. 윤씨는 성종의 계비로 연산군 때에 제헌 왕후(齊憲王后)로 추존되었으나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그 관작 또한 모두 폐위되었다.

공희대왕(恭僖大王). 조선의 제11대 왕인 중종의 시호. 1488~1544. 재위 기간은 1506년부터 1544년까지이다. 연산군을 폐위시킨 1506년의 반정을 통하여 왕으로 추대되었다. 재위 초기 조광조를 필두로 하는 신진 사람 세력 등용하여 개혁을 추구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자신도 조광조의 근본주의적 유교관, 군주관에 치저 훈구파와 모종의 합의 하에 기묘사화를 일으켰다. 재위 기간은 긴 편이었으나 반정으로 왕위에 추대된 한계 등으로 인해 정국 운영이 굉장히 불안정했다.

도승지(都承旨). 조선 시대 왕명 출납의 임무를 맡았던 승정원의 정삼품직. 도승지는 겸직으로 다른 직책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3품이었으나 왕의 비서역할을 하면서 인제 선발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정승에 필적하는 권력을 가지기도 했다.

홍문(紅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붉은 문을 말한다. 작설(緯楔), 정문(旌門)이라고도 하며 홍살문이라고도 칭한다. 이 홍문을 세우는 일을 정려(旌閭)라고 한다. 보통 홍문이 세워지면 해당 인물이나 집안에는 역을 면해주는

특혜가 주어지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이 홍문은 당시 시대에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갑자사화. 1504년 연산군이 일으킨 사화.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는 성종대인 1479년 폐위되고 이듬해에 사사(賜死)하였다. 즉위 후 이를 알게 된 연산군은 사건과 관련된 후궁을 죽이고, 윤씨를 다시 왕비로 추존하려고 하였다. 이 때 권달수가 반대하다가 장형을 받고 문초를 당하다가 죽었다. 그 뒤 연산군은 윤씨 폐위 및 사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 죄를 묻기 시작하였다. 결국 10명이 넘는 인원이 사형에 처해졌고, 이미 죽은 이들은 부관참시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연산군의 복수극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연산군이 자신을 옹아매는 신하들을 견제하고 억누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하들 사이에서도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연산군을 부추긴 상황이 보인다. 이 사화로 인해 사람 세력이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종종 반정을 앞당긴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1

%12 유경민

%0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20ㄱ-20ㄴ

%1 이씨수신(李氏守信)

%2 동국속삼강행실도(열녀) 20ㄱ

%3 이씨가 신의를 지키다

%4 이씨는 산청 사람으로 정계형의 아내이다. 정계형이 죽고 슬피하면서 삼년상을 마치니, 부모님이 이씨가 일찍 과부된 것을 가엾게 여겨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다. 이씨는 이 사실을 알고 소리 내어 슬피 울고 집 앞의 저수지에 빠져 죽으려 하였는데, 마침 마을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 집 사람을 불러 건져냈다. 이씨가 오랜 후에야 살아나 말하였다.

“아내가 한 남자를 따라야 하는데 죽지 않고 무엇하겠습니까?”

하고, 이십여 일을 밥 먹지 않으니 부모님께서 그 뜻이 굳은 줄을 알고 강제로 시집 보내지 않았다. 이씨는 아주버님(남편의 형)의 딸과 함께 살았는데, 부모님이 이것을 말리니 대답하였다.

“내가 이 아이에게 덕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을 위하여 몸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씨는 부모님께서 모두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였다.

%5 %5-1니시는 %5-2단성 %5-3사르미니 %5-4명계형의 %5-5안해라 계형이 %5-6죽거늘 %5-7슬허허더니 %5-8거상 %5-9바사늘 아버지 %5-10일 흠어미 된 줄 %5-11어엿네 너겨 다큰 %5-12남진 %5-13얼우려 현대 니시 %5-14울오 집 앞 방툭 %5-15므레 가 %5-16드러 %5-17주그러커늘 %5-18뎡울 %5-19사르미 %5-20마초와 보고 제 집 사름 %5-21블러 %5-22건데내여늘 %5-23오라계야 %5-24사라나 %5-25닐오디 %5-26겨지비 %5-27허나홀 %5-28조차 %5-29종신희 %5-30거시니 아니 주겨쳐 %5-31므슴 흐로 스므나몬 나를 밥 %5-32먹디 %5-33아니커늘 아버지 그 %5-34쁘디 대견헌 줄 알고 %5-35구턱우디 %5-36아니허니 니시 남진의 형의 썩를 더브러 %5-37사더니 아버지 %5-38말인대 %5-39디답호디 %5-40내 이 %5-41아히를 덕 니블 %5-42주리 아니라 주근 남진 위허야 %5-43슈신희려 %5-44흔는 계괴라 니시 아버지 다 %5-45릍더니 종신희록 %5-46효도 허니라

%6 李氏 丹城人 鄭季亨妻 季亨死 哀毀終喪 父母 憐其早寡 欲奪志 李氏號哭 抵家前澗水自溺 里人適見之 呼其家人拯出 良久乃甦曰 婦人終一而終 不死何為 不食數旬 父母知其志堅 不敢強 李氏取夫兄之女與居 父母禁之 答曰 非欲賴兒生活 為亡夫守信之計耳 姑舅俱年老 終身孝養 %6-1 20ㄴ

%7 이씨 단성인 정계형처 계형사 애훼증상 부모 런기조과 욱탈지 이씨호곡 저가전저수자낙 리인적견지 호기가인증출 양구내소왈 부인종일이종 불사하위 불식수순 부모지기지견 불감강 이씨취부형지녀여겨 부모금지 답왈 비욕뢰아생활 위망부수신지계이 고구구년로 종신희양 %7-1 20ㄴ

%8 이씨(李氏)는 단성(丹城) 사람이니 정계형(鄭季亨)의 아내이다. 계형이 죽거늘 슬피하더니 거상을 벗으니 아버지가 일찍 흠어미 된 것을 불쌍히 여겨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려 하니 이씨가 울며 집 앞 방죽 물에 빠져 죽으려 하거늘 마을 사람이 마침 보고 제 집 사람 불

러 건져내니 오랜 후에야 살아나 이르되 아내가 하나를 좇아 종신할 것이니 아니 죽어 무엇하겠는가 이십여 일을 밥 먹지 않으니 아버지 그 뜻이 굳은 줄 알고 강제로 하지 않으니 이씨가 남편의 형의 딸과 더불어 살더니 아버지 말리시니 대답하기를 내 이 아이의 덕을 입으려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을 위하여 몸을 지키려 하는 계교라. 이씨 아버지가 다 늙으셨으니 종신토록 효도하니라.

- 9-1 **니시논**: 이씨는. 니#시+논(보조사). ‘氏’자의 독음이 이 시기에는 ‘시’였다.
- 9-2 **단성**: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丹城)면. ‘성>성’의 변화는 후기 중세 국어의 ㅅ의 음가와 근대 국어의 ㅅ의 음가가 달라진 데에서 온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의 표기상의 변화이다.
- 9-3 **사름이니**: 사람이니. 사름+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사름이니’의 연철 표기이다.
- 9-4 **덩계형의**: 정계형의. 덩계형+의(관형격 조사). ‘덩>정(鄭)’의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표기이다.
- 9-5 **안해라**: 아내이다. 안해+이-(서술격 조사)-라(종결 어미).
- 9-6 **죽거늘**: 죽자. 죽+--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 9-7 **슬허허더니**: 슬퍼하더니. 슬허허+--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슬허허’는 동사 어간 ‘슬-’에 강조를 나타내는 ‘-허 허-’ 구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슬-’은 사라지고 ‘슬디’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파생형용사 ‘슬쁘-’만이 남아 있다.
- 9-8 **거상**: 거상(居喪). 소장(1년째 지내는 제사)과 대상(2년째 지내는 제사)을 합한 3년-삼년상을 의미한다.
- 9-9 **바사늘**: 벗으니, 마치니. 바+--아닐(연결 어미). “(옷을) 벗다”라는 의미로 ‘바+’과 ‘벗-’이 공존하였다.
- 9-10 **일**: 일찍.
- 9-11 **어엿째**: 불쌍히. 가엿게. 어엿브+--이(접미사).
- 9-12 **남진**: 남편. ‘남진(男人)’은 “사내”와 “남편”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 ‘男’의 ‘ㅅ’의 15세기의 한자음이 ‘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ㅅ’이 소실되어 ‘인’이 되었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ㅅ’이 ‘ㅈ’으로 남기도 하였다.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 9-13 **얼우려**: 남자에게 시집보내려. 얼우+--려(연결 어미). ‘얼-’은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단어로, ‘얼우-’는 그 사동형이다. 여기에서는 정절(貞節)을 지키는 과부(寡婦)를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려고 한다는 사동의 의미로 쓰였다.
- 9-14 **올오**: 울고, 울며. 올+--오(←고, 연결 어미). 중세 국어에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 선행요소가 ‘ㄹ’이나 ‘ㄷ’일 때 ‘ㄱ’이 약화된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의 다른 부분에서 확인되는 ‘살고’를 고려할 때 ‘ㄱ’ 약화현상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원간본의 표기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 9-15 **므레**: 물에. 물+에(부사격 조사). 양순음 ‘ㄹ’ 아래에서 원순모음화에 의하여 ‘물>물’이 되었다. 부사격 조사 ‘이/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평성의 일음절 고유어 명사 ‘집, 아침, 낮, 밤, 앞, 봄, 나초ㅎ, 7술, 스물ㅎ’ 등과 같은 특정한 명사와 한정되어 결합하여 쓰였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차츰 부사격 조사 ‘이/의’와 ‘에/에’가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 9-16 **드러**: 들어. 들어가. 들+--어(연결 어미). ‘들어’의 연철 표기이다.
- 9-17 **주그려커늘**: 죽으려 하니. 죽+--으려(부사형어미)#ㅎ+--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

-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 9-18 **므울**: 마을. 2음절 이하에서의 ‘>’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ㅈ’의 변화에 의하여 현대 국어의 ‘마을’이 되었다. ‘므울ㅎ’은 ‘므울ㅎ’에서 ‘ㅅ’이 소실된 모습을 보여 준다. ‘므울’은 이후 ‘므울>마을’의 변화와 종성의 ‘ㅎ’ 탈락을 겪어 현대 국어의 ‘마을’이 되었다. 15세기에는 관청을 뜻하는 ‘마을’과 마을 뜻하는 ‘므울ㅎ’이 형태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었다. 현대 국어 ‘마을’은 ‘므울ㅎ>므울>므울>마을’의 변화를 겪어 왔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이들이 모두 ‘므울, 마을, 므울’ 등으로 표기되었다.
- 9-19 **사름미**: 사람이. 사름+이(주격 조사). ‘사름이’의 연철 표기이다.
- 9-20 **마초와**: 맞추어. 마침. 마초+--어(연결 어미). ‘마초어’에서 원순성 동화가 일어나 ‘마초와’ 형태가 되었다. ‘마초-’는 ‘맞-’의 사동 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때맞추어’의 풀로 쓰여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시기에 알맞도록’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 9-21 **블러**: 불러. 블-(←브르-)+--어(연결 어미). 현대 국어의 ‘부르다’는 ‘브르다’의 ‘브’가 양순음 ‘ㅂ’ 아래에서 ‘->ㅍ’의 원순모음화를 겪은 결과이다.
- 9-22 **건더내어늘**: 건져내니. 건디+--어(부사형어미)#내+--어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아닐/어늘’은 타동사와 결합하고,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 9-23 **오라게야**: 오래 지나서야. 오라+--게(연결 어미)+야(보조사). 기원적으로는 중세 국어 ‘오라거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게’는 선어말 어미 ‘-거-’가 변한 것이다.
- 9-24 **사라나**: 살아나. 깨어나. 사라나+--어(연결 어미). ‘살아나’의 연철 표기이다.
- 9-25 **닐오디**: 말하기를. 닐+--오디(연결 어미). ‘닐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닐-’로 나타난다. 연결 어미 ‘-오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가 탈락하면서 뒤 음절에 흔적을 남겨 ‘-되’로 변화하였다.
- 9-26 **겨집비**: 아내가. 겨집+이(주격 조사). ‘겨집이’의 연철 표기이다. ‘겨집’은 이 시기에는 ‘여자/아내’ 등의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였으며 현대 국어에서와 같은 낮춤의 의미는 없었다.
- 9-27 **허나홀**: 하나를. 허나ㅎ+올(목적격 조사). ‘허나홀’은 ‘ㅎ’을 보유하고 있던 체언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던 ‘ㅎ’이 ‘허나히, 허나홀’ 등에서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ㅎ’을 보유하고 있던 일련의 체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코기, 수캐, 암태지’ 등 몇몇 합성어들에 그 흔적을 남기고는 ‘ㅎ’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 9-28 **조차**: 좇아. 따라. 좇+--아(연결 어미). 국어사적으로 ‘좇->조차’의 문법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헌에서는 “(~의 뒤를) 따르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의 쓰임과 “까지”라는 의미를 지닌 조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동사로 쓰였다.
- 9-29 **종신홀**: 죽을. 종신(終身)ㅎ+--르(관형사형 어미).
- 9-30 **거시니**: 것이니. 것+이-(서술격 조사)+-니(연결 어미). ‘것이니’의 연철 표기이다.
- 9-31 **므슴**: 무엇. 무슨. ‘므슴’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서의 쓰임을 보여 주기도 하고, 명사로서의 쓰임을 지니기도 있다. ‘므슴’ 외에도 ‘므스, 므스’ 등 유사한 형태와 쓰임을 지닌 단어들 존재한다. ‘므스’가 명사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에 관형사격 조사 ‘ㅅ’이 결합해 ‘므스’의 형태로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 9-32 **멕디**: 먹지. 멕+--디(연결 어미). 어미 ‘-디>-지’의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표기이다.
- 9-33 **아니커늘**: 않으니. 아니ㅎ+--거늘(연결 어미). 연결 어미 ‘-거늘’은 비타동사와 결합하는 형태이고, 타동사는 ‘-아닐/어늘’과 결합한다. 동사 ‘오다’와 결합할 때는 ‘-나닐’, 동사 ‘하다’와 결합할 때는 ‘-아닐/어늘’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다.

- %9-34 **쁘디**: 뜻이. 뜯+이(주격 조사). 현대 국어의 ‘뜻’과는 달리 “생각”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 %9-35 **구틱우디**: 구태여, 일부러 애써, 굳이. 구틱우--+디(연결 어미). 어미 ‘-디>-지’의 구개음화가 되기 전의 표기이다.
- %9-36 **아니하니**: 앓으니. 아니ㅎ--+니(연결 어미). ‘아니ㅎ->앓-’의 변화는 18세기 이후에 일어난다.
- %9-37 **사더니**: 살았는데. 사-(←살-)+-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이 시기에는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나타나기 전이므로 ‘-더-’가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살-’의 ‘ㄹ’이 탈락한 것은 후기중세 국어 시기에는 ‘ㄴ, ㄷ, ㅅ’ 등으로 시작되는 형태와 결합할 때에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술+나무→소나무’ ‘알+디→아디(知) ‘딸+님→따님’ ‘갈(耕)+소→가소’ 등이 그 예이다.
- %9-38 **말인대**: (못 하도록) 말려. 말리니. 말이--+ㄴ대(연결 어미).
- %9-39 **디답오디**: 대답하되. 디답ㅎ--+오디(연결 어미). 연결 어미 ‘-오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오’가 탈락하면서 뒤 음절에 흔적을 남겨 ‘-되’로 변화하였다.
- %9-40 **내**: 내가. 나+ㅣ(주격 조사).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인칭 대명사의 주격형과 관형격형은 그 실현형이 같아서 성조로 구별되었다. 1인칭 단수 대명사 ‘나’의 주격형과 관형격형은 ‘내’인데 이들은 성조로 구별되어 주격형은 거성(去聲)으로, 관형격형은 평성(平聲)으로 나타났다.
- %9-41 **아하롤 덕 니블**: 아이의 덕을 보려는. 아하+롤(목적격 조사)#덕#닙--+을(관형사형 어미).
- %9-42 **주리**: 것이. 줄+이(주격 조사). ‘줄이’의 연철 표기이다.
- %9-43 **수신히려**: 수신하러. 신의를 지키려. 수신(守信)ㅎ--+오려(연결 어미).
- %9-44 **훈논**: 하는. ㅎ--+논(관형사형 어미). ‘훈’은 ‘ㅎ’의 오각인지 ‘훈논’의 중철 표기인지는 알 수 없다.
- %9-45 **룸더니**: 늙었으니. 룸--+더-(선어말 어미)+-니(연결 어미). 이 시기에는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나타나기 전이므로 ‘-더-’가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룸’은 ‘늙’의 오기로 보인다.
- %9-46 **효도하니라**: 효도하였다. 효도ㅎ--+니라(종결 어미). ‘-니라’는 과거 시제로 풀이된다. 전체 텍스트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면 동사에서 특별히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른바 시제가 아무 표지 없이 실현되는 부정법(不定法)의 과거 시제이다.

- %10-1 주인공 명: 미상
- %10-2 성씨: 이(李)
- %10-3 본관: 미상
- %10-4 지역1: 경상남도
- %10-5 지역2: 산청군 단성면
- %10-6 시기: 조선
- %10-7 연도: 성종(1494년)
- %10-8 신분: 양반
- %10-9 성별: 여
- %10-10 역사 사건:
- %10-11 기타
- 이씨**, 사직(司直) 이승창(李承昌)의 딸이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25년(1494년) 3월 27일(병진) 세 번째 기사.

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단성현(丹城縣)의 선군(船軍) 성계문(成季文)의 딸 성소사(成召史)는 그 남편이 호랑이에 게 해를 당하자 애훼(哀毀)하기를 예법대로 하고 3년상을 지켰는데, 부모(父母)가 그의 뜻을 빼앗으려고 하자 소사가 듣고는 밤을 틈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또 사직(司直) 이승창(李承昌)의 딸은 나이 19세에 유학(幼學) 정계형(鄭季亨)에게 시집가서 동거한 지 7년 만에 정계형이 죽자 상사(喪事)를 예법대로 하였는데, 부모가 그가 과부로 사는 것을 애처롭게 여겨 그 뜻을 빼앗으려고 하자 딸이 울부짖으면서 스스로 깊은 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형(兄)이 건져냈는데, 이에 말하기를, ‘본래 한 남편을 따르다가 죽는 것을 원했는데 부모가 그 뜻을 빼앗고자 하니, 죽지 않고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는, 음식을 끊은 지 열흘이 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를 멈추지 아니하니, 그 부모가 두려워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시아비와 시어미는 모두 나이가 80이 넘었으므로 마음을 다하여 효성스럽게 봉양(奉養)하면서 의복과 음식을 갖추어 공대(供奉)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절의(節義)가 가상(可尙)합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하여 성계문(成季文)의 딸에게는 그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고, 정계형(鄭季亨)의 처(妻)에게도 물품으로 상(賞)을 주어 권장(勸獎)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일에 비교하면 백주편(栢舟篇)과 다름이 없으니, 정계형의 처(妻)도 정문(旌門)·복호(復戶)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1

%12 유경민

연구책임자 김유범(고려대학교)

공동연구원 권화숙(세명대학교)

서형국(전북대학교)

신성철(국민대학교)

유경민(전주대학교)

이승희(상명대학교)

이영희(대구가톨릭대학교)

정일영(남서울대학교)

황선엽(서울대학교)

민현식(국립국어원)

황용주(국립국어원)

담당연구원: 황용주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2013년 국어고전주해사업 (1)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77

인쇄일 2013년 10월

발행일 2013년 10월